

愚山 慎宗默 日記

寒溪日記

上

이충구의 번역



 과천문화원

愚山 愼宗默 日記
우산 신종묵 일기

寒溪日記上

한계일기상

이충구 외 번역

과천문화원

발간사

우리 고장 과천은 동네마다 옛이야기가 전해오고, 생활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과천향토사연구회에서는 이러한 과천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새롭게 발굴, 보존하여 과천향토사 연구의 기본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내 고장 과천의 옛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천관련 번역 사업을 매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산 신종묵(愚山 愼宗默, 1856~1949)의 『한계일기(寒溪日記) 상(上)』을 번역·영인하여 열두 번째 과천향토문화자료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계일기』는 지난 2007년 거창신씨 한계파 자료 소장자 신성재씨가 기증한 116여점의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종묵 선생이 일제말기인 1944년 1월 5일부터 5월 2일까지 쓴 일기로서 소소한 그날의 기록과 직접 지은 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65년 전 과천 ‘한계(寒溪, 현 과천동 한내마을)’에 살던 저자가 과천의 생활과 사건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저자 자신의 집안 살림살이, 인근의 혼인·사망, 친인척 및 여러 인물들의 왕래, 그리고 선물 등이 기록되었고, 특히 향교의 통폐합, 학교장의 이임 등의 내용은 일제말기 과천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한계일기』는 신종묵의 44번째 일기집으로 오랫동안 일기를 써왔음을 알 수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이 한 책뿐입니다. 사라져가는 옛 유물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잊혀져가는 과천자료들을 수집, 정리하고 있는 과천향토사연구회의 사업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일기』 국역은 과천향토사연구회 이정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아주신 권기갑, 이충구 등 번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천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자료들을 수집,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과천문화원장 최 중 수

한계일기(寒溪日記) 상(上)

목 차

1. 인사말

발간사 최종수 / 과천문화원장 ————— 3

2. 한계일기 해제 ————— 9

3. 한계일기

관악산에 오른 시(登冠岳山詩) ————— 17

정월축사(正月祝辭) ————— 18

1944년 갑신 1월

29일 토 음 1월 5일 ————— 18

30일 일 음 1월 6일 ————— 19

1944년 갑신 2월

3일 목 음 1월 10일 ————— 19

4일 금 음 1월 11일 ————— 20

5일 토 음 1월 12일 ————— 23

6일 일 음 1월 13일 ————— 24

7일 월 음 1월 14일 ————— 26

8일 화 음 1월 15일 ————— 28

9일 수 음 1월 16일 ————— 31

10일 목 음 1월 17일 ————— 32

11일 금 음 1월 18일 ————— 34

12일 토 음 1월 19일 ————— 36

13일 일 음 1월 20일 ————— 38

14일 월 음 1월 21일 ————— 40

15일 화 음 1월 22일 ————— 42

16일 수 음 1월 23일 ————— 45

17일 목 음 1월 24일 ————— 47

18일 금 음 1월 25일 ————— 49

19일 토 음 1월 26일 ————— 50

20일 일 음 1월 27일	54
21일 월 음 1월 28일	56
22일 화 음 1월 29일	59
23일 수 음 1월 30일	61
24일 목 음 2월 1일	63
25일 금 음 2월 2일	66
26일 토 음 2월 3일	68
27일 일 음 2월 4일	71
28일 월 음 2월 5일	73
29일 화 음 2월 6일	76

1944년 갑신 3월

1일 수 음 2월 7일	78
2일 목 음 2월 8일	80
3일 금 음 2월 9일	82
4일 토 음 2월 10일	82
5일 일 음 2월 11일	83
6일 월 음 2월 12일	84
7일 화 음 2월 13일	88
8일 수 음 2월 14일	90
9일 목 음 2월 15일	92
10일 금 음 2월 16일	95
11일 토 음 2월 17일	97
12일 일 음 2월 18일	98
13일 월 음 2월 19일	99
14일 화 음 2월 20일	101
15일 수 음 2월 21일	103
16일 목 음 2월 22일	105
17일 금 음 2월 23일	106
18일 토 음 2월 24일	106
19일 일 음 2월 25일	110
20일 월 음 2월 26일	111
21일 화 음 2월 27일	111
22일 수 음 2월 28일	112
23일 목 음 2월 29일	112

24일	금	음	초하루	—————	113
25일	토	음	3월 2일	—————	114
26일	일	음	3월 3일	—————	116
27일	월	음	3월 4일	—————	118
28일	화	음	3월 5일	—————	120
29일	수	음	3월 6일	—————	121
30일	목	음	3월 7일	—————	123
31일	금	음	3월 8일	—————	123

1944년 갑신 4월

1일	토	음	3월 9일	—————	125
2일	일	음	3월 10일	—————	126
3일	월	음	3월 11일	—————	127
4일	화	음	3월 12일	—————	128
5일	수	음	3월 13일	—————	129
6일	목	음	3월 14일	—————	130
7일	금	음	3월 15일	—————	132
8일	토	음	3월 16일	—————	134
9일	일	음	3월 17일	—————	136
10일	월	음	3월 18일	—————	137
11일	화	음	3월 19일	—————	138
12일	수	음	3월 20일	—————	140
13일	목	음	3월 21일	—————	140
14일	금	음	3월 22일	—————	142
15일	토	음	3월 23일	—————	144
16일	일	음	3월 24일	—————	145
17일	월	음	3월 25일	—————	147
18일	화	음	3월 26일	—————	148
19일	수	음	3월 27일	—————	149
20일	목	음	3월 28일	—————	150
21일	금	음	3월 29일	—————	151
22일	토	음	3월 30일	—————	152

4. 한계일기 원문	—————	155
------------	-------	-----

寒溪日記

한계일기 해제



한계일기(寒溪日記) 해제(解題)

I. 저자

한계일기(寒溪日記)의 저자는 신종묵(愼宗默)이다. ‘寒溪日記’는 한계(寒溪)에서 쓰인 일기(日記)라는 뜻의 책이다. ‘寒溪’는 속칭 ‘한내’인데, 과천 남태령의 아래쪽에 흐르는 시내이면서 동시에 마을 이름이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서쪽 약 200m 쯤에 이 마을이 있다. 이 일기를 작성한 저자가 한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 명칭을 일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묵의 본관은 거창(居昌), 자(字)는 자현(子玄)·영화(永和), 호는 우산(愚山)이다.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둔녕부(敦寧府) 도정(都正) 병우(炳宇)이고, 어머니는 숙부인(淑夫人) 언양(彦陽) 김씨(金氏)이다. 우산은 병진(丙辰 : 1856) 6월 21일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 과천에서 살다가 기축(己丑 : 1949) 2월 23일에 94세로 일생을 마쳤다.

우산은 선대(先代)부터 과천에 살아온 세족(世族) 출신으로, 관원(官員)·문인(文人)·교육자(教育者)였다. 직책의 측면은 그 호칭이 본 일기에 자주 거론되어 중요한바, 비서원(秘書院) 시종경(侍從卿 : 秘書院 長官), 육군유년학교(陸軍幼年學校) 교관(教官), 향교(鄕校) 장의(掌議), 공립소학교(公立小學校) 선생(先生), 명륜학교(明倫學校) 주임(主任), 한계교영의숙(寒溪教英義塾) 선생(先生)을 역임하였다.(이하 우산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愚山晚稿 解題’(愚山晚稿, 이충구 역, 과천문화원, 1998. 10)를 참고할 것). 이와 같이 우산이 각계에서 활약함으로써 말미암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과천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문학 방면의 활동은 자신이 말한 “내가 40세 이후에 저술한 것이 이미 1만수(首)를 넘었다[惟我四十年以後所述 已過萬首矣]”는 것과 현전하는 저술을 통해 볼 때 독보적인 것이다.

우산의 저술로는 확인된 것이 우산만고(愚山晚稿)·우산시고(愚山詩稿 : 5책)·행원록(行源錄)·이학사행장(李學士行狀)·한계음영(寒溪吟詠)·한계일기(寒溪日記), 그리고 우산 및 우산의 문하생들이 엮은 동연록(同筵錄)이 있다. 특히 한계일기는 65년 전 과천 ‘寒溪’에 살던 저자가 과천의 생활과 사건을 전한 실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II. 체제와 내용

한계일기는 갑신년(甲申年 : 1944년) 음력 정월 5일(양력 1월 29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양력 6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146일, 음력은 윤4월이 들었음)의 일기로, 모필(毛筆) 행초서체(行楷書體)의 필사본(筆寫本)이다. 분량은 101장(202면, 표지 포함)으로, 앞뒤 표지의 안쪽에도 글을 기록하였다. 종이는 당시에 폐기할 책을 사용하였는데, 활자 인쇄본의 국한문(國漢文) 또는 일본어(日本語) 글자 위에 그보다 굵은 붓글씨로 썼고, 지질(紙質)은 양지여서 판독 등이 양호하지 않다.

표지에는 “第四十四号 … 寒溪日記 …”라고 쓰여 있어 이것이 44호라는 것을 보면 다른 저

술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외에 글이 더 쓰여 있으나 닳아 지워져서 판독이 불가능하다.

기록은 앞표지 뒷면부터 시작되어 “真人 大易神占” “登冠岳山詩”가 쓰여 있으나 애초에 쓴 것이 아니고 후에 삽입한 듯하다. 본문 내용의 시작은 1면에

태세 갑신년(甲申年 : 1944년) 정월 일의 축사.

1월 1일 몸도 태평하고 집안도 태평하고 이웃도 태평하고 국가도 태평하소서.(太歲 甲申 正月日 祝辭 一月一日 身泰平 家泰平 隣泰平 國泰平)

하여, 정월 축사 ‘태평’으로부터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

1월 29일 토요일 음력 5일 임진(壬辰). 맑음. 추운날씨가 한결같다. 용억(鏞億)이가 문안을 왔고, 이웃 노인들이 많이 방문하였다.(廿九日 土 五日 壬辰 陽 日寒一直 鏞億來問 隣老多訪)

하여, 정초(正初)의 인사와 방문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 율시(律詩)가 기록되어

追憶金尙書晚秀號石下 상서 김만수 호 석하를 추억함

尙書風度瞻忽前 상서의 풍도는 특출한데
病枕雞聲舊感全 병상에서 듣는 닭소리 온전히 옛날 같네.
大司馬去靑山迥 대사마는 청산에서 멀리 떠나가고
老院卿唵白吏連 원로 시종원(侍從院) 경(卿) 나는 청백리를 노래하네.
藥坊鍾鼎承昭代 약방의 공명으로 태평시대를 계승하고
林谷琴某度晚年 깊은 계곡에 거문고와 바둑으로 만년을 지내네.
高評比余寒寺石 그대의 평가는 나를 쓸쓸한 절의 돌과 비교하고
金剛同賞已先天 금강산을 같이 감상한 것은 이미 지난날이었네.

하여, 인물에 대한 추억을 읊은 작품으로 이어져 본래 의도된 시 저술을 하였다.

이 일기의 구체적 내용의 성격은 일기의 중간, 또는 끝에 필자 자신이 쓴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 기록한 책은 갑신(1944) 정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모두 86일 내에 시 316편과 문 1수이다.(짧은 편장의 글 수십여 편은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이 책은 일기뿐만이 아니라 실체는 시집이다. 아! 너희 자손들은 공경하여 잃어버리지 말라. 소화 19년 갑신(1944) 4월 일(右記冊 自甲申正月五日 至三月三十日 共八十六日內 詩三百十六篇 文一首 (短章文數十餘篇 皆不記) 此冊非徒日記 實詩集也 嗟爾孫曾 敬而勿失 昭和十九年甲申四月日)(한계일기 음력 3월 31일 뒷부분)

아! 내가 40세 이후에 저술한 것이 이미 1만수(首)를 넘었다. 그러나 아득하여 수습하지 않았고, 출간한 것도 편차가 변경되어 베껴져서 시문은 모두 4,706편이다. 아! 너희 이들과 손자들은 판각

할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께작에 전하라. 반드시 후손이 있을 것이다.

갑신(1944) 정월 5일(양력 1월 29일)부터 이해 5월 2일(양력 6월 22일)까지 병중에 저술한 것이 시 603수와 문 2편이다. 미리 공부한 것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책은 비록 일기이지만 실체는 시집이다. 후손들은 공경하여 잃어버리지 말라.(噫 惟我四十年以後所述 已過萬首矣 然而杳無收 而開刊者編次移勝 詩文并四千七百六篇也 嗟 爾兒孫輩 若無板刻之圖 仍以几傳焉 必有後孫也 自甲申正月五日 至本年五月二日 病中所述者 詩六百首○三首 文二篇也 非有宿工 何以至此 冊雖日記 實詩集也 後孫敬而勿失焉)(한계일기 음력 5월 2일 뒷부분)

제목만 일기이지 실체는 시집이라는 것이다. 분량을 대략 살펴보면 약 10분의 8~9가 시문이고 당일 일어난 일의 사실 기록은 매우 적은 분량이다. 이에 의하면 이 일기는 시를 쓴 날짜를 기록한 시집의 성격이 강하다. 146일에 시 603수, 문 2편, 짧은 글 수십 편이면 하루에 평균 읊시 4수 이상을 지은 다작(多作)이다. 저자는 89세 노령의 새해를 맞아 삶의 남은 정력을 저술에 경주하여 이 ‘일기 편제의 시집’을 이룩한 것이다.

III. 특기 사항

한계일기가 시집 위주라고 해도 간간히 일상생활을 적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에 의하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월일 표시를 음력과 양력을 함께 사용한 점, 저자 자신의 집안 살림살이, 인근의 혼인·사망, 친인척 및 여러 인물들의 왕래, 그리고 선물 등이 기록되었고, 특히 향교의 통폐합, 학교장의 이임 등이 눈길을 끈다.

음력과 양력을 함께 사용한 점은 “3월 1일 수요일 음력 7일 갑자(三月 一日 水 七日 甲子)” 등으로 나타나서 ‘양력 월일 요일 음력 월일 간지’로 매우 완벽한 시간 표시를 하고 있어, 월일에 대한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표시가 양력을 앞에 두었으나 월별 정리 및 통계는 음력으로 하여, 앞의 인용문 ‘음력 3월 31일 뒷부분’에 “86일 내에 시 316편과 문 1수”라고 통계를 내고, 양력 월말에 통계를 내지 않았다. 이는 음력과 양력이 거의 대등하게 쓰이면서 월별 정리는 음력으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저자 신중목의 살림은 매우 가난하였다.

2월 17일 목요일 음력 24일 신해(辛亥). 창범(昌範)이 회갑 잔치에 가서 과실을 싸가지고 오니 매우 기특하며 기특하다. 집에 병든 어머니가 있는데 먼저 제 할아버에게 바치니 어찌 혼자 먹을 일이 있을 것인가! 조금 먹고 물렸다.(十七日 木 廿四日 辛亥 昌範往壽筵 封果而來 甚奇甚奇 堂有病母 先供厥祖 豈有獨食之理耶 少嘗而退)

2월 22일 화요일 음력 29일 병진(丙辰). 한 달이 지나도록 채소 반찬만 먹으니 산의 중이라도 어찌 이보다 지나치겠는가! 시대가 그러한 것이다.(廿二日 火 廿九日 丙辰經月素膳 山中之僧 何以過此否 時世然矣)

3월 1일 수요일 음력 7일 갑자(甲子). 친구 최송당(崔松堂)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였다.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다. 빈 속으로 떠나갔으니, 미안함이 매우 심하다.(三月 一日 水 七日 甲子 崔友松堂來訪 敍話 而而南草一封惠念 空腹下去 未安莫甚)

3월 20일 월요일 음력 26일 계미(癸未). 선경택(先康宅)에서 잔치 상을 보내주었기에 성찬(盛饌)을 맛있게 먹었다. 청주(淸酒)와 쇠고기를 처음 맛보았다. 해월(海月)의 어머니가 혼례 날을 알고 오늘에 서야 와서는 만나보고 무탈함을 기뻐하였다. 갈비 한 짝을 반으로 나누어 아래윗집에 나누어 주었다.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다. 매번 손에 무겁게 가지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니 민망함을 어찌할까! 도리어 미안하다. 창범(昌範)의 이모가 함께 왔다가 모두 큰집으로 갔다. 친구 이상봉(李相鳳)이 여러 곳을 들렀다가 경현리를 향하여 떠났다. 이실(李室)이 저녁을 먹고 나서 큰집으로 떠났다. 갈비를 이실이 비로소 함께 삶아서 바쳐서 올렸는데 맛있게 먹고 나서 기운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니, 너 또한 효녀(孝女)이다.(廿日 月 廿六日 癸未 先庚宅宴床來到 盛設甘喫 淸酒黃肉始嘗 海月母知其婚日 今日而來面 喜其無故 芻伊一隻半分 上下家分供 南草一封持進 每每重手而來 去時空手 悶歎奈何 還爲未安 昌範姨母偕行 皆向大宅而去 李友相鳳歷訪 向經峴而去 李室夕飯後 向大宅而去 芻伊李室始同烹之爲供而進 甘喫 扶氣而身輕焉 爾亦孝女也)

손자가 잔치에 갔다가 싸 온 과일을 조금만 먹고 남겨 손자 및 며느리에게 먹게 한 일, 스님보다도 더욱 채소만 먹는다는 일, 친구의 방문에 밥을 못 준 일, 쇠고기를 처음 맛보고 나서 기운이 나며 몸이 가벼워진 일 등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손자와 며느리를 위하여, 밥 대접을 못한 친구에게 미안해하며, 채소만 먹다 쇠고기를 먹고 만족해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를 지내 보내는 방법으로 ‘굳게 지켜 나간다’는 고궁(固窮)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固窮 곤궁함을 지킴

家事固窮任老聽 집안 일 곤궁함을 지키며 늙어가는 대로 따르니
兒孫生活太零星 아들과 손자들 생활이 나무나 영성하구나.
繞庭花石雖仍管 정원 주위에 꽃과 돌을 그대로 관리하지만
充棟詩文亦不銘 집에 가득한 시문도 명(銘)을 짓지 않노라.
盡日手寒爐乏炭 종일토록 손이 시리니 화로의 숯이 부족하고
經年口素案空腥 한 해를 지내도록 채소만 먹어 밥상엔 생선도 없네.
南岡遺蔭今安在 남강이 남긴 공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只有門前一柏靑 다만 문 앞에 한 그루 잣나무만 푸르네.
(2월 3일 목요일 음력 10일 정유)

추위와 음식에 고통을 겪지만 잣나무의 푸른 기상을 본받아 지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잣나무[柏]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다[松柏之後彫]’라는 곳곳한 기상이 깃들은 소재로 용사(用事)된 것이다.

선물에는 특히 담배가 많이 사용되었다.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안부를 물으러 오거나 주련(柱聯) 등을 써 주었을 때에 담배를 선물로 가져온 것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향교의 통폐합은 1944년 4월 15일에 나타나는데, 안산향교(安山鄉校)와 시흥향교(始興鄉校)가 과천향교(果川鄉校)로 통합된 것이다.

4월 15일 토요일 23일 기유. 맑음. 오늘은 문묘대제(文廟大祭)를 지내는 날이다. … 듣기에 연성(蓮城 : 안산郡)과 지산(芝山 : 始興郡) 두 고을의 문묘가 헐리고 위패가 불태워졌다하니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 없기에 시 한 수를 지어서 재계에 들어가는 선비에게 부쳐 넣었다. 대제(大祭)를 편안하게 지냈는데, 군수가 와서 참석하였다. 안산의 세 명 재임(齎任 : 향교의 임원), 시흥의 세 명 재임, 본군(本郡)의 유생(儒生)과 합하여 50여 명이 안산 향교에서 위패를 모셔왔는데 차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十五日 土 廿三日 己酉 陽 今日文廟大祭也 … 聞蓮芝兩邑文廟毀撤 位牌焚燒 不勝慨歎 作一首詩 付入齋諸生 昌範來而 大祭安過 郡守來臨 安山三齎任 始興三齎任 本郡儒生 合五十餘人 安山校陪來牌位 未知次序 故姑未定位云)

안산군과 시흥군의 문묘가 헐리고 위패가 불태워져서 안산·시흥·과천의 재임들이 합동으로 위패를 모셔오고 위치를 정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읍시 두 수로 슬픈 감회를 나타냈는데, 그 한 수는 다음과 같다.

入齋僉尊座清齋 재계에 들어 여러분들에게 잘 살피게 함
(文廟大祭日 문묘대제를 지내는 날)

三區文廟各西東 세 지역의 문묘가 각기 동서로 나뉘어 있어서
百世追崇一體同 백대의 추후 숭배가 한 몸처럼 같아졌네.
春秋大義綸綱重 춘추대의는 윤리가 소중하고
日月明光道德洪 일월의 밝은 빛은 도덕이 크다네.
醴牲配享尊賢地 단술과 희생으로 배향하여 현인을 높이는 곳
香祝精禋慕聖中 향과 축문으로 정갈히 제사지내 성인을 사모하는 중이라네.
蓮芝靈址蓬芳入 연성과 지산의 신령한 터가 쑥 향기 속으로 사라지니
儒林餘淚恨無窮 유림의 남은 눈물 한스럽기 그지없네.

세 곳의 향교가 과천향교 하나에 흡수되고 그 뒤에 호칭을 ‘시흥향교’로 바꾸었다가 다시 ‘과천향교’로 바꾸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현재 과천향교의 유교교구에 속한 지역은 과천·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안산시의 7개 행정구역에 해당되고, 그 인구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학교장의 이임은 4월 10일에 보인다.

4월 10일 월요일 18일 갑진. 맑음. 어제 들으니 본교의 맹준섭(孟駿燮)이 교체되어 가서 오늘 전별회가 있다고 하니, 서운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전별시 1수를 인편으로 보냈다.(十日 月 十八日 甲辰 陽 昨聞則本校孟駿燮遞歸 而今日餞別會云 不勝淒然 故驢行一詩付便)

관문리에 있는 학교의 교장 맹준섭이 교체되어 가는 전별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올시 1수를 보내어 서운함을 나타내었다.

官門里學校長孟駿變遞歸 故今日餞別會付贈 관문리에서 학교장 맹준섭이 전출되었으므로 오늘 전별회에 부쳐 보낸다

杏花佳節雨初晴 살구꽃 핀 아름다운 계절에 비가 처음 개이고
病枕淒然未驢行 병상에서 서운하게 전별에 가지 못하오.
安定學規傳二校 송나라 호안정[호원(胡瑗)]의 학규가 두 학교에 전해지고
昌黎師範養諸生 당나라 창려[한유(韓愈)]가 사범이 되어 여러 학생들을 기르듯.
六班優績均沾澤 여섯 반의 우수한 공적은 고루 받은 은택이고
三育勤功遠有聲 세 가지 교육의 부지런한 공로는 멀리까지 이름났네.
負芘輿情留不得 책가방을 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은 머물 수가 없었으니
高堂鶴髮鏡中明 안방의 어머니께선 백발이 거울 속에 선명하리.

교육에 끼친 공로를 칭송하고 어머니님 계신 집으로 돌아감을 읊고 있다. 맹준섭은 ‘맹교장’이라는 호칭으로 과천에서 지금까지 널리 존경을 받는 인물이므로, 그의 이임은 과천 교육사에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2009. 입동절
번역자 일동 씀

한계일기

寒溪日記

上



한계일기(寒溪日記) 상(上)

眞人 大易¹⁾神占 진인 대역 신점

東所一百〇三數 동에 103수

蚌鵝相持只生子羽 조개와 황새가 서로 버티어 ……

登冠岳山詩 관악산에 오른 시

九靈粧送玉芙蓉 구령²⁾이 옥부용을 단장하여 보내니
落在南充不露容 남충³⁾에 떨어져 있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多事化翁能有力 일을 많이 하는 조물주가 능력이 있어
青天削出二千峰 푸른 하늘에 이천 봉우리를 깎아냈네.

聞道漢皇去未還 들으니 진시황(秦始皇)은 돌아오지 않고
武陵秋草只青山 무릉도원⁴⁾에는 가을 풀만 산에 푸르네.
求仙當日能浮海 신선을 찾던 당시에 바다로 나가지만⁵⁾
不識蓬萊在此間 봉래산이 여기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네.

靑邱高出兩金剛 청구⁶⁾에 높이 솟아 금강산과 짝하니

- 1) 대역(大易) :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을 가리킨다.
- 2) 구령(九靈) : 도가의 용어로, 심(心)은 강궁 진인(絳宮眞人), 신(腎)은 단원궁(丹元宮) 진인, 간(肝)은 난대궁(蘭臺宮) 진인, 폐는 상서궁(尙書宮) 진인, 비(脾)는 황정궁(黃庭宮) 진인, 담(膽)은 천령궁(天靈宮) 진인, 소장(少腸)은 현령궁(玄靈宮) 진인, 대장(大腸)은 미진궁(未盡宮) 진인, 방광(膀胱)은 옥방궁(玉房宮) 진인이 된다고 한다. 『金丹大要·精氣神說』
- 3) 남충(南充) : 과천을 말함. ‘南充’은 원래 중국의 현(縣) 이름이었는데, 한유(韓愈)의 사자연시(謝自然詩 : 『韓昌黎集』 권1)에 “과주의 남충현(果州南充縣)”이라고 한 것에 의하여 과천을 남충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것이 군명으로 쓰인 기록도 있는데, 읍지(邑誌 : 권10, 京畿道篇1, 韓國地理志叢書, 아세아문화사, 1985. 142면) “果川郡名 南充”이라고 하였다.
- 4) 무릉도원 : 속세(俗世)와 떨어진 별천지(別天地)를 말함.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제시된 별세계. 「도화원기」에서 무릉의 어부가 시내를 따라 가다가 우연히 도화(桃花) 숲에 이르러 그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샘 [源] 을 찾아 올라가서 선경(仙境)에 이르른 일에 근거한 것이다.(陶潛 「桃花源記」). ‘武陵桃源’은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도원현(桃源縣) 도원산(桃源山)에 해당한다고 한다.
- 5) 신선을 …… 나가지만 : 진시황은 동해에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삼신산(三神山)이 있어 선인(仙人)이 그 속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는, 서불(徐市)을 시켜 찾도록 한 고사가 있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 6) 靑邱(청구) : 우리나라를 달리 이르는 말. 청구(靑丘), ‘靑丘’로 쓰다가 공자(孔子)의 이름을 피하여 ‘邱’로 쓰게 된 것이다. 이는 청(淸)나라 옹정(雍正) 3년(1725)부터 ‘丘’ 왼쪽에 ‘β’를 붙여 ‘邱’로 쓰

分在東西最有光 동서로 나뉘어 있어 가장 빛나네.
到此無人災梓頌 이에 이르러 재재송⁷⁾을 부르는 이가 없고
假鳴餘父罷天荒 아버지의 파천황⁸⁾을 빌려 올리네.

太歲 甲申 正月日 祝辭

一月一日 身泰平 家泰平 隣泰平 國泰平

태세⁹⁾ 갑신년(甲申年 : 1944년) 정월 일의 축사.

1월 1일 몸도 태평하고 집안도 태평하고 이웃도 태평하고 국가도 태평하소서.

廿九日 土 五日 壬辰 陽 日寒一直 鋪億來問 隣老多訪

1월 29일 토요일 음력 1월 5일 임진(壬辰). 맑음. 추운날씨가 한결같다.

용억(鋪億)이가 문안을 왔고, 이웃 노인들이 많이 방문하였다.

追憶金尙書晚秀號石下 상서 김만수 호 석하를 추억함

尙書風度瞻忽前 상서의 풍도는 특출한데¹⁰⁾

病枕雞聲舊感全 병상에서 듣는 닭소리 온전히 옛날 같네.

大司馬去青山迢 대사마는 청산에서 멀리 떠나가고

老院卿唵白吏連 원로 시종원(侍從院) 경(卿)¹¹⁾ 나는 청백리를 노래하네.

藥坊鍾鼎承昭代 약방의 공명으로 태평시대를 계승하고

林谷琴碁度晚年 깊은 계곡에 거문고와 바둑으로 만년을 지내네.

게 하였다. 『史諱舉例』 陳新會, 史哲出版社(臺北市), 民國 76년. p.10.

7) 재재송 : 책 출간을 겸손해 하는 노래. ‘재재(災梓)’는 책을 마구 찍어 판각에 쓰는 해를 끼쳤다는 뜻으로, 책 출간에 대한 겸사임.

8) 파천황 : 처음 있는 일을 말함. 형주(荊州)에서 해마다 향시(鄉試)에 합격한貢生(貢生)을 서울로 보냈어도 대과(大科)에 급제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천황(天荒)이라고 불렀는데, 유예(劉鯨) 사인(舍人)이 급제를 하자 천황을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파천황(破天荒)이라고 일컬었다 한다. 『唐撫言·海述解送』

9) 태세 : 그해의 간지(干支).

10) 특출한데 : 안연(顏淵)이 선생인 공자(孔子)의 도를 감탄하여 말하기를, “쳐다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면 앞에 있더니 갑자기 다시 뒤에 있다.(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然在後)” 에서 온 말이다. 『論語 子罕』

11) 시종원(侍從院) 경(卿) : 신종목의 과거 직함.

高評比余寒寺石 그대의 평가는 나를 쓸쓸한 절의 돌과 비교하고
金剛同賞已先天 금강산을 같이 감상한 것은 이미 지난날이었네.

卅日 日 六日 癸巳 陰 鋪億黃肉一斤進供 鋪男母引絶餅持進甘喫 黃肉入內 誠曰 分食玄範 洋紙
五枚買入

1월 30일 일요일 음력 1월 6일 계사. 흐림. 용억(鋪億)이 소고기[黃肉] 1근을 바쳤다. 용남(鋪男) 어미가 인절미를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다. 소고기를 안으로 들여 주며 경계하여 말하기를, “나누어서 현범(玄範)에게 먹이라.” 하였다. 양지 5장을 사들였다.

偶占 우연히 옳다

良辰舊感多 좋은 날 옛날 느낌이 많아
病枕自然沾 병상에서 자연히 눈물짓네.
祭素難沽酒 제사가 간소하여 술도 사기 어렵고
饌空不得鹽 음식이 모자라 소금도 얻을 수 없네.
俗曹皆昧禮 속인들은 모두 예의에 어둡고
老者尙鳴謙 노인이 오히려 겸양을 드날리네.
微物皆圖活 미물도 생존하기를 도모하여
寒禽暮入檐 쓸쓸한 새는 저녁에 처마로 날아오네.

三日 木 十日 丁酉 陰 日寒一直 德壯洞朴雅來訪 以孝範婚事 來閨養家宋氏 而年今十八云 數日
後看郎云

2월 3일 목요일 음력 1월 10일 정유. 흐림.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덕장동(德壯洞) 박아(朴雅)가 방문하였다. 효범(孝範)의 혼사로 규수(閨秀)로 키운 송씨(宋氏)가 왔는데 지금 나이가 18세라고 한다. 며칠 후에 신랑을 본다고 한다.

固窮 곤궁함을 지키

家事固窮任老聽 집안 일 곤궁함을 지키며 늙어가는 대로 따르니
兒孫生活太零星 아들과 손자들 생활이 너무나 영성하구나.
繞庭花石雖仍管 정원 주위에 꽃과 돌을 그대로 관리하지만

充棟詩文亦不銘 집에 가득한 시문도 명(銘)을 짓지 않노라.
 盡日手寒爐乏炭 종일토록 손이 시리니 화로의 숯이 부족하고
 經年口素案空腥 한 해를 지내도록 채소만 먹어 밥상엔 생선도 없네.
 南岡遺蔭今安在 남강¹²⁾이 남긴 공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只有門前一柏青 다만 문 앞에 한 그루 잣나무만 푸르네.

四日 金 十一日 戊戌 陰 鏞璇以四支節痛 經苦不供役 此將奈何 方在試藥中 昌範昨日往來 族弟
 宗翊家無故 神道碑文方今刻之於西大門內 宗翊益範珩範鏞璇之家 皆在黑石町同閨中 雪自夜半始
 厚過數寸 親忌入齋

2월 4일 금요일 음력 1월 11일 무술. 흐림. 용선(鏞璇)이가 팔다리 관절의 아픔으로 고통스럽
 게 지내고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니 이것을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
 이다. 창범(昌範)이 어제 왔는데 친족 동생 종익(宗翊)의 집안이 무사하다고 한다. 신도비(神
 道碑) 비문(碑文)은 지금 서대문(西大門) 안에서 각(刻)을 하고 있다. 종익(宗翊), 익범(益範),
 형범(珩範), 용선(鏞璇)의 집은 모두 흑석정(黑石町)의 같은 마을에 있다. 눈이 한밤중부터 시
 작하여 두께가 몇 촌이 넘었다. 아버님 기일이 되어 재계에 들어갔다.

病枕寓懷 二首 병상에서 회포를 붙임 2수

課日一吟憶舊遊 공부할 때 한 번 읊조려 옛날 노닐던 것을 추억하고
 聞春消息未登樓 봄소식 들었으나 누각에 오르지 않네.
 東渡悲歌行白馬 동쪽으로 건너는 슬픈 노래에 백마가 행진하고
 西來紫氣出靑牛 서쪽으로 이어지는 자기¹³⁾에 청우가 나오네.
 詩上鷓鴣皆誦鄭 시속에 자고사(鷓鴣詞)¹⁴⁾는 모두 정곡(鄭谷)이 읊은 것이고
 夢中蝴蝶自疑周 꿈속에 호랑나비¹⁵⁾은 스스로 장자(莊子)가 되었는가 하였네.
 當年不盡出師淚 당시에 출사표(出師表)는 눈물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12) 남강 : 신기경(愼基慶)의 호. 신종목의 고조부임.(거창신씨 한계과 기증자료전, 과천문화원, 2008. 42면)

13) 자기(紫氣) : 반가운 심정을 말함. 윤희(尹喜)가 함곡관(函谷關) 가까이에 보라색 기운(紫氣)이 퍼지
 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성인(聖人)이 오신다고 기뻐하였는데, 과연 조금 뒤에 노자(老子)가 소를
 타고 이르렀다는 전설이 있다. 『列仙傳 卷上』

14) 자고사(鷓鴣詞) : 당대(唐代)의 교방곡(敎坊曲) 이름. 역대 시인(詩人)들이 이 곡을 많이 노래했었다.
 만당(晩唐)의 시인 정곡(鄭谷)이 자고시(鷓鴣詩)로 명성을 크게 떨쳐서 세인(世人)들이 그를 정자고
 (鄭鷓鴣)라고까지 일컫게 되었다.

15) 호랑나비 :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사람의 꿈속에 호랑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호랑
 나비의 꿈속에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물화(物化)의 비유가 실려 있다.

百世英雄稱武侯 백세의 영웅은 무후¹⁶⁾를 칭송하네.
 寒溪西月一鷄新 한계의 서쪽 달이 한 번 닭울음소리에 새롭고
 空榻無眠獨坐晨 텅 빈 책상에 눈을 감고 홀로 새벽에 앉아 있네.
 游子離群重抱病 객지살이로 무리를 떠나 거듭 병만 들어
 諱辰臨近倍思親 제사날이 가까이 오니 갑절이나 부모를 생각하네.
 窮途添壽徒鄉老 곤궁한 행로에 수명만 늘은 시골 노인일뿐이고
 亂代休官故國臣 난세에 벼슬을 그만둔 옛날 국가 신하였네.
 聞道朱陳同避地 듣자니 주진(朱陳) 두 성(姓)¹⁷⁾이 함께 피해 왔는데
 不知何處花中秦 어느 곳이 꽃 속의 진나라인지 알지 못하노라.

漫吟 한가히 읊다

谷風習習養和新 동풍이 온화하여 화기를 새로 양성하고
 天意如常德一純 하늘의 뜻이 일정하여 덕이 한결같이 순수하네.
 斷峽緣郊通獵火 끊어진 골짜기는 교외에 달아 사냥하는 불이 통하고
 遐陣臨海阻兵塵 먼 번두리는 바다에 임하여 전쟁의 티끌이 그쳤네.
 門符送臘回三甲 문에 부절을 부쳐 설달을 보내자 삼갑이 돌아오고
 盤菜近春供五辛 소반에 나물은 봄이 가까워 오신¹⁸⁾을 함께 하네.
 億兆殘生煩賦役 불쌍한 온 백성 세금과 요역에 고생하니
 猖狂何處亦非秦 미치광스러운 어느 곳인들 또한 진나라가 아니라!

柳叙梅欲放 버드나무는 피지고 매화는 꽃을 피우려 하는데
 明月上元辰 밝은 달은 정월대보름 때라.
 今日非平世 오늘은 태평한 세상이 아니지만
 明朝是立春 내일 아침은 입춘이라네.
 寒蟄依南穴 추위에 벌레는 양지쪽 구멍 속에 의지하고
 早鴻向北濱 이른 기러기는 북쪽 물가로 날아가네.
 何事愚山老 어인 일로 우산 노인은
 經年亦未伸 해를 지내도록 또한 기개를 펴지 못하는가.

16) 무후(武侯) : 제갈량(諸葛亮)의 시호(諡號). 출사표(出師表)가 유명하다.

17) 주진(朱陳) 두 성(姓) : 중국의 서주(徐州) 고평현(古豐縣)에서 주씨(朱氏)와 진씨(陳氏) 두 성(姓)이 서로 혼인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던 성. 백거이(白居易)의 「주진촌(朱陳村)」이라는 시로 더욱 유명해졌다. 『白樂天詩集 卷10 感傷』

18) 오신(五辛) : 파·마늘·생강 등 다섯 가지 매운 맛 나는 채소. 이른바 오신채(五辛菜)이다. 이를 오신반(五辛盤)이라는 소반에 담아서 새해를 축하하며 오장(五臟)의 기운을 돌우기 위해 먹던 풍습이 있었다.

男兒一時 남이의 한 때

(自詩曰 大呼大勸 : 스스로 시를 지어 말하기를 “크게 부르짖고 크게 권면한다.” 하였다.)

化翁一哭碧桑秋 조물주가 한번 울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때에
虛殼乾坤日夜浮 빈 껍질만 하늘과 땅에 밤낮으로 떠다니네.
逐鹿群雄誰疾足 천하 권력을 쥐려는 영웅들은 누가 발이 빠른가!
陸沉萬里是神州 은거해 사는 만 리 땅이 신주¹⁹⁾로구나.

一笑 한 번 웃음

膝下兒曹有四層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사층(四層)이나 되니
居家誰愛又誰憎 집에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라!
從何認得眞形像 무엇을 따라야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될까!
齊楚中間我亦滕 제나라와 초나라 강대국 사이에 우리는 또한 작은 등나라 꼴이네.

又一笑 또 한 번 웃음

玄孫男妹來舒情 현손 남매가 와서 정을 말하니
明日吾家祭祀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네.
香送若使高祖到 향을 피워서 고조부신령께서 이르신 듯이 하고
兩邊棗橘我懷盈 양쪽 제기의 대추와 귤이 내 품에 가득하네.

夢中與金友東凡叙情 꿈속에서 친구 김동범과 정(情)을 서술하다

分明握手筵 분명히 상봉하는 자리
向余惜溶彬 나를 향한 문채 나는 모양 아깝네.
宿望李元禮 원래부터 이원례²⁰⁾를 존경했고
舊容周伯仁 옛 모습은 주백인²¹⁾이라.
吟社悲蕉宅 시를 읊는 단체는 초택에서 슬퍼하고
廢基淚菊隣 폐허 집터에서 국화 핀 이웃에 눈물 흘리네.
休問人間事 인간의 일을 묻지 말라

19) 신주(神州) : 왕도(王都). 전국 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중원(中原) 지방을 일컬으며 표현한 ‘신주적현(神州赤縣)’의 준말로, 여기서는 도성(都城)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20) 이원례 : 원래는 후한(後漢) 이웅(李膺)의 자.

21) 주백인 : 백인은 진(晉)나라 주의(周顛)의 자.

生民苦海濱 백성의 고통은 바다와 같으니.

變局 출입문을 바꿈

天生地養有常經 하늘이 출생시키고 땅이 길러줌에 법이 있는데
碧海桑田是變局 벽해상전²²⁾하여 출입문이 바뀌었네.
內容男女殊姿態 안으로는 남녀의 자태가 다르고
外面家邦沒典刑 밖으로는 국가의 법도가 없도다.
商君巧術登秦館 상군²³⁾은 교묘한 방법으로 진(秦)나라 객관에서 우대받았고
周顛悲歎坐晉亭 주의는 슬프게 탄식하며 진나라 신정(新亭)²⁴⁾에 앉았네.
萬類於今皆演革 온갖 인류 지금에 모두 다 바뀌는데
東來日月舊前形 동쪽에 뜨는 해와 달은 옛날 모습이로다.

五日 土 十二日 己亥 陽 雪晴 厚過數寸 是日立春也 親忌入齋日 故雖不得往參 強起梳洗 捲衾
而坐 此翁積懷 有誰知之 餘淚自零 陽復陰 今日宋雅來 看孝範而許婚 家勢難借 陽云 以壯紙裁
四柱筒 親忌安過 祭品精潔 飯器來到 敬坐飲福

2월 5일 토요일 음력 1월 12일 기해. 맑음. 눈이 개었는데 두께가 몇 촌이 넘었다. 오늘은 입춘이다. 아버님 기일의 재계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러므로 비록 가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억지로 일어나서 머리 빗어 세수하고 이불을 개고 앉으니, 이 늙은이의 쌓인 회포를 누가 알겠는가! 남은 눈물이 절로 떨어진다. 맑았다가 다시 흐려졌다. 오늘 송아(宋雅)가 와서 효범(孝範)이를 보고 혼인을 허락했다. 집안의 형편이 꾸어오기도 어려워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장지(壯紙)²⁵⁾를 재단하여 사주단지(四柱單子)를 접겠다고 하였다. 아버님 기일을 편안하게 지냈는데 제사 물건들은 정갈하였다. 음식 그릇을 들여와서 공경히 앉아서 음복하였다.

22) 벽해상전(碧海桑田) : 옛말에,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고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碧海桑田 桑田碧海]”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세상의 무상한 변동을 이르는 것이다.

23) 상군(商君) : 진나라 상양(商鞅)을 말함. 법치(法治)를 진 효공(秦孝公)에게 말하여 발탁되어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혁하였다. 『史記·商君列傳』

24) 신정(新亭) : 정자 이름. 진(晉)나라의 명사(名士)들이 신정(新亭)에 모였을 때, 주의가 모인 자리 속에서 국운이 쇠퇴하는 것을 탄식하여 “풍경은 다르지 않으나 눈을 들으면 산하에 다름이 있다.(風景不殊 舉目有山河之異)”라고 하자, 모두 서로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때 왕도(王導)는 정색을 하며 힘을 다해 재건을 해야 한다고 나무랐다. 『晉書·王導傳』

25) 장지(壯紙) : 두껍고 질긴 종이.

六日 日 十三日 庚子 陽 日寒復振有寒 做終日委臥 鏞男母襪一雙補進 昨日房中 又落傷不仁 是何身數

2월 6일 일요일 음력 1월 13일 경자(庚子). 맑음. 추운 날씨가 다시 펼쳐서 춥기 때문에 종일 누워 있었다. 용남(鏞男) 어미가 버선 한 켤레를 기워서 보내왔다. 어제 방안에서 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어서 몸을 못 쓰니, 이것이 무슨 운수인가!

七日 月 十四日 辛丑 陽 夜有微雪 朝後雪飛

2월 7일 월요일 음력 1월 14일 신축(辛丑). 맑음. 밤에 가는 눈이 내리고 아침 후에는 눈발이 날렸다.

寒溪幽居 한계의 그윽한 집

余縱疲癯豈忘勤 내가 병들었다고 어찌 부지런함을 잊었겠는가?
愁來自誦送窮文 근심하며 송궁문²⁶⁾을 절로 외우네.
游兒關北郵書絕 관북에 나들이 간 아들은 우편 편지가 끊기고
離客城西驛路分 성 서쪽에서 작별하는 손님은 역에 길이 나뉘었네.
無窮此地山中石 이 땅 산속에 돌은 끝이 없는데
不禁誰家嶺上雲 뉘 집 산꼭대기 구름을 금해 주지 않으리!
新年最好家人樂 새해에 가장 좋은 것은 집안사람의 화락함이니
觀易梅窓栢子焚 주역을 보고 매화꽃 창가에서 잣을 태우네.

小望佳節 소망²⁷⁾ 좋은 명절

海外兵塵逮我東 해외에 전쟁이 우리 나라에 미치고
上元歌管四隣空 상원의 풍악소리에 구경 가서 사방 이웃이 텅 비었네.
豐徵昨臘雪三白 풍년을 징험하는 작년 선달에 눈이 삼백²⁸⁾이었으니
薄味今朝飯二紅 음식이 적은 오늘 아침에 대맥(大麥) 소홍두(小紅豆)를 섞어서 지었네.

26) 송궁문(送窮文) :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지은 문장. 그의 송궁문에 “태학에서 4년을 공부하는 동안, 아침에는 푸성귀를 먹고 저녁에는 소금국을 먹었다. [太學四年 朝齋暮鹽]”라는 가난에 대한 말이 나온다.

27) 소망(小望) : 음력 정월 14일.

28) 삼백(三白) : 풍년의 징조. 『본초(本草)』 납설(臘雪)에 “동지(冬至) 지난 뒤 세 번째 술일(戌日)이 납(臘)인데 납 이전에 세 차례 눈이 와서 희어지면 보리농사에 아주 좋다.” 하였다.

溪叟獵魚編竹筍 시냇가 늙은이는 고기를 잡으려고 대나무 통발을 엮고
 街童射雀理桑弓 거리의 아이는 참새 쏘 뽕나무 활을 수리하네.
 最憐學母詰孫女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엄마를 따라 배우는 여러 손녀가
 名節佳供慣削葱 명절에 아름다운 것을 바치려 파 썰기를 익힘이라.

其二 그 둘째

中原消息使人驚 중원의 소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西北風塵久未晴 서북쪽에 풍진은 오래 동안 맑아지지 않네.
 警鐸張羅山盜絕 경계하는 목탁과 쳐놓은 그물에 산 도적이 끊어지고
 飛機衝艦海軍征 비행기와 큰 군함에 해군이 정벌하네.
 爐烟吹篆青燈暗 화로의 연기가 꼬불꼬불 피어나와 등불은 어둡고
 檐溜凝冰白屋鳴 처마의 낙숫물이 고드름을 맺어 초가집을 울리네.
 秦廢漢典餘幾日 진나라는 폐기되고 한나라의 법은 남은 것이 며칠인가!
 春來爲問桃源行 봄이 오면 무릉도원 가는 길을 물으리.

其三 그 셋째

良辰寂寂酒空缸 좋은 날에 적적하게 술이 항아리에 비었고
 病榻無聊一筆扛 병상에서 무료하여 붓 하나를 들었네.
 名區花石無餘地 유명한 구역 돌과 꽃에 남은 땅이 없고
 何處烟霞非亂邦 어떤 곳 경치인들 어지러운 나라가 아닌가!
 仲連明月來東海 노중련²⁹⁾은 명월주(明月珠)를 가지고 동해로 왔고
 元亮清風臥北窓 도원량³⁰⁾은 맑은 바람 쉰며 북쪽 창가에 누웠네.
 佳遊從來多釣叟 은둔하는 데는 종래부터 낚시꾼이 많아
 孤舟篔簹雪寒江 외로운 배에 도롱이와 샷갓을 쓰고 눈 속 추운 강에 있네.

其四 그 넷째

名辰跳板聚東牆 명절 널뛰기판 벌어져 동쪽 담장에 모이고

29) 노중련 : 전국(戰國) 시대 제(齊)나라 사람. 진(秦)나라를 높여서 황제로 삼는다면 동해(東海)에 빠져 죽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월주(明月珠)와 야광벽(夜光璧)을 어둠 속에서 길가에 내던지면 칼자루를 잡고서[按劍] 노려보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여 인물이 온당히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 바가 있다. 「史記」 「魯仲連列傳」

30) 도원량 : 원량은 도연명(陶淵明)의 자(字).

綠帶紅粧白玉娘 푸른 띠 붉게 화장한 백옥 같은 아가씨라.
 薄雪稿堆連豕柵 얇게 눈이 내린 벼짚가리는 돼지우리에 이어지고
 淺水篋筍落魚梁 얇은 어름 대나무 통발은 어랑에 내려 놓았네.
 高友恒空圍局榻 고상한 친구는 바둑판 자리가 항상 비어있고
 俚曹多走蹴毬場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축구장에서 뛰네.
 自奏蓬門佳客至 오두막 우리 집에 아름다운 손님이 이르니
 生芻一束詠三章 망아지에게 먹일 싱싱한 풀 한 다발을 들고³¹⁾ 삼장(三章)을 노래하네.

喜事 기쁜 일

萬里風塵暗 만 리의 풍진으로 어두운데
 有誰獨上臺 누가 홀로 누대에 오르는가!
 山庭聽翠羽 산속 집 뜰에 비취 소리를 듣고
 江縣放紅梅 강가 고을에 홍매가 피어있네.
 社乏摛詞會 마을에는 글을 짓는 모임이 없고
 隣無送酒來 이웃에서 술을 보내오지 않네.
 喜聞孫定室 손자가 아내를 정했다는 기쁜 소식 있으니
 咫尺得良媒 지척에서 좋은 중매쟁이를 얻었다네.

正雅 정아

世無長存者 세상에 길게 사는 사람 없는데
 浪說是喬松 오래 살았다는 왕자교(王子喬)와 적송자(赤松子)는 낭설이라.
 誰家餘肉帛 누구 집에 고기와 비단이 남는가!
 貧櫬乏蔘茸 가난뱅이는 식탁에 인삼과 녹용이 없네.
 覺瘦床照鏡 평상에 비추는 거울에 야임을 깨닫고
 催老壁懸鐘 벽에 걸린 시계는 늙음을 재촉하네.
 聞識黃泉路 들으니 황천길에는
 榮枯一轍從 영고성쇠가 같은 궤도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네.

31) 망아지에게 …… 들고 : 현인이 찾아움을 말함. 『시경』 「소아(小雅) 백구(白駒)」에 “회고 깨끗한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도다. 싱싱한 풀 한 다발을 주노니 그 사람은 옥처럼 맑도다.(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 하였다.

寓懷 회포를 부침

(今日五穀之飯 新羅宮俗 오늘 오곡밥은 신라 궁중의 풍속이다.)

佳節出門竟何之 아름다운 명절에 문을 나가 끝내 어디로 가는가!
 南鄉伴侶絕追隨 남쪽 지방에 친구는 교유가 끊어졌네.
 鰥居倍慰無妻友 혼자 살자니 아내 없는 친구에 배나 위로되고
 老去尤思教我師 늙어 가며 나를 가르친 선생을 더욱 생각하네.
 齒沒須貪織剪菜 이 빠지니 가늘게 자른 채소를 반드시 탐내고
 神淸能誦舊吟詩 정신이 맑으니 옛날에 읊은 시를 외우네.
 飯中五穀傳遺俗 오곡밥은 남은 풍속을 전하고
 萬竈不空今日炊 모든 집 부엌에 텅 비우지 않아 오늘 밥을 짓네.

其二 들째

(眞其然歟 진실로 그러한가)

新年樂泰平 신년에 태평함을 즐기는데
 此夜笛聲高 이 밤에 들려오는 높은 피리소리.
 月樓圓桂魄 달은 계수나무가 있어 둥굴고
 雪逕落枳濤 눈길엔 탕자나무 물결이 내려있네.
 東鄰蒸菜飯 동쪽 이웃에선 나물밥을 삶고
 西舍煮香糕 서쪽 집에선 향기로운 떡을 찌네.
 軟飽脩房豎 배부른 머슴방 머슴
 九樵亦忘勞 아홉 번 나무해도 또한 수고로움을 잊네.

昌範持婚擇 卽往德壯洞 大禮來廿六日大吉 鏞男進夕飯 菜蔬諸饌 極供滋味 軟飽贊成 昌範自清
 溪洞來面候 傳柱單於本處 而緣於促迫 退定於來二月廿六日 完定

창범(昌範)이 혼인날 택일을 가지고 덕장동(德壯洞)에 갔다가 왔는데 대례(大禮)가 오는 26일 이 크게 좋았다. 용남(鏞男)이 저녁밥을 들여왔는데 채소와 여러 가지 반찬으로 매우 맛이 있어 배부르게 더해 먹었다. 창범이 청계동(淸溪洞)에서 와서 인사를 받았고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본처에 전하였으나 촉박함에 말미암아 오는 2월 26일로 물려서 정하여 완전히 정하였다.

小望夜 1월 14일 밤

萬念淒然坐五更 만 가지 생각 처량히 오경까지 앉아 있으니

寒燈不寐待鷄鳴 쓸쓸한 등불 아래 잠들지 못하고 닭 울기를 기다리네.
令人無復升平樂 사람에게 다시 태평을 즐기게 함이 없으나
依舊天心月自明 예전대로 하늘에는 달이 절로 밝구나.

八日 火 十五日 壬寅 陽 奉天里金友鐘翊來訪 南草三封惠念 永登浦申昌休來訪 敘話而歸 植柳村堂侄女 直直便黑飴

2월 8일 화요일 음력 1월 15일 임인. 맑음. 봉천리(奉天里) 친구 김종익(金鐘翊)이 찾아왔다. 남초(南草 : 담배) 3봉을 가지고 왔다. 영등포(永登浦) 신창휴(申昌休)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식류촌(植柳村) 당질녀(堂侄女)가 검은 엿을 ... 인편에 보내왔다.

長安懷古 장안을 회고함

金吾馬上御書紅 금오³²는 말 위에 붉은 어서(御書)를 쥐고
萬戶長安施禁中 많은 집이 사는 서울 대궐 안에서 시행하네.
樂府絲絃傳六角 악부의 악기는 육각³³을 전하고
恩盤簪珥徹三宮 은혜로운 소반의 잠이(簪珥)³⁴는 삼궁(三宮)³⁵에 통하네.
賀班玉典分陞品 임금께 하례하는 자리의 소중한 법은 품계를 달리하여 오르고
朝陞金章共退公 조정의 금장³⁶ 달고 대궐에서 함께 퇴근하네.
五百年來鐘漏地 오백년 이래 종각에 시간을 알리던 곳
那知月色此宵空 어찌 달빛이 이 밤에 공허함을 알리!

都下過夢 서울 근처에서 꿈을 꿈

極樂上元節 매우 즐거운 상원절(上元節)³⁷
龔翁問啞翁 귀머슴 늙은이가 병어리 된 늙은이에게 묻네.
佳香椒酒碧 향기로운 초주(椒酒)³⁸는 푸른색이고

32) 금오(金吾) : 야간 통행금지 등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관직 이름.

33) 육각(六角) : 북·장구·해금·피리 및 태평소 한 쌍의 총칭.

34) 잠이(簪珥) : 머리와 귀에 다는 장식품. 비녀와 귀고리.

35) 삼궁(三宮) : 황제·태후·황후의 궁.

36) 금장(金章) : 금장옥부(金章玉符). 높은 관직은 금장을 달고 옥부를 찬다.

37) 상원절(上元節) : 정월 대보름.

38) 초주(椒酒) : 새해 아침에 다례(茶禮)를 지내고 나서 웃어른에게 축수(祝壽)하며 올려 하례하는 술 이름.

別味藻餐紅 별미 과자는 붉은 것을 먹네.
 紙鳶同市井 종이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날리고
 竹馬走童蒙 죽마를 타고 아이들은 달리네.
 繁華如昨日 번화한 거리 어제와 같은데
 一夢未醒中 한 번 꿈결 속에서 깨지 못한 속에 있네.

寒溪上元 한계의 대보름

上元明月一輪東 상원에 밝은 달이 동쪽에 바퀴 하나 두둥실
 仰見蒼生四海同 우리러 보는 백성들은 천하가 똑같네.
 余爲兒孫何所望 나는 아들과 손자를 위하여 무엇을 바라는가?
 最中心事願年豐 가장 중요한 마음 속 일은 풍년을 원함이라.

其二 그 둘째

(古俗今朝有賣暑之戲 옛날 풍속에 오늘 아침에 더위를 파는 장난이 있다.)

朝後上元拜 아침 후에 대보름 절을 하고
 曾玄一隊紅 증손자 현손자 한 떼가 되어 붉은 옷 입었네.
 渠何知乃祖 그들이 어찌 제 조부를 알겠는가?
 賣暑病中翁 병든 이 늙은이에게 더위를 팔고 있네.

其三 그 셋째

今朝翁朶頤 오늘 아침 이 늙은이 만족하게 먹으니
 爾輩昌吾門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창성하게 할 것이라.
 七歲能知祖 일곱 살이 되면 조부를 알 수 있는데
 爲名賣暑孫 더위 파는 손자가 되다니.

奉天里金友鐘翊來訪 봉천리(奉天里) 친구 김종익(金鐘翊)이 찾아옴

六臣墓北四忠祠 육신묘(六臣墓 : 사육신묘) 북쪽에 사충사(四忠祠)³⁹가 있고

39) 사충사(四忠祠) : 사충서원(四忠書院)을 말함. 노론 사대신(四大臣)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를 제향하는 서원. 이들 사대신은 경종(景宗)의 왕세제(王世弟:후일의 영조)를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하는 문제로 소론의 미움을 사서 신임옥사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였는데, 왕세제가 영조로 즉위한 뒤에 신원되고 서원이 건립되었다.

咫尺君居漢水湄 그 가까운 곳 한강가에 그대가 살고 있네.
 避世遐心懷故國 세상을 피해 멀리 가려는 마음은 고국을 그리워하고
 歸田良計待淸時 농사로 돌아갈 좋은 계획은 맑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네.
 桐江雪月閒扶釣 동강⁴⁰ 눈내린 달빛 속에 한가로이 낚시대를 잡고
 芝岫烟霞近接籬 지수⁴¹의 안개와 노을은 울타리 가까이 있네.
 今日相逢眞不偶 오늘 서로 만난 것은 진실로 우연이 아니니
 新元椒酒幾眠詞 정월달[新元] 초주(椒酒)를 거의 잠꼬대할 만큼 마셨네.

夢中擊胡 꿈속에 오랑캐를 공격함

(自評曰今之少陵 스스로 평가하여 말하기를 “지금의 소릉(少陵)이다” 하였다.)

幽燕老將夢征胡 유연(幽燕)⁴²의 늙은 장군이 꿈속에 오랑캐를 정벌하고
 慣識關山踏雪圖 관문이 있는 산을 잘 알아 눈 쌓인 그림을 봤었네.
 輕挽烏號猿臂振 오호궁⁴³을 가볍게 당겨 원숭이처럼 긴 팔이 떨치니
 應弦驚落北單于 활시위 소리 나자마자 북선우(北單于)가 놀라 떨어지네.

彼問 저 사람에게 물음

有人戶外住詩筇 방문 밖에 시인의 지팡이 머물러 있으니
 情話殷勤來問儂 정담을 다정하게 나에게 와서 물네.
 近日春詞多少句 요사이 입춘(立春)에 쓰는 많은 글
 先生何不寫眞容 선생은 어찌 진실한 모습을 쓰지 않소!

我答 나에게 답함

暮境狂吟我有詩 늙그막에 경망하게 읊은 내 시가 있는데
 高評此世君獨知 이 세상에 높은 평가를 그대만 알고 있네.
 騷壇百戰元戎老 문단(文壇)에서 백번 싸운 원로 장수는 늙었고
 弄假成眞亦出奇 장난기로 한 것이 진실이 되어 역시 기이함을 내네.

40) 동강 : 은거하는 강을 말함. 한(漢)나라의 엄광(嚴光)이 은거하여 낚시대하던 곳이다. 『後漢書』 권 113 「嚴光傳」

41) 지수 : 은거하는 산을 말함. 진(秦)나라 말기에 상산사호(商山四皓)가 은거하며 자지가(紫芝歌)를 불렀다.

42) 유연(幽燕) : 전국 시대의 연(燕) 나라. 당(唐) 나라 이전의 유주(幽州)로, 중국의 요동(遼東) 및 허북(河北) 지방을 가리킨다.

43) 오호궁 : 뿔나무가지로 만들었다는 질 좋은 활의 이름.

…… 數片甘喫 今夜月明人盡望 不知春思在誰家 鋪男母進夕飯 有肉羹

…… 몇 조각을 달게 먹었다. 오늘 밤에 달이 밝아서 사람들이 다 바라볼 것인데 봄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 집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용남(鋪男) 어미가 저녁밥을 내왔는데 고기 국이 있었다.

九日 水 十六日 癸卯 陽 日寒一直 今夕望 石油五合 直員得來 雲擁不見月 然而以小望視之 則月出近北 豐年之兆

2월 9일 수요일 음력 1월 16일 계묘(癸卯).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오늘 저녁에야 망(望 : 꼭 찬 달)이 되었다. 석유(石油) 다섯 홑[五合]을 직원(直員)이 얻어 왔다. 구름이 자욱하여 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월 14일로 살펴보면 달이 나온 것이 북쪽에 가까이 하였으니, 풍년들 징조이다.

時事 이때의 일

西來消息動輕桴 서쪽에서 온 소식은 가벼운 배에 놀라고
海外風塵闕戰途 해외 풍진은 전쟁 길에 막히네.
幽壑斷雲歸病鹿 깊숙한 골 안에 구름이 끊어진 곳에 병든 시슴만 돌아오고
空林殘雪集飢鳥 인적 없는 숲속에 눈이 스러지자 굶주린 까마귀들 모이네.
靑山故國多高友 푸른 산이 있는 고국에는 고상한 벗들이 많은데
明月寒溪臥大夫 밝은 달이 빛나는 한계에 대부(大夫) 나는 누워있네.
千載一時時正好 천년에 한번 오는 기회에 때가 바로 좋은데
英雄幾處讀孫吳 영웅이 몇 군데서 손오(孫吳)⁴⁴⁾의 병법을 읽는가!

卽事 지금의 일

今宵同玩月 오늘밤 달구경을 같이하고
昨日已迎春 어제 밤 이미 봄맞이를 하였네.
織工聽里媪 마을 할머니들이 베 짜는 소리 들리고
稼事問田隣 농사일은 이웃 농가에게 묻네.
三章人慕漢 삼장(三章)⁴⁵⁾을 정하니 사람들은 한나라를 사모하고

44) 손오(孫吳) : 춘추 시대 제(齊)나라 손무(孫武)와 전국 시대 위(衛)나라 오기(吳起)의 병칭. 병법가(兵法家)를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45) 삼장(三章) : 약법삼장(約法三章). 한나라가 되어 진(秦)나라의 번잡한 법을 줄여 세 조목만 정한 법.

百賦世離秦 많은 세금을 물리니 세상은 진나라를 떠났네.
試看中原鹿 중원(中原)의 사슴(46)을 보라
帝王應有眞 제왕(帝王)은 진실이 있어야지.

過諺有淚 지나가는 속담에 눈물이 나다
(觀此詩 則皆知此人之情狀 이 시를 보면 모두 이 사람의 정상(情狀)을 알 것이다.)

自憐兩鬢毛 스스로 양쪽 귀 밑에 흰머리가 난 것을 가련해 하니
何處得秋霜 어디에서 가을 서리를 얻었는가!
白髮淹鷗館 센 머리로 구관에 머물고
靑年送鳳陽 청년에는 봉양을 보냈네.
僉口寒溫節 여러 사람의 안부를 묻는 속에
空拳嫁娶場 빈주먹 쥐고 혼인시키는 마당을 마련했네.
餘暇官三品 여가에 나는 관직이 삼품(三品)이니
自然違所望 자연히 바라는 바에 어긋났네.

十日 木 十七日 甲辰 陽 復陰雨雪交下 祖考忌辰入齋也 梳洗而始着網巾 典祝文 夕天晴 忌祀安過

2월 10일 목요일 음력 1월 17일 갑진(甲辰). 맑음. 다시 흐려져서 눈이 교차하면서 내렸다.
조고(祖考)의 기일이라 재계에 들어갔다. 머리 감아 빗고 비로소 망건(網巾)을 쓰고 축문(祝文)을 마련하였다. 저녁에 날씨가 맑았고, 제사가 편안하게 지나갔다.

野居 시골 집

病餘無事課農書 병든 나머지 무사하여 농서(農書)를 읽어보니
一片白雲衛野居 한 조각 흰 구름이 시골집을 보호하네.
修竹引風聲的歷 긴 대나무 바람을 통하여 소리가 뚜렷하고
高梧當月影扶疎 높은 오동나무 달빛을 받아 그림자 덩성덩성하네.
園公掃雪閑馴鹿 동물 사육사는 눈을 끌고 한가히 사슴을 길들이고
溪叟穿氷共網魚 시냇가 늙은이는 얼음을 깨고 함께 고기를 그물질하네.

그 조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각각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하였다. 『史記』 권8 「高祖本紀」
46) 중원(中原)의 사슴 : 천하 권력을 말함. 한나라 변사(辯士) 괴철(劓徹)이, “진나라가 사슴을 놓치자 밭이 날랜 자가 먼저 얻는다.” 하였다.

萬里兵塵消息大 만 리의 전쟁은 소식이 대단하니
江湖歸夢逐春鉏 강호로 돌아갈 꿈에 해오라기⁴⁷)를 따르리.

得獠字 노(獠) 자(字)로 시를 씀

世人多佩笑中刀 세상 사람들 웃음 속에 칼을 지닌 자가 많으니
百度超群是傑豪 모든 일에 뛰어난 호걸(豪傑)이라.
俚曹誇技棊行局 민간의 아이들은 바둑 두는 기술을 자랑하고
好漢流涎酒滴槽 좋아하는 한량은 술 따르는 소리에 군침만 흘리네.
藏金自矜眞招盜 금을 숨기고 스스로 자랑하다 도둑을 진짜 부르고
升木空譽誤教獠 나무에 올라감을 공연히 칭찬하여 원숭이를 잘못 가르치네.
聞道工部詩入聖 말을 들으니 공부(工部 : 두보)는 시(詩)가 성인 경지에 들었다는데
開元何事老青袍 개원(開元)⁴⁸)에 무슨 일로 청포(靑袍)⁴⁹)로 늙어갔는가!

讀國史 嘖亡國諸臣 국사(國史)를 읽고 나라를 망하게 한 여러 신하들에게 분노함

諸君世祿立三班 그대들 대대로 녹봉을 받아 삼반(三班)⁵⁰)에 서서
鳳巢龍鱗入附攀 봉황의 집과 용의 비늘에 따라 올랐지.
疲弊蜀居吳魏上 피폐한 촉(蜀)나라는 위나라와 오나라 위에 있었고
弱微滕在楚齊間 미약한 등(滕)나라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었네.
五百年高尊社稷 오백년간 존귀하여 사직이 높으니
三千里重好江山 삼천리 소중하여 강산이 아름다웠네.
列聖分明仙府在 열성(列聖)은 분명 신선 세계에 계실 텐데
何顏咫尺仰天顏 무슨 낮으로 지척에서 임금의 얼굴을 바라볼까!

聞女娘充軍 三首 아가씨를 군대에 보낸다는 것을 듣고. 3수

捨西北北竟何成 서쪽을 버리고 북쪽을 막으면 마침내 무엇을 이룰까!
當日秦皇虛築城 당일엔 진시황제 헛되이 만리장성을 쌓았네.
聞道充軍多幼女 말을 들으니 군대를 보내는데 어린여자아이들이 많다고 하니

47) 해오라기 : 용서(春鋤). 이 새는 얇은 물을 건널 때에 머리를 숙였다 치켜들었다 하는 모습이 마치 절구질하고 호미질하는 것처럼 생긴 까닭에 이름을 '春鋤'라고 한다.

48) 개원(開元) :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

49) 청포(靑袍) : 6품의 관원이 입던 당대(唐代)의 관복.

50) 삼반(三班) : 문반·무반·음반.

木蘭不是替爺征 목란(木蘭)⁵¹⁾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정벌에 나간 것은 옳지 않네.

又 또 읊음

貞觀太宗初大勳 정관 연간 당 태종은 큰 공훈을 세워서
化家爲國我曾聞 집을 변하여 나라를 만들었다고 나는 들은 적이 있네.
一看柴紹筮歸妹 한번 시소[당나라 장군]를 보고 누이를 시집보냈으니
昔有平原娘子軍 옛날 평양공주에게 낭자군⁵²⁾이 있었네.

又 또 읊음

(自評曰 預知其情 스스로 평하기를 “미리 그 정황을 알았다.” 하였다)

列校勤工男女并 여러 학교에서 부지런히 공부함은 남녀가 함께하고
石頭喉鶴從風聲 돌 머리에 학이 울어 바람을 따라 소리 나네.
幼娘體育知何用 어린 아가씨 체육은 어디에 쓰는지 알까!
已料今朝有此行 오늘날을 이미 헤아려 이를 시행하였네.

天地常經 천지에는 떳떳한 법이 있음

(以上七十首 이상 70수)

男耕女織各分功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길쌈하여 각각 일을 나누고
務本生涯只此中 근본에 힘쓰는 생애는 다만 이 가운데 있네.
人而無教同禽獸 사람으로서 교육이 없으면 짐승과 같으니
自是倫綱聖道通 이로부터 윤리강령이 성인의 도를 통하네.

十一日 金 十八日 乙巳 陽 日寒不解 鳳城里族侄 ……

2월 11일 금요일 음력 1월 18일 을사(乙巳). 맑음. 추운 날씨가 풀리지 않았다. 봉성리(鳳城里) 조카 ……

51) 목란(木蘭) : 늙은 아버지 대신 남장(男裝)을 하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12년을 종군(從軍)한 여인. 「古樂府 木蘭辭」

52) 낭자군 : 당나라 고조(高祖)의 딸 평양공주(平陽公主)가 조직한 여자 군대. 원문 ‘平原’은 ‘平陽’의 잘못. 당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시소는 평양공주의 남편이다.

得定字韻 정(定) 글자 운(韻)으로 시를 지음

世毛榻外音 세상 소식 책상에 들리는 소리
側耳須重聽 귀를 기울이니 모름지기 귀 먹어야 하리.
鳥篆雪中壇 조전(鳥篆)⁵³은 눈 속 단(壇)에 있고
麝香松裡逕 사향의 향기는 소나무 속 길에 나네.
病沉亦罵醫 병이 깊어져서도 의사를 욕하고
詩搜非綠興 시 짓기에 피로해져 흥이 따르지 않네.
安得更青年 어찌 다시 청년을 얻을 수 있을까?
第觀天下定 다만 천하가 안정되는 것을 보았으면.

送人歸南陽朴豐緒 남양으로 돌아가는 사람 박풍서(朴豐緒)를 보냄

千里西洲驛路賒 천리 서쪽 물가는 역로가 멀기만 한데
十年游子始還家 십년 떠돌던 그대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네.
馬卿題柱終違誓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다리 기둥에 출세할 글을 썼으나⁵⁴ 나는 끝내 그 맹서와
어긋났고
蘇季乘車亦莫誇 소계(蘇季)⁵⁵가 수레를 탔으나 나는 또한 자랑할 것이 없도다.
飛鳳山前殘雪在 비봉산 앞에는 남은 눈이 있고
臥龍崗外凍雲斜 와룡강 밖에는 차가운 구름이 빗겨네.
聞君先業多良畝 들으니 그대의 대물린 사업에 좋은 밭이 많다니
歸讀農書種麥麻 돌아가 농서를 읽고 돌아와 보리와 삼을 심게나.

婦仁範母來訪 南草一封惠念 喜其無故 而三寡婦與子女又孫善在 中亦有柴糧 最幸者是也 然爲極
憐耳 昌範自黑石里來面 兒病不差 方在胡人藥局之神藥 胡人言曰 不遠間差復 又讀動土經三夜云
實爲念慮不淺 手足痺微

며느리 인범(仁範) 어머니가 찾아왔다. 남초(南草) 1봉을 가지고 왔다. 무고(無故)하니 기쁘고
세 과부와 아들과 딸 또 손자가 잘 있는데다 그 중에 또한 딸나무와 양식이 있어 가장 다행

53) 조전(鳥篆) : 전체(篆體)의 고문자(古文字)로, 모양이 새의 발자국과 흡사한 글자체. 조적서(鳥迹書)
또는 조서(鳥書)라고도 한다.

54) 사마상여(司馬相如)는 ... 썼으나 : 원문 '題柱'는 한(漢) 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처음에 벼슬하
기 위해 서쪽의 장안(長安)으로 들어갈 때 승선교(昇仙橋)를 지나가다가 다리 기둥에 "네 필의 말이
끄는 높은 수레를 타지 않고서는 이 다리를 지나지 않으리라."라고 쓴 일로, 반드시 고관대작이 되어
금의환향하겠다는 각오를 말함. 『漢書·司馬相如傳』

55) 소계(蘇季) : 소계자(蘇季子). 계자는 전국 시대 유세객(游說客) 소진(蘇秦)의 자.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불쌍할 뿐이다. 창범(昌範)이 흑석리(黑石里)에서 와서 대면하였다. 아이의 병이 차도가 없었는데 바로 호인(胡人) 약국에 신약(神藥)이 있었다. 호인이 말하기를, “멀지 않은 사이에 나아 회복될 것입니다. 또 동토경(動土經)⁵⁶⁾을 3일 밤 읽으십시오.” 하였다. 실로 염려가 적지 않다. 손과 발에 마비 증세가 있다.

十二日 土 十九日 丙午 陽 再往丁丑年今日 彼挾威下城北李碧潼宅日也 于今六十八年 故追感記之 仁範母告還家 不勝悵然 付書于堂里李室 通知孝範婚日 里井皆渴 食水極艱

2월 12일 토요일 음력 1월 19일 병오(丙午). 맑음. 두 번 지난 정축년(丁丑年 : 1877년) 오늘은 저들이 성 북쪽의 이벽동(李碧潼) 집을 위협한 날이다. 지금에 68년이나 되었으므로 추억하여 기록한다. 인범(仁範)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하니 섭섭함을 견딜 수가 없다. 편지를 당리 이(李)씨 아내에게 효범의 혼일 날을 통지하였다. 마을에 우물이 모두 말라서 먹는 물이 지극히 어렵다.

觀時勢 二首 시세(時勢)를 봄 2수
(皆入佳境 모두 가경으로 들어감)

天無聲臭鑑監昭 하늘은 소리도 냄새도 없이 거울처럼 환한데
世態人情異夕朝 세태와 인정은 아침저녁이 다르네.
養老國恩傳漢史 노인을 봉양하는 국가 은혜는 한나라 역사에 전하고
愛民帝力誦唐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 힘은 요임금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네.
鳥疑頑石藏深樹 새는 돌맹이를 의심하여 깊은 나무속으로 숨고
馬恟殘泥立斷橋 말은 남은 진흙을 겁내어 끊어진 다리에 섰네.
利涉誰能須我友 건너기에 편하면 누가 나의 친구를 기다릴 수 있을까!
前津舟子共招招 나루터 앞에 뱃사공은 함께 부르고 있네.

其二 그 둘째

世味由來忘淡鹹 세상 기호에 담담함과 소금 맛을 잊은 유래로
最愴流俗薄於衫 유행하는 풍속에 소매가 좁아짐이 제일 애석하네.
驚鶴關心棲邃壑 놀란 학이 깊은 골짜기에 깃드는 것이 마음을 끌고
飛鷺何意坐危岩 나는 솔개는 무슨 뜻으로 높은 바위에 앉아있는가!

56) 동토경(動土經) : 경 이름. 지신(地神)이 성을 내어 받을 제앙에 대응하는 경

此地已懸徐孺榻 이곳에 이미 서유(徐孺)⁵⁷의 의자를 걸어 놓았고
 昨秋先送張翰帆⁵⁸ 지난 가을에 먼저 장한(張翰)⁵⁹의 배를 보냈네.
 甗山花樹無消息 민산에 친족은 소식이 없고
 情話多端尺紙緘 정다운 말에 사연이 많아 편지에 봉해왔네.

天下大勢 二首 천하대세 2수
 (皆入眞境 모두 진경에 들어감)

閑中無望坐空談 한가한 중에 바랄 것이 없어 앉아서 공(空)을 말하니
 天下陸沉我自諳 천하에 육침(陸沉)⁶⁰함을 나 스스로 아네.
 既往乘龍多聖主 과거에 용을 탄 성스러운 군주가 많았는데
 今來逐鹿少英男 지금 와서 사슴⁶¹을 쫓는 뛰어난 남자가 적네.
 東洋挺角由名尙 동양에서 각축을 벌임은 이름을 숭상하기 때문이고
 西域通商在物貪 서역에서 통상함은 물건을 탐하는데 있네.
 億兆困窮於此甚 천하 백성의 곤궁함이 이에 심하니
 輿岡必有兩肩擔 천하는 반드시 두 어깨에 짊어짐이 있구나.

其二 그 둘째

同人吉象入新占 동인괘(同人卦) 길한 상징이 새 점(占)에 들어오니
 征戰由來天所厭 전쟁의 유래는 하늘이 싫어하는 바이라.
 西域千秋空約誓 서역은 천년 동안 공연히 맹약을 맺었고
 東洋萬里絕怨嫌 동양은 만 리에 원망스런 혐의가 단절되었네.
 床集正詩聲最重 책상에 바른 시가를 모으니 시 읊는 소리 가장 귀중하고
 盤供薄饌味無兼 소반에 소박한 반찬을 차리니 반찬이 두 가지도 없네.
 化翁生物皆仁澤 조물주가 만물을 소생시킴은 다 어진 은택이니
 覆載均被雨露霑 천지에 이슬과 비의 은혜를 골고루 입게 하네.

57) 서유(徐孺) : 한(漢)나라 예장태수(豫章太守) 진번(陳蕃)에게 특별한 의자에 앉게 되는 대접을 받은 인물. 서유가 앉았던 걸상을 서유가 돌아가면, 진번은 그 걸상을 높은 곳에 달아매었다.

58) 帆 : 帆의 오자.

59) 장한(張翰) : 진(晉) 나라 사람. 자(字)는 계응(季鷹).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인 강동(江東)에서 나는 농어와 순채의 맛을 생각하고는 일부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60) 육침(陸沉) : 육지에 물이 없는데도 빠졌다는 말로, 은거(隱居)를 비유한 말.

61) 사슴 : 천하제위(天下帝位)의 비유.

走筆 붓을 휘두름

病中多曠懷 병중에 대부분 텅 빈 회포
 世事落空泡 세상 일이 덧없는 곳으로 떨어지네.
 乳雞初抱卵 어미 닭이 처음 알을 품고
 母鵲已營巢 어미 까치는 이미 둥지를 지었네.
 此山誠伐木 이 산을 모두 벌목하면
 何處泛盈匏 어느 곳에서 바가지를 채우랴!
 最惜青年輩 가장 애석한 것은 청년들이
 一齊翰墨拋 일제히 필묵을 던져 버림이라.

十三日 日 廿日 丁未 陽 寒氣不解 延範在永登浦役所 朝夕飯五日式炊去 千古以來 焉有是理耶
 悠悠蒼天 良範便聞延範消息

2월 13일 일요일 음력 1월 20일 정미(丁未). 맑음. 추운 기운이 풀리지 않았다. 정범(延範)이 영등포 부역소에서 아침과 저녁밥을 5일씩 지어서 먹고 간다고 한다. 천고 이래로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득히 푸른 하늘이여! 양범(良範)이 편에 정범의 소식을 들었다.

春思 봄을 생각함

寥寥重寂寂 쓸쓸하고 또 적막하니
 萬念付寒灰 만 가지 생각을 꺼진 불에 붙이네.
 一日如奔電 하루가 번개 같이 지나가니
 三陽已復雷 삼양(三陽)⁶²이 이미 지뢰복괘(地雷復卦)⁶³를 지났네.
 雖有青春至 비록 푸른 봄이 이르렀지만
 更無故友來 다시 옛 친구가 오지 않네.
 何物誰家媼 어느 인물 누구 집 할머니가
 載生濟世才 세상을 구제할 인물을 낳을까!

62) 삼양(三陽) : 음양(陰陽)의 기운이 조화되어 천지 만물이 질서를 찾고 형통하게 되는 삼양 개태(三陽開泰)의 태괘(泰卦), 즉 정월을 맞았음을 말함.

63) 지뢰복괘(地雷復卦) : 순음(純陰)의 달인 10월을 지나 동지가 되면 밑에서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하는 지뢰복괘(地雷復卦)가 됨을 말함. 이는 땅속에서 우리가 올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其二 그 둘째

閑公野老理節鞋 과수 농군과 시골 노인이 지팡이와 가죽신을 가다듬으니
 局外江山多好儕 국외 강산에는 좋은 무리들이 많이 있네.
 回春微暖風噓谷 봄이 돌아와 조금 따뜻하여 바람이 골짜기에 불리고
 往臘餘寒雪滿階 설달이 지나가도 남은 추위에 눈이 섬들에 가득하네.
 人情仙路皆騎虎 인정은 출세 길에 모두 호랑이를 타고
 邦運宮林已問蛙 국가 운명은 쓸쓸해 궁정 후원에 이미 개구리에게 물었네.
 花月開圓今未晚 꽃이 피며 달이 둥글게 될 것이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南溪獨有善義齋 남쪽 시내에 홀로 선희재(善義齋)가 있네.

其三 그 셋째

(得眞字 貢(貢) 글자 운(韻)으로 시를 짓다)

寥榻披輿圖 쓸쓸한 책상에 여도(輿圖 : 천하 지도)를 펼치니
 九州餘禹貢 구주는 우공의 나머지가네.
 精神曉雨鷄 정신은 새벽 빗속 닭소리에 나고
 消息朝陽鳳 소식은 조양의 봉황이 전하네.
 勝負決雌雄 이기고 지는 것은 자웅으로 결정하고
 略韜誰伯仲 도략(韜略)은 누가 형과 동생인가!
 詩雖所困空 시 짓기가 비록 곤궁한 것이지만
 抽筆頻呵凍 얼은 붓을 뿜아 입으로 녹이노라.

破寂問答 고요함을 깨고 묻고 대답함

新年佳況問書童 신년의 아름다운 상황을 글 읽는 아이에게 묻노니
 依舊誰家酒不空 예전대로 누구 집에 술이 비어있지 않는가!
 幽巷凍痕殘雪白 그윽한 마을에 얼은 자취는 남은 눈이 하얗고
 遠山暝色落霞紅 먼 산의 어두운 색채에는 지는 노을이 붉구나.
 九旬吟病同癩鶴 아흔 나이 병중에 시를 읊으니 야윈 학과 같고
 萬里隨陽聽早鴻 만 리 음양을 따르는 이른 기러기 소리를 듣노라.
 課日詩愁非得力 날마다 시를 짓는 시름에 힘을 쓰지 못하는데
 南溪風物寂寥中 남쪽 시내의 풍물이 적막 속에 있네.

書童答話 글 쓰는 아이에게 답하는 말

書童數話暫寒嶠 글 읽는 아이와 잠시 쓸쓸한 방에서 말하니
十載兵塵久不休 십년 동안 전쟁에 오래 쉬지 못했구나.
苦海餘生圖活算 고해의 남은 인생은 살기를 계획하고
窮途貧們供徭憂 막다른 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요역(徭役)을 근심하네.
釀花佳酒同抱瓮 같이 향아리를 품고 꽃으로 빚어 담은 좋은 술을 들고
玩月新詩寂閉樓 적막히 달힌 누각에서 달구경하며 시를 새로 짓노라.
爲啓諸孫扶者衆 여러 손자들을 가르쳐 돕는 이가 많은데
師門安枕獨風流 선생 집은 편안히 잠들고 홀로 풍류를 홀로 즐기네.

十四日 月 廿一日 戊申 陽 日寒終不解 郵便有付書者 而披封則一白紙無文也 書則劃之 而無一字之痕 詳視者訃書云 三峴李友南九歷訪 而飛山公樂從氏同臨

2월 14일 월요일 음력 1월 21일 무신(戊申). 맑음. 추운 날씨가 종일 풀리지 않았다. 우편(郵便)으로 편지를 받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백지(白紙) 1장에 글자가 없다. 편지는 글자를 그 어버려서 1자의 흔적도 없었다. 자세히 본 사람이 부고 편지라고 하였다. 삼현(三峴)의 친구 이남구(李南九)가 방문하였는데, 비산(飛山)에 사는 공락(公樂) 종씨(從氏)가 같이 왔다.

舊懷 옛날을 생각함

課日出門杖碧藜 공부하는 날에 문을 나서 푸른 명이주 지팡이를 짚으니
寒流九曲石頭湜 한계 구곡에 바위 머리 물이 맑네.
東窓睡覺鷄聲曙 동쪽 창에 잠이 깨자 닭 우는 새벽이고
南國書來鴈影低 남쪽에서 편지가 오자 기러기 그림자 낮다.
蘇武節高離雪窟 소무⁶⁴는 높은 절개로 눈 속 움집을 이별하고
杜翁詩瘦老花溪 두보는 시 짓기에 야위어 완화계(浣花溪)에서 늙어갔네.
却看膝下兒孫大 문득 보니 슬하에 아들과 손자들이 크니
獨樂餘懷憶舊妻 남은 회포 홀로 즐기며 옛날 아내를 생각하네.

64) 소무 : 한 무제(漢武帝) 때 사람. 소무가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을 때 흉노가 그를 움집에 집어 넣고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 매마침 내리는 눈과 모직물의 털을 씹어 먹으면서 살아나자, 양을 기르게 하면서 숫양이 새끼를 낳아야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소무는 19년 동안 한나라 기를 지니고 양을 기르다가 화친이 되어 돌아왔다. 『漢書 卷54』

其二 그 둘째

戶外寒暄我問諸 문 밖에 추위와 더위를 나는 물으니
 江湖殘雪鴈來初 강호의 남은 눈 속에 기러가 처음 오네.
 山門廢禮懸賢榻 산문(山門)에 예를 폐하여 현인을 맞이하는 걸상을 매달고
 田社勤功動役車 농촌에서는 일을 부지런히 하니 역거(役車)⁶⁵가 움직이네.
 遲日稿堆依病牘 긴 해 짚가리에 병든 송아지가 의지하고
 微風菜巷放青驢 미풍 부는 마을에 푸른 나귀 풀어놓았네.
 回看斯學人俱遠 우리 학문 돌아보니 사람이 모두 멀어져갔으니
 此世誰知舊秘書 이 세상에 누가 옛날 비서(秘書)⁶⁶인 나를 알겠는가?

其三 그 셋째

鶴唳鳳喧我不聞 학이 울고 봉황이 울어도 나는 듣지 못하니
 寂然獨坐似離群 고요하게 혼자 앉아 무리를 떠난 듯하네.
 屏掛舊圖冰上鯉 병풍에 걸려있는 옛날 그림은 얼음 위에 잉어이고
 盤供新菜雪中芹 밥상에 새 나물은 눈 속에 미나리를 차리네.
 隱逸高歌餘白石 은거하며 고상하게 노래하니 깨끗한 돌이 많고
 文章過夢沒青雲 문장은 꿈같이 지나가 청운(靑雲)이 다 하였네.
 終知後進無稽古 끝내 후학들이 옛날을 상고함이 없음을 알겠으니
 繼世誰家積典墳 대를 이어 누구 집에 고서(古書)를 쌓아둘까!

其四 그 넷째

晚境任疎慵 늘그막에 나태한대로 살아가니
 寂中一事無 적막한 속에 한 가지 일도 없네.
 絕崖行獵犬 가파른 산엔 사냥개만 다니고
 荒樾集飢鳥 나무 그늘에 배고픈 까마귀만 모여 있네.
 新繪先供素 그림을 새로 그리려면 먼저 흰 종이를 받치고
 佳詩更點朱 아름다운 시는 다시 붉은 관주를 찍네.
 稚娘知養老 어린 딸도 노인을 봉양할 줄 알아
 去採雪田茶 눈밭에 가서 썸바귀를 캐네.

65) 역거(役車) : 농사짓는 백성의 농구(農具)를 신는 수레.

66) 비서(秘書) : 작자 신종목을 말함. 신종목은 비서원(秘書院) 시종경(侍從卿·秘書院 長官)을 지냈다.

其五 그 다섯 째

寒溪晚讀譜 한계에서 늘그막에 죽보를 보니
花樹百年陰 친족들 일생에 덕을 통했네.
留客宜投轄 손님을 머물려 마땅히 못 가게 붙들어야 하고
會朋可合簪 친구들이 모이면 서로 만나야 하지.
乾文傳夏曆 천문(天文)은 하나라 책력을 전하고
需用誰殷霖 재상감은 누가 은림(殷霖)⁶⁷인가!
鳳里憐三寡 봉리(鳳里)에 세 과부가 불쌍하여
淒然懷不禁 쓸쓸한 회포 금하지 못하겠네.

十五日 火 廿二日 己酉 陽 日寒一直 今聞則虎溪趙友潤九作故 未知何日訃告來則來矣 如昨日記
中 往十七日 鄭孝善作故 不勝愴然

2월 15일 화요일 음력 1월 22일 기유(己酉).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지금 들으니 호계(虎溪) 친구 조윤구(趙潤九)가 죽었다고 한다. 어느 날 부고(訃告)가 왔으면 왔었을텐데 알지 못하겠다. 어제 기억 중에 있는 것 같다. 17일에 정효선(鄭孝善)이 죽어서 서글픔을 견디지 못하겠다.

幽居 한적히 살음

長安咫尺謾聽鍾 서울 지척에서 느슨히 종소리를 들으니
澹泊生涯問老農 조촐한 생애를 늙은 농부에게 묻노라.
臨蹊頑石全欺佛 오솔길에 바위는 부처인가 온통 속고
近水盤松宛化龍 물가에 가까운 반송은 완전히 용으로 변했네.
繼世文章懷玉局 대대로 문장을 이은 옥국(玉局)⁶⁸을 그리워하고
鮮儔名望誦林宗 명망에 짝하기 드문 사람은 곽임중(郭林宗)⁶⁹을 말하네.

67) 은림(殷霖) : 은나라 장맛비라는 뜻으로, 천하에 은혜를 베풀 재상을 말함.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현상(賢相)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만일 큰 냇물을 건너게 되면 내가 그대를 배와 노로 삼을 것이고, 만일 큰 가뭄을 만나면 그대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 한 데서 온 말이다. 『書經 說命 上』

68) 옥국(玉局) : 송대(宋代)의 저명한 도관(道觀)인 옥국관(玉局觀). 소동파(蘇東坡)가 영주(永州)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와 옥국관 제거(提舉)가 된 일이 있다.

69) 곽임중(郭林宗) : 후한(後漢) 말엽의 고사(高士)인 곽태(郭太). 임중은 그의 자(字)임. 평소 위언 격론(危言激論)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고(黨錮)의 화를 면했음. 『後漢書 卷98』

病骨嶮峻如塑坐 병든 몸 험상함아 흙으로 구워 앉힌 듯하고
鏡中何索舊時容 거울 속에서 어찌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랴!

觀天下勢 천하 정세를 봄

一砲遲遲萬里郊 한 번 포성이 느슨하게 만 리 교외에 들리고
英雄盡被偉人嘲 영웅들은 다 위대한 인물에게 비웃음을 당하네.
偉位正理分三統 큰 지위는 바르게 다스려 삼통⁷⁰을 나누고
象象玄文系六爻 단상⁷¹과 현문⁷²은 육효로 이어지네.
漢唐赤縣餘空設 한나라 당나라의 적현⁷³은 여별로 공연히 늘어놓고
羅麗青山落晚泡 신라와 고려의 청산은 추락하여 늦게 물거품이 되었네.
不知何日中原鹿 어느 날 중원의 사슴⁷⁴이
走入誰家便作看 누구의 집으로 달려들어 안주가 될지 알지 못하노라.

其二 그 둘째

春秋無義戰 춘추 시대 의로운 전쟁은 없었으나
孔聖道光明 공자의 성스러운 도는 밝게 빛났네.
罕有千年國 천년을 지탱한 나라는 드물고
未聞百世京 백대를 지탱한 도읍을 듣지 못했네.
二帝歸禪讓 요순 두 임금은 모든 것 말기고 선양하였으나
六侯倍縱橫 전국(戰國)의 여섯 제후들은 배반해 합종연횡을 자행하였네.
興廢皆天定 흥망은 모두 하늘이 정하는데

70) 삼통(三統) : 하(夏)·상(商)·주(周) 삼대(三代)의 정삭(正朔). 하(夏)나라는 인월(寅月)로 세수(歲首)를 삼아 인통(人統)이 되고, 은(殷)나라는 축월(丑月)로 세수를 삼아 지통(地統)이 되고, 주(周)나라는 자월(子月)로 세수를 삼아 천통(天統)이 되는데, 고려 때나 지금 쓰는 음력은 하력(夏曆)에 근거한 것이다.

71) 단상(象象) : 단(象)은 『주역』의 괘(卦)를 풀이한 말로, 괘사(卦辭)를 말함인데, 문왕(文王)이 지었다 한다. 상(象)은 『역경』의 괘사와 효사(爻辭)를 풀이한 것으로 주공(周公)이 지었다 한다.

72) 현문(玄文) : 한(漢)나라 양웅(揚雄)이 지은 글. 『태현경』은 모두 10권으로 『주역』을 본떠 만든 것인데, 그 편명(篇名)을 『주역』과 비교해 보면 괘(卦)를 가(家)라 하고 단(象)을 현수(玄首)라 하고 효(爻)를 현찬(玄贊)이라 하고 상(象)을 현측(玄測)이라 하고 문언(文言)을 현문(玄文)이라 하고 계사(繫辭)를 오사(五辭)라 하고 설괘(說卦)를 현수(玄數)라 하고 서괘(序卦)를 현형(玄衡)이라 하고 잡괘(雜卦)를 현착(玄錯)이라 하였다.

73) 적현(赤縣) : 중국(中國). 전국 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중원(中原) 지방을 ‘신주적현(神州赤縣)’이라고 일컫은 데에서 유래하였다.

74) 사슴 : 천하 권력을 비유함.

徒爲是競爭 부질없이 이렇듯 싸움만 하네.

好消息 좋은 소식

看觀辨玄理 살펴보니 오묘한 이치를 분별하지만
誰知造化功 누가 조화의 공로인 줄 아는가!
貧家來朗月 빈곤한 집에도 밝은 달은 떠오르고
亂代有春風 어지러운 시대에도 봄바람은 불어오네.
山靜無愁鶴 산은 고요하여 근심에 잠긴 학이 없고
天長得意鴻 하늘은 커서 뜻을 얻은 기러기가 있네.
休言和氣餒 화합하는 기운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不久玩花紅 오래지 않아 붉은 꽃을 즐길 것이라.

挽鄭友冠樵 孝善 친구 정관초 효선 만사
(正月十七日 정월 17일)

惘然依病枕 서글피 병상에 누워
捫淚手緘辭 눈물을 닦으며 손으로 만사를 봉해 넣네.
世亂無高友 세상은 어지럽고 뛰어난 벗도 없으나
家貧有孝兒 집이 가난해도 효성스러운 아이가 있네.
偉才曾失路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일찍이 길을 잃었고
浩歎晚吟詩 크게 탄식하다가 늙어 시를 읊는다네.
車笠同懷誓 변치 않는 우정⁷⁵⁾ 함께 마음으로 맹서하더니
豈料永別離 어찌 영원히 이별할 줄 생각했나!

挽趙友潤九 虎溪 호계 벗 조윤구의 만사

南來消息落寒門 남쪽에서 온 소식이 쓸쓸한 집안에 떨어지니
回首虎溪夢一番 호계로 머리를 돌려 꿈을 한 번 꾸네.
居甲鄉中尊長老 으뜸가는 마을 안의 높은 원로
知申宅裡最元孫 지신(知申 : 승지) 집안에 최고 장손이었네.

75) 변치 않는 우정 : 원문 '車笠'은 월(越) 나라 사람들은 소박하고 다정해서 친구를 잘 사귀었는데, 처음 사귄 때 축사(祝辭)를 하기를, "그대는 수레를 타고 나는 샷갓을 썼더라도 나중에 만나면 수레를 내려 인사하고, 나는 걸어서 가고 그대는 말을 탔어도 나중에 만나면 내려서 인사해야 하리." 했다 한다. 빈부귀천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정을 뜻한다. 『太平御覽 卷406』

八旬遐壽同三世 팔순 고령으로 삼대가 함께 살았고
 萬里冥行是九原 만 리 저승 길 바로 구천이네.
 遠憶故人何處見 멀리 옛 사람을 추억하나 어디서 보랴!
 緘辭病枕淚頻捫 병상에서 만사를 봉해 넣으며 눈물만 자주 닦네.

其二 그 둘째
 (주성(胄晟))

夢想悠然白日寒 대낮 추위 속에 한가로이 꿈꾸듯 생각에 잠기니
 聞公大化淚依欄 공의 큰 교화를 듣고 눈물이 솟아 난간에 의지하네.
 裕昆逸計能行素 후손에게 덕행을 남겨주는 뛰어난 계획은 검소를 시행하였고
 濟衆良謨久鍊丹 백성을 구제하는 좋은 도모는 오래 환약을 짓듯이 하였네.
 託契芳隣今講世 교분을 의탁한 좋은 이웃 지금에 세상을 강론하였고
 隨香文廟舊同官 향을 올리던 향교에 옛적 관직을 함께 하였네.
 老成次第多零落 원로들이 차례로 대부분 돌아가시니
 後進從誰問四端 후배들 누구에게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단을 물을까!

十六日 水 廿三日 庚戌 陽 旱甚寒甚 未知來頭之年事 明日光昌里金道一壽甲 有請牒 虎溪挽章
 作成未付 胄晟詩同封

2월 16일 수요일 음력 1월 23일 경술(庚戌). 맑음. 기름이 심하고 추위도 심해 앞으로 농사가 어떨지 모르겠다. 내일 광창리(光昌里) 김도일(金道一)의 회갑이라 청첩장이 왔다. 호계(虎溪)의 만장을 지었으나 부치지 못하였다. 주성(胄晟)의 시를 같이 봉투에 넣었다.

卽事 이때의 일

西疇將有事 서쪽 밭에 장차 농사가 일어날텐데
 日早自前秋 날이 가물기를 지난 가을부터 하였네.
 年老常多慾 늙으니 항상 욕심이 많고
 病深却忘羞 병이 깊으니 도리어 부끄러움을 잊네.
 棋空全廢局 바둑은 부질없어 전혀 판을 벌이지 않고
 書遠每投郵 편지는 멀리 보내 늘 우체에 투여하네.
 避地終無處 어지러운 지역을 끝내 피할 곳이 없어
 風塵暗六洲 전쟁에 6대주가 암울하구나.

其二 그 둘째

閉戶擁茶爐 문 닫고 화로를 끼어 안고 있으니
 寥寥息巷誼 잠잠히 골목에 떠드는 소리 그친다.
 將籌稱杜預 장수의 계략은 두예76)를 일컫고
 儒評想茅坤 선비의 평가는 모곤77)을 생각하네.
 西滸連兵艦 서호에는 전함이 줄을 잇는데
 東鄰設壽樽 동쪽 이웃은 수연을 베풀는구나.
 芄芄芳苑樹 무성하게 동산의 나무 향기로운데
 近校送玄孫 가까운 학교에 현손을 보내네.

憶舊遊 옛날 나들이 추억
 (以上一百首 이상 백수)

九十年來意不如 구십년이 되도록 뜻대로 되지 않았고
 寒溪歸臥一茅廬 한계 떠 집 한 채에 돌아와 누워 쉬네.
 狎鷗亭畔頗歌鈇 압구정 물가에 불평 노래78)가 자꾸 들리고
 舞鳳樓南久住車 무봉루 남쪽에는 오래 수레를 머물려 두었네.
 詩上風流金正尉 시 속 풍류는 김정위79)가 뛰어나고
 夢中思想李尙書 꿈 속 사상은 이상서가 훌륭하네.
 知音畫向青山去 친구들이 청산으로 향해 가니
 此地有誰更起余 이 땅에 누가 있어 다시 나를 진작시킬까!

追憶白雲寺白戰 백운사에서 글재주 겨루기 추억

野壇鼓角帥冠陽 들에 쌓은 단에 북과 나팔로 관앙을 호령하고
 雲寺高籌白戰場 백운사의 고상한 계책은 글재주 겨루기 터라.

76) 두예(杜預) : 삼국 시대의 오(吳) 나라를 평정한 진(晉) 나라의 명장. 탁지 상서(度支尙書)를 지냈음. 일을 하면 반드시 앞뒤를 요량했으므로 실패하는 일이 적었다. 만년에 경적(經籍)에 침잠하여 『좌씨 경전집해(左氏經傳集解)』 등의 저술을 남겼다.
 77) 모곤(茅坤) : 명 세종(明世宗) 때의 학자. 자는 순보(順甫), 호는 녹문(鹿門). 특히 고문(古文)을 잘 하 였음. 저서에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등이 있음. 『明史 卷287』
 78) 불평 노래 : 객(客)이 주인에게 잘 대접받기를 바라는 노래. 전국 시대 제(齊) 나라 맹상군(孟嘗君) 의 식객(食客)인 풍환(馮驩)이 대접에 불만을 품고는 장협(長鋏 : 장검)에 기탁하여 박자를 맞추면서 보다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자, 맹상군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戰國策 齊策』
 79) 김정위 : 김호진(金浩鎭). 정위(正尉)를 지냈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동범(東凡).

元帥勁弓傳洞轍 원수는 강한 활을 수레에 전하고
 尙書明鏡照金章 상서는 밝은 거울에 황금 표창을 비춘다.
 風前屈宋開雄壁 시부 앞에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은 굳센 벽을 열었고
 名下曹劉落短墻 명에 아래에 조조(曹操)와 유비(劉備)는 낮은 담에 추락한다.
 最奇編師三奏捷 가장 기이한 것은 군대를 편성하여 세 번 승첩 아뢰는 것인데
 華城百里竟無光 화성 백리에 마침내 광채가 없구나!

金道一壽筵 김도일 수연
 (團團入佳 곳곳이 아름다움에 들었다)

偕老彼仙翁 함께 늙어가는 저 신선 같은 늙은이
 有兒復有孫 아이들도 있고 또 손자도 있네.
 良圃通學社 훌륭한 계획은 서당을 다녔고
 逸業臥耕村 편안한 일은 농촌에 누워 쉬는 것이라.
 桑梓依先壙 뽕나무와 가래나무⁸⁰⁾는 선영(先塋)에 기대어 있고
 蔥篋共壽樽 파와 죽순이 수연 축배에 함께 하네.
 君家名祖在 그대 가문에는 이름 난 조상이 있어
 餘蔭十清軒 십청헌⁸¹⁾께서 남기신 은덕이 있네.

十七日 木 廿四日 辛亥 陽 付慰狀于南面唐里趙立直宅護喪所 兼付挽詞二章 昌範往壽筵 封果而
 來 甚奇甚奇 堂有病母 先供厥祖 豈有獨食之理耶 少嘗而退

2월 17일 목요일 음력 1월 24일 신해(辛亥). 맑음. 위장(慰狀)을 남면(南面) 당리(唐里) 조립
 직(趙立直) 댁 호상소에 부치고 겸하여 만사(挽詞) 2장을 붙였다. 창범(昌範)이 회갑 잔치에
 가서 과실을 싸가지고 오니 매우 기특하며 기특하다. 집에 병든 어머니가 있는데 먼저 제 할아
 비에게 바치니 어찌 혼자 먹을 일이 있을 것인가! 조금 먹고 물렸다.

新春下弦 새 봄의 하현달

上元明月下弦虧 대보름 밝은 달이 하현으로 이지러지고

80) 뽕나무와 가래나무 : 부모가 살던 고향을 말함.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반(小弁)」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한다. [維桑與梓 必恭敬止]”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81) 십청헌 : 김세필(金世弼)의 호. 형조 판서를 지냈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 시호(諡號)는 문
 간공(文簡公)이다.

習習東風解凍時 온화한 동풍이 불어 얼음을 녹일 때라.
 丹旌西驛呈哀輓 서쪽 역에서 붉은 깃발로 애도하는 만장을 올리고
 花甲東隣送賀詞 동쪽 이웃 화려한 회갑에 축하 시가를 보내네.
 夙工踏實羞虛飾 일찍부터 한 공부는 진실을 실천하여 헛된 걸치레를 부끄러워하고
 素性扶眞厭假爲 타고난 성품은 진실을 찾고 가식적 행위를 싫어하네.
 充棟詩文多掠美 대들보에 닿는 많은 시문은 아름다움을 많이 뽑아냈는데
 有誰精草好登梨 누가 있어 정성껏 초고를 써서 판각에 잘 올려볼까!

斜暉 저녁 햇빛

白廬寒溪休倡稀 한계에 검소한 오두막집 영광이 적은데
 寂中夢想十分違 고요한 가운데 꿈꾸던 생각은 모두 어긋났네.
 貧門虛譽游翰墨 궁한 가문에서 헛된 명예 좇아 문필 가지고 놀다 보니
 晚代浮名免布韋 말세에 부질없는 이름 얻어 평민을 면하였네.
 依斗餘懷悲黑域 북두칠성을 의지하는 남은 회포는 암울한 세상을 슬퍼하고
 離家舊恨泣慈闈 집 떠난 오랜 한에 어머니께 눈물 흘리네.
 營爲未了身全老 할 일은 마치지 못했는데 몸은 다 늙었고
 咫尺西崦已夕暉 지척 서산에 이미 석양이네.

寂中吟 고요 속의 읊조림

澹泊門庭傍邃林 담박한 문안 뜰엔 곁에 깊은 숲이 있어
 器塵寂寂少相侵 시끄러운 풍진은 적적하여 침범함이 적네.
 陰崖樵廬餘寒峭 그늘 언덕에 나무하는 집엔 남은 추위가 드세고
 病里茶爐宿瘴深 병든 마을 차를 달이는 연기에 오랜 병이 깊구나.
 半日難看高士局 반나절은 고결한 선비 바둑을 감상하기 어렵고
 百年終廢古人琴 인생 백년 옛 사람의 비파 소리 마침내 없어지네.
 四隣幻作氈裘域 사방 이웃이 오랑캐 지역으로 바뀌고
 夜到稀聞月下砧 밤이 오니 달빛 속에 다듬이질 소리 드문드문 들리네.

其二 그 둘째

病枕破滄寂 병상에 누워 적막함을 깨니
 諺書雜美談 한글 책에 아름다운 얘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
 閒來須忘慾 한기해지자 잠시 욕심을 잊게 되고

老去便多慙 늙어가면서 부끄러움이 많구나.
 樵豎攻林兔 나무하는 아이는 산 토끼를 쫓고
 獵夫網野鶴 사냥꾼은 메추리에 그물을 놓네.
 對盤滋味薄 소반을 마주해도 맛있는 것이 적으니
 欲鑿養魚潭 물고기 기르는 못을 파헤쳐버리고 싶네.

貧居良箴 곤궁한 삶에 좋은 잠언

南崗京兆宅 남강 경조 대⁸²⁾
 貧業古如斯 곤궁한 살림은 옛날에도 이와 같았지.
 縱有詩成玉 비록 시문이 구슬을 이루었지만
 絕無地立錐 송곳 꽃을 만한 땅도 전혀 없었네.
 寒宵良婦泣 추운 저녁에는 착한 지어미가 눈물 흘리고
 遲日健夫飢 긴긴 날에는 건장한 지아비가 굶주렸네.
 爾似能修善 너 능히 선행을 잘 닦은 것 같으니
 將回降祿時 장차 복록이 내려올 때가 돌아올 거야.

十八日 金 廿五日 任子 陽 日寒一直 加日里戚孫金弘錫 與李正善同行 而看郎于申春植宅云 三
 峴李友世奏來訪而旋歸 夕雪不多

2월 18일 금요일 음력 1월 25일 임자(壬子).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가일리(加日里) 친
 척 손자 김홍석(金弘錫)이 이정선(李正善)과 함께 동행하여 신춘식(申春植) 집에서 신랑을 보
 았다고 한다. 삼현(三峴) 친구 이세주(李世奏)가 찾아 왔다가 되돌아갔다. 저녁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幽居 二首 그윽하게 거처함. 두 수
 (皆入佳境 모두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감.)

幽築數椽背漢江 한강을 뒤로 하고 서까래를 몇 개를 올려 그윽하게 집을 짓고.
 堅氷野渡廢徒杠 얼음이 단단해 들처럼 건너니 걷는 교량은 버려두네.
 松壇雲邃移癯鶴 소나무 우뚝하여 구름이 깊게 걸리자 날씬한 학이 오고

82) 경조 대 : 신중목 자신의 집을 말함. 신중목의 고조 신기경(愼基慶)은 과천 현감, 그리고 한성부 우
 윤을 역임하였다.(『과천향토사』 상, 과천문화원, 1993. 444면). 경조는 서울 또는 서울 근교를 말하
 므로 신기경의 관직에 의거하여 이렇게 불린 것이다.

篁砮霜寒警老鷹 대나무가 있는 섬돌에 서리가 차가워서 늙은 개를 경계시키네.
 病榻高吟詩鬼泣 병상에서 큰 소리로 읊으니 시 귀신이 울고
 壽隣痛飲酒軍降 장수하는 이웃집에서 통렬히 마시니 술꾼들이 항복하네.
 三章鳴鹿懷人近 녹명편(鹿鳴篇)⁸³⁾ 3장에 그리운 사람이 가까이하나
 空谷生芻阻喜躑 빈 골짜기 싱싱한 풀 먹이기에⁸⁴⁾ 기쁜 발자국 소리를 막는다.

其二 그 둘째

人生九十是稀年 인생 구십이면 보기 드문 나이인데
 年少謂余也學仙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신선을 배운다고 하네.
 西周日月青山下 서주 시대 해와 달은 청산 밑에 있고
 東魯春秋白髮前 동쪽 노나라 춘추는 백발 앞에 있네.
 松根泉冽要修井 소나무 뿌리에 샘이 차가워서 우물을 쳐내야 하고
 桑下土肥重貰田 뽕나무 아래는 땅이 비옥해 밭에 세가 무겁네.
 陽界寄存滋味沒 인간 세상에 붙어 생존하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
 晝無與話夜無眠 낮엔 함께 이야기할 이 없고 밤엔 잠이 안 오네.

自歎 혼자서 탄식함

聞道姜翁久釣璜 듣자니 강태공(姜太公)은 오랫동안 황계(璜溪)⁸⁵⁾에서 낚시질하다가
 一朝牧野任鷹揚 하루아침에 목야에서 응양장군(鷹揚將軍)⁸⁶⁾을 맡았다네.
 老驥伏櫪志猶遠 늙은 말은 마판에 얹드렸으나⁸⁷⁾ 뜻은 오히려 원대하고
 飢蠶窮傭謀亦長 굶주린 말이 품팔이에 곤궁하나 지모는 역시 훌륭하네.
 陳平如玉初年困 진평⁸⁸⁾은 옥과 같으나 초년은 곤궁했고

83) 녹명편(鹿鳴篇) : 『시경』의 편 이름. 신하와 아름다운 손을 모아 잔치하는 노래이다.

84) 빈 골짜기 싱싱한 풀 먹이기에 : 현자를 머물게 하려 함을 말함. 『시경(詩經)』 「소아(小雅) 백구(白駒)」에, “깨끗한 흰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섰네. 싱싱한 풀 한 다발 베어 먹이니, 그 사람이 옥 같도다.(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에서 온 말인데, 이 시는 어진 이를 자기 집에 오래도록 만류할 수 없어 그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다.

85) 황계(璜溪) : 반계(磻溪)의 이칭. 태공 망(太公望)이 이곳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황옥(璜玉)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컫는다.

86) 응양장군(鷹揚將軍) : 강태공이 날랜 장군이 됨을 말함. 응양(鷹揚)은 매가 하늘로 치솟는 모양으로 『시경』 「大雅 大明」에 “태사 상보가 이때에 새매처럼 날래도다(維師尙父 時維鷹揚)”에서 유래한 것이다.

87) 늙은 말은 마판에 얹드렸으나 : 재능(才能) 있는 인물(人物)이 나이가 들어 뜻을 펴지 못하고 궁지(窮地)에 빠짐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88) 진평(陳平) : 한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창업 공신. 뒤에 여씨(呂氏)의 난을 평정하고 문제(文帝)를 영입한 승상(丞相)이다.

伯起辭金後世昌 백기는 금을 물리치고⁸⁹⁾ 후세에 창성하였네.
 奈何嗔啞愚山子 어찌하여 나 우산자가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어
 歸臥寒溪欲晦光 한계에 돌아와 누워서 광채를 감추려 하는가!

其二 그 둘째

游子怨風霜 떠돌아다니는 자는 풍상을 원망하고
 胸中百感縑 가슴 속에는 백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
 漢朝劉向老 한나라 조정에서 유향⁹⁰⁾은 늙어갔고
 楚澤屈原行 초나라 강가에 굴원⁹¹⁾은 귀양을 갔네.
 萍路多離夢 부평초 인생길에 헤어지는 꿈을 많이 꾸고
 桃園絕舊盟 도원에서 옛 맹세를 끊어버리네.
 得錢宜此世 돈을 얻으면 지금 세상을 잘 지내는데
 何用秘書卿 내 비서경⁹²⁾ 벼슬을 어디에 쓸 것인가!

其三 그 셋째

雲過太虛後 구름이 태허를 지난 뒤에
 此生不遇時 내 삶이 때를 만나지 못하였네.
 抱琴知己矣 거문고를 지녔으나 알아주는 친구는 끊어졌고
 扶杖問何之 지팡이를 잡고 묻노니 어디로 갈까!
 寂寥香社軸 향사⁹³⁾의 시축(詩軸)은 적막해졌고
 剝落寒山碑 한산사(寒山寺)⁹⁴⁾의 시비(詩碑)는 닳아 떨어졌네.

89) 백기는 금을 물리치고 : 백기(伯起)는 동한(東漢) 양진(揚震)의 자(字). 형주 자사(荊州刺史)로서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아 밤에 가져오는 뇌물을 물리쳤다. 동래태수(東萊太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길 이 창읍(昌邑)을 통과하게 되었다. 창읍령(昌邑令)은 양진이 추천한 사람이었는데, 밤에 금 열 근을 바치면서 밤이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하자, 양진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서, 물리쳤다는 고사가 전한다.

90) 유향 : 한 종실이자 대유학자. 성제(成帝) 때 외척 왕씨가 정권을 독단하고 큰 재변이 자주 일어나자, 재변이 일어난 이유가 외척의 세력이 강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홍범오행전론(洪範五行傳論)』을 지어 천자에게 올림으로써 왕씨의 권력을 빼앗도록 유도하였는가 하면, 왕릉의 규모를 너무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잘못을 간하는 등 여러 번 충언을 올렸으나 천자가 나약하여 한 번도 그의 말을 시행하지 못했다.

91) 굴원 : 중국(中國) 전국(戰國) 시대 초(楚)나라의 정치가(政治家)이자 시인(詩人). 이름은 평(平).

92) 비서경 : 비서원(秘書院) 시종경(侍從卿 : 秘書院 長官)을 지낸 신종목 자신을 말함.

93) 향사 : 당(唐) 나라 때 백거이(白居易)가 향산(香山)의 중 여만(如滿)과 함께 결성한 모임인 향화사(香山社)의 준말.

94) 한산사(寒山寺) : 소주(蘇州)에 있는 절 이름.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때 창건되었다. 당(唐)나라

卷中多好話 시문 속에 좋은 얘기가 많이 있으니
先進盡吾師 선배는 모두 나의 스승님이네.

十九日 土 廿六日 癸丑 陽 夜雪不多 今聞則弘錫正善兩人 留宿春植家 看郎而去 郎子不在家 入京故也 朝飯則大宅云耳 李郎鍾彬出張之路 歷訪而往大宅 夜雪

2월 19일 토요일 음력 1월 26일 계축(癸丑). 맑음. 밤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지금 들으니 김홍석과 이정선 두 사람이 신춘식의 집에서 유숙하고 신랑을 보러 갔는데 신랑은 집에 없었다. 서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침밥은 큰댁에서 먹었다고 한다. 신랑 이종빈(李鍾彬)이 출장 가는 길에 여러 곳을 들렀다가 큰집에 갔다. 밤에 눈이 왔다.

夕陽 석양

(仍用前韻 그대로 앞의 운을 따라 씀)

彳亍危形短杖持 띠뚝거리며 위태로운 모습에 짧은 지팡이를 짚고
行人前路夕陽時 행인의 앞길에 석양이 될 때라.
箕疇康福傳三曰 기주⁹⁵)의 건강의 복⁹⁶)은 세 번 재에 말하였고
晉代華名誦八之 진나라 시대의 화려한 이름으로 여덟 명을 칭송하네.
病沈未省先君墓 병이 깊어 아버지 묘를 아직 돌아보지 못했는데
文富移銘遠祖碑 문장이 풍성하여 먼 조상의 비명을 바꾸네.
至今猶有英雄漏 지금껏 오히려 영웅이 눈물 흘리고 있으니
諸葛書中談出師 제갈량(諸葛亮)의 글 중에 출사표(出師表)를 이야기하네.

晨坐 새벽에 앉아서

破巢之下卵無完 파괴된 둥지 아래에 알은 온전한 것이 없고
萬想徘徊意未寬 온갖 생각 떠돌아 뜻은 관대하지 못하네.
白屋兒啼長夜曙 간소한 집에 아이 울음소리는 긴 밤에 새벽까지 가고
青天鴈叫早春寒 푸른 하늘에 기러기 울음소리에 이른 봄이 차갑다.

태종(太宗) 때 선승(禪僧)이자 시명(詩名)이 높았던 한산(寒山)이 주지를 맡았다고 하여 한산사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95) 기주 : 은(殷)나라 기자(箕子)가 주나라 무왕(武王)에게 진수했다는 정치 도덕의 아홉 원칙인 홍범구주(洪範九疇).

96) 건강의 복 : 홍범구주 오복(五福)의 세 번째의 강녕(康寧)을 말함.

日照迷窓梅影瘦 해가 비쳐 창에 어른거리는 것은 매화 그림자가 수척하고
 風嘯短塢竹聲乾 바람이 부는 작은 제방은 대나무 소리가 매마르다.
 學母納女能知供 학부모가 딸을 넣어 능히 이바지할 줄을 아는데
 雪中茶菜始登盤 눈 속에 씬바귀나물 비로소 밥상에 올랐네.

漫吟 한가히 읊음

風雪寒溪一草亭 바람과 눈 속의 한계의 띠집 정자 하나
 茶爐藤榻擁松扃 등나무 평상에 차를 끓이며 소나무 문을 닫네.
 晉山依石陶翁醉 진나라 산에서는 돌에 기대어 도연명(陶淵明)이 취했고
 楚澤彈冠屈子醒 초나라 강가에서는 관을 털며 굴자(97)가 깨었네.
 過夢靑雲曾歷職 청운을 꿈꾸어 벼슬을 지낸 적이 있고
 漫工白首已窮經 부질없이 센 머리에 공부하여 이미 경전을 연구하였네.
 山庭澹泊無人到 산골 뜰은 담박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坐似枯禪却忘形 앉아서 고선(98)처럼 내 몸을 잊노라.

其二 그 둘째

門音吹火烹茶朝 문에서 불을 붙어 달이는 아침
 雪瘴回春竟未消 눈 속에 병을 회복하려다거 끝내 없애지 못했네.
 遠驛烟流頻漲汽 멀리 역에서 연기가 퍼져서 자주 부풀어 오르고
 大江氷固不通潮 큰 강에 얼음이 굳게 어니 밀물이 들어오지 않네.
 兒齡滿七心常悵 아이 나이 만 7세가 되었으나 마음에 늘 겁이 많고
 翁齒無雙意何驕 늙은이 치아가 둘도 없어도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가!
 三宴壽家餘歷在 세 번 수연이 있었던 집에 나머지 치러야 할 것이 있으니
 街寒隣誼隔籬招 거리는 쓸쓸하고 이웃은 정리가 있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부르네.

其三 그 셋째

漢瀨梅樹幾花開 한강 가 매화나무에 몇 송이 꽃이 피었는가!

97) 굴자(屈子) : 굴원(屈原)에 대한 존칭.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시인. 이름은 평(平), 원(原)은 자. 초사(楚辭)의 대가(大家). 모함을 입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작품은 모두 율분이 넘쳐 고대 문학에서는 드물게 서정성을 띠고 있다. 그의 「어부사(漁父辭)」에서 “세상사람 다 취했으나 나 홀로 깨었다(世人皆醉我獨醒)”라고 하였다.

98) 고선(枯禪) : 세상사 다 잊고 앉아서 참선(參禪)만 하는 승려.

次第春風隨報來 차례로 봄바람이 향기를 따라 오네.
 飼牛草閣晨燈邃 소 먹이는 외양간에는 새벽 등이 아득하고
 聞大柴門夜雪堆 개 짖는 사립문에는 밤 눈이 쌓였네.
 晉代七賢徒誕說 진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⁹⁹은 다만 말로 세상을 현혹하고
 唐家四傑盡高才 당나라 사걸¹⁰⁰은 뛰어난 재주를 다하였네.
 最惜芄芄芳苑木 가장 안타까운 건 무성하게 자라는 향기로운 동산의 나무를
 老成俱逝有誰培 늙어서 다 사라지도록 누가 배양하는가!

其四 그 넷째

石逕崎嶇十里賒 돌길이 험하디 험해 10리가 아득한데
 樵擔初返日將斜 나무해 짊어지고 비로소 돌아오니 해가 거의 기울었네.
 堆雪北林封蟻垤 눈 쌓인 북쪽 숲에 개밧독이 쌓이고
 向陽南院鬪蜂衙 양지 바른 남쪽 뜰에 벌집이 생겼네.
 夜月偏多紅袖席 달빛은 미인들 자리에 유독 많고
 春風不到白頭家 봄바람은 벼슬 없는 집에 오지 않네.
 擁爐病榻餘寒峭 화로를 끼고 있는 병상에는 남은 한기가 매서워
 分付書童更煮茶 글 배우는 아이에게 분부하여 다시 차를 끓이게 하네.

廿日 日 廿七日 甲寅 陽 是日雨水也 直員自黑石里來面 喜其無故 故筆二柄持來 在昨日記中 日
 寒終不解

2월 20일 일요일 음력 1월 27일 갑인(甲寅). 맑음. 오늘은 우수이다. 직원이 흑석리에서 와서
 대면하였다. 그 무고함을 기뻐하였다. 좋은 붓 두 자루를 가지고 왔다. 어제 일기 중에 날씨가
 춥다고 한 것이 종일 풀리지 않았다.

送孫婿李鍾彬心貺 손자사위 이증빈을 보내며 마음을 줌

十世相傳壯義坊 십대에 걸쳐 전한 장의방 집
 長安咫尺傍仙潢 장안 지척에 곁에는 선황(仙潢 : 왕릉)이 있네.

99) 죽림칠현(竹林七賢) : 혜강(稽康) · 완적(阮籍) · 완함(阮咸) · 산도(山濤) · 상수(向秀) · 유령(劉伶) · 왕
 융(王戎)을 말함. 이들은 노장(老莊)의 고답적인 풍모로 교류하는 모임을 맺었다.

100) 사걸 : 초당(初唐)의 시인(詩人) 네 사람. 왕발(王勃) · 양형(楊炯) · 노조린(盧照隣) · 낙빈왕(駱賓王)
 을 말함.

大君崇閣臨瀛宅 대군은 높은 별열에 물가에 임한 집이고
 元老淸風渡漢鄉 원로는 청풍을 지니고 한수를 건너 고을을 잡았네.
 公校多年馴馬伯 공립학교에서 다년간 배운 사람이고
 吾門昔日委禽郎 우리 문중에 옛날 혼인 폐백을 보낸 사내라.
 闊步前程餘萬里 확보하는 앞길은 만 리나 남았는데
 哲令名藝遠流芳 맹세하여 훌륭한 재주 멀리까지 아름다움을 미치게 하네.

送李郎後餘思 이랑을 보낸 후 나머지 생각

送郎悵望漢西瀕 이랑을 보내고 울적함에 한강 서쪽 강변을 바라보니
 佐令傭銀強屈身 고용 은전을 돕게 하여 억지로 몸을 굽히게 하였네.
 遼憶得多貧窶友 멀리 생각함에 가난한 벗들이 늘 많고
 相逢偏少老成人 서로 만나는 것은 노련한 원로가 유독 적구나.
 微誠茶童將雪夜 차 끓이는 아이를 불러 타일러 눈 내릴 밤에
 商量芳品未花春 향기로운 품종을 헤아려 두려하나 아직 꽃피는 봄이 되지 않았네.
 氣儀氣象無影響 거동과 모습에 영향은 없으나
 何時復見息風塵 어느 때에 풍진이 그치는 것을 다시 보겠는가!

得蕭字走筆 소(蕭) 글자 운으로 시를 지어 붓을 달려 씀

晴窓拈韻坐無聊 맑게 갠 창 앞에서 시운(詩韻)을 찾아 무리히 앉았으니
 門庭澗寂便息器 집 뜰은 고요하여 소란함이 사라지네.
 三刀違路空驚夢 칼 세 자루(101)가 인생행로에 어긋나 부질없이 꿈에 놀라고
 五斗供家晚折腰 다섯 말을 월급으로 집에 이바지하니 늙어 허리가 꺾어지네.
 老楸體闊截爲局 늙은 개오동나무 몸체가 넓으니 잘라서 바둑판을 만들고
 惡竹心空斷作簫 못 생긴 대나무 속이 비었으니 잘라 통소를 만드네.
 讀罷寒燈荊軻傳 쓸쓸한 등불 아래 형가전(102)을 독파하니
 秋風別地特蕭蕭 가을바람에 이별하는 처지가 특히 쓸쓸하네.

101) 칼 세 자루 : 출세할 꿈을 말함. 진(晉) 나라 왕준(王濬)이 칼 세 개가 서가래에 걸려 있는 꿈을 꾸고 다시 칼 하나가 더해지는 꿈을 꾸었는데, 삼도(三刀)는 주(州)를 뜻하고 더해진 것은 익(益)을 의미한다는 해몽대로 익주 자사(益州刺史)에 부임했던 고사가 있다. 『晉書 王濬傳』

102) 형가전 : 『사기(史記)』의 「형가열전(荊軻列傳)」을 말함. 형가는 전국 시대의 자객. 연(燕)나라 태자인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시황제(秦始皇帝)를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舊意 옛 뜻

倦披新曆撫星辰 나른하게 새 책력을 들추어 별을 생각해 보니
 丹莢四千六百春 붉은 명협(莫莢)¹⁰³이 사천 육백 년이로구나.
 孟母斷機曾教子 맹자 어머니가 베틀을 잘라 일찍이 아들을 가르쳤고
 陸郎懷橘早爲賓 육량은 귤을 품어¹⁰⁴ 일찍이 손님이 되었네.
 大家模範多名祖 큰 가문이 모범이 되는 것은 이름난 조상이 많기 때문이요
 晚代風流少逸民 말년의 풍류는 뛰어난 백성이 적구나.
 當日青邱無轍跡 당일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흔적이 없는데
 仲尼何地問前津 공자는 어디서 앞의 나무를 물을 것인가!

暮歸 저녁에 돌아옴

遠眺無心短杖牽 멀리서 무심히 바라보며 짧은 지팡이를 끌고
 蓮菴咫尺獨歸禪 연암은 지척인데 홀로 돌아와 참선을 하네.
 三分籬網青山下 셋으로 나뉜 울타리 그물 청산 밑에 있고
 七里樵車白日邊 칠리의 장작 수레 밝은 해 가에 있네.
 風動名花終委地 바람에 아름다운 꽃이 흔들려 마침내 땅에 떨어지고
 露沾凡草亦希天 이슬은 평범한 풀을 적시고 역시 하늘에 바라네.
 亂來景物詩思拙 어지러운 때 풍물은 시 생각이 졸렬하나
 自是文章不聳肩 이로부터 문장에 어깨를 으쓱이지 못하리.

廿一日月 廿八日 乙卯 陽 日寒一直 柴政沒策 吉範不健 製藥誠之 康誥曰 少年多病 極登上壽¹⁰⁵ 信其然乎 祝天而已 寒突經夜 何以圖生 此何人斯

2월 21일 월요일 음력 1월 28일 을묘(乙卯).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딸나무에 대해 대

103) 명협(莫莢) : 연대(年代)를 말함. 요(堯) 임금 때 조정 뜰에 났다는 서초(瑞草). 초하룻날부터 매일 한 잎씩 나서 자라다가 보름이 지나면 한 잎씩 지기 시작하여 그믐이 되면 말라 버린 까닭에 이것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다 한다. 따라서 역초(曆草)라고도 한다.
 104) 육량이 귤을 품어 : 어린이의 효도를 말함. 육적(陸績)이 6세 때에 원술(袁術)에게 갔는데, 귤(橘)을 내어 손님을 대접하였다. 육적이 하직하여 나오면서 절을 하는데, 귤이 품 안에서 떨어졌다. 원술이 웃으면서, “동자(童子)는 왜 귤을 품에 넣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머니에게 드리려 합니다.” 하였다.
 105) 康誥曰 少年多病 極登上壽 : 「康誥」에는 보이지 않고 「增修東萊書說」 권28에 “克登上壽者 盖以少年多疾之力也”라고 한 것이 보인다.

책이 없다. 길범(吉範)이 건강하지 못해 약을 지어주고 타일렀다.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소년은 병이 많아야 최상의 수명에 올라간다.” 하였는데, 진실로 그러할 것이니 하늘에 빌 뿐이다. 차가운 구들장에 밤을 지새니 어찌 살기를 도모할까! 이 어떠한 사람인가!

觀世變 세상의 변함을 봄

夢裡滄桑四十年 꿈속에서 상전벽해 사십년
 一天明月幾虧圓 한 하늘의 밝은 달이 몇 번이나 기울었다 등굴었는가!
 憑虛濶步空樓閣 허공에 서서 빈 누각에 환보하고
 踏實眞工好輿權 현실을 딛고 아름다운 시작으로 참된 공부를 하네.
 海上同來童五百 바다 위로 동자 오백 인이 함께 오고
 畫中無用馬三千 그림 가운데 말 삼천 필은 쓸모가 없네.
 傍人休說聯盟術 옆 사람은 연맹술을 말하지 말라.
 六里靑山落眼前 육 리 청산이 눈앞에 진다.

其二 그 둘째

大同天氣鴈隨陽 천기는 크게 같아 기러기는 별을 따르고
 廿四番風始發揚 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¹⁰⁶이 비로소 일어나네.
 唐朝往史兼儒佛 당나라 지나간 역사는 유학(儒學)과 불교(佛敎)를 겸했고
 漢代治謨雜霸王 한나라 다스리는 법은 패도(霸道)와 왕도(王道)를 섞었네.
 林蔘供藥靑囊重 숲 속 삼은 약으로 제공하자 청낭¹⁰⁷은 무겁고
 野薺登蔬白箸香 들에 냉이 나물 반찬 오르자 흰 젓가락이 향기롭네.
 徐揣鄭虔從此又 서서히 정건¹⁰⁸을 헤아리기를 이로부터 또한 하고
 故人餘想只誠堂 옛 사람이 남긴 생각은 집에서 성실히할 뿐이네.

106) 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 : 꽃이 필 절기에 맞춰 불어오는 바람. 소한(小寒)부터 곡우(穀雨)까지 모두 너 달, 8절기(節氣), 120일이다. 5일이 1후(候)이니, 합계 24후가 된다. 매 후마다 한 종류의 화신풍이 분다. 『荊楚歲時記』

107) 청낭(靑囊) : 약을 넣는 주머니, 또는 천문(天文)·복서(卜筮)·의술(醫術)에 관한 서적. 진(晉)나라 곽박(郭璞)이 곽공(郭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천문·복서·의술에 관한 책 6권을 넣은 푸른 주머니를 전해 받았다는 고사가 있다.

108) 정건(鄭虔) : 두보(杜甫)의 친구였던 광문 선생(廣文先生) 정건(鄭虔)으로, 시(詩)·서(書)·화(畫)의 3예(藝)에 능하여 정건삼절(鄭虔三絶)로 일컬어져 온다. 당 현종(唐玄宗)이 그의 재질을 아낀 나머지 그를 위해 광문관(廣文館)을 설치하고 박사(博士)로 임명하였는데, 두보의 ‘취시가(醉時歌)’ 중에 “광문 선생은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廣文先生飯不足)”라는 구절이 나온다.

其三 그 셋째

自惜曹劉俯短牆 스스로 애석한 건 조조(曹操)나 유비(劉備)나 작은 담장에 굽힌 것이고
 汝南月評落詩場 여남 월단평(月旦評)¹⁰⁹이 시 짓는 곳에서 추락하였네.
 數雁始回春未半 몇 마리 기러기가 비로소 돌아갔으니 봄이 반도 못 왔고
 一雞初唱夜分央 닭 한 마리 처음 울어 밤이 반을 지났네.
 薄俗流行無好漢 야박한 풍속 유행하여 좋은 사람이 없고
 遠書飛到太荒唐 멀리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매우 황당하네.
 世間物理誰能則 세상 만물 이치를 누가 능히 본받을까!
 蒙叟長歎亦望洋 몽수 [莊子] 가 오랫동안 역시 큰 바다를 바라보고 탄식하네.¹¹⁰⁾

其四 그 넷째

萬慮俱空一事無 온갖 생각 다 비우고 아무 일 없이
 隨時藥餌竟扶吾 때맞춰 먹는 약이 마침내 나를 부지하네.
 眞工終有心中妓 참된 공부 한답시고 결국 마음에 기녀 두니
 虛想遠征夢裏胡 헛된 망상 멀리 꿈 속 흉노를 정벌하네.
 炊竈乏薪寒婦立 뿔나무 없는 밥 짓는 부뚜막에 쓸쓸히 선 며느리며
 盤筵供悅稚孫趨 세면대에 수건을 들고 달려오는 어린 손자라네.
 農隣配給知何政 이웃 농가 배급에 정치가 어떤지 알겠으니
 活計定難衆口糊 살아가길 중에 여러 입에 풀칠하기가 정녕 어렵네.

其五 그 다섯째

浮生夢事該洪纖 떠돌이 인생 꿈같던 크고 작은 일들
 過境商量坐捋髻 지난 일 헤아리며 앉아 수염을 만진다.
 重恩沒世宜思償 무거운 은혜 죽는 날까지 당연히 갚기를 생각하고
 微怨經年却付譖 작은 원망 지낸 날은 곧 헛소리에 부쳐야지.
 向陽伏蟄頻離窟 벌을 향하는 칩거한 벌레는 자주 굴을 떠나고

109) 월단평(月旦評) : 후한의 허소(許劭)가 중형(從兄)인 허정(許靖)과 달이 새로 바뀔 때마다 향리의 인물들에 대해서 했던 품평. 그 뒤로 여남(汝南)에 월단평(月旦評)의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後漢書 卷68 許劭列傳』

110) 큰 바다를 바라보고 탄식하네 : 좁은 소견으로는 높은 식견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함. 『장자(莊子)』 「추수(秋水)」에 황하 귀신인 하백(河伯)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처음 이르러서 자신의 좁은 소견을 탄식하며 북해 귀신에게 심경을 고백하는 [望洋向若而歎]” 내용에서 유래하였다.

避雪寒禽浴過簾 눈을 피하는 추위 속의 새는 합쳐 밭을 지나가네.
 到此病軀多曠感 이제 와서 병든 몸 쓸데없는 감회 많은데
 老桑古栢舊閭閻 늙은 뽕나무 오래된 측백나무는 옛 마을 그대로구나.

廿二日 火 廿九日 丙辰 陽 日寒一直 昌範南草一封進供 而經月素饒 山中之僧 何以過此否 時世
 然矣

2월 22일 화요일 음력 1월 29일 병진(丙辰). 맑음. 차가운 날씨가 한결같다. 창범(昌範)이
 담배 한 봉지를 바쳤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채소 반찬만 먹으니 산의 중이라도 어찌
 이보다 지나치겠는가! 시대가 그러한 것이다.

送五觀詩僧歸白蓮菴 백련암으로 돌아가는 시승 오관(五觀)을 전송하며

七里西岡送五觀 칠 리 서쪽 언덕으로 오관을 보내니
 白蓮菴古閣三韓 백련암 오래되어 삼한부터 있었지.
 靑山僧老松年大 청산에 중은 늙고 소나무 나이 많은데
 白塔龍盤石氣寒 백탑은 용의 기운이 서리고 돌 기운은 차도다.
 賢宰待人收玉帶 어진 재상은 사람을 기다려 옥대를 쓰고
 忠臣戀主解金冠 충신은 임금을 사모함에 금관을 풀어놓네.
 斯翁曾記關東路 내가 일찍이 강원도에서 기문을 지었는데
 栢上留詩已許刊 측백나무 위에 남긴 시 이미 간행했으리.

其二 그 둘째

天畔西金剛 하늘가 서쪽 금강산은
 形形盡好顔 모양마다 예쁜 얼굴을 극진히 하였네.
 海東奇觀地 해동의 기이한 경관이며
 漢上最名山 한강 가의 최고 명산이라.
 斷壑蹤難涉 끊어진 골짜기 걸어 건너가기 어렵고
 危巖勢莫攀 높은 바위 산세에 오르지 못 하겠도다.
 禪始千丈出 선대는 천길이나 솟아 있으니
 雲日是中間 구름 속의 해는 이 가운데 있구나.

南泰嶺 남태령

冠山南泰嶺 관악산 남태령

北有漢陽都 북쪽에 도읍 한양 있네.
 玉輦先王路 정조 대왕의 수레 다니던 길에
 石床古佛圖 평상 같은 돌에 옛 불상 그려있네.
 壑産三星馬 골짜기는 삼성(三星)의 말을 낳고
 壁留九尾狐 절벽은 구미호¹¹¹)가 머무르네.
 此地雲誰管 이 곳 구름 감상은 누가 맡는가!
 寒溪固大夫 한계의 고루한 대부인 나일세.

富林館 부림관

富林館外百家塵 부림관(富林館) 밖에 오갓 가게
 依舊人煙六百年 예전대로 인가의 밥 짓는 연기 육백년이나 되었네.
 玉道羽旄秋草沒 정조 대왕 행차길 깃발은 가을 풀에 파묻히고
 金陵宮闕夕陽連 금릉 같은 궁궐은 석양이 이어지네.
 四仁村邃青山下 사인촌¹¹²)은 깊숙이 청계산 아래에 있고
 五聖祠高白石邊 오성을 모신 사당은 높이 흰 바위 가에 있네.
 雨露風霜時節變 비바람 이슬 서리 겪어 시절이 변하고
 居民自是想先天 주민들은 본래 태고(太古) 시대 사람들인가 하네.

寒溪村 한내 마을

寒溪北築傍田園 한계 북쪽 축대에 전원을 끼고 있고
 九曲清流抱一村 구곡의 맑은 물이 온 마을을 감싸 흐르네.
 琴碁逸興連師友 거문고와 바둑의 즐거운 흥취로 스승과 제자를 연이고
 詩禮賢聲教子孫 시와 예의 어진 명성으로 자손을 가르친다.
 十世相傳京兆宅 열 대에 걸쳐 우리 경조의 집안이 전해졌고.
 百年同住南宮門 백 년 동안 남궁씨(南宮氏) 집안과 같이 살았네.
 居人只望兵塵息 주민들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物外烟霞永不諼 속세 밖 이상향 자연을 영원히 잊지 못하네.

111) 구미호 : 남태령을 여우고개(狐峴)라고도 부르는 전설에 의한 것이다.

112) 사인촌 : 최씨사인촌(崔氏四仁村)을 말함. 한계구곡시의 구곡(九曲) 중에 최씨사인촌(崔氏四仁村)을 읊은 시가 있다.

廿三日 水 三十日 丁巳 陽 日寒一直 眩氣闐發 終日委臥 所供之物 無一適口 難可扶力 自憐奈何 夕天陰 夜來之雪 今年內最多

2월 23일 수요일 음력 1월 30일 정사(丁巳).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현기증이 갑자기 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상에 오르는 음식이 한 가지도 입에 맞는 것이 없다. 힘을 부지할 수 없으니 스스로 가련함을 어찌하겠는가! 저녁에 날씨가 흐려졌다. 밤에 내린 눈이 올해 온 것 중에서 가장 많았다.

憶壽範 수범을 생각하며
(情辭俱盡入佳 뜻과 글이 함께 아름다운 데로 들었다.)

萬里殊方遠別離 만 리 타향으로 멀리 이별하니
老懷悵悵惱相思 늙은이 마음에 섭섭하여 근심스레 그리워하네.
蘇秦窮道人多厭 소진¹¹³의 도가 곤궁해지자 미워하는 사람 많았고
荀彧奇才我不知 순욱¹¹⁴의 재주가 기이함을 나는 모르겠네.
妻子情深還亦可 처자의 정이 깊음은 그래도 괜찮지만
弟兄誼重顧何遲 형제는 정리가 중요한데 어찌 이리 늦는가.
最中自有難堪地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절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病母依閨且幾時 병든 어머니 마을 문에서 기다린 지 또 얼마인가.

書窠 서재

晚年鹿洞築書窠 만년에 사슴 노는 동네에 서재를 지으니
五畝菟裘是樂窩 다섯 이랑 집터는 여생 보낼¹¹⁵ 즐거운 집이라네.
雉兔幽林連北谷 꿩과 토끼 사는 깊은 산림은 북쪽 골짜기로 이어지고
鷄豚荒柵接南坡 닭이나 돼지 기르는 우리는 남쪽 언덕에 닿아 있네.
近水門庭明月在 물 가까운 문 뜰에는 밝은 달이 떠있고
傍山籬落白雲多 산 곁의 울타리에는 흰 구름 많네.

113) 소진 : 전국시대의 정치가. 하남 낙양 사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6국 합종책(合縱策)을 주장하여 6국의 재상이 되어 진(秦)나라에 대항하였다.

114) 순욱 : 후한 말 사람. 어려서부터 왕좌(王佐)의 인재로 일컬어졌는데, 평생토록 난세(亂世)를 평정할 뜻을 품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조조(曹操)를 돕다가 마침내는 핍박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三國志 卷10 魏書 荀彧傳』

115) 여생 보낼 : 원문 '菟裘'는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지명인데, 은거지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11년」에 “은공이 ‘내가 장차 토구 땅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늙으리라.’ 하였다.” 하였다.

物外魚樵餘地足 물외의 어부와 나무꾼에게는 남은 땅이 충분하고
一杖棲息阻干戈 지팡이 하나 낚을 땅이면 전쟁을 막을 만하네.

達觀 달관

世間浪說向仙多 세간의 떠도는 말 중에 신선에 대한 것이 많은데
玩局何山客爛柯 바둑을 즐기며 어느 산에서 도끼자루 썩어가는 객이 되었는가!
歷代過雲千古昨 지나는 시대는 스쳐가는 구름과 같아 천고가 어제이고
浮生流水百年俄 부질없는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 백년이 잠깐이네.
如夢如眞徒有此 꿈인 듯 참인 듯 다만 이것이 있을 뿐이니
宜歌宜哭亦無他 노래하든 곡하든 또한 다를 것이 없네.
達觀由來誰得似 달관의 유래를 누가 얻었는지
伯倫酒頌入吟哦 백륜¹¹⁶의 주덕송(酒德頌)이 읊조림 속에 들어갈 만하구나.

春雪 봄눈

誰家堂號是百和 누가 당호를 백화라고 했는가!
二月春風解凍莎 이월의 봄바람이 얼은 때를 녹인다.
樵客持車雲出袖 나뭇꾼 수레 끄니 소매에서 구름이 나오고
漁翁收釣雪盈蓑 고기잡이 늙은이 낚시대 거두니 눈이 도롱이에 가득하구나.
英雄擬角連飛檄 영웅은 각축을 벌여 연이어 격문이 날고
貧賤違心放浩歌 빈천자는 마음에 어긋나 호탕한 노래를 부르네.
九十年來何事業 구십년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
鬢毛剩得鏡中蟠 귀밑머리만 부쩍 늘어나 거울 속에는 하얀 늙은이네.

逢春 봄을 만남

群生萬物喜逢春 여러 생물과 만물이 봄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祜節東皇已御輪 좋은 시절 동황¹¹⁷이 벌써 세월의 바퀴를 몰았네.
隨陽遵陸聞江鴈 별 따라 육로로 강 기러기 소리 들리고
逐氣浮空見野鶻 기운 따라 허공에 들 메추라기 보이네.

116) 백륜 : 유령(劉伶)의 자(字). 진(晉)의 패국(沛國) 사람. 완적(阮籍) 등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서 술을 좋아하여 항상 술을 지니고 다녔으며 주덕송(酒德頌)을 지어 술을 예찬하였음. 『晉書 卷49』

117) 동황 : 봄을 주관하는 신.

宜龔宜啞當今日 의당 귀머거리로 병어리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니
 誰毀誰譽聽古人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리랴.118) 고인의 말을 들어야하네.
 花柳東頭詩上老 꽃과 버들이 있는 동쪽머리에서 시 짓는 늙은이
 緣何閉戶送良辰 무엇 때문에 문 걸어놓고 좋은 때를 보내나.

二月小 이월이 작음

伏蟄生心 잠자던 벌레 마음이 살아나고
 歸鴻得意 돌아가는 기러기 뜻을 얻었네.
 凡物如此 무릇 동물이 이와 같은데
 況是人事 하물며 사람의 일이라!

二月 廿四日 木 一日 戊午 陽 雪晴 日寒一直 眩氣未霽 良苦良苦 見李億寧書 聞其妻患 南草四
 封惠念

2월 24일 목요일 음력 2월 1일 무오(戊午). 맑음. 눈이 그쳤다.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현기
 증이 사라지지 않아 진실로 고통스럽다. 이억령(李億寧)의 편지를 보고 그 처의 병환 소식을
 알았다. 담배 4봉을 가지고 왔다.

與書軒打話 서헌과 이야기함

書軒問病爲掾衣 서헌이 문병 와서 옷매를 정돈하고
 微雪平朝關板扉 가는 눈 내리는 아침에 사립문을 여네.
 春樹欲花先氣色 봄 나무는 꽃을 피우려 먼저 빛을 내고
 曙天無月自光輝 새벽 하늘은 달이 없어도 저절로 빛나네.
 青年有限今君老 젊은 날은 한이 있고 지금 그대 늙었으니
 黃耆雖生昔我非 늙은이 비록 살아있으나 옛날의 내가 아니네.
 獻發居然元朔改 새해가 되어119) 어느덧 연도가 바뀌니
 陰陽從此不停機 음양이 이를 따라 작용을 멈추지 않는구나.

118)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리랴 : 「논어」 위영공(衛靈公) 편에, “子曰 吾之於人也 誰毀誰譽 如有所
 譽者 其有所試矣 斯民也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에 의거한 것임.

119) 새해가 되어 : 「초사(楚辭)」 「초혼(招魂)」의 난(亂)에 “해가 새로이 이르고 봄기운이 발양하건
 만, 나만 혼자 쫓겨나서 남으로 가네.(獻歲發春兮 汨吾南征)”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贈李震九 이진구에게 줌

課日君行過我門 그대 일과로 다니며 내 문 앞을 지나는데
 病中新燧改三元 병중에 새 불씨¹²⁰가 세 번이나 바뀌었네.
 攜衣經禮先生第 옷을 가다듬어 예를 행하기를 선생의 집에서 하고
 講世親情故友孫 세도를 강론하여 정을 친함은 옛 벗의 손자이라.
 輕薄流風無遠近 경박한 유행 기풍은 원근이 없이 모두이고
 平安餘想阻寒暄 평안한 생각에 안부가 막힌다.
 追懷疇昔恩想半 옛 일을 추억하여 은혜가 서로 반반이던 일을 생각하고
 打話青燈淚自捫 푸른 등불 아래 이야기하며 절로 눈물을 닦노라.

書懷 회포를 적음

青燈伴坐撫殘骸 푸른 등불 아래 짝해 앉아 쇠잔한 몸 어루만지며
 耽句無心或入佳 글귀를 생각하다 무심히 간혹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가네.
 繫匏異惠懷元凱 바가지처럼 얽힌 특별한 은혜는 팔원팔개(八元八凱)¹²¹를 생각하고
 聯枕友情誦伯淮 베개를 같이 베던 우정은 백회¹²²를 되뇌이네.
 臨房避雪同縮蠅 방에 들어가 눈을 피함은 웅크린 고슴도치와 같고
 離壁希陽等鳴蛙 벽을 떠나 별을 바람은 울어대는 개구리와 같네.
 咫尺望雲青岫下 지척에서 푸른 바위굴 아래에서 나오는 구름을 바라보니
 平生最愛讀書齋 평생 가장 아끼던 것은 독서당이로구나.

其二 그 둘째

經年海外戰塗迷 지난 해 해외가 전쟁으로 혼란하여
 楚北燕南同鼓鼙 초나라 북쪽 연나라 남쪽처럼 전쟁 북을 같이 두드렸네.
 此世窮民無杜母 이 시대의 궁한 백성에게는 두모¹²³ 같은 이 없으니

120) 새 불씨 : 부시나무를 문질러 부벼 새로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가 바뀜을 말함. 이 불을 일으키는 것을 ‘찬수(鑽燧)’라고 한다.

121) 팔원팔개(八元八凱) : 8인의 온화한 사람과 8인의 선량한 사람. 옛날 고양씨(高陽氏)의 아들 8인(八元)과 고신씨(高辛氏)의 아들 8인(八凱)을 일컫는다.

122) 백회 : 후한(後漢) 사람인 강평(姜肱)의 자(字). 두 아우 중해(仲海) · 계강(季江)과 우애가 지극하여 항상 한 이불을 덮고 잤으므로 강평공피(姜肱共被)라는 고사가 생기게 되었다. 『後漢書 卷53 姜肱列傳』

123) 두모 : 두시(杜詩). 전한(前漢)의 원제(元帝) · 성제(成帝) 때 사람인 소신신(召信臣)은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크게 베풀었고,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 사람인 두시(杜詩)는 여남 도위(汝南都尉) · 남양 태수(南陽太守) 등을 역임하면서 크게 선정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何山高士有梅妻 어느 산 고아한 선비에 매처¹²⁴⁾ 같은 이가 있는가!
 萬里黃圖空大漢 만 리 밖 중국[黃圖]은 대한이 텅 비고
 八根青壤落東齊 천지 사방 한국[靑壤]은 동쪽 집 무너지네.
 幾處英雄推枕起 몇 군데 영웅들이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는가!
 五更風雪一鷄啼 새벽 눈보라에 닭 한 마리 우네.

其三 그 셋째

藤六神機尺雪深 등나무 6자에 신묘한 기략에 한자나 되는 깊은 눈
 滿園春樹幻瑤林 동산 가득한 봄 나무는 구슬 숲으로 변화였네.
 晚栽花語香梅菊 늦게 꽃의 시가 말을 재단하여 매화와 국화의 향기를 내고
 早檢茶經品木蓼 일찍 다경¹²⁵⁾을 살펴 차나무와 삼을 품평하였네.
 詞賦達時司馬病 사부가 시대에 통달하였으나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소갈증을 앓았고
 經倫濟世臥龍吟 경륜이 세상을 구제함은 와룡(제갈량)이 이를 읊네.
 山陰十里堪乘興 산음 십리에 흥을 탈 만하여¹²⁶⁾
 忽憶今宵故友尋 문득 오늘 밤 생각나서 옛 벗을 찾네.

其四 그 넷째

獵麓行高犬 사냥하는 산기슭에 큰 개가 다니고
 漁梁集暮鴉 어랑에는 저녁 까마귀가 모였네.
 每希豐樂歲 늘 풍년을 희망할 때마다
 幾許泰平家 얼마나 태평한 집을 바랐는가!
 縱有千山雪 아무리 많은 산에 눈이 쌓여도
 將看萬樹花 장차 모든 나무에 꽃을 볼 것이네.
 歸人忙步夥 돌아가는 사람 바빠 걷는 사람이 많은데

뒤에 백성들이 이들을 소부 두모(召父杜母 : 아버지 같은 소신신과 어머니 같은 두시라는 뜻)라고 칭송하였다. 『前漢書 卷89』 『後漢書 卷61』

124) 매처 : 송(宋) 나라 전당(錢塘) 사람 임포(林浦)의 시호(諡號). 자는 군복(君復).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배움에 힘썼다. 행서(行書)를 잘 썼으며 시 짓기를 좋아했다. 장가들지 않아 자식이 없고 항상 자기 집에 매화를 심고 학을 길렀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매처(梅妻)·학자(鶴子)라 일컫었다. 『宋史 列傳 隱逸 上』

125) 다경 : 책 이름. 당(唐) 나라 경릉(竟陵) 사람인 육우(陸羽)의 저작. 차의 기원, 달이는 법, 맛, 그릇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하여 천하의 다풍(茶風)을 일으켰다.

126) 산음 십리에 흥을 탈 만하여 : 진(晉) 나라 왕휘지(王徽之)가 산음(山陰) 땅에 살던 중, 큰 눈이 내린 날 밤 흥취가 일어나 친구인 대안도(戴安道)를 찾아갔다가, 그의 문 앞에서 흥이 사라지자 만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고사. 『世說新語 任誕』

前路夕陽斜 앞길에 석양이 비껴있네.

其五 그 다섯째

前賢同一教 옛 현인들의 동일한 가르침에
恒産在於勤 일정한 산업은 부지런함에 있다네.
危地人騎虎 위태로운 땅에서 사람이 호랑이를 타는 꼴이니¹²⁷⁾
重杯誰責蚊 무거운 침상에서 누가 모기를 책할까?
傭房參譯語 셋방에서 통역관의 말을 참고해보고
郵橐解農文 우체부 주머니에서 농사 글을 풀어내네.
窮達皆天定 곤궁함과 현달함은 모두 하늘이 정하니
何須羨郭汾 어찌 광분양¹²⁸⁾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

廿五日 金 二日 己未 陽 答李郎億寧書付郵 而日晚未果 雨水已過 驚蟄將近 而寒氣少不弛解 窮道殘民 何以圖生

2월 25일 금요일 음력 2월 2일 기미(己未). 맑음. 이억녕(李億寧)에게 답장을 써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날이 늦어서 시행되지 않았다. 우수(雨水)가 이미 지나가고 경칩(驚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추운 기운이 조금도 풀리지 않으니 곤궁한 살림에 나약한 백성들은 어찌 살아갈 길을 도모할 것인가?

憶李郎億寧 신랑 이억령(李億寧)을 생각함
(此書朝成 郎書夕來 이 글을 아침에 썼는데 이억령의 편지가 저녁에 왔다.)

山雲橋樹入遙望 산 구름과 다리의 나무가 먼 전망에 들어와서
病枕懷人不自忘 병상에서 그리운 사람을 스스로 잊지 못하네.
至行孝門供鯉子 행실이 지극한 효자의 가문에는 잉어를 잡아서 봉양하는 아들이 있고
休儀貧館奠禽郎 거동이 아름다운 가난한 여관에는 혼인 기러기를 올리는 신랑이라.
荐殃賢婦同離席 재앙을 거듭 만난 현명한 며느리는 함께 자리를 떠나고

127) 호랑이를 타는 꼴이니 : 원문 '기호(騎虎)'는 범의 등을 타면 중도에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상황을 비유한다. 성어(成語)로는 기호지세(騎虎之勢) 또는 기호난하(騎虎難下)라 한다.

128) 광분양 : 분양왕(汾陽王) 광자의(郭子儀). 당 숙종(唐肅宗) 때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하고 분양왕에 봉해졌다. 덕종(德宗) 때부터 상보(尙父)의 호를 하사받았으며, 20년 동안 천하의 안위(安危)를 한몸에 짊어진 불세출의 명장이다. 『新唐書 卷137 郭子儀列傳』

餘患寒妻久委床 병이 많은 쓸쓸한 아내는 오래 병상에 누웠네.
新歲改年消息阻 부시나무를 바꾸어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막히니
形容想像淚凝眶 모습을 상상하면 눈물이 눈자위에 엉기네.

得苗字走筆 묘(苗) 글자 운으로 시를 지어 붓을 달려 씀

郎書初到意怡怡 이억령의 편지가 처음 도착하여 생각이 기쁘니
昨夜分明夢板橋 어제 밤 꿈속에 분명히 판교에 갔었네.
鎮撫四夷歌漢武 사방 오랑캐를 어루만진 한나라 무제(武帝)를 노래하고
平章百姓頌唐堯 백성을 잘 다스린 요임금을 칭송하네.
年老夕陽如迅逝 나이 늙자 석양에 빠른 물이 가는 듯한데
日寒春雪尙遲消 추운 날씨에 봄눈은 오히려 더디게 사라지네.
供飽鷄豚空自養 닭 돼지 배부르게 먹이면서 스스로 수양함은 텅 비고
廢池修築播魚苗 폐허된 연못을 수리하고 축대를 쌓아서 고기 새끼를 넣네.

其二 그 둘째

百年長住野雲西 일생 재야의 구름 서쪽 가에 오래 살면서
蔗醬芋羹味不低 수수 간장과 토란국은 맛이 나쁘지 않네.
家貧猶有蒔花陌 집이 가난하지만 오히려 꽃모종 심을 두렁이 있고
地窄寧無玩月溪 땅은 좁아도 어찌 달을 구경할 시내가 없으랴!
功名取捨餘鷄肋 공명을 취하고 버림은 계륵¹²⁹의 나머지도
詞賦虛荒見馬蹄 사부가 허황함은 말 말굽에서 보네.
俚諺巷喧徒括耳 속세 말씨 골목에 떠들어 다만 귀가 시끄러우니
出門何處杖青藜 문을 나서 어디로 푸른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갈까!

其三 그 셋째

隣友謂余傲少微 이웃 친구가 나를 소미(少微)¹³⁰와 같다고 말하고
終南山色鎖西畿 남산 빛은 경기를 진압하네.
窄地評雲心獨坐 좁은 땅에서 구름을 품평하니 마음이 고독한 채 앉아 있고

129) 계륵 : 닭갈비. 먹을 것은 적으나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말로, 그리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작은 벼슬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130) 소미 : 처사(處士)를 상징하는 성좌(星座) 이름. 또는 『통감절요(通鑑節要)』를 지은 송(宋) 나라의 학자 소미 선생(少微先生) 강지(江贄)를 말하기도 함.

遙空送鳥眼俱飛 먼 하늘에 새를 전송하니 눈도 함께 날아가네.
 社漢征論誇馬革 마을의 사내는 길가는 논의에 말가죽을 자랑하고
 野耆農話坐牛衣 들의 늙은이는 농사를 이야기하며 소 털석에 앉았네.
 朝來盤菜宜時物 아침에 내은 밥상에 나물은 제철 음식물이 마땅하여
 甘齋辛茶味共肥 달착지근한 냉이 쓰디쓴 씬바귀 맛이 모두 살찐 것이라.

其四 그 넷째

毆老高評已着鞭 말몰이꾼 높은 평판에 이미 채찍을 잡았고
 文章百世等鳴蟬 문장은 백대에 우는 매미와 같구나.
 漢朝偉器傳三傑 한나라 조정의 위대한 인제는 삼걸¹³¹이 전하고
 晉代清談評七賢 진나라의 고상한 논의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을 품평하네.
 白馬溪邊餘殘雪 백마계 시냇가에는 녹아가는 눈이 남았고
 靑龍山下滴寒烟 청룡산[청계산] 아래에는 찬 안개가 방울져 떨어지네.
 有誰坐看三分局 누가 앉아서 셋으로 나뉜 국면을 보는가!
 五十年間木榻穿 오십년 동안 목탁(木榻)에 앉아서 구멍이 뚫렸네.¹³²

廿六日 土 三日 庚申 陽 日寒一直 山雲里答書 直員往付 今聞則宰師母 昨夜之產 至於招產婆而
 狼狽 然而產母之生最幸 不用厥婆之手云 出張費十円出給

2월 26일 토요일 음력 2월 3일 경신(庚申).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산운리(山雲里)에 답
 장하는 글을 직원(直員)이 가는 데에 붙였다. 지금 들으니 “재사(宰師)의 어머니가 어제 밤 출산
 에 산파(產婆)를 불러 오는데 이르렀으나 낭패하였다. 그러나 산모(產母)가 살은 것이 가장 다
 행이다. 그 산모의 손을 쓰지 않았다.” 한다. 출장비 10원을 내어 주었다.

春風詞 봄바람 노래

靑皇按節轉輪東 청황(靑皇)¹³³은 시절을 살피 바퀴를 동으로 굴리듯 하고
 雨露洪恩造化翁 비와 이슬 넓은 은혜를 내리는 조물주라.

131) 삼걸(三傑) : 한(漢)나라 건국의 야전사령관 한신(韓信), 작전 참모 장량(張良), 군수(軍需) 책임자 소하(蕭何)의 세 명 인걸.
 132) 오십년 ... 뚫렸네 : 삼국 시대 위(魏)의 명사 관녕(管寧)이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80세가 넘도록 50여 년 동안을 항상 목탁(木榻)에만 꿰어앉았으므로, 그 목탁 위의 무릎 닿은 곳이 모두 구멍이 뚫렸다는 고사. 『三國志 卷11』
 133) 청황(靑皇) : 봄을 맡은 신. 동방(東方)에 위치한다.

天下終無憎夜月 천하는 마침내 달뜨는 밤을 미워함이 없고
 物中未有怨春風 인물 중에 봄바람을 원망한 사람은 있지 않네.
 一朝咸出生心蟄 하루아침에 마음이 살아 있는 벌레가 다 나오고
 萬里同歸得意鴻 만 리에 뜻을 얻은 기러기는 함께 돌아가네.
 何事許評曹孟德 무슨 일로 허소(許劭)는 조맹덕(曹孟德 : 조조)을 월단평(月旦評)에 넣었나!
 能臣不取入姦雄 유능한 신하가 되지 않으면 간웅으로 들어간다네.

幽居 그윽한 집

修身一道不徒恭 수신하는 하나의 길은 공손만이 아니니
 前聖書中有九容 과거 성인의 글 중에 구용¹³⁴이 있네.
 近臨幸有千年木 가까이 가니 행여 천년된 나무가 있고
 遠涉纔扶百里筇 멀리 가는데 백리를 갈 지팡이를 잡았네.
 貧居自挾金人野 가난하게 살아도 본래 금인야[들 이름]를 끼고 있고
 偕老更依玉女峰 함께 늙으며 다시 옥녀봉에 의지하네.
 堆案靑氈前鑑在 책상에 청전¹³⁵이 쌓이고 앞에 거울이 있으니
 廢興經理問於儂 흥망과 치적을 나에게 묻노라.

晚覺 늦게 깨달음

會心觀易坐梅窓 마음에 들어 주역(周易)을 보며 매화 피는 창에 앉으니
 至理分明是滿腔 지극한 이치가 분명하게 가슴에 가득하네.
 自認天皇應有數 스스로 알거니 천황은 응당 운수가 있겠고
 縱云國土豈無雙 비록 국가적 선비라고 하더라도 어찌 둘이 없으랴!
 廢文奚趨三綱弛 문장을 폐기하니 어찌 삼강만 해이할 뿐인가!
 得力非徒九鼎扛 힘을 얻는 것은 구정¹³⁶을 들어 올릴 뿐만이 아니라네.
 千載幸逢光武世 천년 뒤에 다행히 광무제의 세상을 만났는데

134) 구용(九容) : 사람이 갖추어야 할 아홉 가지 용모.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단정하게, 입은 묵중하게, 음성은 조용하게, 머리는 곧게, 기색은 씩씩하게, 서 있을 땐 덕 있는 모습으로, 낮빛은 위엄 있게 하는 것이다.

135) 청전 : 푸른 담노. 집안의 보물을 말함. 진(晉)나라 사람 왕헌지(王獻之)의 집에 도둑이 들어 모두 훔쳐가자, 왕헌지가 도둑에게 "푸른 담노는 우리 집에 오래된 물건이다. 그것만은 두어야 한다.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王獻之傳」

136) 구정(九鼎) : 우(禹) 임금이 구주(九州)의 금을 한데 모아 만들었다는 솔로, 이후 천하를 차지한 제왕의 상징물로 간주되었다. 『史記』 卷12 「孝武本紀」 그리고 항우(項羽)는 힘이 세어 구정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子陵何事臥桐江 자릉¹³⁷)은 무슨 일로 동강에 누워있는가?

拈龜 거북이를 줌

茅棟臨流傲武夷 초가집이 냇가에 임하여 무이구곡(武夷九曲)¹³⁸)과 비슷하고
 寒溪數曲碧沙涯 한계 몇 구비에 푸른 모래톱이 있는 물가라.
 噬臍追悔寧隨麝 배꼽을 물어뜯으며¹³⁹) 후회하니 어찌 사향노루를 따를 것인가!
 盪面稽疑亦問龜 얼굴을 씻고 의문을 풀어 주니 또한 거북이에게 묻는다.
 許心爲解三光劍 마음 통한 친구에게 풀어놓는 것은 삼광(三光)의 칼이고
 同技須爭一點碁 똑 같은 재주로 잠시 다투는 것은 한 점 바둑이라.
 懷人咫尺淸風起 그리운 사람 지척에 있어 맑은 바람 일어나고
 雲樹中央宛在伊 그리운 친구¹⁴⁰)는 중앙에 완연히 그곳에 있네.

春詞 봄 노래

不遠春衣成 멀지 않아 봄옷이 이룩될 텐데
 詠歸想浴沂 기수에서 목욕하고¹⁴¹) 노래를 부르며 돌아올 것을 상상하네.
 庭寒幽鳥避 뜰이 쓸쓸하여 깊은 숲 새가 피해오고
 地僻故人稀 땅이 궁벽하여 친구도 드물다.
 元亮先蒔菊 도연명은 먼저 국화를 심었고
 伯夷獨食薇 백이는 홀로 고사리를 먹었네.
 老去詩思拙 늙어가면서 시상이 졸렬하니
 何必戀芳菲 어찌 반드시 꽃향기를 사모할까!

137) 자릉(子陵) : 후한(後漢) 때의 은사(隱士) 엄광(嚴光)의 자(字). 후한의 첫째 황제 광무제와 어려서 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광무제가 천자가 되자 자취를 감추고 은거하였는데, 광무제가 찾아내어 잠자리를 함께하기까지 하였다.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제수했으나 나아오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 숨어 살며 동강(桐江)에서 낚시로 소일하며 생을 마쳤다. 『後漢書 卷83 嚴光列傳』

138) 무이구곡 : 무이산(武夷山)의 9구비의 계곡. 주자(朱子)가 무이산에서 노닐면서 무이도가(武夷權歌)를 지었으므로, 특히 조선 사람들에게 애호되고, 이에 의해 전국에 구곡(九曲)이라는 이름이 많이 지게 되었다.

139) 배꼽을 물어뜯으며 : 사향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혀 죽게 될 때에 제 배꼽의 사향(麝香) 때문이라고 하고 배꼽을 물어뜯는다는 말로, 일을 한번 실패한 뒤에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음을 비유한 말.

140) 그리운 친구 : 원문 ‘雲樹’는 벗과 헤어진 뒤에 못내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춘일회이백(春日懷李白)」이라는 시에 “渭北春川樹 江東日暮雲”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141) 기수에서 목욕하고 : 『논어(論語)』 「선진(先進)」에 “늦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는 증점(曾點)의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廿七日 日 四日 辛酉 陽 日寒一直 今日則未聞大宅之消息 產母快得生道否 甚鬱甚鬱 婚日不過
廿日也 速起周旋心祝耳

2월 27일 일요일 음력 2월 4일 신유(辛酉).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오늘은 큰덕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산모는 쾌차하여 살아날 방도를 얻었는지? 심히 우울하고 우울하다. 혼인 날이 20일도 남지 않았다. 빨리 일어나 주선하기를 마음으로 축원한다.

晚歌 저녁 노래

流俗習欺百事沮 유행하는 풍속이 속이는 것을 버릇 들려서 모든 일이 막혀
麟皮何意最蒙驢 기린 가죽은 무슨 뜻으로 나귀에게 가장 많이 주어 덮게 하였는가!
近貨誤家重戀貨 재물을 가까이하여 집안을 그르치고도 거듭 재화를 그리워하고
讀書違世更看書 글을 읽어 세상과 어긋났으나 다시 글을 본다.
跟跡最宜追實行 자취를 밟음은 실행을 따르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修身尤耻有虛譽 몸을 닦음은 헛된 명예만 있는 것이 더욱 부끄럽네.
男兒不妨風姿艷 남자는 풍채의 아름다움이 해롭지 않으니
誰道揚州橋滿車 누가 양주에 굴이 수레에 가득하다고¹⁴²⁾ 말했는가!

寒溪早春 한계에 이른 봄

瘦骨逢春病欲蘇 야윈 몸골로 봄을 만나 병에서 소생하려 하여
香烟細細擁茶爐 향내 연기 솔솔 나는 차 끓이는 화로를 안고 있네.
海路兵連誰漢楚 바닷길로 전쟁이 이어지니 누가 한나라 초나라인가!
山村人靜獨唐虞 산촌에 인적이 조용하여 홀로 요임금과 순임금이네.
餘力寒禽投遠樹 남은 힘이 있는 추위 속의 새는 먼 나무로 달려가고
散行飢獸下荒蕪 흩어져 가는 굶주린 짐승은 거친 잡초 아래로 내려가네.
朝來暫聽兒童報 아침에 와서 잠시 아이의 말을 들으니
南陌新花綻老姑 남쪽 두렁에 새로운 할미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한다.

其二 그 둘째

危步巡檐短杖携 걸음걸이 위태롭게 처미를 지나며 짧은 지팡이를 들고
巷途殘雪和濃泥 마을길에 남은 눈은 진흙탕과 섞였네.

142) 양주에 굴이 수레에 가득하다고 : 당(唐) 두목(杜牧)이 풍채와 좋은 문장으로 슬취하여 양주(揚州)를 지날 때, 길가 청루의 기생들이 다투어 굴을 던져 그가 탄 수레에 굴이 가득했던 고사.

莫曆遐嶺通石井 책력이 고개를 넘어서 석정과 통하고
 桂坊過夢阻雲梯 계방(桂坊)을 꿈에 지나가니 높은 사다리로 막혔네.
 異域兒書來信鷹 이국땅에 아이의 편지를 전하는 기러기가 오니
 同門友契照靈犀 동문 친구 교분 맺어 영서(144)를 비추네.
 平居只恐斯文墜 평소에 유학(儒學)이 실추될까 두려워하였으니
 何日五星更衆奎 어느 날 오성(五星)이 다시 규수(奎宿)에 모일까!(145)

其三 그 셋째

砲軍渡海後 포군(砲軍)이 바다를 건너 간 후에
 大麓絕狼豺 큰 숲에 이리와 승량이 없어졌네.
 飢兒啼枵腹 굶주린 아이는 텅 빈 배를 잡고 울고
 病叟惜殘骸 병든 늙은이는 쇠잔한 몸을 가여워하네.
 短檐織月映 짧은 처마에 가는 달이 비치고
 遠出凍雲排 먼 산봉우리에 차가운 구름이 밀려가네.
 夜到無燈燭 밤에 되어서는 등불도 없고
 荒昏門掩柴 어둑침침해지자 사립작 문을 닫네.

其四 그 넷째

鹿野風塵晴 사슴이 노는 들에 풍진이 맑게 개었고
 不見戲馬埕 말을 희롱하는 누대를 보지 못하였네.
 精神曉鷄唱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에 정신이 깨어나고
 消息春鴈回 봄에 돌아오는 기러기 편에 소식이 오네.
 世亂偏多役 세상이 어지러워 부역이 유독 많고
 時來恨乏才 때가 왔으나 인제가 부족함을 한스러워하네.
 五雲仙鶴遠 오색구름 위에 신선 간은 학은 멀리 나니
 何處是蓬萊 어느 곳이 봉래산일까!

143) 계방(桂坊) : 동궁(東宮)이 있는 곳. 또는 세자익위사의 별칭.

144) 영서 : 영묘(靈妙)한 물소 빨[犀角]. 물소 빨은 그 속에 구멍이 있어 양쪽이 서로 통하므로, 전하여 두 사람의 의사(意思)가 서로 투합함을 말한다.

145) 오성(五星)이 다시 규수(奎宿)에 모일까 : 문운(文運)이 일어남을 말함. 규성은 28수(宿)의 15째 별로 문운(文運)을 맡아본다고 한다. 송 나라가 처음 일어날 때에 하늘의 오성(五星 : 금성·목성·수성·화성·토성)이 규성에 모이니, 천문학자가 예언하기를, “규성은 문성(文星)이니 앞으로 천하에 학문이 크게 일어날 조짐이라.” 하였다.

廿八日 月五日 壬戌 陽日寒一直 明達里戚弟 王世鉉來訪 敘話而歸 韓友郊東來訪而宿 然而櫛飯藜藿 何以待之 悶歎而已

2월 28일 월요일 음력 2월 5일 임술(壬戌).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명달리(明達里) 친척 동생 왕세현(王世鉉)이 찾아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다. 친구 한교동(韓郊東)이 찾아와 하루 밤을 유숙하였다. 그런데 보리밥과 명아주 국으로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탄식할 뿐이다.

拈妹字 매(妹) 글자 운으로 시를 지음

雪野茶齋登盤菜 눈 덮인 들에 썸바귀와 냉이를 소반에 나물로 올리니
新味潤腸魚肉代 새로운 맛으로 속을 윤택하게 생선 고기를 대신하네.
獎學官贊試歲供 학문을 장려하는 관립학교는 한해에 이바지할 것을 시험하고
祈農野社行春賽 농사를 비는 농촌에는 봄 곳을 하네.
射鵝上黨月星爛 순성(鵝星)을 쏘는 상당에는 달과 별이 빛나고
逐鹿中原風雨晦 황제 지위를 다투는 중원에는 비바람이 어둡네.
聞道天桃迨吉辰 들으니 어여쁜 복사꽃 필 때 혼인 길일을 잡는다던데
隣家幾處占歸妹 이웃집 어느 곳에 누이를 시집보낼 점¹⁴⁶을 치는가!

偶占 우연히 지음

大陸相爭百萬年 대륙이 서로 다툼이 백 만년이고
西來消息太紛紜 서쪽에서 온 소식은 너무 어지럽네.
題詩寒榻梅香動 시를 짓는 차가운 책상에는 매화 향기 일어나고
筮易晴窓栢子焚 주역으로 점을 치는 맑게 갠 창에 잣으로 등불을 피우네.
一片尙存元凱石 한 조각 원개(元凱)의 비석¹⁴⁷이 아직도 보존되고
三盃不到伯倫墳 세잔 술은 백륜¹⁴⁸의 무덤에 이르지 못하네.
揚鷹謠烏時年暮 나는 매와 까마귀 그림에 한해가 저물어 가고
剩把空懷坐夕曛 공연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석양에 앉아있네.

146) 누이를 시집보낼 점 : 『주역(周易)』 귀매괘(歸妹卦)의 여동생을 시집보내는 점을 말함.

147) 원개(元凱)의 비석 : 타루비(墮淚碑)를 말함. 진(晉) 나라 명장 양호(羊祜)의 추모 비석 앞을 지날 때면 모두 눈물을 흘렸으므로 두원개(杜元凱 : 杜預)가 그 비석을 타루비라고 명명하였다. 『晉書 羊祜傳』

148) 백륜(伯倫)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 성명은 유평(劉伶)이고 자는 백륜(伯倫)이다. 남달리 술을 좋아하여 늘 녹거(鹿車)를 타고 한 호로병의 술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사람에게 삼을 메고 따라다니게 하여 자기가 죽으면 그 자리에 묻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지은 「주덕송(酒德頌)」이 유명하다. 『晉書 卷49 劉伶列傳』

曠懷 활달한 마음

世人皆學東施顰 세상 사람은 모두 동시의 찡그림을 배워서¹⁴⁹⁾
掃地文風少出倫 문풍이 땅을 쓸어버린 듯이 사라져 인륜이 나타남이 적네.
林腰穿雪來翠羽 숲 속을 눈을 뚫고서 비취가 오고
溪腹斬氷得玄鱗 시냇가 복판에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네.
管歆同學傳名異 관녕(管寧)과 화흠(華歆)¹⁵⁰⁾은 같이 배워도 이름을 전함이 다르고
絳灌無文勗業均 강후(絳侯)와 관영(灌嬰)¹⁵¹⁾은 문장이 없어도 창업은 고르네.
辛勤活計如相問 간신히 살아가는 계획을 혹시 묻거든
元聖遺篇七月囿 원성(元聖)¹⁵²⁾이 남긴 빈풍(鬪風) 「칠월편(七月篇)」¹⁵³⁾이라.

其二 그 둘째

一病支離不出門 병으로 지루하여 문을 나가지 못하니
春來相阻故人樽 봄이 와도 친구들이 술동이 가지고 앞을 막네.
百世清風欽列聖 백세동안 맑은 기풍은 여러 성인을 공경하고
十年無學誤諸孫 십년동안 배움이 없어 여러 손자들을 오도했네.
望裡紅雲沈遠岫 바라보는 속의 붉은 구름은 먼 산봉우리에 잠기고
詞中白雪老西園 노래 속의 백설은 서쪽 밭에서 노련해진다.
回看松陰庭前石 소나무 그늘과 정원 앞의 돌을 돌아보니
傲骨依然古佛蹲 오골¹⁵⁴⁾은 의연한 오래된 부처의 앉은 모습이라.

其三 그 셋째

暮境難修容 늘그막에 용모를 가꾸기 어려워서

- 149) 동시의 찡그림을 배워서 : 잘못을 본받음을 말함. 미인 서시(西施)가 가슴병을 앓아 찡그리자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그 마을의 못 생긴 여인 동시(東施)가 보고 부러워하여 가슴을 쥐고 찡그리니 사람들이 보기 싫어 문을 닫았다고 한다.
- 150) 관녕(管寧)과 화흠(華歆) : 관녕은 삼국(三國) 위(魏)나라 사람으로 자는 유안(幼安). 어려서 화흠(華歆)과 자리를 함께하여 글을 읽다가 화흠이 문밖에 지나가는 벼슬아치를 보러 가자 관녕은 즉시 그와 자리를 나누어 앉아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 『三國志 魏書 卷11 管寧傳』
- 151) 강후(絳侯)와 관영(灌嬰) : 모두 한나라 창업 공신. 글을 잘하지 못하였다. 『진서(晉書)』 「유원 해재기(劉元海載記)」에는 “강후(絳侯)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에게는 문학이 없다.(隨陸無武 絳灌無文)”라는 말이 있다.
- 152) 원성(元聖) : 주(周)나라 초기의 주공(周公)을 말함.
- 153) 「칠월편(七月篇)」 : 『시경(詩經)』의 편 이름. 주공 지음. 성왕(成王)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 지은 노래이다.
- 154) 오골(傲骨) : 남에게 굽히지 않는 자존심 강한 사람.

經年久不冠 해를 지내도록 오래 동안 관을 쓰지 않았네.
 我同工部疲 나는 두공부(杜工部)¹⁵⁵의 피로함과 같으니
 誰識孟郊寒 누가 맹교¹⁵⁶의 차가움을 알겠는가!
 玉鏡頻照白 옥 거울은 자주 하얗게 빛나고
 石鐺晚煮丹 돌에 남비 걸고 선약(仙藥)을 다린다.
 生圖多窘絀 삶을 도모함에는 군색한 것이 많으니
 一日意何寬 하루라도 뜻이 어찌 관대해보겠는가!

其四 그 넷째

貴賤兩端在 귀하고 천함은 두 실마리가 있는데
 相分利善間 이권과 선행의 사이에서 서로 나누어지네.
 難追先進踵 선배의 발자취를 쫓아가기 어렵고
 易識故人顏 옛날 사람의 얼굴은 기롱하기 쉽네.
 晚樂多經苦 늘그막의 즐거움은 많은 고생을 겪어야 하고
 貧生每出閑 가난한 생활은 늘 한가한 데로 가네.
 欲知浮世事 덧없는 세상일을 알려고 하나
 脫累只青山 장애를 벗어버리니 다만 청산뿐이라.

自敘 스스로 서술함

歸臥寒溪傲謫仙 돌아와 한계에 누우니 귀양 온 신선과 비슷하고
 漫吟已近五千篇 읊은 시는 이미 오천 편에 가깝다.
 公道浮生連白髮 공평한 도리 속에 덧없는 인생은 백발과 이어지고
 吾家舊物只青氈 우리 집에 대물린 물건은 다만 푸른 담뇨이라.
 生理芳蕪皆有地 살아갈 이치의 풍성함은 모두 땅에 있고
 覆恩善惡亦同天 덮어주는 은혜의 선악은 또한 하늘과 같네.
 子雲事業知何在 자운¹⁵⁷의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一部床經老太玄 책상에 경전 한 부(部) 태현경(太玄經)으로 늙어가네.

155) 두공부(杜工部) : 두보(杜甫)

156) 맹교 :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와 같은 시대 인물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를 평가기를, “맹교는 차고, 가도는 여위었다[郊寒島瘦].” 하였다.

157) 자운 : 전한(前漢) 말의 학자 양웅(揚雄)의 자(字). 「태현경(太玄經)」·「법언(法言)」 등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다.

廿九日 火 六日 癸亥 陽 韓友弼東往京城 直員往黑石里偕行 昌範自黑石里來面鋪禮 此前少差產母 尙未起

2월 29일 화요일 음력 2월 6일 계해(癸亥). 맑음. 친구 한필동(韓弼東)이 경성(京城)에 갔고, 직원(直員)이 흑석리(黑石里)에 가는데 함께 갔다. 창범(昌範)이가 흑석리에서 와서 종례(鋪禮)와 대면하였다. 이는 이전에 조금 차도가 있던 산모인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다.

早春卽景 이른 봄의 경치

百年田宅傍官橋 백년 된 밭과 집은 다리 곁에 있고
繼世生圖不自饒 대물려 살아감이 스스로 넉넉하지 못하네.
動蟄春心寒壁解 벌레가 기동하는 봄기운에 차가운 벽이 풀어지고
鳴鷄曙色衆星搖 닭이 우는 새벽빛에 여러 별들이 반짝이네.
論人長短空招辱 남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면 공연히 욕을 부르고
詳物精粗亦有條 물건의 정교함과 거침을 살펴보면 또한 조리가 있네.
惠養君恩同疏傳 은혜로이 기르는 그대 은혜 소전(疏傳：傳注)과 같고
南崗清白聞當朝 남강은 청백하여 당시 조정에 소문났네.

其二 그 둘째

敍嘯悠然曉陟臯 휘파람 불며 유연히 새벽에 언덕을 올라가서
碧山學士解青袍 푸른 산속의 학사는 청색 도포를 벗는다.
四郊雪斷群鴉集 사방 교외에 눈이 다하여 여러 까마귀가 모였고
萬里雲空一雁高 만 리에 구름 한 점 없는 중에 한 마리 기러기가 높이 떴네.
隣叟築階培芍藥 이웃 늙은이는 계단을 쌓아서 작약을 북돋우고
園公修架放葡萄 과수 농군은 시렁을 만들어 포도를 올려놓는다.
稅煩役重知何世 세금은 번거롭고 부역은 무거우니 어느 세상인 줄 알랴
環域蒼生衆口嗷 온 지역 백성들 많은 말이 떠들썩하네.

其三 그 셋째

昏眸頻拭舊詩抄 침침한 눈동자를 자주 닦으며 옛 시를 베끼니
香墨做波滴硯凹 향기로운 먹물의 작은 물결이 오목한 벼루에 물방울지네.
幽麓陽升行病鹿 북쪽 산기슭에 별이 오르자 병든 사슴이 다니고
長湫水解動沉蛟 큰 못에 얼음이 풀리자 잠긴 용이 기동하네.

窮達有天希大命 곤궁과 영달은 하늘에 있어 큰 명령을 바라고
 飢寒無地憶同胞 추위와 굶주림에 땅이 없어 동포를 그리워하네.
 半日偷閒還不妨 반나절 한가함을 훔치는 것은 도리어 방해되지 않으니
 隣僑問字短扉敲 이웃 선비 글자를 물으려 작은 사립문 두드리네.

其四 그 넷째

春風有力釀群和 봄바람이 힘을 써서 많은 화합을 빚어내고
 病榻悲懷轉放歌 병상의 슬픈 회포에 더욱 노래를 부르네.
 梅影銜清遠細點 매화 그림자는 맑음을 자랑하여 세세히 점찍어 피는 것을 어기고
 椒香吹酒覺微醺 산초 향기가 술을 불려 약간 취기가 오름을 깨닫는다.
 危石常谿欺白虎 험한 바위 계곡에 당해 있어 백호인지 속게 되고
 薄雲離壁滴青驪 얇은 구름은 절벽을 떠나 푸른 나귀에 물방울지네.
 內史風流人盡誦 내사의 풍류는 사람들이 바로 칭송하고
 山陰書罷却籠鵝 산음에서 글씨 쓰기를 마치자 거위를 바구니에 넣고 가네.¹⁵⁸⁾

其五 그 다섯 째

東帝施思澤 동제(봄 신)가 은택을 베풀어
 春風釀百花 봄바람에게 여러 가지 꽃을 피게 하네.
 心丹常戀國 마음이 진실하여 항상 나라를 연모하고
 頭白不離家 머리가 세도록 집을 떠나지 않네.
 玉溫須蘊櫝 옥이 따뜻하여 반드시 껍 속에 깊이 넣고
 詩艷爲籠紗 시가 아름다워서 비단으로 감싸놓았네.
 蒼生俟我后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는데
 何日降黃麻 어느 날에나 황마(黃麻)를¹⁵⁹⁾ 내리실까?

贈韓友弼東甫 친구 한필동에게 줌
 (良範聽丈 양범의 장인임)

大家勳閥百禪昌 문벌 좋은 큰 집안은 백번을 선양하여 창성하니

158) 산음에서 ... 넣고 가네 : 진(晉) 나라 때 왕희지(王羲之)가 거위를 매우 좋아하여 산음(山陰)의 도사(道士)에게 『도덕경(道德經)』을 써 주고 그 대가로 거위를 바구니에 넣고 간 고사.
 159) 황마(黃麻) : 임금이 내리는 조서(詔書). 당(唐) 나라 때에 내사(內事)에는 백마지(白麻紙), 외사(外事)에는 황마지(黃麻紙)에다 조서를 썼음. 『翰林志』

寶籍相傳上黨鄉 보배로운 호적 서로 전하는 상당(上黨 : 청주) 관향이라.
 鳳閣高名丹篆活 봉각의 높은 명성은 붉은 전서가 활기차고
 龍門過夢錦袍香 용문을 지난 꿈에 비단도포 향기롭네.
 軍中有一伊人宛 군중에 저 사람 완연히 한 사람이고
 圖士無雙此世當 도모하는 선비 이 세상에 당할 짝이 없네.
 專用賢才文叔去 오로지 어진 재주 쓰던 문숙(160)은 떠났으니
 躬耕何事臥南陽 몸소 농사지으며 무슨 일로 남양에 누워있을까!

三月 一日 水 七日 甲子 陽 春上甲也 昨夜昴行不見 何知 將問老農 崔友松堂來訪敍話 而而南
 草一封惠念 空腹下去 未安莫甚 直員來面

3월 1일 수요일 음력 2월 7일 갑자(甲子). 맑음. 봄의 상갑(上甲)¹⁶¹날이다. 어제 밤에 묘성(昴星)이 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알겠는가? 장차 늙은 농부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친구 최송당(崔松堂)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였다. 남초 1봉을 가지고 왔다. 빈 속으로 떠나갔으니, 미안함이 매우 심하다. 직원(直員)이 와서 대면하였다.

贈別韓友弼東 친구 한필동에게 이별하며 줌

此去海門百里程 여기서 바다 어구까지 백리 길
 勞歌招恨迥懷生 송별가¹⁶² 서글프고 멀리 그리움이 생기네.
 戀國孤標游子病 나라를 생각하는 외로운 표상은 떠도는 이의 고통이고
 離家寒索故人行 집을 떠난 텅 빈 주머니는 친구의 행차라.
 山北嶺雲應有夢 산 북쪽 고개 구름에 응당 꿈을 꾸겠고
 橋南驛樹亦含情 다리 남쪽 역의 나무에도 정을 품겠네.
 憑君爲問臥龍廟 그대를 따라 와룡묘¹⁶³를 물으니
 遺像丹青描孔明 남은 형상을 단청하여 제갈공명을 그렸네.

160) 문숙(文叔)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자. 남양(南陽) 채양(蔡陽) 사람으로 농사짓다가 왕망(王莽) 말기에 일어나서 후한의 첫째 황제가 되었다.

161) 상갑(上甲) : 춘·하·추·동 각 철마다 첫 번째에 든 갑자일. 농가에서는 이날의 일기를 가지고 농사의 풍흉 등을 점친다.

162) 송별가 : 원문 ‘勞歌’는 중국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 남쪽에 노로정(勞勞亭)이 있는데, 여기서 떠나는 사람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전별한 것에서 ‘송별가’라는 뜻이 유래되었다.

163) 와룡묘 :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사당.

看昴行 묘성(昴星) 운행을 봄

今夜昴行自有經 오늘밤 묘성 운행이 스스로 법도가 있어
 占豐野老盡看星 풍년을 점치는 시골 노인들은 모두 별을 살피네.
 我獨支難求宿艾 나 홀로 지루하게 묵은 쭉을 구하나
 人皆逆旅任浮萍 사람들은 모두 나그네 길 부평초에 맡기네.
 地僻林禽同遂性 궁벽한 곳 산새는 똑같이 성품대로 살고
 年深山佛亦通靈 나이 많은 산 속 불상도 또한 영험이 통하네.
 最關春塞違時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봄이 막혀 시절을 어겨서
 穫麥平田雨不零 보리를 수확할 밭에 비가 내리지 않음이라.

漫思 한가히 생각함

百思未得裕昆謨 많은 생각에도 후손을 넉넉히 할 도모를 얻지 못하여
 亂代風霜一夢悠 어지러운 시대의 풍상은 한 번 꿈인가 아득하네.
 形影依存唐日月 몸과 그림자가 의존한 것은 요임금의 세월이고
 倫綱不齊魯春秋 윤리 강령이 인식하지 않은 것은 노나라 춘추라.
 智端李相復醫鶴 지혜가 바른 이씨 재상은 또한 학을 치료하고
 仁術齊宣便易牛 인의 술법을 행한 제 선왕(宣王)은 곧 소를 바꾸었네.¹⁶⁴⁾
 最愛兒孫多孝供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아들과 손자가 효도를 많이 바치는 것이니
 餘生此外更何求 남은 삶은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其二 그 둘째

自認無常護苦吟 스스로 인생무상을 알고서 괴로이 시를 읊으니
 十句始捲病中衾 열 구절 만에 비로소 괴로하여 병상 속에 이불을 덮었네.
 五夜歡迎惟曙色 오경 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은 새벽빛이고
 一年普濟是春心 일 년에 널리 구제하는 것은 봄 마음이라.
 雲掃餘痕歸斷壁 구름은 남은 흔적을 쓸어 없애 끊긴 낭떠러지로 돌아가고
 鳥拖細力下遙岑 새는 작은 힘을 끌어서 먼 산으로 내려간다.
 從來賢哲難財發 예부터 현명한 사람은 재물로 일어나기 어려웠는데
 范馬諸家已致金 범마(范馬)¹⁶⁵⁾의 여러 사람들은 이미 황금이 이르렀네.

164) 인의 ... 바꾸었네 : 제 선왕이 도살장에 가는 소를 가업어하여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에 대하여 맹자(孟子)가 그것은 소는 눈앞에 보고 양은 눈앞에 보지 못해서라고 하며 그것이 인술(仁術)이라고 한 일. 「孟子」 「梁惠王 上」

觀世音 관세음

異道欺人弛法繩 이단(異端)은 사람을 속여 법도에 해이하여
 莊周浮說摠圖鵬 장자(莊子)의 근거 없는 말은 온통 봉새를 도모하였네.
 往塵羅麗終興廢 지난 풍진의 신라와 고려는 끝내 흥하며 폐지되었고
 歷數勳華已陟崩 통치 운수는 방훈(放勳 : 堯)과 중화(重華 : 舜)가 이미 돌아갔네.
 捐軀從令民俱佛 몸을 버려 법을 따르게 하니 백성에게 모두 부처가 되게 하고
 削髮同形世盡僧 머리를 깎아 모양이 같으니 세상을 다 스님으로 만드네.
 三千錦繡餘空殼 삼천리 금수강산은 빈껍데기만 남아
 只恨靑邱小似滕 다만 한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작아져 등나라와 같음이라.

二日 木 八日 乙丑 陽 李友汝成柱聯數幅書去 南草一封持來 今聞則崔友禮植作故 昨日火葬云
 不勝悵然 晚詞一章送之 初五日不幸云

3월 2일 목요일 음력 2월 8일 을축(乙丑). 맑음. 친구 이여성(李汝成)이 주련(柱聯) 몇 폭을
 써 갔다. 남초 1봉을 가지고 왔다. 지금 들으니 친구 최예식(崔禮植)이 죽어서 어제 화장(火
 葬)을 하였다고 하니, 슬픔을 견딜 수 없다. 만사(晚詞) 1장을 보냈다. 초5일에 불행하게 되었
 다고 한다.

幽居 그윽한 집

半畝庭除似釋菴 반 이랑의 뜰은 암자와 비슷하여
 寂寂寥寥復淡淡 고요하고 적막한데다 또 담담하네.
 希文進退憂分兩 희문(166)은 나가고 물러남에 근심을 둘로 나누고
 榮啓貧窮樂有三 영계기(167)는 가난하고 곤궁하지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었네.
 快心游子同馳馬 유쾌한 마음으로 노니는 사람은 같이 말을 달리고
 常業農丁亦養蠶 일정한 직업을 지닌 농부도 또한 누에를 기르네.
 當路英雄無一箇 요직자에 영웅은 한 사람도 없으니
 何山老嫗產奇男 어느 산에 늙은 할미가 기이한 남자를 낳을까!

165) 범마(范馬) : 송(宋)나라 범진(范鎭)과 사마광(司馬光).
 166) 희문(希文) :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자.
 167) 영계기(榮啓期) : 춘추 시대 사람. 공자가 그에게 그의 즐거움을 묻자,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남자
 가 된 것과 나이 90이 되도록 장수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高士傳 上』

其二 그 둘째

故人饋我我傷廉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하니 내가 청렴을 손상하여
 前送柴門雙袖沾 사립문에 전송하며 두 소매를 적시네.
 頻汲殘泉連井綆 말라가는 샘에 물을 기르려니 두레박줄을 이어야 하고
 遙翻落照合林鎌 석양빛 멀리 번득여 숲속 무늬에 합해진다.
 當時宜用渡罌信 당시에 목앵(木罌)으로 물을 건넜던 한신(韓信)의 계책¹⁶⁸을 써야 하나
 此世無關扶鼎嚴 이 세상에 나라를 부지한 엄씨는 관계가 없다.
 回看東洋良弼少 동양을 돌아보면 훌륭한 보필자가 적으니
 有誰熟手調梅鹽 누구 숙련된 솜씨가 있어 매실과 소금으로 조미하듯이 재상노릇을 할까!

送友人 친구를 송별함
 (三十韻畢 30운을 끝내다.)

遠寄兒書手自緘 멀리 아들에게 부치는 편지를 손수 봉하고
 海門昨送故人帆 바다 어구로 어제 친구의 배편에 보냈다.
 西嶺畫屏傳佛塔 서쪽 고개에 그림 병풍 같은 데에는 불탑이 전하고
 東橋詩()出仙岩 동쪽 다리에 시 …는 선암[바위 이름]이 나왔네.
 傍溪鷓鴣窺枯井 시냇가에 갈매기와 사다새는 마른 우물도 엿보고
 挾麓鸛鷗坐禿杉 산기슭을 끼고 있는 부엉이는 오똑한 삼나무에 앉았네.
 冠山遙接金剛路 관악산은 멀리 금강산 길과 닿았는데
 奇觀中間八景咸 기이한 광경은 중간에 팔경이 다 하였네.

挽崔友禮植 친구 최예식 만사

凶音莫忽驚 흉한 소식 이보다 홀연히 놀랄 것이 없어
 病枕不勝悲 병상에서 슬픔을 견딜 수가 없네.
 焚玉天何忍 옥을 태우기를 하늘이 어찌 차마 하는가!
 埋花地不知 꽃이 묻혀도 땅은 알지 못하네.
 賢妻離善辟 어진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老母抱孤兒 늙은 어머니는 고아를 안아주네.
 匪久相逢約 오래지 않아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며
 寒燈淚滴詞 쓸쓸한 등불에 눈물 떨구며 만사를 쓰네.

168) 목앵(木罌)으로 … 계책 : 목앵은 나무 물병. 한(漢)나라 한신이 위왕(魏王) 표(豹)와 전투할 때 목 앵을 사용하여 황하를 건넌 계책.

送玄範慰問 今聞則朴駿榮二子 俱沒于戰場 不勝慘酷 韓友自京來

현범(玄範)에게 위로의 조문을 보냈다. 지금 들으니 박준영(朴駿榮)의 두 아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니 참혹함을 견디기 어렵다. 친구 한필동이 서울에서 왔다.

三日 金 九日 丙寅 陽 日寒不解 春旱太甚 鼎湖南草一封惠念 韓友所託精舍圖 述之未了

3월 3일 금요일 음력 2월 9일 병인(丙寅). 맑음. 추운 날씨가 풀리지 않는다. 봄 가뭄이 너무 심하다. 정호(鼎湖)가 남초 1봉을 가지고 왔다. 친구 한필동이 부탁한 정사도(精舍圖)는 글짓기를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有聞停筆 글쓰기를 멈추었다는 것을 듣고

此翁何事老遐齡 이 늙은이 무슨 일로 늙어 나이 많아서
西從擾攘有耳聆 서쪽에서 소란함이 귀에 들리는가!
巷邃黃犴通竹塢 마을 안 깊숙한 곳에 노란 오소리는 대나무 언덕을 통과하고
林空青鼠落松庭 숲에 빈 곳에는 청서가 소나무 뜰에 떨어지네.
掛冠逋跡懷梅福 관을 걸어놓고¹⁶⁹⁾ 자취를 숨긴 매복¹⁷⁰⁾을 그리워하고
穿榻眞工誦管寧 의자가 구멍이 나도록 참되게 공부한 관녕¹⁷¹⁾을 노래하네.
吳狗魏狐殘局外 오나라 개와 위나라 여우가 국외를 해치는데
看書溪屋一燈青 봄 밤 시냇가 집에 등잔 하나 푸르다.

四日 土 十日 丁卯 陽 以韓友乘搭車來 付書 李參奉載明有付託 韓友告歸 日氣朝前風花 是早候也 李震九歲後初面 南草二封惠念 祖妣忌辰 無故闕之 此何人斯

3월 4일 토요일 음력 2월 10일 정묘(丁卯). 맑음. 친구 한(韓)이 수레를 타고 와서 편지를 부

169) 관을 걸어놓고 : 원문 ‘掛冠’은 동한(東漢)의 방맹(逢萌)이 왕망(王莽)의 정사에 환멸을 느껴 인륜이 끊어졌다고 탄식하면서 관을 벗어서 동쪽 도성 문에다 걸어 놓고 곧장 시골로 돌아갔던 고사에 의거한 것이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逢萌』
170) 매복 : 한나라 사람. 평제(平帝) 때 왕망(王莽)이 전횡(專橫)하자 남창위(南昌尉)를 그만두고 회계(會稽)에 숨어서 성명을 바꾼 채 문지기 노릇을 하였다. 『漢書』 「梅福傳」
171) 관녕 : 후한 말의 고사(高士). 황건적의 난리를 피해 요동 땅으로 건너간 뒤 조정의 거듭된 부름에도 일절 응하지 않은 채 3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청빈하게 살면서 언제나 ‘검은 모자 [皂帽]’를 쓰고 유유자적하였다. 『三國志 卷11 魏書 管寧傳』

쳤다. 참봉(參奉) 이재명(李載明)의 부탁이 있었다. 친구 한이 돌아간다고 고하였다. 날씨가 아침 전에 꽃바람이 불었는데 이는 가물 기후이다. 이진구(李震九)가 새해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남초 2봉을 가지고 왔다. 조모님 기일인데 까닭 없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가!

五日 日 十一日 戊辰 陽 春旱太甚 丁海潤姜正照偕行來訪 正照南草五封持來 海潤一金十元惠念
未安莫甚 海潤午飯于吉範家 往安養矣 春雨初滴 夕風亦寒 雪又交下

3월 5일 일요일 음력 2월 11일 무진(戊辰). 맑음. 봄 가뭄이 너무 심하다. 정해윤(丁海潤)·강정희(姜正熙)가 함께 찾아 왔다. 강정희가 남초 5봉을 가지고 왔다. 정해윤은 일금 십원(十元)을 가지고 와서 미안함이 매우 심하다. 정해윤은 길범(吉範)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안양(安養)으로 갔다. 봄비가 처음으로 적셨고 저녁 바람이 역시 차갑고 눈이 또 엇갈려 내렸다.

寂中走筆 고요함 속에 글을 씀

冠山東畔一草亭 관악산 동쪽 둔덕에 하나의 띠 집 정자에
病叟無聊獨抱經 병든 늙은이 무료하게 홀로 경전을 안고 있네.
石潭水釋魚流卵 돌로 돌린 연못에 얼음이 풀려 물고기가 알을 흘리고
松逕風微鳥刷翎 소나무 길에 산들 바람 불어 새들이 깃을 친다.
豪華多佩雌雄劍 호화로운 자는 대부분 자웅검¹⁷²⁾을 차고
童稚偏誇子母鈴 어린이는 자모령을 유독 자랑하네.
榻外狂塵心不入 책상 밖에 광기어린 풍진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朝聞聖訓箇中聽 아침에 도를 듣겠다¹⁷³⁾는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그 속에서 듣노라.

觀世高聲 세상의 소리를 들음

漢家大將最誰仁 중국의 대장은 누가 가장 어진가!
子羽先驅掃八垠 자우¹⁷⁴⁾가 먼저 달려가 사면팔방을 쓸어버렸네.

172) 자웅검 : 짝으로 된 칼. 춘추 시대 오(吳) 나라 간장(干將)이란 사람이 칼 두 개를 만들어서 한 개는 간장검(干將劍), 한 개는 막야검(莫邪劍)이라고 했다는 고사에 의거한 것이다.

173) 아침에 도를 듣겠다 : 『논어(論語)』의 “朝聞道 夕死可矣”를 줄여 쓴 것이다.

174) 자우(子羽) :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자는 언수(彦修)이다. 일찍이 위위승(衛尉丞)이 되어 진정 태수(眞定太守)로 있는 아버지 유겸(劉幹)을 보좌하면서 금나라의 침입을 잘 방어하여 이름을 널리 알렸다. 뒤에 정강의 난에 유겸이 자결하여 충절을 지키자, 그는 국력이 튼튼해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송나라에서 벼슬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에 힘써 금나라 군대를 여러 차례 물리쳤다.

物物林葱多地産 만물은 총총하게 대부분 땅에서 생산되고
 生生億兆盡天民 살고 있는 억조창생은 모두 하늘의 백성이네.
 寶玉同胞山出璞 보배로운 옥은 태의(胎衣)가 같아 산의 옥돌에서 나오고
 明珠有母海藏蠶 빛나는 진주는 어머니가 있어 바다 속의 조개에 숨어있네.
 欲識黃河千一運 천년에 한번 오는 태평성세 운수를 맞아¹⁷⁵⁾
 萬邦俱待帝王眞 천하가 모두 진실한 제왕을 기다리네.

六日 月 十二日 己巳 陽 是日驚蟄也 又百花生日 光昌里宋金偕子 柱聯四十餘幅書去 南草一枚 持進 大宅產母 仍不起云 婚日迫頭 奈何 實歎實歎

3월 6일 월요일 음력 2월 12일 기사(己巳). 맑음. 오늘은 경칩(驚蟄)이다. 또 백화(百花)의 생일이기도 하다. 광창리(光昌里) 송금해(宋金偕)의 아들이 주련(柱聯) 40여 폭을 써 갔다. 남초 1매(枚)를 가져와 바쳤다. 큰덕에 산모가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혼인날이 닳아 오는데 어찌해야 하는가! 진실로 한숨이 나온다.

寒溪早春 한계의 이른 봄

時運復回五季天 시대의 운명이 오계(五季 : 오대(五代))의 하늘로 회복하고
 西來消息却淒然 서쪽에서 온 소식은 도리어 서글프구나.
 夕風吹雪輕搖樹 저녁 바람이 눈을 불려 가볍게 나무를 흔들고
 春雨和烟始滴田 봄비가 안개와 섞여서 비로소 밭에 떨어지네.
 歷代千秋如迅駛 지나가는 시대는 천년이 빨리 달리는 말과 같고
 文章百世等鳴蟬 문장은 백대에 우는 매미와 같네.
 多端軍供違生路 여러 가지 군대 공급에 살아갈 길을 어기니
 野外居人不息肩 야외에 사는 사람은 어깨를 쉬지 못하네.

盤谷精舍圖 반곡정사도

鼎湖韓弼東甫 南陽松山面鳳歌里 逮百世而彌後 纂鼎湖之遠圖 就五畝而宅中 誦盤谷之精舍 卜云其吉 告于茲昭 切惟韓斯文弼東甫 西原令昆 上黨寶籍 爰考勳業於昭代 克承文烈之名門 丕闡憲

『宋史 卷370 劉子羽列傳』

175) 황하가 ... 맞아 : 황하(黃河)는 천 년 만에 한 번씩 맑아지는데 맑아지면 반드시 태평성대가 온다고 한다.

章於大家 爰及靖翼之顯閥 携鹿車而南渡 久晦跡於唐城 撤豕欄而北望 幾回首於漢苑 遵師範而禮邁 獎蘇州之學規 啓蒙訓而同歸 依藍田之鄉約 依寒溫而接物 庶乎免於時焉 行動儉而扶吾 果然得其力者 殊有老年養心之術 詎無平日容膝之方 囑匠石而坐左杖右繩 不侈不儉 篋義文而上棟下宇 乃輓乃輪 位置文明 近接三尊之平墅 門闌淡泊 迥臨九秀之高峯 曾聞心愛於前人 追思佩魚之明府 遠慕躬耕於此地 頻瞻臥龍之舊堂 武夷琴書 乃追朱夫子之別業 平泉花石 何羨李太尉之名莊 此可謂君子居之堂高數仞 雖得志而不爲 孰不曰主人慳也 庾廣千間 蓋庇寒之所願 仁爲美而擇里 墻連柳先生之海門 德不孤而有隣 路通洪學士之林院 鷹峯秀北 俾尚父而維揚 馬浦在西 留放翁而博且 望雲有淚 愛我桑梓之鄉 依斗傷懷 戀彼蓬萊之闕 鶴庭明月 每照梅閣之徐徽 乘地春風 時拂梧床之長枕 躍魚鱗於春水 黃柳池塘 翫鳳羽於朝陽 碧梧院落 然則局外狂塵 環壁白旂 家中舊物 堆案青氈 教子以經 貽孫亦逸 春枕幻蝶 奚信莊叟之浮談 夜廚化龍 自有釋氏之蹟誠 述而曰有頭尾 貺之亦以中心 繼之以銘曰

정호(鼎湖) 한필동(韓弼東)은 남양(南陽) 송산면(松山面) 봉가리(鳳歌里)에 살고 있다. 백세(百世)에 미치도록 후손을 열어주어 정호의 원대한 계획을 잇는다. 5이랑 면적의 집터에 나아가 반곡정사를 노래한다. 집을 쳐서 길하다고 하므로 이를 밝게 고한다. 생각하면 사문(斯文) 한 필동은 서원(西原 : 청주 한씨)의 아름다운 후손으로 상당(上黨 : 청주)의 보배로운 호적에 올랐다. 이에 훈업(勳業)을 밝은 시대에서 상고하여 문열(文烈)의 유명한 집안을 이었고, 법도를 대가에 크게 열어주어 이에 정익(靖翼)¹⁷⁶의 빛나는 문벌에 미쳤다.

작은 수레를 몰고 남쪽으로 건너와서 오래도록 자취를 당성(唐城)¹⁷⁷에 묻었고, 돼지우리를 철거하고 북쪽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한원(漢苑)¹⁷⁸에 고개를 돌렸는가! 선생의 규범을 따라 많이 나아가니 소주(蘇州)¹⁷⁹의 학규(學規)를 권장하고, 어린이의 훈계를 일깨워서 같이 돌아가니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鄉約)¹⁸⁰에 의거하였다. 춤고 따뜻함에 의지하여 만물을 접하니 거의 제 때에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부지런과 검소함을 행하여 나를 도와 과연 그 힘을 얻은 것이다.

늙어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 다르나, 어찌 평일에 무릎이나 들어갈 작은 집을 마련할 방도가 없겠는가! 장석(匠石)¹⁸¹에게 맡겨서 외쪽에 지팡이 오른쪽에 줄을 잡아서 사치하지 않고 검

176) 정익(靖翼) : 영의정 한준(韓準)의 시호.

177) 당성(唐城) : 남양(南陽)의 옛 이름.

178) 한원(漢苑) : 한나라 때의 후원(後苑). 무제(武帝)가 만든 상림원(上林苑)을 가리킨다.

179) 소주(蘇州) : 송나라 안정선생(安定先生) 호원(胡瑗)이 교수(教授)를 지낸 곳. 학교 규정을 만들어 엄히 교육하였다.

180)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鄉約)」 : 송(宋)나라의 여대균(呂大鈞)이 제정한, 1향(鄉) 사람이 함께 준수할 규약. 여씨가 처음 제정한 향약은 “덕업(德業)을 서로 권장한다. 과실을 서로 간[規]한다. 예속으로 서로 사귀다. 환란을 서로 구휼한다.”는 네 가지이다.

181) 장석(匠石) : 최고의 목수. 「장자(莊子)」 「서무귀편(徐無鬼篇)」에, “영(郢) 땅 사람이 백토[堊] 가루를 코끝에 발라 파리 날개와 같이 얇게 해 놓고 목수 석(石)으로 하여금 깎아내게 하니, 석이 자귀를 돌려 바람을 일며 그 백토 가루를 다 깎아냈다. 그래도 코가 상하지 아니하였고 영 땅 사람도

소하게 하지도 않았다. 회문(義文)¹⁸²으로 점을 쳐서 위로 도리에 아래로 처마에 닿아 수레 몸체와 바퀴로 나른다. 위치가 문명(文明)한 곳이어서 삼존(三尊)의 평지 농막에 접근하고, 집안이 담박하여 아홉 개의 빼어난 높은 봉우리에 멀리 임하였다. 일찍이 들으니 앞서사람들보다 마음으로 사랑하며 패어(佩魚)¹⁸³를 한 명부(明府 : 사또)를 추모하고, 멀리 이 땅¹⁸⁴에서 몸소 농사지었던 것을 사모하여 자주 와룡(臥龍 : 제갈량(諸葛亮))의 옛날 사당을 바라본다. 무이(武夷)에 금서(琴書 : 거문고와 책)는 주자(朱子)의 무이정사(武夷精舍) 별업(別業 : 별장)을 추억하게 하고, 평천(平泉)에 기이한 꽃과 기암괴석은 어찌 이태위(李太尉 : 이덕유)의 유명한 평천장(平泉莊)¹⁸⁵을 부러워할 것인가! 이는 군자가 사는 집의 높이가 몇 길이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 조용히 사는 넓은 집 천칸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추위를 감싸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짐을 아름답게 여겨 마을을 선택하여 담장이 유선생(柳先生)의 해문(海門)에 닿았고, 도덕자는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어서 도로가 홍학사(洪學士)의 임원(林院)으로 통하였다. 응봉(鷹峯 : 새매 봉우리)은 북쪽에 빼어나서 상보(尙父 : 강태공(姜太公))에게 날래도록 하고, 마포(馬浦)는 서쪽에 있어 방옹(放翁 : 육유(陸游)) ... 한다.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니 우리 상재(桑梓)¹⁸⁶의 고향을 사랑하고, 북두성에 의지하여 마음을 상하니 저 봉래산 신선의 궁궐을 그리워한다. 학이 있는 뜰의 밝은 달은 늘 매화나무 있는 문의 느슨한 거문고 줄을 비추고, 땅을 타는 봄바람은 오동나무 침상의 긴 베개를 스쳐간다. 뛰는 물고기는 봄 물 속에 비늘을 놀리니 노란 버들이 있는 연못이고, 나는 봉황이 산 동쪽에서 날개 짓하니 벽오동이 있는 뜨락이다. 그렇다면 국외(局外)의 광기어린 풍진은 벽을 돌린 흰 깃발이고, 집안의 대물리는 물건은 침상에 쌓인 푸른 담요이다. 아들을 경전으로 가르치고 손자에게 남긴 것도 편안하다. 봄에 잠을 자다 나비로 변하니 어찌 장수(莊叟)¹⁸⁷의 허튼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밤 부엌에서 용으로 변한다는 것은 본래 부처님의 깊은 경계가 있다. 서술하여 말하기를 머리와 꼬리가 있으니 주기를 또한 속마음으로 한다. 이어서 명(銘)을 쓴다.

維谷是度 골짜기를 헤아려보니

扞旋以盤 소반처럼 돌았네.

侯誰在矣 누가 있는가!

그대로 서서 얼굴빛을 상실하지 아니했다.” 하였다.

182) 회문(義文) : 복희(伏羲)의 글이라는 뜻으로, 주역(周易)을 말함.

183) 패어(佩魚) : 당(唐) 나라 때 5품 이상의 관원이 허리에 찻던 어대(魚袋)로, 고위 관원을 말함.

184) 이 땅 : 남양(南陽)을 말함. 와룡(臥龍) 즉 제갈량(諸葛亮)이 남양에서 농사지었던데, ‘南陽’이 한자로 중국 지명과 한국 지명이 같아서 와룡을 연관시켰다.

185) 평천장(平泉莊) : 당(唐)나라의 정승 이덕유(李德裕)가 세운 별장. 기화요초(琪花瑤草)와 기암괴석(奇岩怪石)으로 유명하였다.

186) 상재(桑梓) : 부모가 살던 고향을 말함.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반(小弁)」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敬止)”에서 유래한 것이다.

187) 장수(莊叟) : 장자(莊子).

昔李今韓 옛날에는 이(李)씨 지금은 한(韓)씨네.
 其域雖殊 그 지역은 비록 다르지만
 錫號一般 호칭을 준 것은 일반이로다.
 嶺秀林茂 봉우리는 빼어나고 숲은 우뚝하고
 土肥泉甘 땅은 비옥하고 샘물은 달도다.
 地係華北 땅은 화성(華城) 북쪽에 이어지고
 名擅漢南 이름은 한강 남쪽에서 독점하였네.
 愿之居也 이원이 반곡으로 은거하러 가는데¹⁸⁸⁾
 昌黎先序 한유(韓愈)가 먼저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를 썼네.
 弼之舍焉 한필동이 여기에 반곡정사를 짓고
 愚山後敍 우산(愚山 : 신종목)이 후서(後敍)를 쓰네.
 第觀厥圖 다만 반곡정사도를 보면
 白水南陽 맑은 물이 남양에 있네
 文廟咫尺 문묘가 지척에 있고
 華山中央 화산은 중앙에 있네.
 桐江扶鼎 동강에서 나라를 유지해 주니
 子陵淸風 엄자릉(嚴子陵)의 맑은 기풍이라.
 栗里撫絃 울리¹⁸⁹⁾에서 거문고를 타니
 元亮丹衷 도연명의 일편단심이네.
 花盆茶爐 화분과 차 끓이는 화로에
 窓軒淡泊 창과 처마가 담박하네.
 竹塢菊畦 대나무 언덕과 국화 꽃밭에
 庭除寥廓 뜰은 여유롭네.
 濟衆餘術 대중을 구제하는 많은 방법은
 叢祠禱醫 숲속 사당에서 고치기를 비는 것이라.
 愛國空想 애국을 공연히 생각하다
 丸場被危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위태로움을 당하였네.
 我銘不偶 나의 명(銘)은 우연이 아니니
 講世是宜 세상에서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네.
 (元文六百四十八字 원문은 648자이다.)

188) 이원이 반곡으로 은거하러 가는데 : 한유(韓愈)가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를 쓴 것을 말함. 『韓昌黎集』 「補遺」 「送李愿歸盤谷序」

189) 울리(栗里) : 지명. 강서성(江西省) 성자현(星子縣)에 있으며, 도연명이 살던 곳이다. 『南史 卷75 陶潛列傳』

七日 火 十三日 庚午 陽 日寒不解 伏蟄不鳴 二世之末 天下大寒 牛羊凍死 亂世其罰是寒 春寒尙峭 兼有堆雪 冷突經夜 豈是老病所堪耶

3월 7일 화요일 음력 2월 13일 경오(庚午). 맑음. 추운 날씨가 풀리지 않아 웅크린 벌레들이 울지 않는다. 진(秦)나라 이세황제(二世皇帝) 말기에 천하가 크게 추워 소와 양이 얼어 죽었으니 어지러운 세상은 그 벌이 추위이다. 봄추위가 아직도 거세고 겹하여 눈이 쌓였다. 차가운 구들장에서 밤을 지내니 어찌 늙은 병자가 견딜 것이겠는가!

逢亂世興歎 난세를 만나 탄식이 일어남

雜稅至於飲酒醪 여러 가지 세금이 심지어 막걸리 마시는 데까지 하고
百盤苛政密牛毛 온갖 가혹한 정사가 쇠털처럼 조밀하네.
春風逆境升平老 봄바람이 역행하여 태평이 줄어들고
落日窮途離亂遭 지는 해에 막다른 길에서 난리를 만났네.
苔生石面魚鱗細 이끼가 돌에 나고 고기비늘은 가늘고
雲擁木頭鹿角高 구름은 나무 꼭대기를 안고 사슴뿔은 높네.
鬪圖播穀時將及 빈풍¹⁹⁰에 곡식을 파종할 때가 이르러 하니
乘屋前秋已索綯 지붕을 이르려고 지난 가을에 이미 새끼를 꼬아 놓았네.

憶友人李範薰甫 친구 이범훈을 그리워함

相思咫尺阻寒暄 지척에서 서로 그리워해도 안부가 막혀서
明月南溪恒夢魂 밝은 달 남쪽 시내에 늘 꿈을 꾸네.
一病支離司馬榻 한 번 병든 몸이 지루하게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리에 있는 듯하고
七年不到臥龍門 칠년 동안 가지 못하고 용문에 누워 있네.
青春有恨君應老 청춘은 한스럽게도 그대가 늙어가고
白首無情我尙存 센 머리는 무정하게도 내가 아직도 남아있네.
風樹三霜終孝後 부모 삼년상을 지내어¹⁹¹ 종신 효도한 뒤에
望雲餘淚幾回捫 구름을 바라보는 많은 눈물 몇 번이나 닦는가!

190) 빈풍 : 『시경』 빈풍 칠월 제7장의, “낮에는 나가서 띠를 베오고, 밤이면 새끼를 꼬아서, 하루 빨리 지붕을 이어야만, 명년 봄에 다시 백곡을 파종한다.(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하였다.

191) 부모 삼년상을 지내어 : 원문 ‘風樹’는 세상을 떠난 부모를 생각하는 슬픈 마음을 뜻함. 공자(孔子)가 길을 가는데 고어(皁魚)란 사람이 슬피 울고 있기에 까닭을 물었더니,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 싶어도 아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夫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하였다. 『韓詩外傳』

驚蟄 경칩

爾雖一微物 네가 비록 하나의 미물이지만
 藏動亦隨機 숨거나 동작하거나 또한 기회를 따라하네.
 玄窟能堪凍 어두운 굴속은 추위를 견딜 수 있고
 黃泉奈免饑 황천에서 어찌 배고픔을 면할까!
 回春誰使覺 봄이 돌아옴은 누가 깨우치게 하는가!
 當節少無違 계절을 당하여 조금도 어김이 없네.
 推認天心廣 하늘이 넓음을 미루어 알겠으니
 有恩并有威 은혜가 있고 아울러 위엄도 있네

春懷 봄을 그리워함

橋南數里漲寒沙 다리 남쪽 몇 리에 차가운 모래에 냇물이 늘고
 野屐林鄉一逕斜 들을 걸으니 숲 마을에 산길이 빗겨있네.
 白日高歌非俗士 대낮에 고상히 노래하니 저속한 선비가 아니고
 青山痛哭盡名家 청산에 통곡하니 이름 있는 집안을 다하였네.
 臨時朝雨將蘇麥 때가 되어 아침 비 내리니 장차 보리가 자라나겠고
 隨節春風曉釀花 계절을 따르는 봄바람은 꽃을 재촉한다.
 酒肆長安多月色 장안 주막에 달빛이 많이도 내려왔는데
 謫仙何就洞庭餘 적선은 어디 가서 동정호에 외상술을 사는가!

舊感 옛일을 감상함

亂代餘憂意不稱 어지러운 세상에 많은 근심을 말하지 않고
 休居林下却模稜 숲 아래에서 편안히 살면서 모나지 않게 하네.
 家貧未得供三鼎 집안이 가난하여 음식 세 그릇을 놓지 못하고
 賓到難謀醉一升 손님이 와도 한 되의 술로 취하게 하기 어렵네.
 近祖崇資京兆尹 가까운 할아버지는 높은 경조윤¹⁹²⁾ 자리에 올라가고
 屨孫濫職秘書丞 잔약한 손자 나는 비서승으로 외람된 관직을 하였네.
 蒼梧雲月多懷感 창오¹⁹³⁾에 구름 속의 달은 감격하는 뜻이 많고
 咫尺回頭望獻陵 가까운 곳으로 머리를 돌려 현릉¹⁹⁴⁾을 바라보네.

192) 경조윤 : 한성부 우윤을 지낸 신종목의 고조부 신기경(愼基慶)을 말함.
 193) 창오 : 순(舜) 임금의 장사지낸 곳으로, 지하에 묻힌 성군(聖君)을 뜻함.
 194) 현릉(獻陵) : 태종과 그의 비 원경 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능.

寂中走筆 고요함 속에서 글을 씀

世事葱荒入問題 세상 일이 복잡하여 문제로 들어가니
 獵人得兔却忘蹄 사냥꾼이 토끼를 잡고는 문득 올가미를 잊네.¹⁹⁵⁾
 滕形黃口多充陳 몸에 행진 찬 어린아이는 대부분 군대에 충당하고
 汚俗紅顏盡出閨 세상이 오염되어 홍안 소년은 모두 안방에서 나오네.
 當日酒仙眠市上 당일 주선은 시장에서 자고
 晚年詩祖老江西 만년에 시가의 원로는 강 서쪽에서 늙는다.
 朝來暫聽農家語 아침이 와서 잠시 농가의 말을 들으니
 昨雨均沾未及犁 어제 비가 고르게 적셨으나 아직 쟁기 보습에 찰만큼 이르지 못했다고 하네.

活圖 살 궁리

樂樂復憂憂 즐겁다가 다시 근심을 하고
 箇中餘債皆 그 중에 모두 많은 빚이 있네.
 詩文眞實地 시문은 실제 터전을 참되게 하고
 稼穡好生涯 농사는 삶을 아름답게 하네.
 梓桑依舊隴 가래나무와 뽕나무는 옛날 언덕에 그대로 있고
 蘭竹滿前階 난초와 대나무가 계단 앞에 가득하네.
 有官年屆九 관직에다 나이가 구십 살에 이르렀으니
 此外更何懷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그리워하라!

八日 水 十四日 辛未 陽 日寒終不解 鏞男母衣裳衾褥之綻裂 盡紉縫 宗卿母于今不健 多浮氣云
 終日陰 夜雪多

3월 8일 수요일 음력 2월 14일 신미(辛未). 맑음. 추운 날씨가 끝내 풀리지 않았다. 용남(鏞男) 어미가 옷과 요 이불에 터지고 찢어진 곳을 다 바느질해 꿰맸다. 종경(宗卿) 어미가 지금에 건강하지 못하고 부운 기운이 많다고 한다. 종일 흐리다가 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195) 올가미를 잊네 : 목적을 달성하면 도구 또는 방편은 잊음을 말함. 제(蹄)는 토끼를 잡는 올가미를 말한 것으로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것인데 토끼를 잡고 나면 올가미는 잊어버리는 것이다.(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에서 유래한 것이다.

格談行 바른 말 노래

主翁先覺掃靈垆 주인 늙은이가 앞서서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習俗流風互往來 세속 풍류에 서로 왕래하네.
當年恩怨金三品 당시에 은혜는 금은 띠를 두른 삼품이었고
平日親踈酒一盃 평소에 친함은 술 한 잔이라.
學違斯道終違學 학문은 정도(正道)를 어겨 마침내 학문을 어기고
才用其人可用才 인재는 온당한 사람을 써서 인재를 쓸 수 있네.
雨露勻天如共間 은혜가 하늘에서 고른지 만일 함께 묻는다면
試看春陌百花開 봄 언덕에 온갖 꽃이 피어있음을 보게나.

聞驚蟄聲 경칩 소리를 들음

今夜初聞伏蟄鳴 오늘밤 처음으로 잠복한 벌레 우는 소리를 들으니
天機代序理分明 천지 고동의 질서가 바뀌는 것이 그 이치 분명하네.
寒門薄德疑躋壽 쓸쓸한 집안에 박덕함으로 오래 사는 것이 의아하고
亂代微官愧有名 난세에 낮은 관직으로 이름난 것이 부끄럽네.
千里江湖來鴈影 천리 강과 호수에 기러기 그림자 오고
五更風雨送鷄聲 오경에 비바람 속에 닭 우는 소리 보내오네.
青蓮情話三巴險 청련¹⁹⁶⁾의 삼파¹⁹⁷⁾의 험준함을 이야기 했는데.
杜老緣何老錦城 두로¹⁹⁸⁾는 무슨 까닭으로 금성에서 늙었는가!

不見金剛山 금강산을 보지 못함

(與李尙書有約不遂 이상서와 약속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였다.)

關東路不遠 관동 길이 멀지 않으나
萬像阻金剛 온갖 일이 금강산을 막았네.
家貧常在塾 집이 가난하여 항상 글방에 있고
親老不離床 부친이 늙어 평상을 떠나지 못하네.
名區餘夢想 명승지에 꿈이 많고
奇觀續文章 절경은 문장으로 이어지네.
同轍分明約 수레를 같이하여 가기로 분명히 약속했으나

196) 청련 : 청련거사(靑蓮居士)의 약칭으로, 이백(李白)의 별호(別號).

197) 삼파(三巴) : 파군(巴郡)·파동(巴東)·파서(巴西)의 합칭으로 사천(四川) 지방을 말함.

198) 두로(杜老) : 당(唐) 나라 시인 두보(杜甫).

焦翁已宿霜 초옹¹⁹⁹)과 이미 지난해의 일이 있었네.

冠岳奇觀 관악산의 기이한 경관

此地西金剛 이곳은 서쪽 금강산
奇形名不虛 기이한 그 모습 이름이 헛되지 않았네.
流水清於渭 맑은 물은 위수(渭水)²⁰⁰보다 맑고
群峯環似滁 봉우리를 빙 둘러싸이 저주(滁州)²⁰¹와 비슷하네.
黃石真人窟 황석굴에는 진인이 있고
白蓮高釋廬 백련암은 고승의 거처라.
四望多壯觀 사방을 바라보자 대부분 장관이니
行路盡停車 가는 길마다 모두 수레를 멈추네.

空想 공연히 생각함

獨坐每懷舊日遊 홀로 앉아 늘 옛적 노닐던 일이 그립고
春來詩思不登樓 봄이 와서 시를 생각하지만 누각에 오르지 않네.
夢裏身康偏愛夢 꿈속에 몸이 편해 꿈을 유독 좋아하고
愁中年老却除愁 시름 속에 나이 늙어 도리어 시름을 없애네.
高士咸藏空禮遇 고상한 선비들 다 자취를 감추자 예우가 부질없고
親朋俱沒少書投 친한 친구들 모두 죽어 글을 보내는 이도 적다네.
餘生安得清風帆 여생을 어떻게 맑은 바람에 띄우는 배를 얻어
壯觀流行徧六洲 절경을 떠돌며 육대주(六大洲)를 두루 다닐까!

九日 木 十五日 壬申 雪未晴 朝後 陽旋陰 陰旋陽 日出午前六時五十九分 日入午後六時三十二分 晝十一時三十九分 夜十二時二十七分 夜有雪 夜供有引絕餅

3월 9일 목요일 음력 2월 15일 임신(壬申). 눈이 개지 않음. 아침 이후에 맑았다가 곧 흐려지고 흐렸다가 곧 맑아졌다. 해는 오전 6시 59분에 떴고, 오후 6시 32분에 졌다. 낮의 길이는

199) 초옹 : 초정(蕉庭) 이근택(李根澤)을 말함.

200) 위수(渭水) : 장안(長安)을 흐르는 강물 이름으로 경수(涇水)와 합하는데, 경수는 흐르고 위수는 맑다[涇濁渭清].

201) 저주(滁州) : 송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지은 「취옹정기(醉翁亭記)」에 나오는 지명. 산으로 모두 둘러싸였다고 묘사되었다.

11시간 39분이었고, 밤의 길이는 12시간 27분이었다. 밤에 눈이 내렸다. 밤에 인절빙(引絶餅 : 인절미)을 먹었다.

觀天下勢 천하의 형세를 봄

(白戰老將 翫於兵戰 글 겨루는 노장이 전쟁에 익숙함)

輸贏一局載新聞 승패 일국을 신문에 신고

餘算更調水陸軍 남은 계책 다시 조정하는 수군과 육군이라.

進退征兒遼旅律 전진 후퇴하는 군사는 진법에 어긋나고

實虛謀士昧乾文 허실을 짚는 모사는 천문에 어둡네.

兵仙此世無韓信 전쟁의 신으로는 이 세상에 한나라 한신(韓信)만한 이가 없으며

福將誰家產廓汾 복된 장군은 어느 집에서 곽분(廓汾)²⁰²을 낳았는가!

往事惟觀天下勢 지난 일로 천하의 형세를 보니

先生諸葛老三分 제갈공명(諸葛孔明)도 삼분천하(三分天下) 속에서 늙어갔네.

月色正佳 아름다운 달빛

(以上二百首 이상 200수)

寒溪堂畔月團團 한계 집 가에 뜬달 둥글기만 한데

幾處詩人共倚欄 어느 곳에 시인이 난간에 함께 기댔꼬!

野夫知節修耕耜 농부는 때를 알아 농기구 수리하고

漁叟關心作釣竿 어부는 정신 쏟아 낚싯대를 만드네.

南天風順鴻毛舉 남쪽 하늘 순한 바람은 흥모를 날리고

北海雲高鵬翼搏 북쪽 바다 높은 구름에 봉새는 날개 짓 하네.

夭桃春色詩謠溢 아름다운 복사꽃 봄기운에 시며 노래가 넘쳐나고

納婦東隣撫棗盤 며느리 맞는 이웃집에는 폐백쟁반엔 대추를 쥐었네.

走筆入佳 붓을 내달려 아름다움을 표현함

生民魚肉使人悲 백성들의 참혹함에 절로 슬픔이 이는데

202) 곽분(廓汾) : 곽분양(廓汾陽)을 말함. 이름은 자의(子儀). 당(唐)나라 현종(玄宗)·숙종(肅宗) 때의 인물. 안록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의 난을 평정한 뒤 그 공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지고 벼슬이 중서령(中書令)에 이르렀다. 수(壽)와 복을 누리고 자손이 번창 하였으므로 역사상)·장 팔자 좋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

臨陣无戒更出師 전쟁에 나갈 적에 경계함도 없이 무모하게 다시 군사를 출동하네.
 巡屋乳鷄同子母 집을 살펴보는 어린 닭은 새끼와 어미가 함께 하고
 在梁鳴雉和雌雌 다리에서 우는 꿩은 암수가 화답하는구나.
 山家流節看蒼莢 산중 민가에 흐르는 계절은 푸른 명협(莫莢)을 보아 알고
 石广高歌送紫芝 돌집의 고상한 노래는 영지를 보내네.
 東社夜暄春賽供 동쪽 마을에는 밤에 시끄러이 봄 굿판이 벌어졌고
 月中歌管就叢祠 달빛 속에 피리소리는 총사(叢祠)²⁰³에서 나는구나.

其二 그 둘째

東府治風衆口拙 동부(東府)에서 풍속을 다스려 대중의 입을 막고
 百條時價乏低廉 백가지 시가가 저렴한 것이 흠이라네.
 人盡空泡同貴賤 사람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물거품처럼 되고
 世無棄物悉洪纖 물건은 크든 적든 버릴 것이 없다.
 瓊液雪粧簾外虎 경액(瓊液)²⁰⁴과 눈 단장에다 주렴 밖에 호랑이
 金精月映鏡中蟾 금정(金精)²⁰⁵과 달빛에 거울 속의 두꺼비[달]라.
 宿工老去能安分 숙련된 장인은 늙어갈수록 분수에 편안히 하니
 糲飯藜羹我不厭 거친 밥 나물국도 나는 물리지 않네.

春秋無好戰 춘추(春秋)에는 아름다운 전쟁이 없음

西北戰爭不撤兵 서북의 전쟁 그칠 줄도 모르더니
 歲非荒歉盡呼庚 흉년도 아닌데 호경(呼庚)²⁰⁶이 바닥 났네
 域中未有千年國 그 땅에 천년 가는 나라는 없는 법이니
 河北空延萬里城 하북(河北)엔 공연히 만리장성만 뻗어있네.
 蚌鷓相持皆誤計 방홀(蚌鷓)²⁰⁷처럼 버티는 것은 모두 잘못된 계획
 覽盲同濟亦親情 앓은맹이와 소경이 서로 돕는 것은 또한 친한 정이라.

203) 총사(叢祠) : 숲 속의 사당.

204) 경액(瓊液) : 신비로운 약물, 또는 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5) 금정(金精) : 병란(兵亂)을 주관한다는 태백성(太白星)의 별칭.

206) 호경(呼庚) : 군량미가 떨어진 것을 말함. 춘추 때에 군대의 식량이 다 떨어져 원조를 요청하자. '경계(庚癸)라고 부르던 곧바로 응하겠다.(呼曰庚癸則諾)'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庚)은 서방(西方)으로 곡식을 상징하고 계(癸)는 북방(北方)으로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용했던 은어(隱語)였다. 『春秋左傳』 哀公 13年

207) 방홀(蚌鷓) : 방홀지세(蚌鷓之勢)의 줄임말. 큰 조개가 껍데기를 벌리고 있을 제 지나가던 황새가 쪼아 먹으려다가 조개껍데기가 닫히는 바람에 도리어 주둥이를 물리어 서로 마주 버티다가 어부에게 모두 잡혔다는 것으로, 서로 버티고 다투다가 제3자에게 이익을 빼앗김을 말한다.

仁心勻覆皇天在 인심(仁心)으로 두루 감싸주는 것은 황천에 달린 일
人物其間共好生 인물들은 그 속에서 함께 사이좋게 살아야지.

推理 이치를 추리함

病餘默算化翁功 병치레 하는 가운데 주물주의 일 따져보니
萬類林葱廣大同 모든 종류 총총하게 광대하여 동일한 것을.
羽語參量須少白 새 소리 따져 보니 반드시 새는 흰색이 적고
葩經乘除便多紅 파경(葩經)²⁰⁸을 헤아려 보니 붉은 색이 많네.
靑山最好春風裡 푸른 산은 봄바람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流水偏忙夕照中 흐르는 물은 석양 속에서 유독 바쁘네.
定使余言如不信 정말 내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剩將玄理問蒼穹 현묘한 이치를 넉넉히 가져다가 푸른 하늘에 물어보게나.

貧居 가난하게 살음

爾年同我栽松 네 나이 나와 같아 내가 소나무를 심었는데
閱盡風霜九十冬 풍상을 다 겪기를 90년간 하였네.
拙手扶家惟尙儉 못난 솜씨에 집안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검소를 숭상하고
卑身觀世莫如恭 낮은 몸이 세상을 살피는 데는 공손만한 것이 없네.
浮名夢裡官三品 꿈결 같은 속에 관직 삼품 지낸 것은 부질없는 명예이고
浪說書中祿萬鍾 책 속에 만종의 녹봉이 있다는 것은 낭설일 뿐.
貧巷生涯還淡泊 가난 속에 살은 생애는 도리어 담박하기만 하니
晝無盤供夜無春 낮에는 밥상에 올릴 것이 없고 밤에는 짙을 곡식이 없네.

十日 金 十六日 癸酉 陽 日寒不解 天氣連日不佳 族孫益範以襄簡公碑文事來議 而以本孫名義書之 不如他人 而以金容鎮名書之 文則大父之述也 宗議歸一云 神道元無子孫名

3월 10일 금요일 음력 2월 16일 계유(癸酉). 맑음. 추운 날씨가 풀리지 않는다. 기후가 매일 좋지 않다. 족손(族孫) 익범(益範)이 양간공(襄簡公) 비문(碑文) | 족손으로서 의논하였는데, 본손의 명X족손쓰는 것이 다른 사람 족손하는 것만 못해서 김용진(金容鎭)의 이름<족손쓰고 글은 대부(大父 : 나)가 서술하는 것<족, 종중의 논의가 하나족손귀일되었다고 한다. 신도비(神道

208) 파경(葩經) : 시경(詩經)의 다른 이름.

碑)에는 원래 자손의 이름이 없다.

曠懷 트인 가슴

倏忽流光赴壑蛇 잠깐 사이 흐르는 세월은 구렁을 달리는 뱀과 같고
曠懷欲唱映小霞 트인 가슴은 노래하려 하여 작은 놀에 비치네.
七十年間常作客 70년간 늘 객지살이를 하였으나
一千里外不離家 천리 밖으로 집을 떠나지 않았네.
早檢茶經無惡草 일찍이 살펴본 다경(茶經)²⁰⁹엔 나쁜 풀이 없었고
晚裁葩譜摠佳花 늘그막에 완성한 화훼 계보엔 아름다운 꽃들만 가득.
詩文集雖牛汗 시문(詩文)을 모은 것이 비록 소가 나르기에 땀 흘릴 만큼 많다 하지만
餘力難窺屈宋衙 남은 힘은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의 경지를 엿보기 어려워라.

其二 그 둘째

焚香觀易坐 향을 피우고 앉아 주역을 보니
翠羽過書窓 비취가 서재 창가로 지나가네.
同契黃金斷 교분이 같으면 쇠도 자를 수 있고
違心白壁撞 마음이 어긋나면 백벽(白壁)도 쳐버리네.
郡聯烏耳島 군(郡)은 오이도(烏耳島)²¹⁰와 연결되어 있고
路接鴨頭江 길은 압두강(鴨頭江)과 접해 있네.
近日人多醒 최근에는 술에서 깬 사람이 많아
榷沽廢酒缸 각고(榷沽)²¹¹엔 술 향아리 쓸모없게 되었네.

其三 셋째

南岡故宅傍林園 남강의 옛집 곁에는 수풀 동산이 있어

209) 다경(茶經) : 당(唐) 나라 때 육우(陸羽)가 지은 차(茶)에 대한 책.

210) 오이도(烏耳島)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서쪽 바닷가 지역. 원래 육지에서 약 4km 떨어진 섬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갯벌을 염전으로 이용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오이도는 섬의 모양이 마치 까마귀의 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인근의 옥구도와 함께 옥귀섬 [玉貴島] 이라고도 부른다.

211) 각고(榷沽) : 중국 한(漢)나라 이후에 행하여지던 술의 전매법. 무제(武帝)가 기원전 98년에 국용(國用)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는데, 관(官)에서 양조 판매하는 일, 누룩만을 만들어 주가(酒家)에 판매하는 일, 일정한 주호(酒戶)에 전매권을 주는 일 등의 방법이 있었다. 각주제(榷酒制)라고도 한다.

桑梓淸陰永不諼 조상이 심은 가래나무 뽕나무의 시원한 그늘을 영원히 잊지 못하네.
 偶爾遐年參五福 우연히 늙그막에 오복(五福)²¹²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自矣薄德漏三尊 원래 부족한 덕(德)은 삼존(三尊)²¹³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네.
 魏公衛疏章章直 위공(魏公)²¹⁴의 상소는 문단마다 바르고
 屈子離騷句句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²¹⁵는 구절마다 원통함이 담겼네.
 先聖春秋無義戰 선성(先聖 : 공자)의 춘추에는 의로운 전투 없으니
 未聞列國會于洹 여러 나라들이 원수(洹水)에서 회맹했다²¹⁶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네.

十一日 土 十七日 甲戌 陽 日寒終不解 寒苦甚於冬節 鋪漢生日 而崔羹白飯兼有稗餅 盤谷精舍
 圖修書將付 見鼎湖書 喜其無故

3월 11일 토요일 음력 2월 17일 갑술. 맑음. 추운 날씨가 끝내 풀리지 않았다. 추위 고통이 겨울철보다 더 심했다. 용한(鋪漢)의 생일날이라 콩국과 흰쌀밥과 차조로 만든 떡을 먹었다. 반곡정사도(盤谷精舍圖)를 정리해 써서 부치려고 하는데, 정호(鼎湖)의 편지를 받고 아무 탈이 없어서 기쁘다.

朝鮮後評 조선에 대한 후평

庚戌往塵我不知 경술년[1910]의 지나간 풍진을 나는 모르니
 靑山六里夢中欺 청산육리(靑山六里)²¹⁷로 꿈속의 속임이라.
 檀君北降三綱立 단군(檀君)은 북쪽에서 내려 오셔서 삼강(三綱)을 세웠고
 箕聖東來八教施 기성(箕聖)²¹⁸은 동쪽으로 오셔서 팔교(八教)²¹⁹를 베풀셨네.

212) 오복(五福) :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복. 보통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와 자손중다(子孫衆多)를 꼽기도 한다.
 213) 삼존(三尊) : 삼달존(三達尊). 천하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 높은 것. 나이, 관직, 도덕을 말함. 「孟子」 「公孫丑」
 214) 위공(魏公) : 송(宋)나라 한기(韓琦)를 가리킴. 영종(英宗) 때 우복야(右僕射)로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음. 대책(大策)을 정하여 사직을 안정시키는 데 공이 컸음.
 215) 이소(離騷) :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지은 부(賦). 조정에서 쫓겨난 후의 시름을 노래한 것으로 「초사(楚辭)」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216) 원수(洹水)에서 회맹했다 : 전국(戰國) 때 소진(蘇秦)이 육국(六國)의 장상(將相)을 모이게 하여 맹약을 맺었던 강물 이름. 「戰國策 趙策」
 217) 청산육리(靑山六里) : 속임을 말함. 전국시대 진나라 장의(張儀)가 초(楚)나라 회왕(懷王)에게 제(齊)나라와 외교를 단절하면 상오(商於)의 땅 600리를 주겠다고 하자, 초나라 회왕은 제나라와 외교를 끊고 장의에게 600리 땅을 요구하였는데 장의는 속여서 회왕과 6리를 약속했지 600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속인 일. (「史記 屈原列傳」) 이 사건으로 초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진나라에게 크게 패하였다.

地重隋唐同敗後 땅은 소중한여 수(隋)와 당(唐)이 함께 패배한 뒤이고
 天高羅麗替興時 하늘은 높아 신라(新羅)와 고려(高麗)가 번갈아 일어난 때라.
 曾開東土三千里 일찍 동방 땅에 개국했던 삼천리
 魚齒雖平獸角危 어치(魚齒 : 산)는 비록 아무 일 없으나 수각(獸角 : 성곽)²²⁰은 위태로웠네.

十二日 日 十八日 己亥 陽 日寒一直 春雨太遲 汲水枯渴 郵票價十錢 良範持來 順女之幼行 闕
 母導之以不美 咄歎奈何

3월 12일 일요일 음력 2월 18일 기해(己亥). 맑음. 추운 날씨가 한결같다. 봄비가 너무 늦어
 길을 물이 말라 버렸다. 우표 값 10전(錢)을 양범(良範)이 가지고 왔다. 순녀(順女)의 어린 행
 동은 그 어머니가 좋지 못한 길로 이끌고 있으니 한탄한들 어찌할까!

靜觀 조용히 봄

回看西出捲紅雲 서쪽 산을 돌아보니 붉은 구름이 걷히고
 環域黎民待聖君 사방의 백성은 성군을 기다리고 있네.
 壘上鴻飛誰後唱 언덕 위에 기러기 나는 데에 누가 뒤에서 화답을 할 것인가!
 石頭鶴唳我先聞 돌 위에 우는 학 소리는 내가 먼저 들었네.
 天地同心難一統 천지가 마음을 같이해도 통일하기가 어렵고
 英雄擬角易三分 영웅들이 각축을 벌이니 삼분되기는 쉽네.
 榻外風聲消息大 책상 밖의 바람소리 소식이 크니
 女娘從此盡從軍 여인들도 이로부터 모두 군대에 나가리.

漫吟 한가히 읊음

年荒兼世亂 흉년에 겸해 세상까지 어지러우니

218) 기성(箕聖) : 기자(箕子)를 말함. 이름은 서여(胥餘)·수유(須臾). 전설상으로 전하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시조.

219) 팔교(八教) : 기자(箕子)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8가지 법령. 그 조목은 다음과 같다. 1. 살
 인한 자는 죽이고 2.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고 3. 강도 한 자는 다 그 집에 들어가 노
 비(奴婢)가 되고 4. 절도한 자는 자기만 노비가 되고 5. 남자는 밖에 나가 농사를 짓고 6. 여자는 안
 에서 베를 짜고 7. 혼인은 한 남자가 부인 한 명만을 거느릴 수 있고 8. 명분(名分)을 서로 침해하지
 말라.

220) 수각(獸角) : ‘짐승의 뿔을 비유하면 성곽으로 삼을 수 있다(比獸之角 能以爲城)’는 뜻에서 성곽을
 말함 『呂氏春秋 行論』

四境食惟艱 사방에서 힘든 일은 먹고사는 것.
 別理山無虎 특별 조치에 산에는 호랑이가 없어지고
 餘殃野絕狂 덩달은 재앙에 들에는 들개조차 사라졌네.
 苔石迷籠篆 이끼 낀 바위에는 희미하게 전서 글씨가 둘러져 있고
 雲巒迥出巒 구름 낀 산은 멀리까지 푸른빛이 비치네.
 苦閱人間事 인간의 일을 괴로이 살펴보니
 最哀是老鰥 가장 서글픈 것은 이 늙은 홀아비라.

學力不足 부족한 학력

讀書更少年 독서를 하기에는 다시 헛수가 적으니
 安得幾春秋 어떻게 몇 년을 얻으랴!
 顏子常懷復 안자는 항상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생각했고
 屈原最念修 굴원은 수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했네.
 難忘心上怨 마음속의 원망은 잊기 어렵지만
 易識目前憂 눈앞의 근심은 알기가 쉽다네.
 努力恒工學 항상 노력해서 공부한 한다 해도
 升堂有盾矛 승당(升堂)²²¹에는 모순(盾矛)이 있네.

十三日 月十九日 丙子 陽 春旱春寒 違其時節 付南陽鳳歌里書札 婚日不遠 未備全多 陽範獨自
 周旋 得無難乎 悶念不淺

3월 13일 월요일 음력 2월 19일 병자(丙子). 맑음. 봄이 가물고 날씨가 쌀쌀하니, 그 시절을
 어겼다. 남양(南陽) 봉가리(鳳歌里)에 편지를 부쳤다. 혼례 날이 멀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이 매우 많다. 양범(陽範)이 독자적으로 주선하니, 어려움이 없겠는가! 걱정이 적지 않다.

寒溪早春 한계의 이른 봄

草堂春睡夢東坡 초당의 봄날 낮잠에 소동파(蘇東坡)를 꿈꾸었는데
 余亦鏡中喜叟皤 나도 거울 속의 허영계 쉰 머리를 보고 기뻐하네.
 斷浦寒聲孤雁去 끊어진 포구엔 쓸쓸한 소리 내며 외로운 기러기 날아가고
 荒城宿瘴亂鴉多 황량한 성엔 오래된 풍토병 기운에 어지러이 나는 까마귀들 많구나.

221) 승당(升堂) : 승당입실(升堂入室) 즉 마루에 올라가 방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순서를 밟아 차근
 차근 학문을 닦으면 결국엔 심오한 경지에 이르게 됨을 비유한 것임. 『論語』 「先進」

梁山風雨文章泣 양산의 비바람에 문장가가 울고
 商岫烟霞隱逸歌 상산(商山)²²²의 노을 속에 은일자들이 노래하네.
 五季餘塵今又起 오계(五季)²²³의 잔재가 지금 또 일어나니
 詩人無復頌清河 시인은 다시 황하가 맑아지는 태평성대를 칭송함이 없네.

妄想 허망히 생각함

歷代分明東史傳 지난 시대에 분명히 동사(東史 : 우리나라 역사)에 전하여
 四千載後回朝鮮 4천년 후에 조선이 돌아온다고.
 正文自由追先聖 올바른 문장은 본래 선성(先聖)을 따름이 있었고
 神藥終無更少年 신약도 결국 다시 소년으로 되돌리지는 못하네.
 田畝生涯空夜食 농촌의 생활은 저녁 굶기가 일쑤
 草堂幾處覺春眠 초당 몇 곳에서 봄잠을 깨었나!
 前人不過書惟在 앞 사람은 오직 책만을 염두에 두어
 張賦思玄揚太玄 시부를 펼치고 현묘함을 생각하니 양웅(揚雄)²²⁴의 태현(太玄)이로다.

自歎歌 스스로 탄식하며 노래함

書中有祿也無疑 책속에 봉록(俸祿)이 있다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榮達須從勤苦而 영달은 반드시 근면 고심에 달렸다네.
 趾值別三終售璧 발이 발꿈치 잘리기를 세 번 당하고서 마침내 구슬을 인정받고²²⁵
 臂經扼九始通醫 팔이 놀리기를 아홉 번 거치고서 비로소 의원을 통하네.
 黃菊貞姿霜後見 노란 국화의 곧은 자태는 서리 내린 후에 볼 수 있고
 蒼松勁節雪中知 푸른 소나무의 곧은 절개는 눈 속에서 알게 되네.
 最歎西隣富豪子 가장 한탄스러운 것은 서쪽 이웃의 부호의 아들이

222) 상산(商山) : 산 이름. 사호(四皓) 즉 진(秦)나라 때 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角里先生)·기리계(綺里季)의 네 노인이 은거한 산. 이 4인을 상산사호(商山四皓)라 한다.

223) 오계(五季) : 다섯 왕조가 자주 갈린 계세(季世)라는 뜻으로, 중국의 어지러웠던 후오대(後五代)를 이르는 말.

224) 양웅(揚雄) : 중국 전한의 학자 문인(B.C.53~A.D.18). 자는 자운(子雲). 성제(成帝) 때에 궁정문인이 되어 성제의 사치를 풍자한 문장을 남겼다. 후에 왕망(王莽) 정권을 찬미하는 글을 써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작품에 「감천부(甘泉賦)」, 「하동부(河東賦)」, 저서에 「법언(法言)」, 「태현(太玄)」 등이 있다.

225) 발이 ... 인정받고 :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진귀한 옥돌을 초나라 임금에게 바쳤다가 임금을 속인다는 누명을 쓰고 두 차례나 발이 잘리는 형벌(刑)을 받았으나, 나중에 왕에게 진가를 인정받아서 천하제일의 보배인 화씨벽(和氏璧)을 만들게 되었다는 고사를 용사한 것이다.(「韓非子 和氏」)

却歸乃父田舍耆 도리어 제 아버지를 귀향시켜 농가에서 늙게 하는 것이다.

十四日 火 廿日 丁丑 陽 崔郎英植來訪 南草一封 黑飴數片持進 吉範家乘屋 鋪男母進午飯 運範
白堂里來面 李室送南草一枚

3월 14일 화요일 음력 2월 20일 정축(丁丑). 맑음. 최영식(崔英植)이 담배 한 봉지와 검은 옛
몇 조각을 가져와 바쳤다. 길범(吉範)의 집에 지붕을 이었다. 용남(鋪男)의 어머니가 점심을 가지
고 왔다. 운범(運範)이 당리(堂里)에서 와서 만나보았다. 이실(李室)이 담배 1매(枚)를 보내왔다.

心評 마음에 평론함

弊冊陳篇八卷舒 해지고 묵은 책 여덟 권을 펼치고
心評獨自任靈虛 마음에 논평하며 독자적으로 영허함에 맡기네.
偉器智秦傳百里 진나라의 지혜롭고 뛰어난 인물은 백리해(百里奚)²²⁶가 전해지고
淸節醒楚誦三閭 초나라의 절개 있고 깨인 인물은 삼려대부(三閭大夫)²²⁷를 노래하네.
暴客夜行無吠犬 도둑이 밤길 나서도 짚어대는 개가 없고
迅車日走絕鳴驢 빠른 자동차가 날마다 달리자 나귀 울음소리 그쳐버리네.
曾聞往古江南學 옛날 강남에서 배운 것 들어 보았더니
只有寒山石面書 다만 한산(寒山)의 돌에 새겨진 글뿐이라 하네.

偶占 우연히 읊음

詩人詠物尙淸標 시인은 사물을 읊을 때 맑고 의표가 있는 것을 높이 사고
羽族偏憎不孝梟 새의 부류에서는 불효하는 올빼미가 가장 한스럽네.
野勢雙分舒鳥翼 들판은 양쪽으로 나뉘어 새가 날개를 펼치는 듯
山中斷落蜂腰 산은 중앙이 끊어져 벌의 허리가 잘룩한 듯 하네.
春早漁家還寂寂 이른 봄 어부 가정은 아직도 적적하고
日斜樵笛共招招 저물 녀 초동(樵童)의 피리소리가 함께 부르네.
東棄古風於此變 옛 풍속이 이 변화에 합쳐서 버리니

226) 백리해(百里奚) : 중국 춘추(春秋) 시대 진(秦)나라 사람. 자(字)는 정백(井伯), 우(虞)의 우공(虞公)
을 섬기다가, 뒤에 진(秦)의 목공(繆公)을 섬겨 재상(宰相)이 되었다. 진이 춘추오패 중 한 나라가 되
는데 큰 공을 세웠다.

227) 삼려대부(三閭大夫) : 굴원(屈原)을 말함.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박문강기(博聞強記)하고
치란(治亂)에 밝아 삼려대부(三閭大夫)가 되었으나 여러 차례 참소를 받아 결국 강남(江南)에 유배,
자기의 말이 채용되지 않는 것을 한탄하여 먹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다.

男無戴笠女無輻 삿갓 쓴 남자 없고 가마 탄 여인 없네.

春風引 봄바람 노래

流行春氣漸氤氳 흘러가는 봄 기운 점점 생기가 넘치고
多力化翁造物勤 힘을 쓰는 조물주는 부지런히 사물을 창조하네.
寒砌竹叢長帶翠 차가운 섬돌 곁 대나무 숲은 푸른빛을 길이 띠었고
芳園花木盡胎穉 아름다운 정원에는 나무와 꽃이 향기를 다 품고 있네.
黃能教孺橋頭石 황석(黃石)은 다리 앞에서 어린 장량(張良)을 가르쳤고²²⁸⁾
白不贈君嶺上雲 이태백(李太白)은 고개 위의 구름을 그대에게 주지 못하네.
病裡仍成詩二百 병치레 하면서도 그럭저럭 쓴 시 이백 편
南溪二月關窓芸 남쪽 시내 2월에 창을 열자 향풀 냄새.

其二 그 둘째

春到主翁玩化權 봄이 돌아오자 주인 늙은이는 조화의 권세를 완상하니
元亨吉象筮義乾 원형(元亨)의 길한 상징은 복희씨(伏羲氏)의 건괘(乾卦)에서 나오네.
雉鳴鷄乳皆化域 평이 울고 닭이 새끼 기르는 것은 모두 교화 세계의 일
魚躍鳶飛自理天 물고기 뛰어오르고 솔개가 나는 것은 본래 하늘의 이치이네.
蜀道青袍行杜老 두로(杜老)²²⁹⁾는 청포²³⁰⁾를 입고 촉도(蜀道 : 촉 땅 가는 길)를 거닐었고
吳門黃綬隱梅仙 매선(梅仙)²³¹⁾은 오문에서 문지기가 되었지.
耒頭花柳心中樂 쟁기 머리에 버드나무와 꽃은 마음속의 즐거움이니
誰道先生學少年 누가 말하던가! 선생이 소년이 되기를 배우고 있다고.

其三 그 셋째

直市閭閻似釋鄉 시장과 마을이 반듯하니 석가모니 마을인 듯

228) 황석(黃石)은 ... 가르쳤고 : 진(秦)나라 말기에 어떤 노인이 하비(下邳)의 이교(圯橋) 가에서 장량(張良)에게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전해 주면서 “13년 뒤에 그대가 나를 제북 땅에서 보리니, 곡성산 아래의 황석(黃石)이 바로 나이니라.(十三年孺子見我濟北 穀城山下黃石卽我矣)”라고 하였는데, 이 노인이 바로 황석공(黃石公)이었다. 13년 뒤에 장량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황석을 발견하고 사당에 봉안하였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229) 두로(杜老) :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를 가리킴.

230) 청포 : 벼슬아치가 공복으로 입던 푸른 도포.

231) 매선(梅仙) : 매복(梅福)을 가리킴. 한나라 때 사람으로 왕씨(王氏)들이 권력을 잡자 벼슬을 버리고 이름을 바꾸고 회계(會稽)에 은거하여 오시문(吳市門)을 지키는 병졸이 되었으며, 후에 신선이 되었다 한다.

相資雜物絕行商 여러 가지 물건을 서로 도움 받으니 행상의 발길 끊어졌네.
 典衣難買三盃白 전당잡힌 옷은 세 잔의 백주(白酒)를 사기 어렵고
 藏壁猶留數卷黃 벽장 속에는 여전히 몇 권의 책들뿐이네.
 香夜山桐春尙早 향내 나는 밤에 산 오동에게는 봄이 오히려 이르고
 嫩添溪柳日初長 고운 빛 더해가는 냇가의 버들에게는 해가 처음 길구나.
 多財不若多文富 재물이 많은 것은 글이 많은 것의 풍부함만 못하나
 奪者無人百世香 빼앗는 자는 백대(百代)에 명예가 없네.

十五日 水 廿一日 戊寅 朝雨作 然而不長之形 金興元來 書婚姻札 而南草一封持來 李準九始來
 故問看星法 良久敍話而歸 雨終日細沾 玄範寸燐二枚持來

3월 15일 수요일 음력 2월 21일 무인. 아침에 비가 내렸다. 그러나 오래내릴 형세는 아니다. 김흥원(金興元)이 와서 혼례 문서를 썼는데 담배 1봉지를 가지고 왔다. 이준구(李準九)가 비로소 왔으므로 간성법(看星法)을 물어보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 비가 종일토록 가늘게 적셨다. 현범(玄範)이 촌인(寸燐) 2매를 가지고 왔다.

偶拈 우연히 읊음

物價飛騰日倍添 물가는 솟아올라 날마다 갑절로 더하여
 野盤時供味無兼 들에 반찬 때가 되어도 두 가지 반찬이 없네.
 雲幻魚鱗千頃闊 구름은 물고기 비늘처럼 변하여 몇 천 이랑이나 넓고
 嵐消馬耳數峰尖 운개가 사라지니 산봉우리는 말 귀같이 몇 개나 솟았네.
 事或傷倫誰可認 일이 혹시라도 인륜을 손상한들 누가 알 수 있으며
 行宜受誚我何嫌 행동이 의당 비난을 받게 되들 내가 어찌 꺼리랴!
 南州渴漢宜餘飲 파천에 목마른 사내에게 많은 음료 있으리니
 行路不須問酒帘 가는 길에 술집이 어디인지는 물을 필요 없네.

其二 그 둘째

經冬病骨似癭岩 겨울 내내 병치레 하던 몸 마치 파리한 돌과 같아
 款呼兒濯汗衫 간곡하게 아이를 불러 한삼을 빨게 하네.
 滿肚七情同貴賤 마음 속 칠정(七情)²³²은 존귀한 이나 천한 이나 동일한 것

232) 칠정(七情) :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을 말한다.

脫胎三術異仙凡 환골탈태하는 삼술(三術)²³³은 신선과 범인이 다르네.
 亞聖書中排墨氏 아성(亞聖 : 맹자)은 글 속에서 묵씨(墨氏)를 배척하였고
 三閭篇上誦彭咸 굴원(屈原)은 이소경(離騷經)에서 팽함(彭咸)²³⁴을 노래했네.
 到耄良箴欽衛武 늙어서도 좋은 잠언을 낸 것은 위(衛)나라 무공(武公)²³⁵을 흠모하니
 修齊德行天臨監 덕행(德行)을 닦으면 하늘에서 내려 보시네.

其三 그 셋째

麥蘆雨遲遲 보리밭 독에 더디게 비가 내리고
 石溪水澹澹 석계에는 물이 맑다.
 中郎離海北 중랑장(中郎將) 소무(蘇武)는 흉노(匈奴)를 이별하고²³⁶
 開府賦江南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유신(庾信)은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읊었네.²³⁷
 重臺述書驛 전대가 무거우니 역관이 이어받고
 疎鍾近釋菴 종소리 드물게 나니 가까이 암자가 있네.
 此時難再遇 이때는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得意爾英男 뜻을 얻은 그대는 영웅이라.

與客吟 객과 함께 읊음

蓬門今始開 봉문(蓬門)²³⁸이 지금 비로소 열리니
 千里客來尋 객이 천리나 되는 길을 찾아왔네.
 主人先把酒 주인은 먼저 술을 대접하니
 君子不貪金 군자는 돈을 탐하지 않는 법.
 產蛙喧廢巷 알 간 개구리는 인적 드문 골목에서 시끄러이 울고

233) 삼술(三術) : 덕(德), 력(力), 부(富) 세 가지의 뛰어난 술법. 『荀子 議兵』

234) 팽함(彭咸) : 은(殷)나라의 개사(介士). 뜻을 얻지 못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235) 위(衛)나라 무공(武公) : 춘추 시대 위(衛)나라 임금.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깨워 주도록 좋은 말을 해 달라고 분부하였다. 『國語 楚語 上』 무공을 칭송한 노래로 『시경(詩經)』 「위풍(衛風) 기옥(淇輿)」의 시가 전해 오고 있다.

236) 중랑장(中郎將) … 이별하고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중랑장 소무가 흉노에 사신을 가서 그 곳에 억류되어 북해(北海)라는 곳에서 19년 동안 양을 기르다가 떠나 돌아온 일을 말함. 『漢書』 「蘇武傳』

237)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 읊었네 : 북주(北周)의 유신(庾信)은 본디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신하였는데, 뒤에 북주에서 벼슬하여 고관이 되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신의 고향이 있는 강남(江南)을 그리워하여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지어 고향을 떠나 사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 것을 말함. 『周書 庾信傳』 개부(開府)는 유신이 개부의동삼사를 역임하였으므로 유개부(庾開府)라고 일컬었다. 『北史 卷83』

238) 봉문(蓬門) : 썩으로 만든 문이란 뜻으로, 가난한 집을 가리킴.

蹇兪入空林 절뚝거리는 토끼는 빈 숲으로 들어오네.
幸遇文章友 다행이도 글 잘하는 친구를 만났으니
豈無白首吟 어찌 센 머리에 시 한 수 없으랴!

化翁引 조물주 노래

人於天地間 사람이 천지 사이에
窮達理昭然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이치에 달려있네.
沃野均沾雨 비옥한 토지엔 고르게 비가내리고
瘠村頻歇烟 곤궁한 마을엔 굴뚝 연기 멎기가 일쑤.
百年花不絕 백 년 동안 꽃이 피지 않은 적 없고
萬國月同圓 모든 나라엔 보름달이 고루 비춘다네.
造化長如許 조물주는 늘 이와 같거늘
何須問彼玄 어찌 저 현묘한 이치를 물을 필요가 있나!

十六日 木 廿二日 己卯 朝陰 日氣不佳 削百會哭 今聞則鑄璇食口皆會 而新人于禮 指定於寒溪
本第云 廷範自役所來面 金基万第婚宴 婚宴床來到 盛設甘喫

3월 16일 목요일 음력 2월 22일 기묘(己卯). 아침에 흐림. 날씨가 좋지 않다. 모두 모여 곡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지금 듣자니, 용선(鑄璇)의 식구가 모두 모였고, 신부의 우례(于禮)가 한계(寒溪) 본가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정범(廷範)이 역소(役所)에서 와서 얼굴을 보았다. 김기만(金基萬)의 집의 혼례 잔치에 잔치상이 왔다. 잘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臥病 병져 누움

風雨南溪一草廬 남계(南溪)의 초가집에 비바람이 몰아치니
經年臥病客來疎 일년 내내 병치레에 손님의 발길조차 드물어졌네.
晉山處士懷元亮 진(晉) 나라의 처사는 도연명(陶淵明)을 생각하고
漢代眞儒誦仲舒 한(漢)나라의 진유(眞儒)는 중서(仲舒)239를 말하네.
悅口佳香供野菜 입에 달고 향기 좋은 밭의 야채를 제공하고
潤腸新味煮溪魚 뱃속에 기름칠하고 시내의 물고기를 끓이네.

239) 중서(仲舒) : 동중서(董仲舒). 전한(前漢) 때의 유학자.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크게 인재를 구하므로 현량대책(賢良對策)을 올려 인정을 받았다. 전한의 새로운 문교정책에 참여했다.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게 되고, 국가 문교의 중심이 유가(儒家)에 통일된 것은 그의 영향이 크다.

此生到耄飢寒甚 이 생애 늙그막에 이르러 굶주림과 추위 심하니
上有皇天我問諸 위의 하늘에 나는 묻고 싶네.

幽居 은거하는 삶

庭邊松竹竹邊梧 뜰 가엔 송나무 대나무, 대나무 가엔 오동나무
十畝幽居阻近湖 10묘(畝)의 은거지에 호수가 가로막고 있네.
健筆拿雲稱永叔 붓 들어 구름을 끌어들이는 이는 영숙(永叔)²⁴⁰이고
空樓題月想堯夫 빈 누각에 달을 표제로 한 이는 요부(堯夫)²⁴¹이네.
遐擗西社傳鸞鴈 사위를 멀리 보내 서쪽 마을로 혼례의 우는 기러기를 보내고
留客誰家詠繫駒 손님이 머물기는 누구 집에 하는가! 타고 온 망아지를 못 가게 하리라는 노래를 하네.
微物亦知供孝理 미물(微物)도 효도를 바칠 이치를 아는 법이니,
獸中有虎禽中鳥 길짐승에는 호랑이, 날짐승에는 까마귀가 있다네.

十七日 金 廿三日 庚辰 陽 日氣不佳 宋英鎭子婚後 糲餅持來 甘喫

3월 17일 금요일 음력 2월 23일 경진(庚辰). 맑음. 날씨가 좋지 않다. 송영진(宋英鎭)의 아들 결혼식이 끝난 뒤에 국수와 떡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다.

十八日 土 廿四日 辛巳 陰 日氣不佳 安城郡大川洋右徐丙緯答弔狀書來到 護喪所執事松井英治
又答書 賀挽章之遠投耳

3월 18일 토요일 음력 2월 24일 신사(辛巳). 흐림. 날씨가 좋지 않다. 안성군(安城郡)의 대천양우(大川洋右) 서병위(徐丙緯)에게서 조장(弔狀)에 대한 답장이 왔다. 호상소(護喪所)의 집사(執事)인 송정영치(松井英治)가 또 답장을 보내와 멀리서 만장(挽章)을 보내주어 고맙다고 했다.

240) 영숙(永叔) : 구양수(歐陽脩). 송나라의 정치가 겸 문인.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등의 관직을 거쳐 태자소사(太子少師)가 되었다. 송나라 초기의 미문조(美文調) 시문인 서곤체(西崑體)를 개혁하고, 당나라의 한유를 모범으로 하는 시문을 지었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었으며,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241) 요부(堯夫) : 소옹(邵雍). 송나라의 학자·시인.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유교의 역철학(易哲學)을 발전시켜 특이한 수리철학(數理哲學)을 만들었다. 음(陰)·양(陽)·강(剛)·유(柔)의 4원(四元)을 근본으로 하고, 4의 배수(倍數)로 모든 것을 설명하였다.

讀三國誌一呼 삼국지를 읽고 한번 외쳐 지음

赤壁一火大 적벽(赤壁)에서의 큰 화공
 寒燈三國誌 쓸쓸한 등불에 삼국지를 읽네.
 關張義貫天 관우(關羽)와 장비(張飛)의 의리는 하늘을 꿰뚫고
 吳蜀勢爭地 오나라와 촉나라는 형세가 땅을 다투었네.
 萬姓鹹曹心 모든 백성은 조조(曹操)를 베려는 마음을 지녔고
 百神扶漢意 모든 신은 한(漢)나라를 도우려는 뜻을 지녔네.
 出師諸葛表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출사표(出師表)는
 不盡英雄淚 영웅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네.

工詩 훌륭한 시(詩)

所謂工詩是一能 이른바 훌륭한 시란 한 가지 재주
 百年身世老青燈 백년의 삶을 청등(靑燈) 속에서 늙어가네.
 從風隨俗非高士 풍속을 따르기만 하는 이는 고사(高士)가 아니요
 扶義推心盡好朋 뜻을 북돋우고 마음을 헤아려가는 이는 아름다운 벗.
 仙窟搜探多玉井 신선이 사는 곳을 찾는다면 옥정(玉井)²⁴²이 많고
 王都統計半金陵 왕도(王都)를 통틀어 생각해 보면 반은 금릉(金陵)²⁴³이네.
 憂多樂少坐前事 걱정이 많고 즐거움이 적은 것은 눈앞의 일에 연루되어서이니
 只俟斯身岸善崩 다만 이 몸이 기다리는 것은 언덕이 잘 무너지는 것이라.

晚眺 늘그막에 바라봄

遠遊無路陟崑崙 멀리 노닐어 길 끊긴 곳에서 곤륜(崑崙)²⁴⁴에 오르면

242) 옥정(玉井) : 고대 전설 중 화산(華山) 정상에 있는 옥정(玉井)에서 자라는 연(蓮)인 옥정연(玉井蓮)을 말함.

243) 금릉(金陵) : 지금의 중국 남경(南京).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초(楚)나라의 금릉읍(金陵邑)이었던 곳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인 229년에 오나라의 손권(孫權)이 건업(建業)이라고 개칭하여 이곳에 도읍을 정한 뒤부터 강남(江南)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진(晉)나라 때 건강(建康)으로 개칭하여 지방의 치소(治所)로 삼았으나, 다시 318년에 동진(東晉)의 원제(元帝)가 도읍한 뒤, 계속해서 송(宋)·제(齊)·양(梁)·진(陳)의 4대에 걸쳐 남왕조(南王朝)의 국도가 되어 남왕조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589년 진(陳)이 수(隋)에 의해 멸망되면서 도읍지의 모습도 파괴되었다.

244) 곤륜(崑崙) : 서쪽으로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칭하이성(淸海省)에서 사천성(四川省) 서북부를 거쳐 신강(新疆)과 티베트를 관통하는 산.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보옥(寶玉)이 나는 명산으로 전해졌으나, 전국시대 이후 신선설(神仙說)이 유행함에 따라 신선경(神仙境)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어, 산중에 불사(不死)의 물이 흐르고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다는 신화들이 생겨났다.

咫尺瑤池王母隣 가까운 요지(瑤池)²⁴⁵)는 서왕모(西王母)²⁴⁶)가 사는 곳이네.
 蓮回夏閏年誰甲 연꽃은 여름 윤달이 돌아왔는데 이 해는 누구의 회갑인가!
 序屬春分日出寅 계절은 춘분에 당하여 해는 동방에서 나오네.
 筮龜圖上多玄蚘 시초와 거북점²⁴⁷) 하도(河圖) 중에는 검은 용이 많고
 相馬經中少翠麟 상마경²⁴⁸) 속에는 푸른 기린이 적네.
 與子同車西渡約 그대와 같이 수레타고 서쪽으로 갈 것을 약속했지만
 不知何處是花秦 어느 곳이 진나라 속에 꽃 핀 곳인지 알지 못하겠네.

聞富林吹笛 부림(富林)에서 피리 소리를 들음

誰家弄玉笛 뉘 집에서 옥피리를 부는가!
 始關敞東垣 비로소 동대가 환하네.
 詩社初開硯 시회(詩會)에 막 벼루를 꺼내고
 離亭更把盃 이별 자리에서 다시 술잔을 잡았네.
 良夜同吹月 즐거운 밤 달빛에 함께 피리를 부니
 早春迥落梅 이른 봄 아스라이 매화가 떨어지네.
 園叟勤培植 과수원 농부는 부지런히 복돋아 심을 뽀
 不須折柳回 버들가지를 꺾음²⁴⁹)을 돌아볼 필요가 없네.

聞春砧 봄의 다듬이 소리를 들음

師門不遠詠而歸 선생 집이 가까워 시를 읊으며 돌아가는데
 氣像悠然鱗鳳飛 기상은 드높아 기린과 봉황이 춤추는 듯하네.
 終認春風三月近 끝내 춘풍은 삼월이 가까움을 알겠는데
 誰家供擣浴沂衣 뉘 집에서 기수(沂水)에 목욕할²⁵⁰) 옷을 다듬질하는가!

245) 요지(瑤池) : 곤륜산 꼭대기에 위치한 못. 주 목왕(周穆王)이 정사는 돌보지 않은 채 팔준마(八駿馬)가 모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두루 유람하다가 요지에 가서 선녀 서왕모(西王母)를 만나 환대를 극진히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列子 周穆王』

246) 서왕모(西王母) : 선녀(仙女). 산해경(山海經)에 따르면, 곤륜산에 살고 있으며 호랑이 이빨에 표범의 꼬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금모(金母)로 불리기도 한다.

247) 시초와 거북점 : 점(占)을 치는 시초(蓍草)와 거북. 이것으로 점을 쳐서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다.

248) 『상마경(相馬經)』 : 말의 상을 보는 법칙을 설명한 책. 옛날에 말의 상을 잘 보았다는 백락(伯樂)이 지었다고 하는데, 흔히 사람 보는 안목을 말의 상보는 데에 비유하기도 한다.

249) 버들가지를 꺾음 : 절양류(折楊柳)로, 이별을 말함. '折楊柳'는 악부(樂府)의 이름으로, 고향을 떠날 때에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이별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250) 기수(沂水)에 목욕할 : 원문 '浴沂'는 '浴乎沂'의 줄임으로, 공자(孔子)의 제자 증점(曾點)이 봄에 기수에서 목욕하겠다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論語』 「先進」

東西隣嫁娶同日 동서의 이웃집에서 같은 날 혼례를 치름
(以上二百三十二首 이상은 232수이다)

西舍呈歸妹 서쪽 이웃은 딸을 시집보내고
東鄰樂娶妻 동쪽 이웃은 즐거이 아내를 맞네.
夭桃誇好節 싱싱한 복숭아나무는 한창 때를 뽐내는데
春色滿前溪 봄 경치는 앞 시내에 그득하네.

送孝範親迎 효범(孝範)의 친영(親迎)을 전송하며

往迎爾相共于歸 네 짝을 가서 맞이하여 함께 돌아오니
旭日南隣曬雁飛 오르는 햇살 비추는 남쪽 이웃집에 폐백의 화려한 기러기 나는구나.
在昔伯鸞厭盛飾 옛적 백란(伯鸞)²⁵¹은 화려한 꾸밈 멀리했으니
男兒何羨滿箱衣 어찌 사내가 상자 가득한 옷을 부러워하랴!

南宮穩女婚日 而受內書而去 南草一封持來 斗晨南草一封持來 鋪璇姨母 再昨日來 率其得三食口
而去 一室之內 病人雙臥則不祥云 故如是周旋云 言念其向意 未安姑舍 感淚先零 當今世態 焉有
此賢夫人乎 贊不容口 于禮更議 作定于鋪明家 婚書紙以窓戶紙書送太宅 終日陰 待堂里李室而不
來 必有事而不到歟 甚苑耳 徽範食口冒寒(來) 極欣握 一封南草進呈 未知鋪儔之來否 甚苑 堂里
山雲里永無消息 然而來見不如仍坐矣 有誰知之

남궁은(南宮穩) 딸의 혼례일에 내서(內書)를 받고 갔는데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다. 두성(斗晟)
이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다. 용선(鋪璇)의 빙모(聘母)가 그저께 왔다가 그 사위를 포함한 세
식구를 데리고 갔다. 한 집안에 병든 사람이 둘이나 누우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선하였다고 한다. 그 심정을 헤아려 보니 미안함은 제쳐 놓더라도 느껴움에 눈물
이 앞을 가린다. 지금과 같은 세태에 어찌 이런 어진 부인이 있단 말인가! 칭찬을 입에 다 담
을 수가 없다. 우례(于禮)²⁵²날을 다시 논의하여 용명(鋪明)의 집으로 정했다. 혼서지(婚書紙)
는 창호지(窓戶紙)써서 큰 집으로 보냈다. 종일 날씨가 흐렸다. 당리(堂里)의 이실(李室)을 기
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반드시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한 것인가! 몹시 답답하다. 휘범(徽範) 식구
가 추위를 무릅쓰고 (와서) 매우 기뻐 손을 맞잡았다.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다. 용주(鋪儔)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 몹시 답답하다. 당리(堂里)와 산운리(山雲里)는 소식이 뚝 끊어졌다.

251) 백란(伯鸞) : 한(漢) 나라 양홍(梁鴻)의 자. 동한(東漢)의 고사(高士). 그의 처는 맹광(孟光)으로 자
가 덕요(德耀)이다. 맹광이 처음 백란에게 시집을 때 화려한 장식을 했다가 백란이 나무라자 다시 평
범한 옷차림으로 바꾸어 입었다. 『後漢書 卷83 梁鴻列傳』

252) 우례(于禮) : 신부(新婦)가 처음으로 시집으로 들어가는 예식(禮式).

그러나 와서 만나보는 것이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 못할것을 누가 알겠는가!

十九日 日 廿五日 壬午 陽 婚日氣正佳 推知後來之福祿 玄範率婚行而早發 無函卽以襟裘衣服而行云 是何做事之若是耶 甚歎甚歎耳 俟無事于歸而已 都是此翁病臥故耳 人倫吉事 憂歎奈何 李友明奎來訪 南草二封惠念 還切未安 于禮之日 獨坐空房 亦無午饌之供 是何寂寞如是乎 慨歎無已 午後日氣雨意緊 晡時大宅白糲湯捧進 雨始作 婚行何以得抵耶 觸處憂慮 何時暫離 雨終日不止 果是甘霈 而獨不宜於幾家婚事 不副億兆之望乎 均沾登風 伏祝萬萬 雨晴後于歸 有何妨乎 婚行冒雨而還 大禮無事而過 下人金榮煥金永順邊芝雲金万石 新婦橋軍 此下人爲之 雖然冒雨無事而還 甚幸甚幸 居然日暮 撫棗之席末 伴觀 甚悵 而自然感下 不覺沾袖 珩範內外還家悵然耳 夜雪多

3월 19일 일요일 음력 2월 25일 임오(壬午). 맑음. 혼례날인데 날씨가 매우 좋으니, 이를 미루어 다가올 복록(福祿)을 알 수 있겠다. 현범(玄範)이 혼행(婚行)²⁵³을 이끌고 아침에 출발했다. 함이 없어서 보자기에 의복을 싸서 갔다고 한다. 이 어찌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인가! 심히 한탄스럽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모두 이 늙은이가 병들어 누워 있기 때문이다. 인륜의 길한 일에 근심과 한탄이 어떠한가! 친구 이명규(李明奎)가 찾아 왔는데, 담배 2봉을 가지고 왔다. 도리어 매우 미안하다. 우례(于禮) 날 외로이 텅 빈 방에 앉은 채 점심을 차려 줄 사람도 없으니 어찌 적막함이 이러한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오후 날씨는 비가 몰려 올 것 같다. 포시(晡時)²⁵⁴에 큰 집에서 백면탕(白糲湯)을 가지고 왔다. 비가 오기 시작하니 혼행(婚行)이 어찌 도착할 수 있겠는가! 걸리는 곳마다 걱정됨이 어찌 잠시인들 떠나랴! 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는다. 과연 단비라 할 만한데, 다만 혼례가 있는 몇 집에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의 바람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방을 고루 적셔주어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가 그친 뒤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는가! 혼행이 비를 무릅쓰고 돌아왔고, 대례(大禮)²⁵⁵가 무사히 지나가! 혼하인(下人) 김영환(金榮煥)·김영순(金永順)·변지운(邊芝雲)·김만석(金万石)이 신부의 가마꾼을 이혼하인들아니겠당했다. 비록 그렇다하만석(金비를 무릅쓰고 아무 탈 없이 돌아왔으니 천만 다행이다. 어느 덧 날이 저물었다. 대추를 만지는 폐백 자리의 말석에 함께 하여 보니 매우 서글퍼서 자연히 감하(感下)²⁵⁶ 하여 어느덧 눈

253) 혼행(婚行) : 전통 혼례에서 혼인을 위하여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거나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일.

254) 포시(晡時) : 신시(申時)로, 오후 4시경을 말함.

255) 대례(大禮) : 실제의 관행에서 의혼의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랑과 신부가 맞설 하는 의례 등을 말한다. 즉 초행과 전안지례·교배지례·합근지례·신방·동상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256) 감하(感下) :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슬픔을 이른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면 구경하(具慶下), 아버지만 모시고 있을 때에는 엄시하(嚴侍下), 어머니만 모시고 있을 때에는 자시하(慈侍下), 부모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영감하(永感下)라 칭한다.

물이 나서 옷깃을 적신다. 형범(珩範) 내외가 집으로 돌아가니 마음이 울적하다. 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廿日月 廿六日 癸未 晴 日寒不休 新婦見舅姑 今朝以行 先聞新人夙成極佳 甚喜甚喜 洗盥始網巾捲衾枕 客來日也 宋碩士新人識佳也 歷訪告別而去 儀表超凡 新人八寸間也 孝範再行 宋雅同行 大棗略略皆經過 我心快然 南宮桓女婚也 李友範薰來訪 欣握無比 暫爲敘話 而向桓宅而去 安山金雅來訪 桓外從也 金友鳴國歷訪 向經峴里而去 申春植弟婚也 昌範得紙二枚持來 先庚宅宴床來到 盛設甘喫 淸酒黃肉始嘗 海月母知其婚日 今日而來面 喜其無故 芻伊一隻半分 上下家分供 南草一封持進 每每重手而來 去時空手 悶歎奈何 還爲未安 昌範姨母偕行 皆向大宅而去 李友相鳳歷訪 向經峴而去 李室夕飯後 向大宅而去 芻伊李室始同烹之爲供而進 甘喫 扶氣而身輕焉 爾亦孝女也 佳日外戚從君端 來訪而去

3월 20일 월요일 음력 2월 26일 계미(癸未). 맑음. 날씨가 추운 것이 그치지 않는다. 신부가 시부모님을 뵙고 오늘 아침에 갔다. 먼저 듣기로 신부가 조숙하고 아름답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 세수를 하고 비로소 망건을 쓰고 이불을 개었다. 손님이 오는 날이다. 송석사(宋碩士)의 신인(新人)은 아름다운 줄을 알겠다. 두루 찾아다니며 고별하고 갔는데 의표(儀表)가 보통이 아니었고 신부와 팔촌(八寸)이 된다. 효범(孝範)이 다시 가는데 송아(宋雅)가 동행했어 아니었고 드리와 팔촌)가 단략 모두 지나가니 내 마음이 상쾌하다. 남궁환(南宮桓)의 딸의 혼례에 친구 이범훈(李範薰)이 찾아오니, 기쁘기가 비할 데 없다. 잠시 대화고 나누고와 남궁환의 집으로 갔다. 안산(安山)의 김아(金雅)가 찾아왔는데 남궁환의 외종(外從)이다. 친구 김명국(金鳴國)이 두루 방문했이가 경현리(經峴里)로 떠났다. 신춘식(申春植)의 아홀(南혼례고 올, 기 창범(昌範)이 종이 두 매고 얻어서 가지고 왔 기 선경택(先康宅)에서 잔치 상을 보내주었기에 성찬(盛饌)을 맛있게 먹었다. 청주(淸酒)와 소고기고 처음 맛보았다. 해월(海月)의 어미(南혼례 날을 알고 오늘에서야 와서와 만나보고 무탈함을 기뻐하였 기 갈비 한 짝을 반으로 나누어 아래윗 집에 나누어 주었 기 담배 1봉을 가지고 왔 기 매춤(둥다.무겁게 가지고 왔 (南빈손桓)의 딸의 혼민망함을 어찌할까 굴 도리어 미안하다. 창범(昌範)의 이모가 효범왔 (南모두 큰집으로 갔다. 친구 이상봉(李相鳳)이 여러 곳을 들렀다가 경현리를 향하여 떠났다. 이실(李室)이 저녁을 먹고 나서 큰집으로 떠났다. 갈비를 이실이 비로소 함께 삶아서 바쳐서 올렸는데 맛있게 먹고 나서 기운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니, 너 또한 효녀(孝女)이다. 가일(佳日)의 외척종 군단(君端)이 왔다가 갔다.

廿一日 火 廿七日 甲申 陽 朝後新人來拜 儀容端正夙成 果如所聞 幸何可言 甚喜甚喜 見祖堂後 午飯而去 見新人 則村婦容儀也 可謂受福之人也 甚喜甚喜 生日七月十二日也 丁卯生 李室告歸

不勝悵然 自然沾袖 載鳳慈堂同行 新人亦來 午飯而去 此何人斯 今聞則金李兩友昨日還宅云 亦悵然耳 午後陰 是日春分也 韓友大溶來訪而去

3월 21일 화요일 음력 2월 27일 갑신(甲申). 맑음. 아침을 먹은 뒤에 새사람이 와서 절을 하였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조숙하니 과연 듣던 대로였다. 다행스러움을 무엇으로 말할까! 기쁘기 그지없다. 할아버지 사당에 절을 한 뒤에 점심을 먹고 갔다. 새사람을 보니 시골 아낙네의 모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만하다. 매우 기쁘다. 생일은 7월 12일이고, 정묘년(1927) 생이다. 이실(李室)이 돌아간다고 하니 서운함을 견딜 수가 없어 자연스레 눈물이 소매를 적셨다. 재봉(載鳳)의 자당(慈堂)과 같이 갔다. 새사람도 역시 왔다가 점심을 먹고 갔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일인가! 지금 듣자니 김(金)·이(李) 두 친구가 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역시 서운하다. 오후에는 날씨가 흐렸다. 오늘은 춘분(春分)이다. 친구 한대용(韓大溶)이 왔다가 갔다.

廿二日 水 廿八日 乙酉 陽 春寒一直 戚孫弘錫弟來 初迎其侄婿 今再行 孝範南草一封持進 以毒感終日委臥 良苦奈何

3월 22일 수요일 음력 2월 28일 을유(乙酉). 맑음. 봄추위가 한결같다. 척손(戚孫) 홍석(弘錫)의 아우가 왔다. 처음에 그의 조카사위가 맞이했었는데 지금 다시 온 것이다. 효범이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는데, 독감으로 하루 종일 누워있었다. 진실로 괴로움을 어찌할까!

廿三日 木 廿九日 丙戌 陽 日寒不解 尹友草榮來訪 南草一封惠念 向京而去 洪友寬燮來訪 敘話而向文原里而去 風勢凜泥漿

3월 23일 목요일 음력 2월 29일 병술(丙戌). 맑음. 추운 날씨가 누그러들지 않는다. 친구 윤초영(尹草榮)이 방문했다. 담배 한 봉지를 가지고 주었고, 서울로 떠났다. 친구 홍관섭(洪寬燮)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문원리(文原里)²⁵⁷로 떠났다. 바람이 모질고 진흙이 질척거렸다.

洪友海雲來訪 친구 흥해운이 방문하다

(從文原里姜漢永家 本家南陽 문원리 강한영(姜漢永)의 집을 따라갔다. 본가는 남양이다.)

寒溪咫尺海雲飛 지척 한계에 해운(海雲)이 단숨에 달려와
日晚靑藜叩板扉 저물녘에 지팡이로 사립문을 두드리네.

257) 문원리(文原里) : 지금의 과천시 문원동(文原洞) 일대.

午饑貧供眞淡泊 점심밥 빈약한 상차림은 참으로 담박하나
 春風優力釀芳菲 봄바람 푸근히 향기를 빚어내네.
 與君自恨離居遠 그대와 멀리 떨어져 살음을 스스로 한탄하니
 微我誰知遯象肥 내가 아니면 누가 알리오? 둔괘(遯卦) 상징이 살찌는 것임을.²⁵⁸⁾
 流水遇齡俱逼老 유수 같은 세월에 오래 살아 함께 늙음을 재촉하니
 同居前路莫相違 앞길을 함께하여 서로 떨어지지 마세나.

三月大 삼월 큰달

天時人事 천시와 인사에
 三月春風 삼월 봄바람이 불어오네.
 從此以往 지금부터 뒤로는
 只願年豐 풍년이 들기만 바라네.

三月廿四日 金 一日 丁亥 陽 春寒尚在 維有風勢近日最佳 堂里李友敬澤作故 不勝悵然

3월 24일 금요일 음력 3월 초하루 정해(丁亥). 맑음. 봄추위가 여전하다. 바람 부는 형세가 근래에 가장 좋다. 당리(堂里)에 사는 친구 이경택(李敬澤)이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견딜 수 없다.

三月初吉 삼월 초하루

採薺拾茶水邊斜 물가 곁에서 냉이 캐고 씬바귀 캐는
 玄裙稚女散如鴉 검은 치마 걸친 어린 소녀들 까마귀 퍼져 있는 듯하네.
 避寒壁蟻猶封埴 추위를 피하는 벽속 개미는 여전히 개미 독을 만들고
 向暖檐蜂已培衙 따듯함을 향하는 처마의 벌은 벌집을 치장하네.
 三月初回纔醒柳 삼월이 갓 돌아오자 버들이 막 깨어나건만
 一春半過未開花 봄이 절반이 지나도록 꽃은 피지 못하네.
 農家有曆能知節 농가에는 달력 덕택에 절기(節氣)를 알고
 野外富烟起舊畬 들녘에 많은 연기 옛 따비밭에서 일어나네.

258) 둔괘(遯卦) 상징이 살찌는 것임 : 은둔하는 생활이 이로움 것을 말함. 『주역(周易)』 둔괘(遯卦) 상구(上九)에 “살찐 은둔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肥遯 無不利)”에 의거한 것이다.

故人金玄政完植甫壽筵 고인 헌정 김완식의 수연

(壬午十月八日 見失故追記 임오(1942) 10월 8일인데 잃어버렸으므로 추후에 기록한다)

仙緣偕老杖鄉耆 신선 같이 해로하여 육십 노인²⁵⁹)으로 고향에서 늙으니
孤宿重回舊甲時 호수²⁶⁰)가 거듭 돌아 옛날 갑자일 때라.
中座相顧聯枕弟 자리 가운데에는 베개를 연이어 자던 아우와 서로 돌아보고
前庭侍立戲斑兒 앞뜰에는 색동옷 입고 춤추는 아들이 모시어 서 있네.
歸謀剩得黃花酒 귀향의 계획은 국화주를 많이 얻음이고
同志多呈紫蘭詞 동지들은 비단에 쓴 수연시를 많이 올리네.
雖使偉材拋輦側 비록 위대한 재주로 대궐 곁을 떠났으나
喜將府檄兩庭儀 기쁘게 관청 임명장을 받음으로 두 부모께 인사를 올리리.

午天遠眺 한낮에 멀리 바라보며

遠眺午天強倚欄 멀리 바라보며 한낮에 억지로 난간에 기대니
風簾雲淡巷泥殘 바람은 모질고 구름 맑은데 마을은 진흙탕이네.
詩心度日須就雅 시 쓰는 생각으로 날을 보내니 잠시 우아함에 나가고
病骨回春尙怕寒 병에 찌든 몸은 봄이 와도 오히려 추위가 두렵기만 하네.
年望九旬眞能食 나이가 구십을 바라보아도 진실로 잘 먹고
家承卅世不離官 집안은 삼십대를 잇도록 벼슬이 떨어지지 않았네.
貧窮如此兼逢亂 이처럼 빈궁한데다 겹하여 난리를 만나니
萬念徘徊自撫髀 온갖 생각에 배회하며 허리뼈를 주무르네.

廿五日 土二日 戊子 陽 本學校卒業式 鏞男受卒業章 直員往柏峴里岩山里 李友來訪 敘話而歸
餘寒尙在 天氣連日正佳耳

3월 25일 토요일 음력 3월 2일 무자(戊子). 맑음. 본학교 졸업식에서 용남(鏞男)이 졸업장을 받았다. 직원(直員)이 백현리(柏峴里)와 암산리(岩山里)로 갔다. 이씨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남은 추위가 아직도 있다. 날씨가 매일 매우 좋다.

259) 육십 노인 : 원문 ‘杖鄉’은 60세를 말함. 『禮記』 「王制」에 “50세에 집에서 지팡이 짚고 60세에 고을에서 지팡이 짚는다(五十杖於家 六十杖於鄉)” 하였다.

260) 호수 : 호성(弧星). 즉 천궁성(天弓星)과 남극성(南極星)으로,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별이다.

挽故友鄭章山基範甫 五星里 옛 친구 장산(章山) 정기범(鄭基範) 만사
(三星里 삼성리)

章山學士遠升仙 장산 학사가 세상을 떠나니
大化赴音夢杳然 죽었다는 부음은 꿈속에 아득하다.
免簪世閥承先祖 벼슬살이 대물린 집안은 선조를 이어받았고
詩禮家聲啓後賢 학문한 집안 명성은 훌륭한 후손을 열어주었네.
淸時人誦陶元亮 태평성대엔 도연명(陶淵明)²⁶¹을 노래하지만
亂代誰知魯仲連 난세에는 누가 노중련(魯仲連)²⁶²이 있었음을 알겠는가!
和淚緘辭依病枕 눈물 섞인 만사를 봉하고 병상에 기대니
空榻落月舊顏懸 텅 빈 책상에 비치는 달빛에 옛 얼굴 떠오르네.

其二 그 둘째

(曹晟師弟之間 無訃告 責不在我 주성(曹晟)과는 선생과 제자 사이인데 부고가 없었던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前席握衣永不諼 앞에 모시고 받은 가르침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廣文夫子我師尊 광문 선생은 내가 선생으로 존경한 분이네.
慕賢宅近三星廟 모현댁은 삼성묘에 가깝고
歸隱山隣五柳門 은거해 사는 산골 이웃은 오류문²⁶³과 같구나.
扶命自謀經困道 명령을 도와 곤궁함을 겪는 길을 스스로 도모하고
服勤虛負啓蒙恩 노력하여 몽매함을 일깨우는 은혜를 공연히 저버렸네.
路遠未澗攀旌淚 길이 어긋나서 명정(銘旌)을 들고 가는 곳에 눈물을 뿌리지 못하니
他日援荊到九原 후일에 형주(荊州 : 친할 사람)를 만나려 저승에 가겠소.

破寂走筆 고요함을 깨뜨리고 붓을 달려 씀

富林館外路 부림관(富林館)²⁶⁴ 밖에 길에는

261) 도연명(陶淵明) :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淵明)은 그의 자이다. 동진(東晉) 말기부터 남조(南朝)의 송(宋) 초기에 걸쳐 생존했다. 고결함을 지키며 은거했다.

262) 노중련(魯仲連) : 전국 시대 때 제(齊)나라의 고사(高士). 진(秦)나라가 황제를 일컫게 되면 동해에 빠져 죽겠다.[蹈東海而死]고 말하였다. 『史記 卷83』

263) 오류문(五柳門) : 도잠은 진(晉)의 고사로 자는 원량(元亮). 도잠은 일찍이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지어 자신을 말하였는데 여기에 “선생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집가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는 스스로 오류선생이라 했다.” 하였다. 『晉書 陶潛傳』 『陶靖節集』

264) 부림관(富林館) : ‘富林’은 과천(果川)의 옛 지명.

春水一溪前 봄물 한 줄기 시내가 앞에 있네.
 田畬當農節 들에는 농사철을 맞이하였고
 公庠序學年 공립학교는 학년에 차례를 정하네.
 和風三月樹 삼월의 따스한 바람은 나무를 스치고
 落日百家烟 저물 녀 온 동네엔 연기가 피어나네.
 堪咲曾玄門 우습게도 증손과 현손들이
 自誇賞品傳 스스로 자랑하며 상품(賞品)을 전하네.

廿六日 日 三日 己丑 陽 日寒終不解 日出午前六時三十七分 日入午後六時四十六分 晝十二時九分 夜十一時五十一分 晝夜正平均 少不違差

3월 26일 일요일 음력 3월 3일 기축(己丑). 맑음. 쌀쌀한 날씨가 끝내 풀리지 않는다. 해는 오전 6시 37분에 떴고, 오후 6시 46분에 졌다. 낮 시간은 12시간 9분이고 밤 시간은 11시간 51분이니, 낮과 밤의 길이가 바로 평균이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三三日 삼월 삼짓날²⁶⁵⁾

課日嘗新菜 날마다 봄나물을 맛보니
 齋茶兼苦甘 냉이와 씀바귀가 쓰면 단맛을 겸하였네.
 春光都六六 봄빛은 모두 36궁(宮)이고²⁶⁶⁾
 天氣正三三 천기는 바로 삼월삼진 날이라네.
 吾道由元聖 우리의 도(道)는 공자(孔子)에게서 비롯되었고
 異端自老聃 이단(異端)은 노자(老子)에게서 시작되었네.
 休言當世事 당시 세상의 일을 말하지 말라.
 有志盡先諳 뜻을 두면 다 먼저 알게 될 것이다.

敍嘯一吟 휘파람 불고 한 번 읊음

扶杖暫忘脚力勞 지팡이에 의지해 다리힘 파는 것도 잊은 채

265) 삼월 삼짓날 : 3월 3일. 애초 상사절(上巳節) 즉 음력 3월의 첫 뱀날 [上巳日] 이었는데 3월 3일로 바뀌었다. 이날 강변이나 해변에 나가 목욕을 하고 나서 재앙을 씻고 그해의 행운을 비는 의식을 거행했다.

266) 봄빛은 모두 36궁(宮)이고 : 송나라 소옹(邵雍)의 「관물음(觀物吟)」에, “천근 월굴이 한가로이 왕래하는 가운데 삼십육궁이 온통 봄이로구나.(天根月窟閒往來 三十六宮都是春)”에서 온 말인데, 월굴은 음(陰)에 해당하고, 천근은 양(陽)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천지 음양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悠然敝屣陟東阜 한가하게 휘파람 불며 동쪽 언덕에 올랐네.
 寒盤乏饌供臣骨 쓸쓸한 밥상 반찬이 적어 신골이²⁶⁷⁾ 올라오고
 貧窳無薪採澗毛 곤궁한 부엌에 땀감이라곤 시냇가의 마른풀.
 齊物論成蒙叟老 제물론²⁶⁸⁾을 이루어 장자(莊子)가 늙어가고
 登樓賦出仲宣高 등루부를 지어서 중선²⁶⁹⁾은 고상해졌네.
 春風杏店青帘廢 봄바람에 살구나무 아래 가게 술집이 문을 닫으니
 客到難沽一盞醪 손님이 찾아와도 막걸리 한 사발 사기 어렵네.

其二 그 둘째

發榮意思谷風噓 꽃 피울 뜻으로 봄 바람이 불어오나
 節候依如二月初 절기는 그대로 2월 초순인 듯하다.
 飲惟傷命徒狂酒 몸을 상하도록 마시는 것은 다만 미치광이 술버릇이고
 文以害辭誤讀書 글에 말로 의미를 오해하는 것은 그릇된 독서.
 義英不死漢雙信 의로움과 영특함이 죽지 않은 것은 한나라 두 사람 신(信)이고²⁷⁰⁾
 存覆俱傳楚兩符 보존과 전복을 함께 전한 것은 초나라 두 사람 서(胥)이네.²⁷¹⁾
 牧笛漁歌時尚早 목동의 피리소리와 어부의 노래 소리는 때가 이른데
 滄溪烟雨問春鉏 시냇가 이슬비에 방아 짙으며 김매는 것을 묻노라.

267) 신골 : 풀 이름. 일명 신요(臣堯)·귀색(鬼色). 늪에서 생장한다.

268) 제물론 : 『장자(莊子)』의 편명(篇名).

269) 중선 : 후한 말 위(魏)나라 왕찬(王粲)의 자. 동탁(董卓)의 난리를 피하여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을 적에, 유표에게 그다지 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향 생각이 절실해지자,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가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傳』, 『文選 卷11』

270) 한나라 두 사람 신(信)이고 : 회음후 한신(韓信)과 한왕(韓王) 한신(韓信). 한왕 한신은 마읍(馬邑)을 도읍으로 정했다가 흉노(匈奴)의 협박에 못 이겨 그들과 화해를 맺고서, 함께 한나라를 공격하기로 약속하고 이어 도읍지인 마읍을 가지고 흉노에게 항복하였으나 그는 끝내 한나라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史記 卷93 韓信列傳』 회음후 한신은 항우(項羽)를 물리쳐 한나라 삼걸(三傑)로 일컬어지지만 배반죄로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271) 초나라 두 사람 서(胥)이네 : 춘추(春秋) 때의 신포서(申包胥)와 오자서(伍子胥). 초나라 신포서는 오(吳)나라 오자서가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급히 공격하자, 신포서가 진(秦)나라 조정에 가서 7일 낮밤을 통곡하며 호소한 결과, 구원병을 얻어 국난을 타개하였다. 오자서는 초(楚)나라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인 오사(伍奢)의 형인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平王)에게 죽었으므로 오나라로 망명하여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았으나,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월왕(越王) 구천(句踐)의 항복을 용서한 것을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죽게 되고 그 후에 오나라는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망하였다. 『春秋左氏傳 定公4年』

其三 그 셋째

茶罷推窓天氣清 차 마신 뒤에 창을 열자 맑은 하늘
 良辰幾處麗人行 좋은 날 어느 곳에 아름다운 이가 가는가!
 山陰老少觴同泛 산음(山陰)의 사람들은 함께 잔을 띄웠었고²⁷²⁾
 沂上冠童服既成 기수(沂水) 가의 사람들은 의복을 만들었었지.
 花惜芳香姑未發 꽃은 좋은 향기를 아껴서 아직 피지 않았고
 鳥誇春意最先鳴 새들은 봄을 뽐내며 가장 먼저 지저귀네.
 偷閒學文南溪宅 한가함을 내어 글을 배워 남쪽 시냇가의 집에 있으니
 獨有詩翁認底情 유독 시인이 있어 깊은 정이 있음을 아네.

廿七日 月 四日 庚寅 陽 朝前雲氣多合 大宅產母少差 鏞璇還家 鏞德卒業 報國團雇價 每月百
 円 得人代送 鏞元還家 李友承文來訪留宿 直員自柏峴來

3월 27일 월요일 음력 3월 4일 경인(庚寅). 맑음. 아침 전에 구름이 많이 모였다. 큰덕의 산
 모가 차도가 있다고 했다. 용선(鏞璇)이 집으로 돌아왔고, 용덕(鏞德)이는 졸업을 했다. 보국
 단(報國團)의 고용 값을 매월 1백원(円)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보냈다. 용원(鏞元)이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 이승문(李承文)이 찾아왔다가 유숙하였다. 직원이 백현리(柏峴里)로부터 왔다.

晚覺 늦게 깨달음

靑邱春到不知春 한국에 봄이 찾아왔건만 봄을 알지 못하고
 煩稅重徭同八垠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부역은 팔도가 동일하네.
 人而有地何艱食 사람이 땅 있으면 먹고 사는 일 무엇이 어려우랴!
 王者爲天亦以民 왕이 하늘처럼 높은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네.
 飽飢元自懸雙手 배부름과 굶주림은 원래부터 두 손에 달렸는데
 才德終無聚一身 나는 재주와 덕이 끝내 한 몸에 모이지 못했네.
 年少休言今日苦 나이 적은 이들은 오늘의 고통을 말하지 말라.
 六朝五季往風塵 육조(六朝)와 오계(五季)는 지나간 풍진일 뿐.

272) 산음(山陰)의 ... 띄웠었고 : 진(晉)나라 영화(永和) 9년 3월 3일에 왕희지(王羲之) 등 명사들이 난
 정(蘭亭)에 모여서 곡수(曲水)에 잔을 띄워 계연(禊宴)을 베풀며 시를 지어 읊은 일을 말함.

卽事 지금의 일

雲淡風輕午日遲 구름이 맑고 바람이 산뜻하여 낮의 해는 길고
 前川花柳趁春期 시냇가 앞에 꽃과 버들은 봄에 나아가기를 기약하네.
 生來最愛論心友 살아가며 가장 좋은 것은 친구와 마음을 논함이고
 老去艱意受學師 늙어가며 어려운 뜻은 선생에게 학문을 수업함이라.
 五世同家知不偶 우리집 오대가 한 집에서 동거함은 우연이 아님을 알겠고
 千年存國問之誰 천년 동안 나라를 보존함을 누구에게 물을까!
 隔窓暫聽農人語 창 너머에 잠시 농사꾼의 말을 들으니
 從此西疇有事時 지금부터 서쪽 밭에 농사일이 있을 것이라.

靜觀 고요히 바라봄

推占未濟坐春天 점을 쳐서 미제(未濟)²⁷³ 괘가 나와 봄 하늘에 앉으니
 花未開時月未圓 꽃도 피지 않았고 달도 차지 않았구나.
 活書我愛蘭亭帖 내 마음에 드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난정첩(蘭亭帖)²⁷⁴
 佳句人傳石鼎聯 사람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글귀는 석정연구(石鼎聯句)²⁷⁵
 龜山先暮歡千里 민산이 먼저 저물어 천리에 기쁘고
 鹿洞賢祠阻六年 녹동에 현인 사당에는 육년이나 못 갔네.
 上下玄機何處見 위와 아래의 현묘한 기미를 어느 곳에서 볼까!
 化中飛躍有魚鳶 벼화 속에 제비는 날며 물고기는 뛰는 곳이라.²⁷⁶

… 面 喜其各處無故 而李郎億寧 獨以內患 經年辛苦 聞甚悵然 不覺沾袖 只祝皇天不日快復而已 夜陰耳

… 얼굴을 마주하였다. 여러 곳이 탈이 없음이 기뻐다. 이억령만 홀로 아내의 병으로 한해가 지나도록 고생한다고 하니, 듣고는 매우 서글퍼서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소매를 적셨다. 다만

273) 미제(未濟) : 주역 64괘의 맨 마지막 괘로 화수미제(火水未濟) 괘이다. 미제(未濟)는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며, 미완의 상태를 의미한다.

274) 난정첩(蘭亭帖) : 중국 진(晉) 나라의 명필 왕희지(王羲之)가 쓴 법첩. 왕희지(王羲之)가 난정회(蘭亭會) 때 명사(名士) 41명의 시첩(詩帖)에 스스로 서문(序文)을 쓴 것으로 잠건지에 쥐의 수염으로 만든 붓으로 썼다고 전해진다. 행서를 배우는 본보기가 된다.

275) 석정연구(石鼎聯句) : 당 나라의 시인 한유(韓愈)가 지은 석정연구시(石鼎聯句詩).

276) 제비는 … 곳이라 : 이치가 나타남을 말함. 『시경』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솔개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 못 속에서 뛰는다.(鳶飛戾天 魚躍于淵)” 하였는데, 『중용(中庸)」에서 이를 인용하여 “위와 아래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하늘에 빨리 완쾌하기를 빌 뿐이다. 밤에 흐렸다.

廿八日 火 五日 辛卯 陽 旋陰旋雨 炫柱聯三十帖書去 南草一封持來 細沾終日不休 不及一稻 ○
輩宰入學證書來到

3월 28일 화요일 음력 3월 5일 신묘(辛卯). 맑음. 흐렸다가 비가 오다 했다. 현(炫)이 주련(柱
聯) 30첩(帖)을 써 갔다. 남초 1봉을 가지고 왔다. 가는 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으나 쟁기
보습 하나 들어갈 깊이에도 못 미쳤다. ○재(○宰)의 입학증서가 왔다.

送李友承文驥行 친구 이승문을 전별함

故邦仁人老 오래된 나라에 어진 사람 원로
陋巷一簞空 누추한 마을에는 한 그릇 밥도 없다네.
活計同三世 살 계획은 삼대를 동거하고
哀情聚四窮 슬픈 마음은 사궁(277)에 모이네.
苞桑將有繫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 있을 것인데(278)
芄葭豈無通 사소한 난관을 넘기지 못하겠는가!
孫或年方大 손자들 순욱(荀彧)처럼 훌륭하여 나이가 한창 들어가니
芳名必振東 명성이 반드시 동방을 떨치리라.

其二 그 둘째

夙霜一夢病西湖 이른 서리 하룻밤 꿈에 서호에 떨어지고
咫尺終南捷徑無 지척인 종남산에 지름길이 없다네.
活筆柱留司馬哲 활력이 있는 글은 기둥의 글에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명철함을 남기고(279)
良籌壁掛臥龍圖 좋은 계획은 벽에 제갈량(諸葛亮)의 그림을 걸었네.
芳樹青春過缺隙 꽃다운 나무 같은 청춘은 빠르게 지나가니(280)

277) 사궁(四窮) : 천하의 네 가지 궁한 백성으로, 환(鰥)·과(寡)·고(孤)·독(獨)을 말함.

278) 어려움을 극복할 ... : 원문 ‘苞桑將有繫’는 『주역(周易)』 비괘(否卦) 구오(九五)에 “혹시 망하지
나 않을까 하고 항상 염려해야만 굳건한 뿔나무에 매어 놓은 것처럼 안정되리라.(其亡其亡 繫于苞
桑)”에 의거한 것이다.

279) 기둥에 ... 남기고 : 한(漢) 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처음에 벼슬하기 위해 서쪽의 장안(長安)
으로 들어갈 때 승선교(昇仙橋)를 지나가다가 다리 기둥에 “네 필의 말이 끄는 높은 수레를 타지 않
고서는 이 다리를 지나지 않으리라.”라고 한 고사를 말함. 『漢書 司馬相如傳』

280) 빠르게 지나가니 : 원문 ‘過缺隙’은 망아지가 틈을 지나간다는 것으로, 세월이 빨리 흐름을 비유하

文章白髮老窮途 백발에 문장 지으며 궁한 길에서 늙어가네.
 爲貧義莊生理在 가난을 위한 의장²⁸¹은 살아갈 이치가 있고
 秋山碩果固根扶 가을 산에 큰 과일²⁸²은 진실로 도와주네.

三月初雨 삼월 초에 비가 내림

良辰寒食近 좋은 때 한식이 가까워 오니
 何處春風佳 어느 곳에 봄바람이 아름다운가!
 溪上初聞雨 시냇가엔 처음으로 빗소리 들리지만
 木中不見花 나무엔 꽃이 보이질 않네.
 哺鳥知孝鳥 까마귀는 어미에게 먹이를 주는 효를 아는 새이고
 暮鴈問誰家 저녁 기러기는 누구의 집인가 묻는다네.
 海外兵聲大 바다 밖에 전쟁 소리 크게 들리고
 網羅橫截涯 그물이 깎아지른 절벽에 빗겨 쳐있네.

廿九日 水 六日 壬辰 雨不多 日未晴 終日細沾 便如昨日 今聞則本校學徒入學金 每名下五十元 云 家貧者何以送之耶 亦將已矣

3월 29일 수요일 음력 3월 6일 임진(壬辰).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날이 개지 않았다. 종일 가늘게 내리는 비가 어제와 같았다. 지금 들으니 본교 학생들의 입학금이 1명당 50원(元)이라고 하니, 집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학교에 보내겠는가! 또한 장차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寒溪雨中 한계의 빗속에
 (次韻 차운임)(以上二百首 이상 2백수)

好生好澤物中均 살리기 좋아하며 윤택하게 하기를 좋아하여 만물에 고르게 베풀니
 天地氤氳春氣佳 천지의 기운 성하고 봄기운 아름답네.

는 말.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흰 망아지가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人生天地之間 若白駒過隙)” 하였다. 『莊子 知北遊』

281) 의장(義莊) : 중국에서, 동족(同族)이 공유하는 전답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조(扶助)하던 시설. 북송(北宋)의 범중엄(范仲淹)이 고향인 소주(蘇州)에 설치한 범씨(范氏) 의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자강(揚子江) 유역 이남에 현저하였다.

282) 큰 과일 : 원문 ‘碩果’는 마지막 명맥을 보존하여 다시 생겨남을 말함. 박괘(剝卦)의 상(象)은 모든 양효(陽爻)가 거의 다 없어지고 오직 상구(上九) 한 효만이 겨우 남아 있는 바, 그 주석에, ‘큰 과일은 먹혀 버리지 않아, 장차 다시 생겨나게 되는 이치를 볼 수 있다.’ 하였다. 『周易 剝卦』

鳥聲相喚驥神柳 새소리 서로 부르니 버들이 신비롭고
 蝶夢初醒影子花 나비 꿈을 갓 깨어 꽃에 그림자 졌네.
 農儔同業相扶社 농사꾼은 일을 함께 하여 서로 마을에서 돕고
 詩叟無隣獨步家 시 짓는 늙은이는 이웃이 없어 홀로 집에서 거니네.
 興誌廢興元有數 천하의 흥망은 원래 운수가 있는 법
 昔人浩歎望洋涯 옛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고 크게 한탄하였네.²⁸³⁾

其二 그 둘째

此翁怨恨有誰知 이 늙은이 원한을 누가 알리오!
 九十年間未展眉 90년 동안 눈썹을 펴지 못했다오.
 農有侵漁難繼食 농사엔 침탈을 당하여 끼니 잇기 어렵고
 書多涉獵易訝疑 글은 섭렵함이 많으면 의심을 쉬이 한다.
 登園不踏芳菲草 공원에 올라 향기 나는 풀을 밟지 않고
 培樹偏慳蓓芽枝 나무를 복돋우며 유독 꽃 싹 나는 가지를 아끼네.
 安得幻生文化國 어떻게 문화국에 환생하여
 喜看金榜掛名時 과거 발표 게시판에 이름을 걸 때가 있음을 기꺼이 보랴!

其三 그 셋째

(俄吟詩中 怨恨二字忘分 故更題 앞에 읊은 시 가운데 ‘원한(怨恨)’ 두 글자는 과분함을 잊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짓다)

更想文章臥禍門 다시 생각하니 문장은 재앙의 문에 누운 것이니
 回看此世更誰存 이 세상을 돌아봄에 다시 누가 있는가!
 一鄉有譽愈師友 한 고을에서 명예가 있어 사우들이 많고
 三世同居衆子孫 삼대가 같이 사니 자손 또한 많다네.
 九旬遐壽由天命 구십의 장수는 천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三品從卿感國恩 3품 시종경(侍從卿)을 지내어 국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네.
 詩中怨恨忘過分 시가 중에 원한은 과분함을 잊은 것이고
 率爾輕吟是妄言 불쑥 경솔하게 읊은 것은 경망한 말이로다.

283) 옛 사람이 …… 한탄하였네 : 망양(望洋)의 탄식으로, 타인의 위대한 면모를 접하고는 자신의 역량 이 부족하여 왜소하게 느껴짐을 말함. 『장자(莊子)』 「추수(秋水)」에, 황하 귀신인 하백(河伯)이 끝 이 보이지 않는 북쪽 바다에 처음 이르러서 자신의 좁은 소견을 탄식하며 북해 귀신에게 심경을 고 백하는 [望洋向若而歎]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다.

卅日 木 七日 癸巳 陽 連日之雨 不及一犁云 親忌當日入齋日 李友承文還宅 雨後餘寒尚在 袴襦
一襲 襪新件一雙入內 耕門前菜種田 先種甘蔗 親忌安過 只以飯羹薦誠 未安莫甚 有風勢

3월 30일 목요일 음력 3월 7일 계사(癸巳). 맑음. 연일 비가 내렸지만 적신 것이 쟁기 보습 하나 깊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아버님 기일로 당일이 재계에 들어가는 날이다. 친구 이승문(李承文)이 집으로 돌아왔다. 비온 뒤에 추위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바지저고리 한 벌과 새로 만든 버선 1결례를 안에 들여 놓았다. 문 앞에 채소밭을 갈아 먼저 감자를 심었다. 아버님 기일이 무사히 지나갔는데, 다만 밥과 국만으로 정성을 올리니, 미안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다. 바람이 세차다.

三十一日 金 八日 甲午 陽旋陰 孝範生日也 陰旋雨 而雨雪交下

3월 31일 금요일 음력 3월 8일 갑오(甲午). 맑다가 곧 흐려졌다. 효범(孝範)이 생일이다. 흐리다가 곧 비가 왔는데, 비와 눈이 섞여서 내렸다.

送李友承文 친구 이승문을 보냄

孔湖三月雨遲晴 큰 호수 3월에 비가 더디 개고
西笑寒溪故友行 서쪽[서울]을 향하여 웃고²⁸⁴ 한계에서 친구가 떠나가네.
秦關咫尺金城落 진나라 관문은 지척인데 금성철벽은 함락되고
蜀道中間火轂橫 축도 중간엔 불에 탄 수레가 흩어져 있네.
四節祠前春草怨 사절사²⁸⁵ 앞 봄풀은 원망을 하고
六臣墓下大江鳴 사육신묘(死六臣墓) 아래 한강물 소리 내어 우네.
歸程應望楊花渡 돌아가는 길에 응당 양화도를 볼 것이니
鵝眉荒亭舊感生 황량한 연미정²⁸⁶에서 옛 생각이 나리.

春薰 봄풀 향내

依徭風景近清明 희미한 풍경은 청명에 가까워

284) 서쪽을 향하여 웃고 : 환담(桓譚)의 『신론(新論)』에, “사람이 장안(長安)이 즐겁다는 말을 들으면 문에 나아가 서쪽으로 향하고 웃는다.” 하였다.

285) 사절사 :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을 모신 사충서원(四忠書院)을 말함.

286) 연미정 : 통진현(通津縣) 갑곶나루 위에 있는 정자. 작은 산 아래에서 바닷물이 나누어져 흐르기 때문에 연미(燕尾)라 이름하였다.

寒谷陰崖盡發榮 한계 골짜기 그늘진 언덕에도 모두 꽃이 피네.
 百花消息催春芬 여러 가지 꽃 소식이 봄 향기를 재촉하고
 萬樹光輝見物情 모든 나무가 물색을 내어 사물의 정을 보네.
 遙雨南來迷岳色 멀리 비는 남쪽에서 와서 산 빛깔이 흐려지고
 大溪東去透江聲 큰 시냇물 동으로 흘러가서 강물 소리 통하네.
 好生孚德天心在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믿음은 하늘에 있는데
 海隘緣何不撤兵 바다와 육지에 어찌하여 군사를 거두지 않는가!

其二 그 둘째

鼓吹誰張樂 두드리고 불며 누가 음악을 연주하나
 廢池亂活東 말랐던 연못이 어지러이 동으로 흘러가네.
 柳眠經曉雨 버들은 잠자는데 새벽 비 지나가고
 花夢入春風 꽃은 꿈꾸는데 봄바람 불어오네.
 水漾魚鱗碧 넘실대는 물에 물고기 비늘이 푸르고
 雲梳鶴頂紅 구름을 빗질하는 학 정수리는 붉네.
 天和知者少 하늘의 조화를 아는 이 적으니
 管領任詩翁 관장함은 시 짓는 늙은이에게 맡기네.

其三 그 셋째

春雨聲中病枕孤 봄비 소리에 병든 침상 외로운데
 誰家留客詠生芻 뉘 집에서 손님을 머물려 생추(生芻 : 싱싱한 풀)²⁸⁷⁾ 노래를 읊는가!
 堂前將至紅襟鷓 대청 앞에 붉은 옷깃을 한 제비가 날아들을 것이고
 巷外群飛白頂烏 마을 밖으로 흰 머리 까마귀가 떼 지어 날아가네.
 昭代曾無筆楚漢 밝은 시대에는 일찍이 초나라 한나라를 기록할 것이 없으나
 夙工何不學孫吳 일찍 공부하여 어찌 손오²⁸⁸⁾를 배우지 못했는가.
 讀書千卷空勞力 천 권의 글을 읽었지만 헛된 노력이니
 豈意窮鄉作腐儒 어찌 궁벽한 마을에 썩은 선비가 될 줄을 생각이나 했으랴!

287) 생추(生芻) : 『시경(詩經)』 「소아(小雅)」 「백구(白駒)」에서 현자(賢者)를 그리워하여, “생추 한 다발을 말에게 먹이니, 그 사람이 옥 같도다.[生芻一束 其人如玉]” 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288) 손오(孫吳) : 병법가(兵法家)를 말함. 춘추 시대 제(齊)나라 손무(孫武)와 전국 시대 위(衛)나라 오기(吳起)의 병칭으로, 병법가를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四月一 土 九日 乙未 陰 日氣一樣 便多寒冷 明日珩範生日也 雨夕天又作 而與雪交下 今聞則允
範雇任 緣於農作 自退云

4월 1일 토요일 음력 3월 9일 을미(乙未). 흐림. 날씨가 한결같이 추위가 많다. 내일은 형범
(珩範)의 생일이다. 비가 저녁 날씨에 또 일어나고 눈과 섞여 내렸다. 지금 들으니, 윤범(允範)
의 고임은 농작에 연관되어 스스로 물렸다고 한다.

春雪最多 봄눈이 가장 많이 내림

一年佳節杏花天 일 년 중 아름다운 계절에 살구 꽃 필 때
苦憶前遊覓舊篇 애써 옛 놀이를 추억하고 옛 책을 찾아보네.
郊野近多三月雪 들에는 근래 3월 눈이 많이 내리고
閭閻連接百家烟 마을은 갑자기 모든 집에 연기를 피우네.
微我終無香社詠 내가 아니면 마침내 향사²⁸⁹)에서 시를 읊음이 없으니
有誰先覺草堂眠 누가 먼저 초당의 잠에서 깨어나는가!
白也楊州乘鶴後 이백이 양주에서 학을 타고 간 뒤
未聞酒國有神仙 술 나라에 신선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네.

評物 사물을 평함

朝來盤菜削新葱 아침 밥상에 채소는 새 파를 잘라서
家有稚娘任饌工 집안의 어린 아가씨에게 반찬 만드는 일 맡겼다네.
百種農書聽野老 온갖 종류의 농서는 들의 노인에게서 듣고
衆香茶譜問園公 여러 향기 나는 차 족보는 채소 농군에게 물어야 하네.
松經四節長含翠 소나무는 사계절이 지나도록 오랫동안 푸르름을 머금고
花向三春盡俟紅 꽃은 석 달 봄에 모두 붉기를 기다리네.
最惜芄芄多少樹 가장 애석한 것은 무성한 많은 나무들이
幻爲樗櫟入佳叢 가죽나무로 변하고 떨기로 되는 것이라.

嘆學究硯田 연전에서 배우고 연구함을 탄식함

生涯坐硯田 평생을 연전²⁹⁰)에 앉아

289) 향사 : 당(唐)나라 때 백거이(白居易)가 향산(香山)의 중 여만(如滿)과 함께 걸성한 모임. 즉 향화
사(香火社)의 준말이다.

290) 연전(硯田) : 문필로 생활함.

百體乏農莊 모든 것이 농가에 부족하네.
 尺幣供時服 한 자 비단으로 제철 옷을 해 입고
 束修代月糧 속수²⁹¹)로 그달 양식을 대신하네.
 梁飯常離口 기장밥은 항상 입에 맛보지 못하고
 芋羹罕潤腸 토란국으로 드물게 배를 채우네.
 館祿皆浪說 관청 녹봉은 모두 낭설이요
 例金少入量 의례적인 돈마저 적게 들어오네.

二日 日 十日 丙申 陽 見韓友弼東書 喜其無故 間作天安之行云 紀念文皆贊成云 崔郎英植率眷
 推門內 堂姪則無異己出 名炳得 五年學 斗晟南草一封持來

4월 2일 일요일 음력 3월 10일 병신(丙申). 맑음. 친구 한필동(韓弼東)의 편지를 보았는데 그
 가 무고하다는 것에 기쁘다. 요사이 천안(天安)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기념문은 모두 찬성하
 였다고 한다. 최영식(崔英植)이 식술을 데리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당질은 자기 아들과 다름
 이 없는데 이름이 병득(炳得)이고 5년을 공부했다. 두성(斗晟)이 담배 1봉을 가지고 왔다.

得云字 운(云) 글자로 시를 지음

廿四番風度半分 이십사번화신평(二十四番花信風)이 반을 넘어
 草萋萋又木欣欣 풀은 우거지고 나무 또한 생기가 넘치네.
 今文曰曰人皆曰 지금 글을 말하자 사람들도 모두 말하고
 古禮云云我亦云 옛 예법을 언급하자 나도 또한 언급하네.
 均澤先沾寒食雨 고른 은택은 한식의 비에 먼저 적셔지고
 過痕永阻太虛雲 지나간 흔적은 태허의 구름에 영원히 막히네.
 終知世事無難處 마침내 세상 일이 어려운 곳 없음을 알았으니
 前路榮通在一勤 앞길의 영화와 통달은 한결같은 근면함에 달려있네.

自警 스스로 경계함

(仍用前韻 앞의 운을 그대로 쓰다)

乘除百累過三分 온갖 결점 없애려다 3할이 더해지고
 十忍居家得九欣 열 번 참으면서 집에 있으면 9할의 기쁨 얻으리라.

291) 속수(束脩) : 제자가 될 때에 스승에게 드리는 예물. 예물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 속수이다. 신중
 목은 글방 선생이었으므로 속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溫故知新先聖訓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아는 것은 이전 성인의 가르침이요
 行仁積善古人云 인을 시행하여 덕을 쌓음은 옛사람들의 말이라네.
 檐頭往跡違黃石 처마 끝에 지나간 자취 누런 돌에 어긋나고
 野外遐心佳白雲 들 밖 먼 곳 생각하는 마음 흰 구름 속에 아름답네.
 每誠兒孫何最切 매번 아들 손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경계하노니
 平生做業在和勤 평생의 하는 일은 화합과 부지런함에 달려있단다.

午後雨作 昨夜之雨 乾川水漲 自昨秋以 後雨最多 入夜晴

오후에 비가 왔다. 어제 밤비에 마른 내에 냇물이 불었다. 지난 가을 이후 비가 가장 많이 왔다. 밤이 되어 개었다.

三日月十一日 丁酉 陽 良範妻男韓峻愚 來於昨日 而南草一封持來 今告歸 良範車費出給 南雲
 炫女婚宴床來到 甘喫 南淸炫來請新婿家往復書 故善爲辭題而送之

4월 3일 월요일 음력 3월 11일 정유(丁酉). 맑음. 양범(良範)의 처남 한준우(韓峻愚)가 어제 왔는데 담배 한 봉을 가지고 왔다. 오늘 돌아간다고 하기에 양범에게 차비를 주어서 보냈다. 남운현(南雲炫)의 딸 혼례 잔치 상이 와서 맛있게 먹었다. 남청현(南淸炫)이 와서 새 사돈에게 보내는 편지를 청하기에 글을 잘 만들어서 보냈다.

送韓峻愚歸南陽 남양으로 돌아가는 한준우를 보냄

海西長程走華城 바다 서쪽 먼 길 화성으로 달려가고
 寒女橋南遠客行 한녀교 남쪽에서 멀리 손님이 가네.
 園叟庭除芳草出 과수원 늙은이의 섬돌에는 방초가 돌아나고
 野人籬落晚雲晴 들의 노인 울타리에는 저녁 구름이 개이네.
 竹松誇節非凡品 송죽이 절개를 자랑함은 비범한 물건이고
 梅柳爭春亦物情 매화와 버드나무가 봄을 다투는 것도 물정이라네.
 吉象貧門歸妹遠 길한 상징의 가난한 가문에 시집가는 신부는 멀어지고
 深深相訪好逢迎 깊은 정에 서로 찾아와 사이 좋게 맞이하네.

養神 정신을 수양함

自曾百病術無空 온갖 병을 앓으면서부터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

養得精神澗寂中 정신을 고요한 속에서 기르는 것이라.
 蘇麥雨師聽野老 보리를 일깨우는 비의 신(神)은 들의 노인에게 들어야 하고
 釀花風伯問園公 꽃 피우게 하는 바람 신은 과수 농부에게 물어야 하네.
 矮形短壑松三尺 짧은 골짜기에 작은 모습의 3척 소나무요
 長物幽庭石一叢 그윽한 뜰에 큰 물건은 한 무더기의 돌이라네.
 買酒南宮歸妹宅 남궁씨 시집보내는 집에서 사 보낸 술
 佳香吹送壯元紅 장원홍²⁹²⁾ 술 아름다운 향기를 불어 보낸다.

四日 火 十二日 戊戌 陽 厚霜如雪 朴容九來訪旋歸 珏宰母子善在云 校宮選掌議投票 故昌範往焉 玄範往鳳城 仁範大祥往焉 三星里鄭哀成朝宅護喪所先付輓詩 而慰問從此計矣 直員持同……

4월 4일 화요일 음력 3월 12일 무술(戊戌). 맑음. 짙은 서리가 눈과 같다. 박용구(朴容九)가 찾아왔다가 바로 돌아갔다. 각재(珏宰) 모자(母子)는 잘 있다고 한다. 향교에서 장의(掌儀)를 뽑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창범이 갔다. 현범(玄範)이 봉성으로 갔다. 인범(仁範)은 대상(大祥)에 갔다. 삼성리(三星里) 상주 정성조(鄭成朝) 집의 호상소에 먼저 만시(輓詩)를 붙이고 위문을 이를 따라 할 계획이다. 직원이 가지고 함께 ……

寒食前二日 한식 2일 전

三十六宮都是春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요
 一年寒食最良辰 일 년 중 한식은 가장 좋은 때라네.
 仙門丹父無丹子 선문에 단부는 단자가 없지만
 吾道素王有素臣 우리 도에 소왕은 소신²⁹³⁾이 있도다.
 晚題花品香留手 늦게 지은 화품에 향기가 손에 남아 있고
 常咬菜根苦入脣 항상 나물 뿌리 씹어 쓴 맛이 입술에 들어오네.
 詩隣酒社俱閑寂 시 짓는 친구 술 마시는 계모임은 모두 고요하고
 忘累樂生問幾人 근심을 잊으며 삶을 즐기는 이 문건대 몇 사람인가!

其三 그 셋째

(仍次前韻 그대로 앞의 운을 차운하다)

292) 장원홍 : 술 이름.

293) 소왕은 소신 : 『춘추(春秋)』를 지은 공자(孔子)를 소왕(素王)이라 하고, 공자의 뜻을 계승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지은 좌구명(左丘明)을 소신(素臣)이라 한다. 『春秋左氏傳 序』 소왕은 제왕(帝王)을 역임하지는 않았으나 제왕의 덕을 지녔다 하여 일컫는 말이다.

我齒九十歲 내 나이 구십에
 又逢九十春 또한 구십 번 봄을 만났네.
 今年眞晩節 금년은 정말 절기가 늦으나
 明日是良辰 내일은 좋은 때라네.
 場巡鷄子母 마당을 어미닭과 새끼 닭이 돌아다니고
 階運蟻君臣 섬돌에는 임금 개미와 신하 개미들이 돌고 있네.
 養身梁肉乏 몸을 양생함에 쌀밥과 고기가 모라자고
 藜藿只供脣 명아주 국과 현미만이 입술에 오르네.

… 付 而亦以無訃告 故託以親患而謝過 從此慰問計 而冑晟從近往弔云 南宮炫女于歸也 昌範自校宮來面 掌儀投票尹敬奕李英燮云

… 쳤으나 또한 부고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병환을 의탁하여 사과하고 이에 따라 위문할 계획인데 주성(冑晟)이 근래 가서 조문하였다고 한다. 남궁현(南宮炫)의 딸이 시집갔다. 창범이 향교에서 와서 만나보았는데 장의(掌議) 투표에는 윤경혁(尹敬奕)과 이영섭(李英燮)라고 한다.

五日 水 十三日 己亥 陽 是日清明也 親山乾坤位改莎 有意莫遂久矣 而今年又虛送 生前未成 十常八九也 咄嘆奈何 玄範自鳳城里來面 仁範母祭物多裹而送之 相候其形 甚憐甚憐耳

4월 5일 수요일 음력 3월 13일 기해(己亥). 맑음. 오늘은 청명(淸明)이다. 부모님 산소의 건곤(乾坤)의 묘위(墓位) 사초를 뜻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지가 오래되었다. 금년을 또 헛되이 보내면 나의 생전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열중에서 여덟이나 아홉이 될 것이다. 아! 어이할까! 현범(玄範)이 봉성리(鳳城里)로부터 와서 만나 보았다. 인범(仁範)의 어머니가 제물을 많이 싸서 보냈다. 그 형편의 안부를 물으니 심히 가련하고 심히 가련할 뿐이다.

淸明日一吟 청명일에 한 번 읊음

望雲咫尺我懷加 지척에 바라보이는 구름에 나의 생각 더해지고
 先墓孱孫八九家 선조 묘소에 잔약한 후손 집 여덟 아홉이라.
 幽逕自生經雨草 그윽한 길은 비 맞은 풀이 절로 자라고
 淺山應綻向陽花 나지막한 산은 해를 향해 꽃이 피리라.
 村娥喚侶新收菜 시골 아낙네는 짝을 부르며 새로 나물을 뜯고
 野老催傭早種麻 들의 노인은 일꾼을 재촉하며 대마(大麻)를 서둘러 심네.
 詩事良辰宜一醉 좋은 때 시 지으려면 마땅히 한번 취해야 하니

呼兒前店酒初賒 아이 불러 앞 가게에서 술 받아오라 하네.

其二 그 둘째

數椽茅屋俯東郊 몇 개 서까래 엮은 띠 풀 집이 동쪽 교외를 향했는데
新燕雙飛訪舊巢 새로 온 제비가 쌍으로 날며 옛 둥지를 찾아오네.
家督聽翁勤養木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부지런히 나무를 기르고
閨娘學母競蒔匏 딸은 어머니에게 배워 다투어 박을 심네.
粗涉詩文兼博覽 시문을 대강 섭렵하며 널리 읽고
貧居喫着賴親交 가난한 살림 먹고 입는 것은 친구에게 의지하네.
三月春風寒尚峭 3월 봄바람에 추위가 여전히 매서우니
朝來先問杏花梢 아침이 되면 살구나무 가지를 먼저 살피네.

其三 그 셋째

清明佳節問如何 청명의 아름다운 계절 묻노니 어떠한가!
白首西溪獨放歌 백발로 서쪽 시내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네.
別圃窺紅流粉蝶 나뉜 밭에서 붉은 꽃을 엿보며 흰나비가 날아가고
芳園拾翠惜春蛾 향기로운 동산에 비취를 버리며 봄 아가씨가 애석해 하네.
舊廬滲漏疎乘稿 오래된 집에 빗물 스며서 짙으로 성글게 잇고
先墓崩頽略補莎 조상 무덤이 무너져서 대략 뗏장을 보태 넣네.
追想劬勞恩莫大 부모님 노고를 추모해 보니 은혜가 막대하니
更披古雅淚吟莪 다시 옛 소아(小雅)를 펼쳐 눈물 흘리며 육아편(蓼莪篇)²⁹⁴을 읊는다네.

六日 木 十四日 庚子 陽 是日寒食也 龍仁郡古基里安秉淳宅時(詩韻) 鄭友景伯委送請焉 故製置
崔友庸植金友完植皆來訪 舒話而歸 崔友南草一枚惠念

4월 6일 목요일 음력 3월 14일 경자(庚子). 맑음. 한식(寒食) 날이다. 용인군(龍仁郡) 고기리(古基里) 안병순(安秉淳)의 집에서 시운(詩韻)을 내고 친구 정경백(鄭景伯)을 보내어 초청하였으므로 지어 두었다. 친구 최용직(崔庸植)과 김완식(金完植)이 모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최용직은 담배 1매를 가지고 왔다.

294) 육아편(蓼莪篇) :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 부모를 애모하는 노래이다.

寒食 한식

年事豐荒聽野翁 한해 농사가 풍년인지는 들의 노인에게 들으니
今朝宜雨不宜風 오늘 아침 비는 마땅하나 바람은 마땅하지 않네.
介山焚後傳寒食 개산(295)에서 개자추(介子推)가 불타 죽은 뒤에 한식으로 전하지만
晉室興時忘舊功 진(晉)나라가 흥성한 때에 옛 공을 잊었네.
千門細柳才添綠 모든 집에 가르다란 버들은 막 푸르름을 더해가고
兩岸新桃未成紅 양 언덕에 새 복숭아나무는 아직 붉지 않았다네.
誰家此日思先墓 뉘 집에서 이날에 조상 묘소를 생각하는가!
履霜淒懷今古同 서리를 밟음에 부모의 애모는 예나 이제나 같구나.

其二 그 둘째

南城處處未開花 남쪽 성 곳곳에 아직 꽃은 피지 않고
寒食春風巷柳斜 한식 봄바람에 마을의 버드나무 흔들린다.
林鳥相呼聯翠羽 숲속에 새들은 서로 지저귀며 푸른 날개를 연이고
溪娥同浣映紅紗 시내에 아가씨가 함께 빨래하자 붉은 비단이 비친다.
良夜管音行賽院 좋은 밤에 피리소리 굿하는 집에서 나오고
佳辰茶禮供禪家 좋은 때에 다례는 제사지내는 집에서 올리네.
借問維揚先祖墓 묻노니 유양(양주)의 선조의 묘에는
靈邱神道竣碑耶 묘소에 신도비를 준공하였는가!

寒食後評 한식 후에 평함

寒食當今日 오늘 한식날을 맞이하니
家家禁火宜 집집마다 불을 금하는 것은 마땅하네.
晉文雖忘矣 진문공이 비록 잊었지만
介子自焚之 개자추는 스스로 타죽었네.

295) 개산(介山) : 개자추가 불타 죽은 산. 진 문공(晉文公) 중이(重耳)가 공자(公子)였을 때 19년 동안 이나 타국에 망명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즉위한 다음, 자신을 모시며 고생한 사람을 논상하였는데 개자추(介子推)의 공을 잊고 녹(祿)을 주지 않았다. 이에 개자추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綿山)에 은거하였다. 뒤늦게 문공이 산으로 찾아가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는데,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껴안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에 문공이 크게 슬퍼하여, 산 아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가 불에 타 죽은 날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익히지 말고 미리 만 들어 놓은 식은 음식을 먹게 하였으니, 이날이 바로 한식(寒食)이다. 면산은 그 후 개산(介山)이라 불리게 되었다. 『春秋左氏傳 僖公24年』

非忠非義也 충도 아니고 의도 아니니
是怒是怨而 노여워하고 원망한 것이네.
千秋名不泯 천년이 지나도 이름은 없어지지 않으니
能使後人疑 후세 사람에게 의아하게 하네.

其二 그 둘째

(解介子怨 개자추의 원한을 풀음)

後人皆誦晉文賢 후세 사람들이 모두 진문공의 어짙을 칭송하나
介子捐身最可憐 개자추가 목숨 끊은 것은 가장 슬퍼할만하구나.
誤焚山澤終違計 산택을 잘못 태운 것은 끝내 계획이 그릇되었지만
當日胡無一枉延 그날 어찌 한번 굽혀 나오지 않았는가!
(此所謂君臣俱失 이것은 이른바 '임금과 신하가 모두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申吉雨宅大祥 未得往慰 亦無助力 悵然無涯 壽詩未覓去 則明將出付計矣 午後陰 入夜雨多 直員
入京

신길우(申吉雨) 덕 대상에 가서 위로하지도 못하고 또한 도와줄 힘도 없으니 서글프기 한이 없다. 수연잔치의 시를 찾아가지 않아서 내일 장차 부칠 계획이다. 오후에 흐리다가 밤이 되자 비가 많이 내렸다. 직원이 서울로 들어갔다.

七日 金 十五日 辛丑 雨不晴 言念昔日 則今日翁之冠禮日也 此去辛未七十三年也 大禮日來十九日 成娶時 父兄之辛苦 宛在眼中 何可忘耶 雙淚沾襟 不勝感懷 故將記之 雨終日不休 入夜亦然

4월 7일 금요일 음력 3월 15일 신축(辛丑) 비가 개이지 않았다. 옛날을 생각하니 오늘이 내가 관례(冠禮)를 한 날이다. 이 신미년(1861)이 지난지가 73년이다. 대례(大禮)를 한 날은 오는 19일이다. 장가들 때 부형의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완연히 눈 안에 있으니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어 감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한다. 비가 종일토록 그치지 않았는데 밤에 들어서도 또한 여전했다.

龍仁郡水枝面古基里安秉淳大人壽辰 翁인군 수지면 고기리 안병순 대인의 수연 날
(代作 대신 지음)

六旬偕老碧山春 육십년을 해로한 푸른 산은 봄인데

諄喜兒孫供孝人 성실하며 기뻐하는 아들과 손자는 효도를 바치는 사람이라.
 迎甲近祗三郡友 회갑을 맞아 세 군의 친구들이 가까이 공경하고
 委禽兼有百年賓 기러기를 바친 백년손님 사위가 함께 있네.
 丹甌醉話花中里 붉은 비단에 술 취한 이야기하는 꽃 속의 마을이요
 黃繭新詞月下隣 누런 비단에 새로운 시를 쓰는 달빛 아래 이웃 사람이라.
 從認劬勞當此日 이날 당해 부모님 노고에
 也應餘感倍思親 응당 많은 느낌으로 부모 생각이 배가 될 것을 알겠네.

重題 거듭 지음

瓊甲重回六一春 태어난 갑자가 거듭 돌아와 예순 한 번째 봄을 맞이하니
 滿堂和氣是家人 대청에 가득히 온화한 기운에 집안사람들이라.
 期生仙宅無量酒 안기생(安期生)²⁹⁶의 신선과 같은 집에는 술이 한량없고
 台叟長筵廿二賓 늙은이의 생일잔치에 이십 이명의 손님일세.
 築路已違丹桂苑 영화로운 길에 이미 붉은 계수나무²⁹⁷ 동산에 오르는 것은 어긋났으나
 佳緣偕老碧桃隣 좋은 인연으로 벽도화 피는 이웃 함께 늙어가네.
 最憐花下兒孫彩 가장 사랑함은 꽃 아래 색동옷 입은 자손들이
 優學幼儀共悅親 아이들의 거동을 넉넉히 배워 어버이를 함께 기쁘게 하는 것이라.

雨中走筆 빗속에 붓을 들어 지음

寒溪三月雨聲齊 한계 삼월에 빗소리 가지런하고
 春樹重重擁兩堤 봄철 나무 겹겹이 양쪽 언덕 끼고 있네.
 林匠改砧磨白石 산골 목수는 다듬이질돌을 바꾸려고 흰 돌을 갈아 편평히 하고
 園翁斲杖斷青藜 동산 늙은이는 지팡이를 깎아 청려를 자른다네.
 檐頭并坐雌雄燕 처마 머리에 함께 앉은 암수 제비요
 牆外相呼子母鷄 담 밖에서 서로 부르는 병아리와 어미닭이라네.
 知時均沾能潤物 때를 알아 고루 적시어 사물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
 催農布穀向人啼 농사를 재촉하는 뻐꾸기²⁹⁸는 사람 향해 우는구나.

296) 안기생(安期生) : 진시황(秦始皇)이 동유(東遊)할 때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을 보고 싶으면 수십 년 뒤에 봉래산(蓬萊山)으로 찾아오라고 한 뒤 자취를 감췄다는 선인(仙人)의 이름. 『史記 封禪書』

297) 붉은 계수나무 : 과거에 급제함을 말함.

298) 포곡(布穀) : 뻐꾸기의 별칭. 봄철에 우는 소리가 ‘씨앗을 뿌려라(布穀)’라고 재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霽後望靑龍山 비간 후 청룡산을 바라봄

霽餘山色出靑龍 비간 나머지 산 빛엔 청룡모습이 나오니
 畫出西南八九峯 서남쪽엔 팔 구 봉우리를 그려낸다.
 丹鳥雲仙曾住跡 붉은 신을 신은 구름 속 신선은 일찍이 자취를 머물었고
 翠鬢玉女晚修容 비취 빛 쪽머리의 옥 같은 여인은 늦게 용모를 가꾸네.
 淡影照人懸月鏡 맑은 그림자로 사람을 비추는 것은 매달려 있는 달 거울이고
 亮音警世落風鍾 맑은 소리로 세상을 경계하는 것은 내려오는 바람결 종소리라.
 惟有詩人能記念 오직 시인만이 기념할 수 있으니
 萬千氣象入堯封 만천의 기상이 요임금의 경지에 들어가네.

八日土 十六日 壬寅 陽 直員滯雨不來 壽詩鏞仁便付送 洪友海雲來訪 繼傳數十番 而向文原里而去 族弟宗元男妹來訪雨留 妹林室也 同隣居云云

4월 8일 토요일 음력 3월 16일 임인(壬寅). 맑음. 직원이 비로 지체되어 오지 못했다. 수연을 축하하는 시는 용인(鏞仁)에게 부쳐 보냈다. 친구 홍해운(洪海雲)이 찾아와서 이어서 수 십 번을 전하고 문원리(文原里)를 향해서 갔다. 집안 동생 종원(宗元) 남매가 찾아왔다가 비 때문에 머물렀다. 누이는 임실(林室 : 임씨의 아내)인데 같은 마을에 산다고 하였다.

太忽忽 매우 바빔

世人行色太忽忽 세상 사람들의 행색 매우 바쁘고 바빠
 朝向西南暮北東 아침에 서남을 향했다가 저녁에 북동을 향하네.
 豪貴不離憂樂裡 호강한 이도 근심 속에서 떠나질 못하고
 英雄盡老是非中 영웅도 시비 속에서 모두 늙었네.
 詩社名聲花上品 시 단체의 명성은 꽃이 상품이 되고
 農家事業雨元功 농가 사업은 비가 으뜸 공이 되네.
 借問赤松何處在 묻건대 적송자(赤松子)²⁹⁹는 어느 곳에 있는가!
 飄然超俗一張翁 표연히 세속을 초탈한 한 늙은이로다.

299) 적송자(赤松子) : 신선 이름.

晴望 화창한 하늘을 바라봄

靑藜扶杖強依樓 청려장을 짊고서 애써 누각에 기대니
寒女城邊雨晚收 한녀성 가에는 비가 늦게 그쳤네.
香圃群飛流粉蝶 향기 나는 밭에 꽃가루를 흘리는 나비가 떼 지어 날고
晴沙并立忘機鷗 맑은 모래 가에 욕념 잊은 갈매기가 나란히 서있네.
儒術初行文景漢 유술이 처음 행해진 것은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때이고
王風最振武成周 제왕 기풍이 가장 떨쳐진 것은 주(周)나라의 무왕(武王)과 성왕(成王) 때라.
從古數奇傳話在 예로부터 몇몇의 기이한 일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馮唐李廣未封侯 풍당·이광은 제후에 봉해지지 못했다네.³⁰⁰⁾

其二 그 둘째

消息春將晚 소식에 봄이 늦을 것이라고 하는데
出門到九顛 문을 나서다가 아홉 번 자빠졌네.
花開無惡樹 꽃이 피면 나쁜 나무가 없고
穀長是良田 곡식이 잘 자라면 바로 좋은 밭이라네.
教經眞隔後 경전을 가르쳐 진정 후학들을 인도하고
修德克追先 덕을 닦아 선성을 추모하네.
縱知行不得 비록 알더라도 행하진 못하니
自愧老隆年 나이만 먹은 것이 스스로 부끄럽네.

其三 그 셋째

蝴蝶初醒夢 나비가 처음 꿈에서 깨어
幾處覓花香 어느 곳에서 꽃향기를 찾는가!
子美緣詩瘦 두자미(杜子美 : 두보(杜甫))는 시로 인해 파리해졌고
伯倫任酒狂 유백륜(劉伯倫 : 유령(劉伶))은 술에 방종해서 경망했도다.
落華添軟草 떨어지는 꽃은 연한 풀에 더해지고
烟影澹垂楊 아지랑이 그림자는 수양버들에 가득하네.

300) 풍당·이광은 …… 못했다네 : 시대의 추이에 고위직을 못함을 말함. 풍당은 한나라 문제(文帝) 때 낭중서장(郎中署長)으로 있다가 거기도위(車騎都尉)가 되었다가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현자(賢者)를 등용했으나 그는 이미 나이가 90세라 높은 관직을 맡을 수 없어 제후가 되지 못하고, 이광은 무제가 젊은 장군을 좋아하여 늙은 이광이 제후에 봉해지지 못하였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풍당은 크게 등용되기 전에 쉬이 늙었고 이광은 큰 전공(戰功)을 세우고도 봉해지기 어려웠다. (馮唐易老 李廣難封)” 하였다.

物物皆春色 사물마다 모두 봄빛을
依然倚杖望 의연하게 지팡이 짚고 바라보네.

其四 그 넷째

寒食雨均沾 한식에 비가 고루 적시니
鳴鳩催種辰 우는 비꾸기가 파종을 재촉하는 때라.
念祖銘碑院 조상을 생각하며 비석을 새기는 곳에
哭孃除服隣 할머니를 곡하며 상을 마치는 이웃사람이라.
百草皆宜菜 모든 풀은 나물 해먹기 좋고
一花足記春 꽃 한 송이로 봄을 기억하기에 충분하다네.
隨時民盡析 농사철에 맞춰 백성들 모두 들로 흩어져
太半在田人 사람이 태반은 밭에 있네.

與李泰建偕行 而李友則金昌成家留宿 直員自黑石里來面 夕飯後 與林室良久敘話 而留宿于吉範家 珩範來面

이태건(李泰建)과 함께 갔다. 이태건은 김창성(金昌成)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직원이 흑석리로 부터 와서 만나 보았다. 저녁식사 후에 임실(林室)과 오래토록 이야기를 하였고 길범(吉範)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형범(珩範)이가 와서 만나 보았다.

九日 日 十七日 癸卯 陽 宗元男妹告歸 甚爲悵然 珩範告歸 第觀家督之動靜 不過媚妻愛息 無意於百步之外 此將奈何 更觀下回已耳

4월 9일 일요일 음력 3월 17일 계묘(癸卯). 맑음. 종원 남매가 돌아간다고 하니 매우 섭섭하다. 형범(珩範)이가 돌아간다고 고하였다. 다만 만아들의 동정을 살피니 아내에게 잘 보이고 자식들만 아낄 뿐이어서 백보 밖에 대해 생각함이 없으니, 이를 장차 어찌할까! 다시 결과를 지켜 볼 뿐이다.

族弟宗元自駒城 男妹同行來訪 집안 동생 종원이 구성(용인)으로부터 남매가 동행하여 왔다. (妹林室 누이는 임씨의 아내이다.)

有弟南來與妹同 아우가 남으로 와서 누이와 함께 오니
故園花樹任和風 옛 정원의 화수³⁰¹는 화합하는 바람에 의지하네.

老年撤柵留湖上 노년에 울을 치우고 호숫가에 머무니
 寒食離家滯雨中 한식에 집을 나와 비에 막혔네.
 白叟悲懷春更晚 백발 늙은이의 슬픈 마음속에 봄은 다시 저물어 가고
 靑燈情話夜將終 푸른 등불 아래 정겨운 대화는 밤이 장차 끝나려 하네.
 分明他日相逢約 분명하게 뒷날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며
 笑指前庭菊一叢 웃으며 앞뜰을 가리키자 국화 한 떨기라.

十日 月 十八日 甲辰 陽 昨聞則本校孟駿變遞歸 而今日餞別會云 不勝淒然 故驢行一詩付便 崔
 郎伯俊來 乘屋姜丕伊 作瓦家 雇價南草都却而不受 午飯而去 昌範叔姪日暮不來 餞別會有何他議
 耶 近則朝夕之供事 不如前日 九十之老 何以保存耶

4월 10일 월요일 음력 3월 18일 갑진(甲辰). 맑음. 어제 들으니 본교의 맹준섭(孟駿變)이 교
 체되어 가서 오늘 전별회가 있다고 하니, 서운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전별시 1수를
 인편으로 보냈다. 최백준(崔伯俊)이 왔다. 지붕 올리는 강돌이(姜丕伊)가 기와집을 만들고 품
 샅과 담배를 모두 물리치고 받지 않고 점심밥만 먹고 갔다. 창범의 숙질이 날이 저물어도 오
 지 않으니 전별회에서 어떤 다른 논의가 있는 것인가! 근래에 아침저녁으로 밥을 먹는 것이
 예전만 못하니, 90된 늙은이가 어찌 보존할 수 있겠는가!

官門里學校長孟駿變遞歸 故今日餞別會付贈 관문리에 학교장 맹준섭이 전출되었으므로 오늘
 전별회에 부쳐 보낸다

杏花佳節雨初晴 살구꽃 핀 아름다운 계절에 비가 처음 개이고
 病枕淒然未驢行 병상에서 서운하게 전별에 가지 못하오.
 安定學規傳二校 호안정의 학규는 두 학교에 전해지고³⁰²⁾
 昌黎師範養諸生 창려³⁰³⁾는 사범이 되어 여러 학생들을 기르듯.
 六班優績均沾澤 여섯 반의 우수한 공적은 고루 받은 은택이고
 三育勤功遠有聲 세 가지 교육의 부지런한 공로는 멀리까지 이름났네.
 負及輿情留不得 책가방을 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은 머물 수가 없었으니

301) 화수 : 친족을 말함. 당(唐)나라 위장(韋莊)의 형제들이 화목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잠삼(岑
 參)의 「원외랑 위장의 화수가(韋員外莊花樹歌)」에 “그대 집 형제들은 당할 수 없어, 경·여사·상서
 량이로세, 아침이면 꽃 아래에서 늘 손님과 만나는데, 꽃이 옥 술항아리를 쳐서 술이 향기롭다네(君
 家兄弟不可當 列卿御史尙書郎 朝向花底恒會客 花搏玉缸春酒香)” 하였다. (『退溪集』 卷8 「文集攷證」)

302) 호안정(胡安定) : 호원(胡瑗). 소주(蘇州)·호주 교수(湖州教授)를 역임하면서 조약(條約)을 엄격히
 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303) 창려 : 한유(韓愈). 「사설(師說)」을 지었다.

高堂鶴髮鏡中明 안방의 어머니께선 백발이 거울 속에 선명하리.

午眠 낮잠을 잠

午枕書窓晚醒眠 서재 창가에서 낮잠을 자다가 늦게야 잠에서 깨니
新紅軟綠洞中天 새로운 꽃과 연한 신록이 온통 골짜기 속의 세계로다.
田家覆瓦西隣子 농가에 기와를 덮는 것은 서쪽 이웃 아들이고
春酒懸弧北里仙 술에 생일 맞은 것은 북쪽 마을 신선이라네.
寒食東風三日後 한식 동풍이 3일 동안 불어온 뒤에
晴沙白石一溪邊 맑은 백사장의 흰 돌이 한 시냇가에 있네.
孟師歸養傳消息 맹선생이 귀가하여 부모 봉양한다고 소식을 전하니
戀戀離懷惜別筵 애뜻한 이별의 정리는 전별하는 자리에 아쉬어라.

十一日 火 十九日 乙巳 陰旋陽 推思再往辛未春事 今日卽翁之委禽日 感而作一詩 而計其光陰則七十三年也 這間憂樂風霜 却在夢中

4월 11일 화요일 음력 3월 19일 을사(乙巳). 흐렸다가 바로 맑았다. 두 번 지나간 신미년 (1871) 봄 일을 생각해보니 오늘은 곧 내가 위금(委禽)³⁰⁴했던 날이다. 감회가 있어 시 한편을 짓고 그 세월을 헤아려 보니 73년이다. 그간의 근심·즐거움과 풍파가 꿈만 같다.

卽事 그 때의 일

(再往辛未三月十九日成婚 두 번 지나간 신미년 3월 19일에 결혼했었다)

扶筇努力上墩培 지팡이 짚고 힘껏 둔대에 오르니
萬慮俱空付冷灰 모든 생각 함께 사라져 차가운 재와 같다네.
莫羨一春三月晚 명협³⁰⁵은 한 철 봄에 3월이 늦어가고
幸夷今日幾花開 신이화는 오늘 몇 송이 꽃을 피었을까!
沙鳩有意飛還坐 백사장 갈매기는 생각이 있어 날았다 도로 앉고
堂燕無心去復來 대청 제비는 무심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네.
過夢推思辛未事 꿈처럼 지나간 신미년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304) 위금(委禽) : 혼인(婚姻)을 말함.

305) 명협(莫羨) : 책력을 말함. 명협은 풀이름으로, 요(堯)임금 때에 성장하였는데, 하루에 한 잎씩 15일까지 나오다가 16일 이후로는 하루에 한 잎씩 졌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책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玉篇」

舊辰匏僮此朝回 합근(合晡)³⁰⁶ 바가지로 마신 옛적 그 때가 오늘 아침에 다시 돌아왔네.

其二 그 둘째

野老籬邊大路回 시골 노인의 울타리 가에는 큰 길이 돌아가고
陸軍車馬自東來 육군의 거마는 동에서 온다네.
斷壁連牆籠薜荔 끊어진 벽과 연이은 담장엔 담장이 덩굴이 덮혔고
殘碑委壟擁莓苔 망가진 비석과 버려진 무덤엔 이끼가 끼어있네.
尋隱有誰歌白石 은자를 찾아서 누가 백석³⁰⁷을 노래하는가!
論英無處煮青梅 영웅을 논하는데 푸른 매실을 삶은 곳이 없다네.
乾坤物性今寥寂 건곤의 사물 성격이 지금 고요한데
江浦山門庶發雷 강 포구와 산 어구에 우레 소리 내려하네.

病枕思鄭孝友市隱 병상에서 효도하는 친구 정씨 시은을 생각함

寒溪有友許心眞 한계에 진심을 허여해준 친구가 있으니
此世誰知市隱仁 이 세상에 누가 시은³⁰⁸의 어진 것을 알랴!
慕聖夙譽名下士 성인을 사모하여 명예를 일찍 얻은 이름 있는 선비요
養親實行孝中人 부모 봉양을 실행하는 효도하는 사람이네.
裕昆逸計追龐壟 후손을 넉넉히 하는 편안한 계책은 방덕공(龐德公)³⁰⁹의 거처를 따르고
濟衆良圖老范隣 대중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은 범중엄(范仲淹)³¹⁰의 이웃으로 늙음이다.

306) 합근(合晡) : 혼례에서 신랑 신부가 바가지 술잔을 주고받음. 또는 그런 절차.
307) 백석 : 은자의 거처를 말함. 황초평(皇初平)이 나이 15세 때 양(羊)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도사(道士)가 그의 착실한 태도를 보고 그를 데리고 금화산(金華山) 석실(石室) 속으로 들어갔다. 초평은 그곳에서 40여 년을 보내면서 집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나선 그의 형이 몇 해를 두고도 못 찾다가 어느 날 시장에서 도사를 만나 그가 금화산 속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길로 도사를 따라가서 그를 만났다. 형이 초평에게 양은 어디 있는냐고 묻자 그 산 동편에 있다고 하여, 가 보았으나 양은 없고 하얀 돌무더기뿐이었다. 그런데 초평이 와서 꾸짖자 그 돌들이 모두 일어나 수만 마리의 양떼를 이루었다고 한다. 『神仙傳』
308) 시은 : 산림 깊숙한 곳에 살지 않고 지갯거리에서 생계 활동을 하면서 은사(隱士)로 자처하는 자. 왕강거(王康珝)의 「반초은(反招隱)」이라는 고시(古詩)에 “소은은 산이나 숲 속에 숨고 대은은 조정이나 저자에 숨는다.(小隱隱陵蔽 大隱隱朝市)”라고 하였다.
309) 방덕공(龐德公) : 후한 양양(襄陽) 사람으로 현산(峴山) 남쪽에 살면서 성시(城市)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찾아가서 “선생은 벼슬을 받지 않으니 무엇을 자손에게 남겨 주겠소?” 하니, “남들은 모두 위태로움을 주는데 나만은 편안함을 주겠습니다.” 하였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龐公』
310) 범중엄(范仲淹) : 송나라 채상. 의장(義莊)이라는 전장(田莊)을 두고 조(租)를 거두어 가난한 죽인들을 구호하고, 혼가(婚嫁)나 상장(喪葬)을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었다. 『宋史 卷314 范仲淹傳』

滿眼兒孫能繼述 눈에 가득히 자손들이 능히 계승하니
晩年行樂泰平春 늘그막에 여행 즐거움으로 태평한 봄을 누리네.

春夜聞笛 봄밤에 피리 소리를 들음

誰家玉笛倒騎牛 뉘 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소를 거꾸로 탔는가!
幻作關山白鴈秋 산이 변하여 흰 기러기가 가을을 알리네.
離客添懷愁倚枕 떠나는 나그네 감회가 더해져 근심스레 베개에 의지하고
征娥泣淚怨登樓 정벌 보낸 아낙네는 눈물 흘리며 원망스레 누대에 오르네.
商聲拆柳春風變 상조(商調) 소리가 버들을 트게 하니 봄바람 변하고
羽闕吹梅曉月流 우조(羽調)를 마쳐 매화를 불리니 새벽달이 흘러가네.
海外從軍經歲苦 해외에서 전쟁에 종사함은 한 해를 넘기도록 괴로우니
一篇何不學留侯 하나의 통소소리 어찌 유후³¹¹)를 배우지 않는가!

十二日 水 廿日 丙午 陽 仲兄主忌辰 舊感比前尤甚 鳳城里仁範母留念 玄範與一女人來而=留宿
年今二十一也云 第觀下回已耳 小宅祀事安過 祭品來進 盡其精潔 碩範妻之功也

4월 12일 수요일 음력 3월 20일 병오(丙午). 맑음. 중형(仲兄)의 제삿날이라, 옛 생각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하다. 봉성리(鳳城里) 인범(仁範) 어미에 대한 생각이 든다. 현범(玄範)이 여자 한 명과 함께 와서 유숙했는데 나이가 21살이라고 한다. 다만 결과를 볼 뿐이다. 작은 집에 제사가 편안히 지나갔고 제사 음식을 보내 왔는데 그 정결을 다하였으니, 석범(碩範) 처의 공이다.

十三日 木 廿一日 丁未 陽 仁範來面 敘話後 卽還家 昨入新人 自暫見汲路 爲人多可態 永作吾門之人爲計矣 新人夕來問安

4월 13일 목요일 음력 3월 21일 정미(丁未). 맑음. 인범이 와서 만나 보았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어제 들어온 새 사람을 물긴는 길에서 잠시 보았다. 사람 됨됨이가 옳은 태도가 많아 길이 우리 가문의 사람이 될 계획이다. 새 사람이 저녁에 와서 문안하였다.

311) 유후 : 한(漢)나라 개국공신 장량(張良)의 봉호(封號).

觀機 기미를 봄

三月田家百事生 삼월의 농가엔 온갖 일 시작되고
 西園移木上坪耕 서쪽 동산에 나무 옮기려 밭 밭을 가네.
 孝中物性鳥能哺 효성스런 동물 천성에 까마귀가 어미에게 능히 먹여주고
 空外天機雉自鳴 하늘 밖의 천기로는 꿩이 혼자 우는 것이라.
 楊柳池塘春水漾 버드나무 늘어진 연못엔 봄물이 일렁이고
 杏花籬落夕陽明 살구 꽃이 핀 울타리에 석양이 밝네.
 中原興復何其晚 중원의 부흥은 어찌 그리 늦은가!
 最患洋西不息兵 가장 근심스러운 일은 서양의 전쟁이 끝나지 않음이라.

贈韓友大容 벗 한대용에게 줌
 (只得四韻 오직 1수만 지음)

識荊晚契誦韓康 서로 알기를³¹²⁾ 늦게 사귀어 한강³¹³⁾을 되뇌이니
 上黨深源入錦江 상당³¹⁴⁾의 깊은 원류는 금강으로 들어가네.
 藏篆偉才宜典學 고문(古文)을 소유한 위대한 재주로 학문에 종사함이 마땅하고
 奪袍過夢未扶邦 도포를 빼앗는³¹⁵⁾ 꿈이 지나쳤으나 나라를 돕지 못하였네.
 名若鎖胡軍有一 명분은 오랑캐를 진압하는 것이었으나 전쟁은 한결같았고
 時常劫漢土無雙 당시에 한나라 초창기라 군사는 대적이 없었네.
 携鹿寒裝南渡久 녹거(鹿車 : 작은 수레)를 끌고 쓸쓸한 행장으로 남쪽으로 건너 간지 오래인데
 筮得苞桑坐易窓 점을 쳐서 총총한 뽕나무를 잡는 견고함을 얻어 주역(周易) 펼친 창가에 앉아있네.

問田翁語一款 농부에게 묻는 말 한 가지

偶過前墅問田翁 우연히 농막을 지나다 늙은 농부에게 물으니
 身老農隣稼穡中 몸이 늙은 이웃 농부는 농사짓는 중이다.

312) 서로 알기를 : 원문 ‘識荊’은 이백(李白)의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다만 한형주를 한 번 알기를 원한다.(但願一識韓荊州)”에서 줄여 쓴 것이다. 한형주는 형주태수(荊州太守) 한조종(韓朝宗)이다.
 313) 한강 : 후한 사람. 자(字)는 한백휴(韓白休). 장안(長安)의 저갓거리(저갓거리)에 몸을 숨기고 30년 동안 똑같은 값으로 약을 팔아 생활하였는데, 아녀자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진 것을 알고는 패릉(霸陵)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조정의 부름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後漢書 卷113」
 314) 상당 : 청주(淸州)의 옛 지명.
 315) 도포를 빼앗는 : 재주가 좋아 남의 영예를 빼앗음을 말함. 당(唐)나라 칙천무후(則天武后)가 낙남(洛南) 용문(龍門)에서 늘 적에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시를 짓도록 하였다. 얼마 후 좌사(左史) 동방규(東方虬)가 먼저 시를 짓자 무후가 금포(錦袍)를 하사하였는데, 조금 뒤에 바친 송지문(宋之問)의 시가 더 훌륭하자 칙천무후가 보고서 다시 금포를 빼앗아 하사하였다. 「唐書」 「宋之問傳」

地廣三千常守戶 삼천리 이 나라에서 집만 지키고 살고
 年過七十尙同宮 나이는 칠십이 넘었는데도 같은 집에 사네.
 衆孫菽黍傳文種 많은 자손은 콩과 기장을 심으면서 문장의 집안을 전하고
 諸婦桑麻任織功 여러 며느리들은 뽕나무와 삼으로 베 짜는 일을 맡아하네.
 慈善縱無餘力及 비록 남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지만
 生來衣食忘凶豊 자신이 사는데 흉풍년은 모르고 살았다네.

春興 봄의 흥취

時序將回穀雨天 시절은 곡우가 돌아오려는데
 閑吟課日自成篇 한가로이 시 읊기를 날마다 일삼아 절로 편장이 이룩되네.
 觀魚有理起莊叟 물고기를 보는데도 이치가 있으니 장자(莊子)를 떠올리고³¹⁶⁾
 乘鶴關心誦謫仙 학을 타는데 관심이 있어 이태백(李太白)을 되뇌이네.³¹⁷⁾
 依園古木春風裡 동산에 어렴풋한 고목은 봄바람 속에 있고
 繞巷游綠夕照邊 골목에 둘러 아지랑이는 저녁노을 가에 있네.
 閑來爲問花中主 한가히 와서 꽃 가운데 주인을 물으니
 三月靑山經杜鵑 삼월 청산에 두견새가 지나가네.

十四日 金 廿二日 戊申 陽 新人姑盛年李氏 本居水下行宮里 移居正南面貞松里 家勢不貧 而父母俱存 八男妹中最長 生日十一月廿二日云 今因韓東錫答書 則故友鄭章山兄 癸未十月廿四日 作故無疑 以郵便栖失 託之 而見韓友書後 卽緘慰狀 而姑未付 直眞洋紙五枚指來 昌範自鄉校來 聞消息痛哭耳

4월 14일 금요일 음력 3월 22일 무신 맑음. 새 사람의 고모는 성년으로 이씨(李氏)인데, 집안이 본래 수하(水下) 행궁리(行宮里)에 살다가 정남면(正南面)의 정송리(貞松里)로 옮겨 살았고 가정 형편이 가난하지 않았다. 부모께서 모두 생존해 계시고 팔남매 중의 장녀이며 생일은 11월 22일이라고 한다. 오늘 한동석(韓東錫)의 답장 편지를 보니 옛 친구 정장산(鄭將山) 형이 계미년(1943) 10월 24일에 죽은 것이 의심이 없다. 우체편을 잃어서 부탁하였고 한동석의

316) 물고기를 ... 떠올리고 :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논의한 고사를 말함. 장자가 그의 친구 혜자(惠子)와 함께 호량(濠梁) 위에서 노닐 적에 장자가 말하기를 “피라미가 나와서 조용히 놀고 있으니, 저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네.(儵魚出遊從容 是魚樂也)” 하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인가.(子非魚 安知魚之樂)” 에서 온 말이다. 『莊子 秋水』
 317) 학을 되뇌이네 : 이백이 황학루(黃鶴樓)에 대해 시를 지은 것을 말함. 이백의 시에, “황학루에 올라 옥젓대 불어 대니, 강가 성이라 오월달에 매화꽃이 떨어지네.(黃鶴樓中吹玉笛 江城五月落梅花)” 하였다. 『李太白文集 卷20 與史郎中飲聽黃鶴樓上吹笛』

편지를 본 뒤에 즉시 위장(慰狀)을 봉합하고서 잠시 부치지 않는 않았다. 직원이 양지(洋紙) 5장을 가지고 왔다. 창범이 향교에서 돌아왔는데 소식을 듣고 통곡할 따름이다.³¹⁸⁾

玩易文 주역 글을 사색함

世態人情誤凡分 세태의 인정이 무릇 잘못 나누어지니
老年病骨自離羣 노년의 병든 몸이 자연히 무리로부터 멀어지네.
畝獵豹隱南山霧 쇠늑을 발사하자 표범은 남산의 안개 속에 숨고
誕說鵬搏北海雲 허탄한 말에 봉새는 북해의 구름 속으로 날개를 치네.
葩經正雅欽元聖 시경(詩經)의 올바른 것에 공자(孔子)를 공경하고
筆陣眞書想右軍 붓으로 쓴 해서에 왕희지(王羲之)를 떠올리네.
空庭遲日登音阻 빈 뜰의 긴 날은 발자국 소리 끊기고
靜玩羲文到夕曛 고요히 복희씨(伏羲氏)와 문왕(文王)의 지은 글³¹⁹⁾을 완상하느라 저녁이 되었네.

其二 그 둘째

恭對易文自鞠窮 공손히 주역의 문장을 대하니 저절로 몸이 굽혀지고
焚香跪坐九旬翁 향을 태우고 꿇어앉은 90살 노인이라네.
江山動靜玄機裏 강산의 동정은 현묘한 이치 안에 있고
天地籌思造化中 천지의 계획은 조화 안에 있네.
鳥去鳥來元物性 새가 오고감은 본래의 물건 천성이며
花開花落盡春風 꽃이 피고 짐은 춘풍을 다 함이네.
從知至理深難測 따라 알겠으니 지극한 이치는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四聖神功已極工 네 분 성인³²⁰⁾의 신묘한 공은 이미 숨씨를 극진히 하였네.

去十日玄範得新人 지난 10일 현범이 새사람을 얻다
(生長於水原郡貞松里 姓咸平李氏 수원군 정송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성은 함평 이씨이다)

權爾室家迨吉逢 너의 결혼을 기뻐하여 길한 때를 만나니
芳年生長舊貞松 꽃다운 나이에 옛 정송리에서 나고 자랐네.

318) 향교에서 …… 통곡할 따름이다. : 안산군과 시흥군의 문묘가 헐리고 위패가 불탄 사건에 통곡할 일을 말함.

319) 복희씨(伏羲氏)와 문왕(文王)의 지은 글 : 역경(易經)을 말함. 역경은 복희씨와 문왕에 의해 이룩된 글이다.

320) 네 분 성인 : 복희씨·문왕·주공(周公)·공자(孔子)를 말함. 역경을 저술한 4명의 성인으로, 복희씨·주문왕이 지은 글에 주공·공자가 추가하였다.

道媒佳約先知姓 중매에게 인도된 아름다운 결혼은 성을 먼저 알았고
 學母來姿亦慣容 어머니에게서 배워 온 자태가 역시 용모에 배었네.
 他日下機寧忘貴 훗날 벼들에서 내려오더라도 어찌 존귀함을 잊으리!
 今朝學案克思恭 오늘 아침에는 밥상을 들어 능히 공경함³²¹을 생각하네.
 最關賢誠良箴在 최고 관심은 어질고 진실됨은 훌륭히 경계함에 있고
 耕織勤功本在農 밭 갈고 베 짜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본래 농부에게 있음이라.

十五日 土 廿三日 己酉 陽 今日文廟大祭也 昨夜聞昌範便消息 安山郡文廟位牌焚火 果川文廟無
 配享位牌十二位 以轎昨日陪來 而未知何置也 從此得罔計耳 築墩所入 與造食床之費 近於千圓云
 五聖位祭床更造 安山儒生幾人 今日來參云耳 昌範早入文廟 供祀之節檢察 聞蓮芝兩邑文廟毀撤
 位牌焚燒 不勝慨歎 作一首詩 付入齋諸生 昌範來面
 大祭安過 郡守來臨 安山三齋任 始興三齋任 本郡儒生 合五十餘人 安山校陪來牌位 未知次序 故
 姑未定位云

4월 15일 토요일 음력 3월 23일 기유(己酉). 맑음. 오늘은 문묘대제(文廟大祭)를 지내는 날이
 다. 어제 밤에 창범 편 의 소식에 안산군(安山郡)의 문묘의 위패가 불타고 과천문묘(果川文廟)
 에 배향되지 못한 위패(位牌) 12위(位)를 가마로 어제 모셔왔는데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이로부터 계책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 돈대를 쌓는데 드는 것과 밥상을 만드는데 드
 는 비용이 천원에 가깝다고 한다. 다섯 성인³²²의 위패의 제상을 다시 만들고 안산(安山)의
 유생 몇 명이 오늘 와서 참석한다고 한다. 창범이 문묘에 일찍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살폈다. 듣기에 연성(蓮城 : 安山郡)과 지산(芝山 : 始興郡) 두 고을의 문묘가 헐리고 위패가
 불태워졌다하니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 없기에 시 한 수를 지어서 재계에 들어가는 선비에게
 부쳐 넣었다. 창범이 와서 만나보았다.

대제(大祭)를 편안하게 지냈는데, 군수가 와서 참석하였다. 안산의 세 명 재임(齋任 : 향교의
 임원), 시흥의 세 명 재임, 본군(本郡)의 유생(儒生)과 합하여 50여 명이 안산 향교에서 위패
 를 모셔왔는데 차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入齋僉尊座清鑑 재계에 들어 여러분들에게 잘 살피게 함
 (文廟大祭日 문묘대제를 지내는 날)

321) 밥상을 들어 능히 공경함 : 거안제미(擧案齊眉)를 말함. 후한(後漢)의 현사(賢士)인 양홍(梁鴻)의
 처 맹광(孟光)이 밥상을 들고 올 때에 양홍을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이마 위에까지 들어 올린 고사
 에서 유래한 것이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梁鴻』

322) 다섯 성인 : 문묘의 주향(主享)인 공자(孔子)와 배향(配享)인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
 맹자(孟子)를 말함.

蓮芝兩邑大成宮 연성과 지산 두 읍의 대성전(大成殿)에서는
 釋菜精禋百世崇 석채³²³)의 정결한 제사를 백 대동안 숭상하였네.
 靈廟覆顛誠夢外 신령한 사당 쓰러짐은 정녕 꿈에도 생각 못했고
 神牌焚燒忍言中 신주 위패 불탐은 차마 말할 수 있으랴!
 亘天師道三才統 하늘까지 뻗은 스승의 도는 천지인(天地人) 삼재를 통솔하고
 掃地儒風一箇空 땅을 쓸어버리듯이 사라진 유가의 풍도는 온통 텅 비었네.
 慕聖祭文今不泯 성인을 사모하는 제문이 오늘날 없어지지 않았으니
 賴如清祖眷吾東 의지하는 청조께서는 우리 동쪽을 보살피리.

其二 그 둘째

三區文廟各西東 세 지역의 문묘가 각기 동서로 나뉘어 있어서
 百世追崇一體同 백대의 추후 숭배가 한 몸처럼 같았네.
 春秋大義綸綱重 춘추대의는 윤리가 소중하고
 日月光明道德洪 일월의 밝은 빛은 도덕이 크다네.
 醴性配享尊賢地 단술과 희생으로 배향하여 현인을 높이는 곳
 香祝精禋慕聖中 향과 축문으로 정갈히 제사지내 성인을 사모하는 중이라네.
 蓮芝靈址蓬芳入 연성과 지산의 신령한 터가 쭉 향기 속으로 사라지니
 儒林餘淚恨無窮 유림의 남은 눈물 한스럽기 그지없네.

右芝山蓮城所在文廟 同時廢止 位牌入於焚燒 故捫淚而搆二篇

위는 지산과 연성에 있던 문묘가 동시에 폐지되고 위패가 불탔다. 그러므로 눈물을 훔치며 두 편을 지었다.

十六日 日 廿四日 庚戌 陽 昨日大祭 新任掌議尹敬燮尹昌燮 皆行官 祭酒釀之 黃肉棗栗入供 所
 送詩 無一人觀讀者 昌範掌議辭單 先庚宅幼兒期餅來到 無物所祝 珠聯四幅 金伍十錢送之 有五
 律詩 有風勢

4월 16일 일요일 음력 3월 24일 경술(庚戌). 맑음. 어제 대제(大祭)에서 장의(掌議)로 윤경섭

323) 석채(釋菜) : 석전제(釋奠祭) · 상정제(上丁祭) · 정제(丁祭). 석전이란 채(菜)를 놓고 [釋], 폐(幣)를 올린다 [奠] 는 데서 나온 이름이며, 원래는 산천(山川) · 묘사(廟祀) · 선성(先聖 : 공자) 등 여러 제향에서 사용되었으나, 다른 제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문묘의 석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묘제향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尹敬燮)과 윤창섭(尹昌燮)이 새로 임명되어 모두 행관으로서 제사 술을 빚고 쇠고기와 대추와 밤을 바쳤다. 보낸 시는 한 사람도 살펴 읽는 사람이 없었다. 창범이 장의를 사직하는 단자를 올렸다. 선경택(先庚宅)의 아기 돌떡이 왔는데 즐만한 물건이 없다. 주련 4폭(幅)과 돈 50전(錢)을 보내고 5언 율시(律詩)를 지었다. 바람이 부는 기세가 있었다.

幽居 한적히 살음

(以上三百首 이상은 3백수이다)

精潔我如鶴立沙 정결하게 나는 마치 학이 모래에 서 있는 것과 같으니
佳蓋新服不厭奢 아름다운 일산에 새 옷은 사치를 싫어하지 않네.
洞幽亂石山腰斷 깊은 마을의 어지러운 바위는 산허리를 자르고
巷僻垂楊洞口遮 궁벽진 동네에 늘어진 버들은 마을 입구를 가리네.
春及農丁皆在野 봄이 되자 농군들은 모두 들로 나가고
年深游子未還家 세월이 오래되어도 멀리 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네.
朝來暫聽書童報 아침에 잠깐 글방 아이들이 고하는 말을 들으니
林下杜鵑始綻花 수풀 속 두견화가 비로소 꽃 봉우리를 터트린다네.

其二 그 둘째

聞花消息強登阜 꽃 핀 소식에 애써 언덕에 오르니
蝶粉蜂黃自浪陶 흰 나비 누런 벌들이 저절로 물결이 일어나는 듯.
鷄口醜汚精產卵 닭 주둥이 추하며 더러워도 정결히 알을 낳고
鶯容清潔自粧毛 해오라기 모양 청결해도 스스로 털을 치장하네.
酸曹手關金盈橐 시큰둥한 무리들은 황금이 가득한 자루에 손이 넓고
狂漢涎流酒滴槽 미치광이 사나이는 술이 방울지는 구유에 침을 흘리네.
物外耕樵宜避地 속세 밖의 농부와 나무꾼은 당연히 숨어 살 것이니
靑山何處武陵桃 푸른 산 어디가 무릉도원(武陵桃源)인가!

其三 그 셋째

喜看鵲鵲共將雛 닭과 꿩이 함께 새끼를 데리고 있는 것을 기쁘게 보니
嗜食培除子母呼 섬돌에서 부리로 쪼아 먹으며 새끼와 어미가 서로 부르네.
名譽如今多會社 명예는 지금에 모이는 단체에 많고
文章從古少榮遂 문장은 예부터 영화를 이름이 적었네.
舊遊盡去親諸友 옛날 노닐던 친한 여러 친구는 모두 떠나고

病臥誰尋老大夫 병으로 누운 늙은 대부 나를 누가 찾는가!
欲繪香山濡筆坐 향산³²⁴을 그리려 붓을 적서 앉으니
寒溪先入世居圖 한내에 대물려 사는 그림이 먼저 들어오네.

根次子膏餅來到 故作此詩返之 근의 차자의 돌떡이 당도하였기에 이 시를 지어서 보내다

從何爾得來 어디로부터 너는 왔느냐
幻復復春家 변하여 회복되고 봄을 회복한 집이라.
富貴追汾宅 부귀는 분양왕(汾陽王)³²⁵ 집안을 따르고
文章從屈衙 문장은 굴원(屈原)의 경지를 따르라.
華容丹桂月 꽃 같은 얼굴은 붉은 계수나무 걸린 달처럼
遐壽碧桃花 오랜 수명은 벽도에 핀 꽃처럼.
欲問前程闊 앞길이 트였는지 묻고자 한다면
最中孝行嘉 가장 알맞은 것은 효행이 아름다우리.

十七日 月 廿五日 辛亥 陽 昌範入校宮 安山校宮陪來先正位牌次第 更校正送之 前夜之夢 未是一匹胡蝶 夜陰至曉耳

4월 17일 월요일 음력 3월 25일 신해 맑음. 창범(昌範)이 향교에 들어갔다. 안산(安山) 향교에서 모셔온 선정(先正 : 문묘에 모신 인물)의 위패의 차례를 다시 교정하여 보냈다. 전날 밤의 꿈에 한 마리 나비가 되지 못하였다. 밤에 날씨가 흐려져서 새벽에 이르렀다.

空懷 공연한 생각

棋琴歌酒一無涇 바둑 두고 거문고 타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심에 하나도 지나침 없이
到老窮經是所尋 늙어서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찾는 바이라.
日晚游綠爭繞樹 저녁의 아지랑이 다투어 나무를 두르고
花間啼鳥不還林 꽃 사이에서 지저귀는 새들은 숲으로 돌아오지 않네.
離家多費青春夢 집을 떠나서는 청춘의 꿈을 대부분 허비하고
戀國寧忘白首心 나라를 그리워함은 어찌 늙은이 마음에 잊으리!
最恨斯文終欲隳 가장 한스러운 것은 유학이 끝내 무너지려 함이니
挽回空籌漫沾襟 만회하려는 공연한 계획에 부질없이 눈물로 옷깃만 적시네.

324) 향산 : 당(唐) 나라 때 백거이(白居易)가 중 여만(如滿)과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조직한 산.

325) 분양왕(汾陽王) : 당나라 곽자의(郭子儀)의 봉호.

其二 그 둘째

(次前韻 앞의 운에 차운함)

樂事過中是近淫 즐거운 일도 중도를 지나치면 음탕함에 가까우니
 前人多向舊章尋 과거 인물들은 대부분 옛 법에서 찾았네.
 探香狂蝶行新圃 향기를 탐하는 경망한 나비는 새로 일군 채마밭으로 날아들고
 厭俗幽禽戀邃林 속세를 싫어하는 조용한 새는 깊은 숲을 그리워하네.
 覺來浮誕全仙術 신선의 술법이 모두 부질없이 거짓됨을 깨닫고
 老去慈悲尙佛心 부처의 마음을 숭상하는 자비로움으로 늙어가네.
 剛知愼獨良箴在 알기를 힘쓰고 홀로 있음을 삼가라는 훌륭한 가르침이 있으니
 強起殘軀更整襟 억지로 쇠잔한 몸을 일으켜 옷깃을 정돈하네.

十八日 火 廿六日 壬子 陰 興進條 通知來到 期限來五月五日 陰來四月十日也 麥田密密納鈕 近
 日則眩氣時時闕發 故不能自振耳

4월 18일 화요일 음력 3월 26일 임자(壬子). 흐림. 흥진 조항 통지가 왔다. 기한은 오는 5월 5일이고 음력으로는 오는 4월 14일이다. 보리밭에 뻑뻑히 들어가 김매기를 한다. 근래엔 현 기증이 수시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떨치고 일어날 수 없다.

舊居 옛날 살던 곳

園有棣棠井有桐 동산엔 산앵두나무 우물가엔 오동나무
 我家久住冠山東 우리 집안은 관악산 동쪽에 오래 살았네.
 身外毀譽非實行 이 몸 밖의 비난이나 칭찬은 실제의 행실이 아니며
 心中愧怍是眞工 마음속의 부끄럼만이 참된 공부라.
 天覆萬邦無二日 하늘이 만방을 덮어 비추는데 해는 두 개가 아니며
 地違千里不同風 땅은 천리나 떨어져서 바람이 같지 않네.
 呼兒欲上揚州路 아이를 불러 양주로 가는 길에 오르코자 하니
 先墓神碑庶竣功 조상 묘소의 신도비는 거의 공사를 마쳤으리.

其二 그 둘째

權歌九曲入詩長 무이도가구곡시(武夷權歌九曲詩)는³²⁶⁾은 긴 시에 들어가니
 山下寒溪似紫陽 산 아래의 한내는 자양산(紫陽山)³²⁷⁾과 비슷하네.

海燕能尋前度主 바다 제비는 전번의 주인을 찾아오고
 林花應記舊遊郎 숲 속의 꽃은 옛날 노닐던 사내를 기억하네.
 郡府徵求連雜稅 관청의 세금 징수는 잡세로 이어지고
 閭閻販賣絕行商 여염의 판매는 행상이 끊어졌네.
 修稷山陰時節晚 액땀하는 산음에 봄철이 무르익는데
 蘭亭幾處泛春觴 난정엔 몇 군데나 봄 술잔을 띄웠는가!³²⁸⁾

十九日 水 廿七日 癸丑 陽 日氣正佳 山雲里消息道阻 義高母快得生道否 甚苑難狀 三峴里李友
 益薰 今日喪配 訃書來到 甚爲驚歎

4월 19일 수요일 음력 3월 27일 계축(癸丑). 맑음. 날씨가 매우 좋다. 산운리(山雲里)의 소식
 은 길이 막혔다. 의설(義高) 어미는 쾌차하여 살아났는가? 매우 우울함을 형용하기 어렵다. 삼
 현리(三峴里)에 사는 친구 이익훈(李益薰)의 아내가 오늘 죽어 부고가 도착하였다. 매우 놀랍
 고도 슬프다.

曉雨微沾 새벽비가 조금 적심

布澤天心物化成 은택을 퍼는 하늘의 마음은 사물을 변화하여 이루니
 飛潛走躍盡春情 날고 잠기고 달리고 뛰는 짐승들이 봄 정취를 다하였네.
 千紅吹雨林容暗 천 가지 붉은 꽃이 비바람에 불리자 숲 모양은 어둡고
 萬綠和烟野色明 만 가지 녹색이 안개와 섞이자 들 빛이 밝네.
 白水注秧蛙閣閣 맑은 물을 못자리에 대자 개구리 개골개골
 靑山伐木鳥嚶嚶 푸른 산에 나무를 베자 새들이 짹짹.
 古風獨有寒溪宅 옛 기풍은 오직 한내의 집에만 있어
 三百新詩局外鳴 나의 이 삼 백 편 새로 지은 시는 속세 밖에서 울리는 것이라.

愛吾廬 우리 집을 사랑함

安貧最愛故園居 가난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옛 동산에 사는 것이 가장 좋으니

326) 무이도가구곡시(武夷權歌九曲詩) : 주자(朱子)가 지은 시가 이름.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을 받아 진
 국에 구곡(九曲)이라는 명칭과 구곡시(九曲詩)가 많이 생겨났다.

327) 자양산(紫陽山) : 중국 안휘성(安徽省)의 산 이름. 주자가 거쳐하면서 그의 서실 이름을 자양서실
 (紫陽書室)이라 하였다.

328) 액땀하는 ... 띄웠던가! :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蘭亭序)」를 쓰면서 늦은 봄 회계(會稽) 산음
 의 난정(蘭亭)에서 모여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술잔을 띄워놓고 즐겼던 일을 말함.

戶外青山繞似滁 문 밖의 푸른 산이 저주(滁州)처럼 둘러네.³²⁹
 午枕新音來海鷺 낮잠 중에 새롭게 들리는 소리는 바다 제비가 온 것이고
 夕盤別味供溪魚 저녁 밥상의 별미는 시내 고기가 올라온 것이네.
 秧坂引泉初荷鍤 못자리판에 샘물을 끌어오니 처음으로 삽을 매고
 麥田經雨晚張鋤 보리밭에 비가 오니 늦게야 김을 매네.
 徐孺陶翁皆食力 서유자(徐孺子)³³⁰와 도연명(陶淵明)은 모두 자력으로 먹고 살았으니
 間中無事課農書 한가한 가운데 일이 없어 농사 책을 공부하네.

廿日 木 廿八日 甲寅 陽 是日穀雨也 直員往堂里 專爲鄭歲朝慰問 次而付慰狀 姜小川新造家乘
 泥 朝後陰 孟友友三兄歷訪 欣握旋別

4월 20일 목요일 음력 3월 28일 갑인(甲寅). 맑음. 오늘은 곡우(穀雨)이다. 직원이 당리(堂里)로 가서 오로지 정성조(鄭歲朝)를 위문하게 하고 이어서 위장(慰狀)을 부쳤다. 강산천(姜山川)이 새로 짓는 집에 진흙을 올렸다. 아침 후에 흐려졌다. 맹우(孟友)와 맹우의 3형이 지나가며 찾아주어 반가워하며 악수하고 곧바로 이별하였다.

穀雨佳節 곡우의 아름다운 절기

棉田秧坂共耕治 면화 밭과 못자리를 공동으로 경작하니
 農里不忘穀雨時 농사짓는 마을은 곡우 때를 잊지 않네.
 柳綠園中春欲晚 동산 가운데 버들이 푸르니 봄이 무르익으려 하고
 花明窓外日偏遲 창 밖에 꽃피어 밝으니 해가 천천히 지네.
 役蜂爭走望黃陌 일벌은 누런 이랑을 향해 다투어 날아들고
 採女同歸拾翠湄 나물 캐는 여인은 푸른 물가에서 캐어 담네.
 榷酒南州多渴漢 남주 과천에서 술을 전매하여 목마른 사람들 많은데
 杏帘旆見白羅旗 살구나무 술집 창문 밖에 흰 비단 깃발 보이네.

329) 문 ... 둘러네 : 구양수(歐陽脩)의 「취옹정기(醉翁亭記)」에 “환주(環州)와 저주는 모두 산이다.”에서 용사(用事)한 것이다.

330) 서유자(徐孺子) : 유자는 서치(徐穉)의 자. 동한(東漢) 사람으로, 환관(宦官)이 정권을 쥐는 세상을 만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남주(南州)의 고사(高士)란 칭호를 얻으면서 몸을 잘 보전하여 일생을 마쳤다.

其二 그 둘째

富林館外四分坪 부림관 밖에 사방으로 나뉜 들
 鳴鶉聲中穀雨晴 뉘끼기 우는 소리 속에 곡우 하늘이 맑네.
 山監牌頭樵豎走 산림감수의 패찰 머리에 나무꾼 달아나고
 田官車側野夫耕 권농관의 수레 곁에 농부가 밭을 가네.
 杏花院落春風暖 살구 꽃 핀 뜨락엔 봄바람이 따듯하고
 楊柳池塘夕照明 버드나무 늘어진 연못에 석양빛이 밝네.
 回想東齊今一變 제나라 동쪽이 지금 한 번 변한 것을 회상하니
 可憐世眼總無名 속세 안목 온통 명예가 없음이 가련하구나.

廿一日 金 廿九日 乙卯 陽 今聞則延範母還家數日云 李友秦達以配給事 拈韻成詩 故次韻以示
 而始知李友之律客也 直員不來

4월 21일 금요일 음력 3월 29일 을묘(乙卯). 맑음. 오늘 들으니 정범(延範)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되었다고 한다. 친구 이태달(李泰達)이 배급하는 일로 운을 잡아 시를 지었다. 그래
 서 차운하여 보여주었는데 친구 이태달이 시객(詩客)임을 처음 알았다. 직원이 오지 않았다.

三月小晦 삼월 소회³³¹⁾

四時代序是天工 사계절의 차례가 바뀔은 조물주의 일ियो
 吹了番風六六宮 번풍³³²⁾이 부는 것은 삼십육궁이네.
 詩可言情無習律 시는 뜻을 말할 수 있는데 율시를 익히는 자가 없고
 射由觀德盡拋弓 활쏘기로 덕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활을 던져 버리네.
 園深家在花香裡 동산이 깊으니 마을이 꽃향기 속에 있고
 野近人來草色中 들이 가까우니 사람들이 풀빛 사이로 오네.
 春事三分將欲去 봄철 일이 셋으로 나뉘어 장차 가려고 하는데
 明朝淚餞獨斯翁 내일 아침 눈물로 전송함은 오직 이 늙은이라.

331) 소회(小晦) : 29일.

332) 번풍 : 한 번씩 새로운 꽃이 피는 것을 알려주는 바람. 즉 화신풍(花信風), 이십사변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을 이룸.

其二 그 둘째

官隣共住水西涯 관가를 이웃하여 서쪽 물가에 함께 살고
 白石漂欄映紫紗 흰 돌은 난간에 떠내려 와서 붉은 비단에 비치네.
 野畝添亭天降雨 들판에 정자를 보태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山家避俗洞留霞 산간 집이 속세를 피하니 동구에 붉은 노을이 머무네.
 十年不見新豐柳 십년 동안 신평루(新豐樓)³³³의 버들을 보지 못하고
 三月每懷上苑花 삼월이면 매양 상림원³³⁴의 꽃을 그리워하네.
 中原鼓角無消息 중원의 고각은 소식이 없고
 日下長安一舍餘 햇빛 아래 서울은 30리 거리인데.

廿二日 土 三十日 丙辰 陽 以生字韻示李友泰達 延範母來請種子 不得已五斗出給 今日雖云錢春
 年事未半 有何悵然 直員來面 鄭成朝季氏作故 初終中云 李友敬澤 往三月一日作故云 李郎家皆
 無故耳

4월 22일 토요일 음력 3월 30일 병진(丙辰). 맑음. 생(生) 글자 운(韻)으로 시를 지어 친구
 이태달(李泰達)에게 보여주었다. 정범(延範) 어미가 종자(種子)를 부탁하기에 부득이하게 5말
 을 내어 주었다. 지금 비록 봄을 보낸다고 하지만 농사가 반도 지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서글
 픈가! 직원이 와서 만났다. 정성조(鄭成朝)의 동생이 죽어서 초종(初終)³³⁵ 중이라고 한다. 친
 구 이경택(李敬澤)이 지난 3월 1일 죽었다고 한다. 이랑(李郎)의 집안은 모두 무사하다.

甲申春 奉餞翁年八十九 갑신년 봄에 늙은 나의 89년 나이를 받들어 보내다

此餞生前問幾時 이러한 전송이 생전에 몇 번째인가!
 春歸人老一般悲 봄이 가고 사람이 늙으리 마찬가지로 슬프구나.
 靑衫依枕驚羈旅 푸른 적삼 입고 베개에 기대어 나그네 길 인생에 놀라고
 紅粉登樓怨別離 미너는 누대에 올라 이별을 원망하네.
 月缺月圓皆有數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것이 모두 운수가 있는데
 花開花落豈無期 꽃이 피고 짐이 어찌 때가 없겠는가!
 最憐九十寒溪老 가장 가련한 것은 90살 한내 늙은이가

333) 신평루(新豐樓) : 수원에 있는 정자 이름.

334) 상림원 : 황실 공원. 한 무제(漢武帝) 때 천자의 봄가를 사냥놀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새와 짐
 승을 기르는 숲으로 상원(上苑), 또는 금림(禁林)이라고도 한다.

335) 초종(初終) : 초상(初喪)이 난 뒤로부터 졸곡(卒哭) 때까지를 일컬음.

却把餘懷付小詩 도리어 남은 회포를 작은 시에 부치는 것이라.

其二 그 둘째

東巖明年自復來 동쪽으로 갔다가 다음 해에 절로 다시 오리니
誰將此餞謾徘徊 누가 이 전별로 부질없이 배회하는가!
晨光惟恐鍾聲到 새벽에 종소리 들릴까 두렵고
夕照空愁笛語催 석양엔 공연한 피리소리 재촉할까 근심되네.
香夢佳人芳草院 달콤한 꿈속의 가인은 향기로운 풀들이 난 집에 있고
餘懷游子落花盃 남은 감회에 노니는 사람은 지는 꽃에 술잔 드네.
諸君試看仙桃樹 제군들은 천도복숭아 나무를 보라.
長在春光白玉臺 천상의 백옥루 같이 항시 봄일 것이다.

右記冊 自甲申正月五日 至三月三十日 共八十六日內 詩三百十六篇 文一首 (短章文數十餘篇 皆不記) 此冊非徒日記 實詩集也 嗟 爾孫曾 敬而勿失
昭和十九年甲申四月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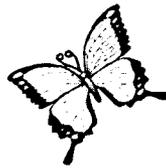
위에 기록한 책은 갑신(甲申) 정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모두 86일 내에 시 316편과 문 1수이다.(짧은 편장의 글 수십여 편은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이 책은 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는 시집이다. 아! 너희 자손들은 공경하여 잃어버리지 말라.
소화 19년 갑신(1944) 4월 일

(상편 끝)



寒溪日記

한계일기 원문



廿六日陰曆備管黃內二行運代
 備界引絕餅好近可與高南入
 內誠口及便之純紙紙五枚入
 信札自出信 信不情黃
 俗書皆味權 信札自出信
 老者尚與謙 果金著入權

相才日耐陰日定一互德此類科經來
 所以者孔格事來國齊家宋以云
 年今十公私以易初去

國露 三 七 用
 家東國窮任老枝 結庵危之雄細管
 免孫生活太空星 重祥沐文之不絕
 畫日手英妙之度 南國清深余公在
 經年以素淡空腫 只有門前一柏者

行果
 南便小屋一月剪
 元不喜原穿九老壽
 士友相遊能忘時
 此孫勤作不復負
 家逢什點奈
 風痛白髮驚
 祖廟給魏烈
 儒林誦香齋
 自想欲津游世之
 什年只待考修不
 張章何近意
 聖歷重生利
 相送作四載
 病被發領段

其二
 逆想行過劫
 學高劍石腦
 季札徒知計
 仲尼豈有缺
 意行將赤漆
 庭前已潤香
 紫明後太行

其三
 自謂此十翰
 病花已紅粉
 人壽何如
 世大福州仙
 借問何處
 春來倘賴天

四日

全十日... 不... 我... 門... 皆... 登...
全十日... 不... 我... 門... 皆... 登...
全十日... 不... 我... 門... 皆... 登...

... 一... 一... 一... 一... 一...
... 一... 一... 一... 一... 一...
... 一... 一... 一... 一... 一...

(2)

... 一... 一... 一... 一... 一...
... 一... 一... 一... 一... 一...
... 一... 一... 一... 一... 一...

(15)

... 一... 一... 一... 一... 一...
... 一... 一... 一... 一... 一...
... 一... 一... 一... 一... 一...

夢中與金方東元叙情
 向余惜深極
 塵世復繁降
 休問人閒事
 生民共恤嗚呼

天地亦有常經
 商石巧術查奉能
 周類此類些惡等
 內有男女以姿德
 外有家邦以道制
 善類於今皆懷革
 東來日月異形

培
 十日死
 良善也親身入齋日終不悔
 疎起橋洗滌念食而望以翁後懷有
 非知之伴自凌後復陰今日宋
 往未者孝托之得救家勢形借理

暗
 十三日復滿日寒後振有寒微
 云以壯氣君面在問親忌安忌祭
 為精潔領覽到及事致結

脂
 十日
 余能夜應意意動
 終未自謂送終文
 不藥以地山冲石
 觀身極修初子其

小
 上元觀會四時空
 侯外耳
 侯外耳
 侯外耳

中意以思使人焉
 西北風厚又未晴
 烟烟味家香
 橫酒凝冰自屋

拾

十五日 駐陽春天皇金履明且河

南平三封惠念永金南中昌休...

長安懷若 金吾馬上御書江 東府絲綉...

萬花長安列建中 恩盤香理傲...

朝臣金章共定公 邦初月色此有...

朝臣金章共定公 邦初月色此有...

朝臣金章共定公 邦初月色此有...

朝臣金章共定公 邦初月色此有...

朝臣金章共定公 邦初月色此有...

(10)

朝臣上元拜 朝臣上元拜

今宵同玩月
 昨日已過春
 三章入幕侯
 百戰世難秦
 思緒有疾
 向海倚杖翁
 食口界邊荷
 空拳好要場

九日
 君在...
 六日
 谷友...
 望視...
 西...
 後...
 著...
 明...

世人多...
 萬度...
 廣金...
 升木...
 諫國...
 三...
 何...

楠十七日...
 惡...
 久...
 野...
 病...
 一...
 國...
 健...

聞女娘光集二首

捨西河止竟行成 用遠來集多幼女
 當日奉宗屋新以 未圓不是替茶征
 直視木系物大點 一箭共結多姊妹
 化家為國我常用 皆在宗系集
 又自許白頭知真情
 幼娘將青知何用
 已料今朝有此行
 石頭暖飽終風聲

天地常佳 以空首
 天地常佳 以空首

耕女織各分功 人而志教同舍教
 落本生後只此中 自足倫細重運通
 錯 大白已過日寒不解風城望旗佳

世毛關外音 烏蒙香中禮
 病沉亦寫醫 腐者相程遠
 詩瘦非緣興 笑觀天不空

送人歸南陽 杜雲緒

千里西州歸路賒 馬船題柱在邊營
 十年枯子冰還家 蕩草乘車未莫誇
 飛思心滿蓬志在 願君先集多良敵
 身龍威外陳侯科 而漢東書禮奏麻
 婦仁在母可南平 一封忠念在天兵
 亦有寒衣最長 高足也於而極所
 算思能自思否 且其向究病不

結

差方在切人 亦奇之神 殊補人高
 不遠向善後 又讀動土佳 三也云
 實為念 慮不誤 走思 碎敘
 十九日 鋼陽 耳誌 于 丑年 自 德 漆 歲
 不 滿 此 李 碧 滄 德 自 也 于 合 亦 十 年
 以 匪 復 記 之 仁 托 每 委 運 衣 不 勝 快
 然 何 書 于 世 望 李 道 直 而 者 在 姑
 日 里 井 游 湖 衣 水 秋 綠

觀時勢二首 答八佳境

天京寂寞仙踪跡 養士園恩感性史
 世態人情異公朝 卷民帝氣滿層樓
 高堂預石藤深樹 劫沙誰使後波反
 馬齒孩兒立政榜 兩律丹子宜信
 其二
 世味中來奈若何 驚鴻洲心性靈空
 最惜流沙薄暮秋 飛魚何處望危岩
 此地已懸徐瑞榻 尾山花樹無消息
 昨夜先送張翰机 情話多端久紙緘

其二

天下大勢二 首答八佳境
 荆中三季坐空枝 既往來絕多聖主
 天下隆沉句句語 今更處處老英男
 東洋難向中各尚 德非因循此比雲
 西漢通商在物食 與國必有四行廣
 其二
 同公昔魯入新古 欲強千共重何裝
 征戰由來天下風 東風萬里使雲深
 床案正對海山景 心何物物皆仁德
 盤供商餘味也余 履義持社自雲南

走筆

晴
 山中老雁飛 乳雛初能卵
 西華樓安宅 母若已齊榮
 此山詩俊木 又借清年華
 仙庭法盛龍 一齊騎星飛
 晴
 甘打陽寒氣不解 運花在水
 參師授所朝之 似五口吹去手
 此果否有星 理形給 卷天良
 在何國是 此消息

春思

春思
 春之重氣 血 一日如奔電
 石管竹寒天 三漏已換
 惟有青春至 何物能換
 更無故友來 數生何世
 其二
 國公野老理 踏 回春微暖
 層林以山多 好 徑隨甘寒
 人情似路 踏 花月則因
 新運店林已 問 蛙 南溪行
 春思
 春之重氣 血 一日如奔電
 石管竹寒天 三漏已換
 惟有青春至 何物能換
 更無故友來 數生何世

其二 由昌嚴

夢覺佳處而日寒 倦思遠計能行素
 同公天化後依相 清氣已散文律丹
 託契芳騰今麻地 老成終近及空落
 隨香文底回國宮 後區從誰問四就

水廿三日 頌陽軍其家 世未郊某
 之軍年 明日老呂王全道一萬可
 有清傑席侯梳孝信成未自清成清
 同封

其三

而晴時有季 年老常多愁
 日早自前社 病深却忘著
 根坐全度高 避地終忘處
 青蓮香授耶 西廡時六洲

其二
 西晉建康繼 莊子可花樹
 東隣設壽橋 近校送京孫

懷舊題 以上二百首

少年未老言不此 何處房時頰歎
 東佳歸國一齊序 舞扇樓南久任事
 詩上風流金正行 知善畫向青山去
 懷中思理李清詩 此地有能更起矣

且憶白雲青鳥
 釋控鼓角歸冠 冠冕元帥功高併日
 信守高舞白戰場 尚書助饒照金
 風雨原宋開補受 黃香袖師王亮
 名下尚詞否正雷 弟成古至竟然

全道一春遊園八佳

借老木山翁下 長園通博
 有先修有條 逸興仙林
 景特依先題 只原名和
 若管其共有 休蔭十依新

十指揮四日 舞陽付恩於 尚尚至全起立
 直乞復者所食 付悅詞三身思化
 身運封果六未 是奇一老有疾竟
 秋厥祖室有 存食之理而老留退

自敘

聞道美翁久約
一報姓野任騰揚
陳如王初年因
伯起許金後甘葛
老無依
領家
車向
信因
光

借子
腹中
端緒
桃李
何用
老
行
此
卿

其二

此生不遇時
抱琴
杖杖
何之
先迎
吾師

亦
正善
不在
李前

不
李前
鐘
士
恐
之
道
歷
初
能
大
宅
夜

夕陽 仍用前韻

才不危
行人所
病沉未
文富移
謀者善
中後

其二

日照迷
風塵
空
中
茶
氣
此
登
閣

其三

浸工
空
中
茶
氣
此
登
閣

其二

此
翁
道
意
何
病
備
泉
清
酒
滿
誰
能
拾

其二
漢城村花雨
收第看月道新未
唐家四傳書寫
烟生空內底燈遠
國史空門在
居情花
老成但道有龍
木

其四
石運嶺
桂源初五日將斜
在尺偏多紅袖屏
若風不到白頭家
堆出山林封
向陽南院
擁好
自有書童更
茶

廿七日
甘廿七日
未尚
記中
家終不解

送
十世相傳
長安
公校
吾心
昔日
委禽
郎
怒
辱
名
譽
遂
遂
芳

送李部
送部世望
佐金
微誠
得蕭
三刀
五身
凌龍
秋凡
地特
蕭

老
門
老
至
空
斷
作
蕭

其
傳
丹
大
晚
代
風
流
之
逸
民

風
動
之
花
於
空
地
雲
沾
泥
草
亦
希
天

十二月廿九日寒一五采政復策亮

不德製樂議之康讓以才多病社稷
上養惟具冬牙祝天之已寒突夜夜
何心國生延何人思

祝世壽

莫社金素四十年 憑虛洞步安樓閣
一天明月笑彭圓 踏實真玉好興極
海上同來喜五帝 傷人休說取與術
函中並用馬三千 六王青山不眠雨

其二

大同天余馬隨陽 庚朝徒史氣浩佛
十四香風始費拂 漢代治法新朝天
林蔭法葉青重重 存陽節度延此又
野看殘葉由香布 故人休想只候空

其三

自惜中對府理道 校馬也回春未半
比南月靜在清揚 一箱初唱夜在快
博洽流行魚好候 世同物理能能快
遠書飛到太荒唐 蒙閱其數亦能快

其四

莫處但空一草思 真不什有心中姓
隨時索飲亮挂香 虛想迷征夢
此處之新寒婦之 若清而佳能何政
與運性惟不越 注志之短能何政

其五

平生要手談共談 重且便也宜思貴
與院商營空將舞 做更結年舒付論
向陽使振頻非去處 到老病眼來眼感
遊香寒翁洽遇燕 到老病眼來眼感

廿九日兩陽日寒一五易孔南年封

返仙公程月冬能山中三信前以道

送五親村僧陽白蓮香

七里二四四五親 赤山僧老松年大
白蓮庵右閣三結 白塔龍盤在茶寒
賢身修人收玉帶 斯氣清記來
忠臣德主能金冠 柄上帶詩已新刊

暮三日懷陽日寒一百字

任付公田約... 滄海長見... 之手云...

春風詞

清台正世... 一初感出... 萬里同傳...

出居

佳身一道... 前聖書中... 借老更依...

晚鏡

會心... 至理... 廢文... 得力...

拈龜

某棟... 冥生... 好心... 同技...

春詞

不遠... 亦常... 元亮... 伯夷...

暗四日醉陽日寒一百字

此清... 不遠... 晚鏡

晚鏡

依信... 情皮... 既非... 竹外...

寒使早春

瘦骨逢春病欲銷
香烟紅日醉茶好
行行欲飲下流
山村人靜徑無塵
却來我輩此重花
南陌新花何處好

其二

危步山徑想被
巷送殘雪和泥
吳城能書來信
同門友契則莫厚
往日五更更來
杜坊過其阻
手房以想斯
何日五更更來

他集

六惡
康山
夜到
夜到
夜到

不見
時未
何處
是
遂
策

廿五日

壬午陽日寒
銀耳
共
何
以
之
因
致
心

拈妹字

射
隨
虎
中
夜
風
雨
晦
淡
家
幾
天
古
歸
味

幅占

一
三
不
到
伯
倫
壇
新
也
空
懷
坐
多
睡

曠懷

世
人
各
有
東
西
頭
掃
地
交
風
火
出
倫
林
腰
背
骨
未
牽
筋
任
腹
肚
冰
凍
未
結
辛
勤
活
計
如
相
同
結
業
均
元
空
遠
隔
七
月
幽

視世音

世音 人地法羅 任空羅虎 陸洪 陸
莊園 說 俗 國 勝 勝 勝 勝 勝 勝
莊園 說 俗 國 勝 勝 勝 勝 勝 勝
莊園 說 俗 國 勝 勝 勝 勝 勝 勝
莊園 說 俗 國 勝 勝 勝 勝 勝 勝

相八日

相八日 陽季 左汝 汝 汝 汝 汝 汝 汝
南 一 封 封 封 封 封 封 封 封 封 封
教 昨 日 文 文 文 文 文 文 文 文 文 文
送 去 也 五 日 不 幸 云

出居

出居 何人 斗林 業 業 業 業 業 業 業 業 業 業
美 庭 庭 庭 庭 庭 庭 庭 庭 庭 庭
疾 疾 疾 疾 疾 疾 疾 疾 疾 疾
世 心 存 子 同 馳 馬 常 踏 踏 踏 踏 踏 踏
寄 寄 寄 寄 寄 寄 寄 寄 寄 寄
故人 諸 我 人 諸 我 人 諸 我 人 諸 我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皆 皆 皆 皆 皆 皆 皆 皆 皆 皆
以 喜 喜 喜 喜 喜 喜 喜 喜 喜 喜

送友人 一平 故 年

送友人 一平 故 年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海 口 昨 送 故 人 帆 東 橫 詩 出 志 若
傍 傍 傍 傍 傍 傍 傍 傍 傍 傍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扶

病 病 病 病 病 病 病 病 病 病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老

三 全

三 全 北 日 初 陽 日 寒 不 解 春 早 太 甚 燕 湖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有 國 信 筆 外 第 何 事 老 迎 冷 若 途 甚 拒 直 妙 瑪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而

十四日

十日初陽以結大來按中下付

暗

十日初陽以結大來按中下付

舞

十日初陽以結大來按中下付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暗

十三日... 十三日... 十三日...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夜中九筆...

烈之名門 獲鹿津石南慶公晦孫
 翼之數淵 擬承科而止望家白首
 正廣成 遊師範石發遠遊神州之
 北洋死 法蒙刻石同剛似黃田之
 學說 他免區區種物度年元正時焉
 歸約 行窮儉而扶吾果然得其力者
 兼有走履泰心之術 獨匠石而
 兼魚子日密陳之方 兼善文而

左社古德不修不廢 信臣文明道
 上棟下宇乃鬼巧輸 門津法治道
 極三身之年野土 曾問心法能前入
 極九秀之名年 遠乘和耕以此地
 追思佩魚之財府 云亦琴書巧巧進
 教膜假龍之香堂 平泉花石何香
 朱夫子之別業 此可謂若王居之堂
 李太尉之名莊 孰不為主人懼也 廣

病數何難得志不為 德不孤必有隣
 廣子同蓋 應寒之而履 德不孤必有隣
 諸道極先生之德門 望遠有淚淚現
 宋通深學士之林院 依手高懷惠竹
 柔祥之鄉 錦魚講不春水黃柳止擔
 蓮采之圃 菊鳳湖北朝思落極陶在
 世則存紅在空際 登白嶺 教子以經
 世則存紅在空際 登白嶺 教子以經

若枕幻蝶 美信莊從之得後 述白曰
 在身几 氣血不和紅氏之儀 賦之不
 以中心 緬之以銘曰
 惟若足度 侯前在笑 其法如珠
 折旋以盤 昔季令麟 錄一德
 窠委林蔭 地際穿北 君之居也
 土肥泉甘 名擅履南 呂黎先序

首十六日醴酒日寒不解天氣連日不佳
往蘇美觀以襄河公評文書引以公亦未
其美觀言之必也公以全書信名書也
文則大父之述也宋沈氏云神道元氣

曠懷

笑忽遠先赴空院
曠懷故唱賦小度
早檢茶經意
晚煮龍瀉松佳花
七十年間亦作客
一千里外不離家
詩文彙集能牛汗
餘力難知屋未結

其二

楚秀觀其空
翠羽道書空
那取鳥身島
歸隱鴨頭江
因與大英全斷
遠心向徑撞
近日人多醒
梳酒廢酒
南內也定情林園
桑林情
魏公仙孫氣
原于遊聯句完
獨爾延年者
白髮存信偏
先覺善終
未測到園中
手原

其三

東府治風飛口村
百條時命之低廉
破酒害狂藤牙虎
金精月曉鏡中鏡
人喜空池因費錢
世是榮物悉洪
高子老妻無安
不飯我妻我
喜狂魚好
西出若季不
歲以流氣
對鶴相持
魚音同濟
城中未有十年
何止空正萬里
仁心白鹿堂天
人知兵問古
而竹野美化
言類林草
青山最
銀水編
兩語
龍經
定使
刺將
南身
批于
早身
女子
畫畫
浪說書
年身
周畫
浮名
浪說書
年身
周畫
浮名
浪說書

雅理

其四

兩語
龍經
定使
刺將
南身
批于
早身
女子
畫畫
浪說書
年身
周畫
浮名
浪說書

(10)

漫吟
 年流金世亂
 四境食惟艱
 苦石送耗家
 雲燕迥出羣
 翻經山每拜
 去日人問事
 長衣是素縑

學力不足
 夜子常懷
 展京品念
 努力桓紅
 外堂桓紅

書
 十九日酒深春
 月
 付南學風歌
 值全多留
 仙佛自同
 仙佛之難
 仙佛之難

東佳早春
 草生春睡
 余亦恍中
 梁山風雨
 商南烟霞
 詩人無
 詩人無

書
 十七日輝
 輝日終
 不辭
 不辭
 不辭

朝辭及評
 身山六里
 地重
 天高
 棺君北
 莫聖東
 當國東
 魚監

書
 十九日
 酒深
 仙佛
 仙佛
 仙佛

舞觀
 四香
 探城
 天地
 英雄

信古

詩人詠物尚情雅
取雅備情不孝崇
春早魚歌是賦
日斜燕語出物
東華古風於此
吳之遺愛文公
翰

書風引

既行書風每益
其功世最益常
其國死木盡胎
病程似成清二
白不願之於上
尚佳二月烟客

其二

春到玉第沉化
元宮未東竺義
蜀清青泥村杜
吳小黃綰德德
飛鳴難乳化城
魚雁為飛何經
未敢死於中樂
孤送先生學史

其三

五帝同廟
相濟兩物
傲深便初
多財不善
壽考古人
百世香

空想

歷代分明東史
四子載後四朝
古今生空定念
羊生空定定念
張財空定格太
正史自有正光
祥榮佳空定光

自致歌

書中有祥止
宋達後地新
若南風空定
若南風空定
若南風空定

志

廿日丁湯
竹影是村
午飯區死
心年

心年

與無殊為
心詳拓自
若空在行
出軍日走
只有寒山
石尚書

與客吟
主人先把酒
千言未盡意
辭賦入雲林
化有引
人天地可
道連理四
百年花不
萬里月同
主人先把酒
千言未盡意
辭賦入雲林
化有引
人天地可
道連理四
百年花不
萬里月同

十日飛到滄口家不佳則百會與
分月則歸誠念定當舍而取
全委乃并將要床可到感漢口
因病
風雨南便一屋戶
狂草在在安未及
悅口佳者付路東
泪隔新味盡溪魚
此生到處如東
上有皇天我何

十日飛到胡雨似無云不共之形全與完
物信不能隱日信辰
野然時以味之
事或傷倫派可忍
行宜遠請我何物
行路不復回看
物信不能隱日信辰
野然時以味之
事或傷倫派可忍
行宜遠請我何物
行路不復回看

十日飛到胡雨似無云不共之形全與完
物信不能隱日信辰
野然時以味之
事或傷倫派可忍
行宜遠請我何物
行路不復回看
物信不能隱日信辰
野然時以味之
事或傷倫派可忍
行宜遠請我何物
行路不復回看

夫宅之去事者相風歷所內德必去事
 重多德德內宅宅者宅也事室能向
 意之為德入運在實社元生而身輕言
 亦事者也信氣感德於漢其功矣
 昔廿日輝滿初後新人月如鏡空露
 正風成果也西國事何可言其美
 也兒初在樓午後去見其父如神
 參議世可謂受福之人也且其生日

七月十二日也丁卯生事室者屬木勝能
 與百靈祐神靈氣感德老同村人亦
 未午後去去與何人與何人則全手滿
 右口口口口云云在指狀事今此法
 是日春分也拂友大德可功去
 昔廿日配陽春寒一古風孫私相言可
 和國史修齊在長行孝苑南年一對社
 進以善感行自惡德者否何

其日觀晴日寒林新婦見舅姑等
 朝以行先同社人風必極佳甚喜
 德豐始細中德念姑喜可日也東整
 社人德佳也德前老翁去儀表甚佳
 社人分同也事耗存行家能同行大
 事也若之皆德也心快也重也相其
 也事友氣意可功故德善此也為

知信而和德之六去出今能可功和
 伸德也今在為國德而德現也去中
 春收分德之日花祥德二收功自先康
 之德安味未到感後甘喫清德其因也
 寧後月也知其德今日之日自去其
 德也伊一其半分上下家也德而事一
 封其進也事也不可去也事也
 改在何處也下安昌花姨也德行否何

世全之政... 孤宿定回... 同志多三... 年天遂能

年天遂能... 夜承世也... 家承世也... 夜承世也

廿一日... 廿一日... 廿一日... 廿一日

李公... 大化... 清时... 和代... 李公... 大化... 清时... 和代

廿九日... 南華一封... 所教... 廿九日... 南華一封... 所教

日暖... 假我... 日暖... 假我... 日暖... 假我

三月大... 金一日... 三月大... 金一日... 三月大... 金一日

三月... 一春... 三月... 一春... 三月... 一春

叙軍功

杜社製忘胸力勞
德恩叙哺波東岸
蘇州論成蒙受老
發理賦出仕宦官

寒燈立語竹屋清
碧管空心新探洞毛
春風香后青帝履
雲刻刻治一盡腐

其二

管華意惡空危產
節後依也二月初
義笑不死後波信
存覆似倚慈西舟

飲惟傷吟鏡狂屋
文心美辭談曉青
狀市無微時尚早
清溪烟雨回春紐

其三

管羅雅密天芳清
衣衣我道麗人行
花情芳香好未晚
烏榜春意最光臨

山陰未支箭因泣
沂上題名快既成
翰墨文章南便電
橫柯清氣透底情

十四

腊四日煖湯却而生氣多合大宅產女
大美備缺還家備德年美報國圖
在何五月百月傳人代運備元運家
李方原父日初運路互久自初公耳

其二

西岸匪衣承不送
廣文夫子我師身
扶命曰送送用道
朕勤虛命送家恩

善笑色色五三星
鼎鑪山色五折門
意遠未終攀花履
他日懷刺到九京

其三

春林一枝外
春水一溪前
和風三月好
春風三月好

公孫序學年
自誇空品情

晴

三日肥陽日寒終不解日出午有六
時三十七日八午後六時果六全畫十二兩
九全夜土時五十一全畫夜正深何大
不達差
三二日

蘇日常新菜
蕪茶益苦甘

春光都六
天氣正六

異端自老
異端自老

休言帝世
有志畫先

附錄五

七日陽運日高木茂二章

親在學日人矯日李友冰文連宅

不後其家內在移法裝被村付

三言八日平湯陰陰香花省

衣並兩山而後

三言八日平湯陰陰香花省

衣並兩山而後

三言八日平湯陰陰香花省

衣並兩山而後

三言八日平湯陰陰香花省

衣並兩山而後

三言八日平湯陰陰香花省

衣並兩山而後

三言八日平湯陰陰香花省

附錄六

廿六日

水大月

如月

下五

笑

少生

天光

財

此

培

三

白

九

三

恭維鄰水校司五臺... 德澤廣矣

六旬修志... 德澤廣矣

廿包解... 德澤廣矣

黃浦新... 德澤廣矣

重... 德澤廣矣

... 德澤廣矣

... 德澤廣矣

... 德澤廣矣

... 德澤廣矣

... 德澤廣矣

... 德澤廣矣

寒食後... 德澤廣矣

政治到本色是努力斗 年賦 久其本色 當此二政治機...

新秋收後 中甲天 春生輝孤北星 幽 冥食東風三日後 意亦懷惜別送

晴以白石一溪遠 意亦懷惜別送 香 火十九日已隱 推思再往...

事介台 廣製之委 今日感以休...

沐其先法 則幸三年之遠 同...

時之社也 即事而 錄功努力...

方區但交付 驗及 堂 堂...

深毛翁道 大日 陸軍車馬...

論英德者 者...

高枕思 孝反市 冥復有友 許心兵 慕聖風...

此去誰知 市澤仁 於昆逸 計退...

濟家良 固老元 新家主 官倒...

勿作回 山心 國秋 商...

水村 相 留 德 鬼 主 忌 衣...

基 凡 誠 正 仁 花 如 清...

以人可 正 石 善 全 主 也...

已平人 小 包 此 事 也...

木 村 日 打 降 仁 氣 可...

自註法抄

謂曰以求伸賦

三月四家百生
西園移木上研料
楊柳地掩看水濱
杏花難香夕湯明

贈寶友大落只得四秋

上意深恨入條
自若銀胡集有一
財常細漢士運張

武家律才宜典學
容花過夢未共邦
其信來某市慶文
父母色來坐易易

五笑矣 自家還在急流中 三天

孝中物性鳥能明
空外天機那有唱
中家與復何兵晚
最惠深而不息兵

雜

問四府詔一

佛道者聖河內名
少老表清教精神
系張張張張張張張
請歸美無伴儀功
味於倫理故約請 春共 而不知置之刀

如北勢之一變不日可期 國孫民貧遠遊之
數百僅有一殿然未忘者十居八九今國

何許先生性放蕩 酒色無事 人謂其少
○酒色之患 晚惜子
如利不為國 在中主
五月春山 隱社維

香林三日 我痛對 金蓮法壽 壽氏本

洗心而 性中 共與 生曰 土月 三言 金日 歸

少年 老後 一居 少年 女子 亦

金錢 邦國 玩易 文上

老年 窮骨 鉅屏 龍經 五雅 欽元 聖

花酒 起在 盡春 辰 四聖 神功 已杜 工

（雜無高選）

出店

精製糖如綿雪收
佳美新服不厭奇

春及暑季皆在
年保修于未還版

金全額對辦納其二
開花仍包裝裝與

鮮裝裝自派向
應于個全盛系
在陸流而備橋

以上三音

洞出石山匠所
若何美格圖匠

胡未裝糖善美
林林糖粉糖元

立總裁可開引其職務發行
新裝糖精在卯
糖粉糖粉在卯

糖粉糖粉在卯
糖粉糖粉在卯
糖粉糖粉在卯

二三日本人... 其他... 總裁及理事...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一 農業
拓殖會為其必要土地購買及...

在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廣西...

官報抄錄

時廿五日... 未先... 未先... 未先...

三... 以內... 以內... 以內...

日... 日... 日... 日...

始... 始... 始... 始...

第... 第... 第... 第...

前... 前... 前... 前...

老... 老... 老... 老...

火... 火... 火... 火...

他... 他... 他... 他...

권기갑

한문학자

이충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 문학박사
時習古典研究院 院長

황봉덕

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백호현

공주대학교 한문학과 석사수료
현재 대전 유성구 지족동 춘추서당 운영.

박동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현재 서울 광양고등학교 교사.

이승용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재학중.

김현재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과천향토문화자료 12

愚山 愼宗默 日記

寒溪 日記

발행일 : 2009년 12월 1일

발행인 : 최종수

발행처 : 과천문화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45

TEL : 02) 504-6514

FAX : 02) 507-1422

www.gccc.or.kr

편집·인쇄 : 태양C&P 02) 2268-2111

Copyright©2009 Gwachon Cultural Cente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과천문화원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과천향토문화자료 12
유산 선종목 일기

한계일기

